

국립국어원 2011-01-21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343-01

2011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이기갑
- 연구 보조원 : 정재선 · 이효선
- 조사 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연구책임자 : 이 기 갑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남 영암군 신북면에서 이루어진 방언 조사의 결과이다. 2005년 이후의 전남 지역 조사는 전남의 서북부(영광), 동북부(곡성), 서남부(진도, 영암), 동남부(보성) 등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1년 조사는 전남의 동부 중앙에 위치한 광양시 진상면이 조사지점으로 선택되었다. 광양은 경남 하동군과 인접한 곳으로서 경남 방언과의 접촉 방언의 성격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는 김 할머니(조사 당시 70세)가 주제보자로 참여하여 어휘, 음운, 문법, 구술발화를 담당하였고, 보조제보자 서 (남, 조사 당시 56세)님은 어휘의 보충 조사에 일부 참여하였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 질문지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총 녹취 시간은 약 35시간이다. 조사된 자료 가운데 어휘, 음운, 문법 항목은 모두 음운 차원에서 전사되었으며, 약 12 시간 10분의 녹취된 구술발화 자료 가운데 4시간 정도의 분량이 전사되었다. 이 전사된 구술발화 자료에는 주제보자 김선악 할머니의 결혼 생활, 가신 숭배와 금기 등의 거주 생활, 질병과 민간요법, 세시풍속과 놀이, 어촌과 산촌의 생활 그리고 누에치기, 옷 만들기 등의 의생활 등이 수록되었다.

주제어 :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 방언 조사, 전남 광양, 음운, 문법, 어휘, 구술 발화, 전사

〈영문 Abstract〉

This report contains transcription of four hours of narrative data as well as lexical, phonological and grammatical variations of Gwangyang-si, Jeollanam-do.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of Korean Language Institute in 2011. Because Gwangyang-si is on the eastern end of Jeollanam-do area, its dialect is expected to show the features of transition area from Jeollanam-do to Gyeongsangnam-do area.

Keywords : narrative, dialectal variant, Korean Language Institute, Gwangyang-si, Jeollanam-do, transition area

2011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2
3. 전사 자료	15
제 1 편 구술 발화	17
제 2 편 어휘	189
제 3 편 음운	237
제 4 편 문법	271
4. 제출 자료(별첨)	
1.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2.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3.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trs 전사 파일	
5. 지역어 조사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6. 구술발화 발간용 파일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2011년도 조사 지점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로 정하였다. 2005년은 전남 동북부의 곡성군, 2006년은 전남 서남부의 진도군, 2007년은 전남 서북부의 영광군, 2008년은 전남 동부의 보성군, 2009년은 전남 서남부의 영암군, 2010년은 전남 서남부의 신안군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남의 동부 중앙에 위치한 광양시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광양시는 지도에서 보듯이 전남의 동부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남의 하동과 접해 있는 시이다. 조사지인 진상면은 광양시의 동쪽에 있어 하동장을 보는 등 과거부터 하동을 생활권으로 하였던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언어는 경남의 하동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남 방언과의 접촉방언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면(津上面)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료에 나타난 것은 1760년경에 펴낸 ‘여지도서’이다. 현재 진상면 청암리에 있었던 ‘송어포 나루터’를 중심으로 나루터 위쪽의 고을을 ‘津上面’, 나루터 아래를 ‘津下面’이라 하였던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진상면을 일명 상도면(上道面)이라고 하였는데, 진상면에서 진월면으로 이어지는 옛길이 진상면 목과마을 뒷산을 거쳐 진월면 차동마을 서북쪽으로 이어졌는바, 이 옛길에 ‘상재’라는 고개가 있고, 이 고갯길의 위쪽에 위치한 고을이란 뜻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진상면은 백운산 옆에 위치하고 있어, 산촌의 성격이 짙지만, 자동차로 10여 분만 달리면 남해안에 다다를 수 있어 과거에는 어촌 생활을 영위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촌과 어촌 그리고 넓지는 않지만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농토가 있는 농촌의 성격까지 고루 갖춘 곳이다.

*** 광양시의 위치(검은색으로 표시된 곳)**



1.2 제보자

(1) 주제보자

김 (여, 70세, 1942년생)

출생지 : 광양시 진상면 (농촌)

거주지 : 광양시 진상면

선대 거주지 : 할아버지 때 경상도에서 진상면으로 이주해 옴.

생업 : 농업 및 어업

선대 생업 : 농업

학력 : 무학

음성 특징 :

발음과 청취 능력 좋음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 말(표준어)과 옛날 말을 구분할 줄 앎.

무학이며, 한글을 겨우 깨칠 정도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비교적 좋음.

말하기를 좋아하여 다양한 구술 녹취 가능

(2) 보조 제보자

서 (남, 56세, 1956년생)

출생지 : 광양시 진상면

거주지 : 광양시 진상면

선대 거주지 : 광양시 진상면

생업 : 상업 및 농업

선대 생업 : 상업 및 농업

학력 : 전문대 졸

음성 특징

나이가 젊기 때문에 발음과 청취 능력 좋음

학력이 높기 때문에 표준어에 대한 지식 많음

주제보자가 답변하지 못한 극히 일부의 어휘 항목에 대한 보충조사의 제보자로만 이용함.

1.3 조사 내용

파일	시간	제보자	분야	내용	전사
SJN_GY_01	39분		어휘		전사
SJN_GY_02	53		어휘		전사
SJN_GY_03	60		어휘		전사
SJN_GY_04	57		어휘		전사
SJN_GY_05	51		어휘		전사
SJN_GY_06	66		어휘		전사
SJN_GY_07	88		어휘		전사
SJN_GY_08	69		어휘		전사
SJN_GY_09	59		어휘		전사
SJN_GY_10	69		어휘		전사
SJN_GY_11	65		어휘		전사
SJN_GY_12	72		어휘		전사
SJN_GY_13	76		어휘보충		전사
SJN_GY_14	01		어휘보충		전사
SJN_GY_15	27		어휘보충		전사
SJN_GY_16	51		음운		전사
SJN_GY_17	53		음운		전사
SJN_GY_18	16		음운		전사
SJN_GY_19	56		음운		전사
SJN_GY_20	63		음운		전사
SJN_GY_21	14		음운		전사
SJN_GY_22	51		문법		전사
SJN_GY_23	19		문법		전사
SJN_GY_24	77		문법		전사
SJN_GY_25	27분		구술		미전사
SJN_GY_26	04		구술		미전사
SJN_GY_27	25		구술		미전사
SJN_GY_28	36		구술		미전사
SJN_GY_29	36		구술		미전사
SJN_GY_30	86		구술	시집살이	전사
SJN_GY_31	26		구술		미전사
SJN_GY_32	90		구술	농사	미전사
SJN_GY_33	84		구술	길쌈	미전사
SJN_GY_34	80		구술	민속	전사
SJN_GY_35	76		구술	명주, 옷 만 들기	전사
SJN_GY_36	53		구술		미전사
SJN_GY_37	93		구술	반찬	미전사
SJN_GY_38	11분		구술		미전사
합계	어휘(980) 음운(253) 문법(147) 구술(727) 합계(2,107분) (35시간 7분)				

2. 전사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제보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제보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다만 조사자가 복수일 경우 주된 조사자는 @로 표시하고, 보조 조사자는 @2로 표시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④ 질문지에 해당하는 방언형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지에 해당하는 방언형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ɛ)’는 광양시의 경우 변별적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조사자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사사의 발화에서는 이 두 소리를 모두 /꺠/로 표기하였으며, 제보자의 발화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11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차 례

- 1.1 일생 의례
 - 1.1.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 1.1.2 결혼 과정
 - 1.1.3 전통 혼례식
 - 1.1.4 결혼 생활
 - 1.1.5 시집살이
- 1.2 거주 생활
 - 1.2.1 가신과 조상 숭배
 - 1.2.2 금기생활
- 1.3 질병과 민간요법
 - 1.3.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 1.3.2 약초 캐기
- 1.4 세시풍속과 놀이
 - 1.4.1 세시풍속
 - 1.4.2 전통 놀이
- 1.5 특수지역 생활
 - 1.5.1 어촌 생활
 - 1.5.2 산촌 생활
- 1.6 의생활
 - 1.6.1 누에치기
 - 1.6.2 옷 만들기

1.1 일생 의례

1.1.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그러면 인제 인자는 이 할머니 인제 자시네 데한 이야기예요. 자시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어:디서 태어나셔따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이 할머니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10201 # 저:: 진상면 청암니서 태어나 아: 저저 배:천니. {저 진상면 청암리에서 태어나 아저저 배천리}

10201 @ 배천니서이~ 예. {배천리에서 예.}

10201 # 금:니리 지그믐 금:니리. 저네는 배:천니라고. {금니리. 지금은 금니리. 전에는 배천리라고.}

10201 @ 응 지그믐 무슨 니? {응, 지금은 무슨 리?}

10201 # 금:니리. {금니리.}

10201 @ 금:니리. {금니리.}

10201 # 이천. {이천.}

10201 @ 어 이천. {이천.}

10201 # 예. {예.}

10201 @ 아 배천니니까 이:천 그러머년 인자 그 사 그 어릴 때 함 번 이야기를 해바 어, 어,어릴 때는 주로 가정형편이라든지 먼: 니를 허고 사션는지 함 번 고거 옛날 배:천(웃음) 배:처네서으 생활을 함 번 해 보 이야기를 해: 보십씨요. {아, 배천리니까 이천. 그러면은 이제 그 사 그 어릴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봐. 어 어 어릴 때는 주로 가정형편이라든지 무슨 일을 하고 사셨는지 한번 그거 옛날 배천 (웃음) 배천에서의 생활을 한번 해 보 이야기를 해 보십씨요.}

10201 # 저네 공개 밭:랑구니 마:나가꼬 우리 클 쪼게는. {전에 그러니까 반란군이 많아가 지고 우리 클 적에는.}

10201 @ 밭:랑구니? {반란군이?}

10201 # 예. {예.}

10201 @ 그러면. {그러면,}

10201 # 유기오 때 {육이오 때.} @ 유기오 때? {육이오 때?}

10201 # 예. {예.}

10201 # 유기오 아네. {육이호 안에.} @ 어 # 유기오 너:머 가꼬 인자 유기오예 나 포둑::
씨 유기오 되든 땔 인자 그 년 보메 인자 이:팍해 씨요. {육이오 넘어가지고 이제 육이오에
나 겨우('포둑씨'는 '겨우'의 방언형.) 육이오 되던 때 이제 그해{'그년'은 '그해'의 방언형)
봄에 이제 입학했어요.}

10201 @ 음. {음.}

10201 # 인자 이:파글 핸:는디 공개 사뭇 따레 이팍 허고 사:월 오:월 유:월따레 유기오가
나가꼬 고마 하꼬를 몬 가씨요. 그레가 하꼬를 몬 강 거이 마 그를 모 빼우고. {이제 입학
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월에 입학하고 사월 오월 유월에 육이오가 나가지고 그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레가지고 학교를 못 간 것이 글을 못 배우고.}

10201 @ 음. {음.}

10201 # 유기오가 나가꼬 부모드른 점::부 저 서:메 서:미라고 저:그 태인도 지그든 태인
도. {육이오가 나가지고 부모들은 전부 저 섬에 섬이라고 저기 지금은 태인도.}

10201 @ 음. {음.}

10201 # 태인도 거그 크넌니가 거그가 사는디 그그에 식꾸대로 다:: 가 버리고. {태인도
거기 큰언니가 거기에 사는데 거기에 모든 식구가(표준어에서 '대로'는 의존명사로서 '죽죽'
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식구'와 같은 집합명사 뒤에 와서 '모든'의 의미로 쓰였다.)
다 가 버리고.}

10201 @ 음. {음.}

10201 # 우리 할무니허고 하 인자 그 아네 우리 하라부지가 세상 베리고 울 할무니가 이
씨서 우럼, 어무니 아버지는 몽 까고 이썸성 인자 다:: 가는디 날 가이내라고 여자라고 난
주거도 된다여. {우리 할머니하고 하 이제 그 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고{'세상 버
리다'는 '세상 떠나다'의 뜻}, 우리 할머니가 있어서 우리 엄 어머니 아버지는 못 가고 있으
면서 이제 다 가는데 날 계집애라고 여자라고 난 죽어도 된대.}

10201 #@ (웃음) {(웃음)}

10201 # 막뎡이가 대:농께 팔람메서 막뎡인디 인자. {막내가('막뎡이'는 '막내'의 방언형) 돼

놓으니까 팔남매에서 막내인데 이제.}

10201 @ 영. {음.}

10201 # 점:부 오빠드른 구니네고 재피 가부루고 오:꼬 인자 우리 식꾸드리 인자 조 나쁜 사라쁜 인자 우리 올케언니 우리 조카들 점::분자 글쎄는 기:를 형개 배가 이썸요. {전부 오빠들은 군인에 잡혀 가 버리고 없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우리 올케언니 우리 조카들 전부 이제 김을 하니까 배가 있어요.}

10201 # 배가 이꼬 그런디 인자 우리 행부를 오라고 인자 해: 가꼬 우르 행,행부가 와서 인자 짹:: 시꾸대로 막:: 양서그 싸고 머 미수까리 해서 짹:: 싸고 해:가꼬 점::부 실코 가고 또 거그 살:다가 또 양세기 모지래쁜 인자 스 와 하나이나 와 가꼬 인자 또 양서글 가져가고 인자 그래. {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형부들 오라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형, 형부가 와서 이제 짹 모든 식구가 막 양식을('양식'은 '양식'의 방언형형) 싸고 뭐 미숫가루 해서 짹 싸고 해가지고 전부 실고 가고, 또 거기 살다가 또 양식이 모자라면 이제 하나나 와가지고 이제 또 양식을 가져가고 이제 그래.}

10201 @ 음. {음.}

10201 # 우리는 인자 올 할머니남짜그로 어무니허고 우리 아부지허고는 인자 나허고 그리 인자 이:꼬 그 동네에 인자 또 노인드른 맨 썩 이꼬 절쁜 사람드른 인자 짹:: 가 부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할머니 비롯해서('남짜으로'는 '비롯해서'의 뜻)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이제 나하고 그리 이제 있고, 그 동네에 이제 또 노인들은 몇썩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짹 가 버리고.}

10201 # 그양 비행기가 그양 머 제트강가 머(웃음) 저네는 그거이 우앵 허고 오쁜 그냥 또 스 스 막 암디라도 업찌서 승꼬 난:중에는 수뜨면 더 썩다고 그레가꼬는 그냥 비행기가 오면 무장 마당으로 나서썸요. {그냥 비행기가 그냥 뭐 제트기인지 뭐 (웃음) 전에는 그것이 우앵 하고 오면 그냥 또 스 스 막 아무 곳이라도 엮드려서('엮지다'는 '엮드리다'의 방언형.) 숨고, 나중에는 숨으면 더 썩다고('썩다'는 '썩다'의 방언형) 그레가지고는 그냥 비행기가 오면 점점('무장'은 '점점'의 방언형) 마당으로 나섰어요.}

10201 @ 아. {아.}

10201 # 그래서 저::그 또 손 인자 인자 나쁜 사람드른 인자 막 비행기가 저 강에 저런 디 막 저 한지레 저런디 막 포겨글 허고 그러머 또 사느로 짹:: 썰개 올라가갸꼬 솔나무 미테가 점::부 저레갸꼬 저 집건석 저 집때로 도르레하이~ 이꼬 우리 건석 우리대로 도리하 이꼬 솔 큰 솔나무 미테가 그레갸꼬 이따가 난:장에는 인자 수무면 더 썩다가꼬 점::부 비행기만 오쁜 또 나안자서 늘비::허이 나안자꼬. {그래서 저기 또 손 이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막 비행기가 저 강에 저런 곳 막 저 한길에('한길'은 '한길'의 방언형) 저런 곳 막 폭격을 하고 그러면, 또 산으로 짹 쫓겨 올라가갸꼬 소나무('솔나무'는 '소나무'의 방언형) 밑에

전부 저래가지고 저 집식구('권속'은 '식구'의 뜻) 저 집대로 둥글게 ('도르레하다'는 둥글게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있고 우리 식구 우리대로 둥글게 있고 술 큰 소나무 밑에 그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숨으면 더 쏜다 해가지고 전부 비행기만 오면 또 나왔아서 늘비하게 나왔었고.}

10201 @ 음. {음.}

10201 # 그러자 인자 발:랑구니 생게 가꼬 인잔 점::본 인제 남자드른 숭:꼬 남자드린 발:랑구니 내레오문 지를 지고 가요. {그러자 이제 반란군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남자들은 숨고, 남자들이 반란군이 내려오면 짐을 지고 가요.}

10201 @ 아. {아.}

10201 # 동네 꺼 점::부 막 오시고 양서기고 싹::추리가꼬 주구 시니고 다 추리가꼬 거서 허면 인자 글때 인자 고무신 파뜩파뜩 나오고 그랜는디 고무신 한 커리 인 인나 인는 그렇거는 막 구더글 파 노코 거따가 상:키 노코 인자 지퍼 가꼬 인잔 집세기 소:리 그렇 걸 사마가꼬 인자 늘비::허니 인자 머 오 방무나페다 나:뚜고 그거또 성형 거는 다 가 가부리요. {동네 것 전부 막 옷이고 양식이고 싹 추려가지고 자기 신이고 다 추려가지고 뭐하면 이제, 그때 이제 고무신 이제 막('파뜩파뜩'은 이제 막 생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나오고 그랬는데, 고무신 한 켤레나('커리'는 '켤레'의 방언형) 있는 그런 것은 막 구덩이를('구덕'은 '구덩이'의 방언형) 파 놓고 거기에다가 숨겨('싱키다'는 '숨기다'의 방언형) 놓고, 이제 짚을 가지고 이제 짚신('집세기'는 '짚신'의 방언형), 소리('소리'는 상제(喪制)가 초상 때부터 졸곡(卒哭) 때까지 신는 짚신. 충을 드문드문 따고 흰 종이로 충 돌기를 감았다.'엄짚신'이라고도 한다.) 그런 것을 삼아가지고 이제 늘비하게 이제 뭐 오 방문앞에다 놔 두고 그것도 성한 것은 다 가져가 버려요.}

10201 @ 거그 어:디로 어 어:디에 발:랑군 어:디에서 사라요? {거기 어디로 어 어디에 반란군 어디에서 살아요?}

10201 # 사네서 내려 와요. 저녁기문 지를 차자서. {산에서 내려와요. 저녁이면 길을 찾아서.}

10201 @ 영. {음.}

10201 # 내려오른 인자 영감드리나 하나이나 인자 앵기문 인자 그 사라른 거그 짐 실코저::그 배운산 미테꺼지 저녁내 올라가 가따 줘야데요. {내려오면 이제 영감들이나 하나나 이제 잡히면('앵기다'는 '잡히다'의 뜻) 이제 그 사람은 거기 짐 싣고 저기 백운산 밑까지 저녁내 올라가서 가져다 줘야 돼요.}

10201 # 가따 주고 내레오다가 흑씨 잘모뎜 사람드른 또 먼 그냥 해:나 머 숭경이나 머이나 되능가이야 싸 뿌리가꼬 중는 사라른 주꼬 글때는 기양 목쭈를 바치노코 사라찌요. {가

저다 주고 내려오다가 혹시 잘못된 사람들은 또 뭐 그냥 행어나 ('해나'는 '행어나'의 방언형) 뭐 순경이나 뭐나 되나 싶어('가이'는 '-관테'의 방언형.여기서는 보조형용사 '싶다'의 뜻.) 썩 버려가지고, 죽는 사람은 죽고 그때는('글때'는 '그때'의 방언형) 그냥 목숨을 바쳐 놓고 살았지요.}

10201 @ 그러면. {그러면.}

10201 # 그래가꼬 인자 우리 아버지가 함 번 앵게가꼬 인자(웃음) 지를 지고 간느디 인자 그러자 인자 올 하라부지 세상 배능 거이 그 때는 삼년상을 안 추린능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번 잡혀가지고 이제 (웃음) 짐을 지고 갔는데, 이제 그러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상 떠난 것이 그때는 삼년상을 치렀잖아요?}

10201 # 삼년상을 추리서 인자 올 하라부지 제:사 모시고 인자 상복 그거를 아래뽕에다 쌓나:뒹고 인자 우리 어머니는 인자. {삼년상을 치러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제사 모시고 이제 상복 그것을 아랫방에다 짝 놔 두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10201 # 당신들 짐 지고 가다가 우리 영:감 주거 뿌리가꼬 초상 치고 여 상보기 요래가 이썩개 요거 보라고 우는 요로고도 산:다고 그름 쪼깁 탈: 해요. {당신들 짐 지고 가다가 우리 영감 죽어 버려가지고 초상 치르고 이 상복이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보라고 우리는 이르고도 산다고 그러면 조금 탈: 해요.}

10201 # 주구 따라가다 인제 죽어때노니. 그러하고르 아 아버지 하라부지는 나페 세상 버리고 할무니 세상 배리고 그랜능갑따 구래. {저희들 따라가다 이제 죽었다고 해 놓으니.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는 앞에 세상 떠나고 할머니 세상 떠나고 그랬나 보다 그래.}

10201 # 그러 그걸 나:뒹고 내:창 그러고 썩이 그냥 또 안 갈랑개로 인자 양서글 멀:리 인잔 딱:: 저그 어디다 싱키 뿌리고. {그래 그것을 놔 두고 계속('내창'은 '계속'의 뜻) 그리하고, 저 그냥 또 안 가려니까 이제 양식을 멀리 이제 딱 저기 어디에다 숨겨 버리고}

10201 # 인자 저네는 나무 함지 안 인능가요. 나무함지에나 인자 먼 동우에나 그런디다 양서글 좀 다마노코 인자 쪼간씩 동냥 주데끼. {이제 전에는 나무함지 있잖아요? 나무함지나 이제 뭐 동이에나 그런 곳에다 양식을 좀 담아 놓고 이제 조금씩 동냥 주듯이}

10201 @ 음. {음.}

10201 # 바가치에다 인잔 함 바가치씩 퍼 줌성 우리는 머 무꼬 사꺼이냐고 당신드리 자:꼬 막 지버 추면 어 우리는 머 무꼬 사꺼이냐고 그냥 요놈 가꼬 가라고 {바가지에다('바가지'는 '바가지'의 방언형) 이제 한 바가지씩 퍼 주면서 우리는 뭐 먹고 살거냐고 당신들이 자꾸 막 집어 챙기면(?) 어 우리는 뭐 먹고 살거냐고 그냥 이것 가지고 가라고}

10201 @ 음 {음.}

10201 # 영감도 주거 뿌르고 나:가 저거떨 어찌 미기 살리꺼이냐고 인자 그래노면 인자 가요. {영감도 죽어 버리고 내가 저것들 어찌 먹여 살리겠느냐고 이제 그래 놓으면 이제 가요.}

10201 # 그리고 우리는 질까찌비 되:농깨로 짐::부 처가꼬 올라오던 사람드리 뜯 짐::부 우리지비서 시: 갈락 허여. {그리고 우리는 길갓집이 돼 놓으니까 전부 처가지고 올라오던 사람들이 꼭 전부 우리집에서 쉬어 가려고 해.}

10201 @ 음. {음.}

10201 # 시: 갈라면 막 하이고 망 욱 뿐다고 우리매가 막:: 우리무니가 막 욱 뿐다고 언능 날 안 세서 썩게 올라 가라고 막 막 그래썩서 막 홀가노면 조::타게 올 어무니를(웃음). {쉬어 가려면 막 아이고 막 고생한다고('욕보다'는 '수고하다', '고생하다'의 뜻) 우리 어머니가 막 우리 어머니가 막 고생한다고 얼른 날이 새지 않을 때 빨리 올라가라고 막 막 그래 썩으면서 막 속여('홀기다'는 '속이다'의 뜻) 놓으면 좋다고 해, 우리 어머니를.}

10201 # 그래가 디야네다 구:를 파 노코 구:를 파 노코 그러면 인자 막 승경들허고 인자 승경드리 인자 여 아:무동네 발:랑군 와따는 자 저::그 산몬당으다 또 봉:화뿌를 써요. 막 부를 봐:요. {그래가지고 뒤곁에다('뒤안'은 '뒤곁'의 뜻) 굴을 파 놓고 굴을 파 놓고 그러면 이제 막 순경들하고 이제 순경들이 이제 이 아무 동네 반란군 왔다는 이제 저 그 산꼭대기에다('몬당'은 '꼭대기'의 뜻) 또 봉화불을 켜요. 막 불을 봐:요.}

10201 @ 음. {음.}

10201 # 부를 봐: 놈 인자 그 동네에 인자 발:랑군 와따능 거를 아라가꼬는 갱:찰드리 인자 막 요 아페 찢 듣:파네 와 가꼬 그냥 총을 막 다닥다닥 다다다다 싸면 막 썩게 올라가고. {불을 봐 놓으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반란군 왔다는 것을 알아가지고는 경찰들이 이제 막 이 앞에 저 들판에 와가지고 그냥 총을 막 다다다다 다다다다 쏘면 막 쫓겨 올라가고.}

10201 # 그럼 막 저 염방 그그 갱:찰 승경 와따고, 저넨 승경 와따고 언능 승경드리 암 막 오기 저네 얼릉 가라고 막 그랜 그가꼬 보내고 그랜. {그럼 막 저 계속('염방'은 '계속'의 뜻) 그 그 경찰 순경 왔다고, 전에는 순경 왔다고 얼른 순경들이 막 오기 전에 얼른 가라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보내고 그랬는데.}

10201 # 언:자 올쭈를 몰라요. 오늘 썩넉 저 동네로 가꺼잉가 이 동네로 오꺼잉가. 보::독 저 산밑 큰 산미치 되:농깨로. 하이 겁나요. {언제 올 줄을 몰라요. 오늘 저녁 저 동네로 갈 것인지 이 동네로 올 것인지. ** 저 산 밑 큰 산미치 돼 놓으니까. 아이 겁나요.}

10201 @ 그럼 또 발:랑군 도아 쥘따고 승:경드리 또 머라 안합니까? {그럼 또 반란군 도와 주었다고 순경들이 또 뭐라 안 합니까?}

10201 # 도와 주자네 주구간 돌:라가따 그래야지 우리드리 쥘:딱 해서는 안 되지요.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잔해'는 '-는 것이 아니라'의 뜻) 저희들이 훔쳐갔다('돌라가다'는 '훔쳐가다'의 방언형) 그래야지, 우리들이 주었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10201 @ 음. {음.}

10201 # 그래가 인자 배나 머이나 인잔 배 짜서 어찌 놓: 거 이씨문 배트레서 그냥 싹::짱그라가 가부리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나 뭐나 이제 배 짜서 어찌해 놓은 것 있으면 배틀에서 그냥 싹 잘라가지고('짱그리다'는 '자르다'의 뜻) 가 버려요.}

10201 # 막 주구 다리 요롱 거 가물라 끌텅바테 땡기무 막 쭈싱개로. {막 저희('주구'는 '저희'의 방언형) 다리 이런 것 감으려고 그루터기밭에('끌텅'은 '그루터기'의 방언형) 다니면서 막 쭈시니까}

10201 # 사네 망 나무 그렇 건 막 끌텅이 이썰개 그렇게 쭈시고 그렇게로 막 인드를 막 칭::칭 가마가꼬 땡게요.(소음) {산에 막 나무 그런 것 막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쭈시고 그러니까 막 이런 곳을 막 칭칭 감아가지고 다녀요.}

10201 # 거 인 날: 보고 아퐁 거멓이로 우르 인잔 어무니가 누:씨라고 그러면 가만 누:씨면 이 머이요 금서 막 그냥 신 시는차 발로 올라 와 가꼬 막 차부리요. {그 이제 나보고 아픈 것처럼('멓이로'는 '처럼'의 뜻) 우리 이제 어머니가 누워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 누워 있으면 "이 뭐요?" 그러면서 막 그냥 신 신은 채 발로 올라 와 가지고 막 차 버려요.}

10201 # 차부리른 아이고 거 우리 애기가 염:병을 해 가꼬 시방 가:통을 해 가꼬 저래 가꼬 올: 주글찌 넬: 주글지 모른디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고 그때 주꺼따고 그레 그레노른 그 방에 안 드러와요. 염:병 오린다고. {차 버리면 아이고 그 우리 아이가 염병을 해가지고 지금 가통을 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때 죽겠다고 그레 그레 놓으면 그 방에 안 들어와요. 염병 읊는다고.}

10201 @ 아. {아.}

10201 # 그러른 배 그노물 나 오세다가 나 몸땡이다가 창::창 이럴 막 보듬꼬 배까래 그노물 요래 보듬꼬 막 뭇:가 가머가꼬 요래가꼬 우아기로 요른 먼 인잔 남자들 먼 오슬 항 개 요래 둘러 씨고 막 거짐말로 우러요. 엄마 야:이고 아파 주꺼씨 그림스로 올:고 이씨면 조용히 해 그러거 엄마 엄마 그러고 이씨른 (웃음) 저네는 어메라 그래끄등. {그러면 배 그것을 내 옷에다가 내 몸땡이에다가('몸땡이'는 '몸똥이'의 방언형) 칭칭 이렇게 막 안고('보듬다'는 '안다'의 방언형) 배 가래 그것을 이렇게 안고, 막 뭇 가지고 감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윗옷을('우아기'는 '윗옷'의 일본말) 이런 무슨 이제 남자들 무슨 옷을 한 개 이렇게 둘러쓰고 막 거짐말로 올어요. "엄마 아이고 아파 죽겠어." 그러면서 올고 있으면 "조용히 해." 그러고, "엄마 엄마" 그러고 있으면 (웃음) 전에는 '어메'라 그랬거든.} @ 응

10201 # 어메 아이고 주껀네 머리가 아파 주껀네 배가 아파 주껀네 그래노면 그 방에 드

로도 안 해요. { "엄마 아이고 죽겠네 아파 죽겠네 배가 아파 죽겠네." 그래 놓으면 그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요('안해요'는 '않아요'의 뜻).}

10201 @ 아. {아.}

10201 # 인자 막 도꼬 인자 먼 몬 또린 놔드른 인자 막 그래도 소양업씨 막 디비고 그래가. {이제 막 ** 이제 뭐 못 흠친('도리다'는 '흠치다'의 뜻) 놔들은 이제 막 그래도 소용없이 막 뒤지고('디비다'는 '뒤지다'의 방언형) 그렇게 가.}

10201 # 그래가꼬 멀: 처덱꼬 이래가꼬 막 이래가꼬 안자씨면 그러고 가고 또 우리 이우자 애기 몬 논는 아지메가 하나 이씨서 또 우리 지비 그 아지메 인자 아제가 인자 사네로 인자 발:랑군 와따 허면 인자 투막투막 새:로 머썬장 올타리 꾸녕도 해 노코 먼:또 해 노코 막 뒤에 올라 가는 지를 맹그라노코 짝:: 남자드리 막 뉘 지베 하나 와따고 거시기나 형개 잠도 자도 모도 시우자를 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뭘 마구 덮고('처덱다'는 '마구 덮다'의 뜻)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이웃에 아기 못 낳는 아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또 우리 집이 그 아주머니('아지메'는 '아주머니'의 방언형) 이제 아저씨('아제'는 '아저씨'의 방언형)가 이제 산으로 이제 반란군 왔다 하면 이제 듕성듕성('투막투막'은 '듕성듕성'의 뜻) 사이로 뭐 이제 올타리 구멍('구녕'은 '구멍'의 방언형)도 해 놓고 뭐도 해 놓고 막 뒤에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짝 남자들이 막 누구 집에 하나 왔다고 뭐나 하니까 잠도 자지도 못하고 새우잠('시우잠'은 '새우잠'의 방언형)을 자고 그래요.}

10201 # 그래가꼬 발:랑군남세 몬: 사라서 그러다가 자 일녀니 너머가까꼬 이:년 인자 새년 인자 사뭇때리 데:서 모도 하꼬르 드리가고 그러는디 인자 궁:근 업:씨가꼬 우리 크노빠르 그를 몬 겐따네요. 췌간헌 깔담사리로 내:창 췌:서 인자 새경을 바다무꼬 인자 음:서가꼬 인자 그랜는다. {그래가지고 반란군 때문에('남세'는 '때문에'의 뜻) 못 살아서 그러다가 이제 일년이 넘어가가지고 이년 이제 새해('새년'은 '새해'의 뜻) 이제 삼월이 돼서 모두 학교를('르'는 '를'의 방언형)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근근이 없어가지고 우리 큰오빠를 글을 못 가르쳤다네요. 조그마한 꼴머슴('깔담사리'는 '꼴머슴'의 뜻)으로 계속 췌서 이제 새경을 받아 먹고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10201 # 우리 언니드리 너:인디 팔람맨디 우리 오빠드리 너:이 언니 인자 우리 여,여 여동우가니 너:이 그랜 우리 언니가 가이네 따리 너:이나 텨서 하나도 조렵쌍 항 개도 엄:따고 인자 나를 하꼬를 가라고 인자 그랜 새로 드르가 새로 드르 간다고 행:는디 우로빠 가이네가 글 글 빼워가 머허꺼이나고 나도 글 모빠와따고 가지 마라 그래. {우리 언니들이 넷인데 팔남매인데 우리 오빠들이 넷, 언니 이제 우리 여동기간이 넷,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계집애 딸이 넷이나 되면서 하나도 졸업장 한 개도 없다고 이제 나를 학교를 가라고 이제 그랬는데, 새로 들어가 새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계집애가 글 그것 배워서 뭐 할거냐고 나도 글 못 배웠다고 가지 말라 그래.}

10201 @ 음. {음.}

10201 # 그래가꼬 인자 하꼬를 몬 뜨러가 그냥 조카들만 키우고 사라써.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못 들어가 그냥 조카들만 키우고 살았어.}

10201 @ 음 여 유기오떼가 그른 제일 힘들게 사셨네요이~. {음, 여 육이오 때가 그러면 제일 힘들게 사셨네요.}

10201 # 예. {예.}

10201 @ 음. {음.}

10201 # 그래가 글 모:빼웅 거 인자 동네 인자 청년드리 인잔 난:중에 글 겔춘다고 허고. 또 임민군드리 막 오그 거그에 또 여그 막 밀려가꼬 거세 해써요. {그래가지고 글 못 배운 것 이제 동네 이제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글 가르쳐 준다고 하고, 또 인민군들이 막 오그 거기에 또 여기 막 밀려가지고 거시기 했어요.}

10201 # 또 임민군드리 처:으메는 와 가꼬 유기오떼 그 때는 임민군드리 우리를 글 겔춘다고. {또 인민군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육이오 때 그때는 인민군들이 우리를 글 가르친다고.}

1020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1 # 동:청에다가 칠파늘 부치노코 그를 개우고 저네 머 한:수발 눈 바라마 이야기하라 그 일 저 이:봉 노래 {마을회관('동청'은 '마을회관'의 뜻)에다가 칠판을 붙여 놓고 글을 배우고('개우고'는 '배우고'의 잘못된 발음) 전에 뭐 '한수발 눈 바람아 이야기하라' 그 일 저 이북 노래}

10201 @ 아. {아.}

10201 # 그런 노래를 겔차 주고 그래가꼬는 난:주에는 엔 인잔 발:랑구니 인자 췌께 가고 나서는 인자 또 청년드리 인자 겔춘다고 해 가꼬 거그서 좀 배우고 그래가꼬 그 이름자라도 알지요. 글도 몰라요.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예 이제 반란군이 이제 쫓겨 가고 나서는 이제 또 청년들이 이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좀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자라도 알지요. 글도 몰라요.}

10201 @ 인민군드리 갈처중 거슨 주로 노래가통 거 갈처조써요? {인민군들이 가르쳐 준 것은 주로 노래 같은 것 가르쳐 줬어요?}

10201 # 노래도 겔차주고 막 그래써요. {노래도 가르쳐 주고 막 그랬어요.}

10201 @ 글자도 알려주고. {글자도 가르쳐 주고.}

10201 # 글도 겔차주고 노래도 겔차주. {글도 가르쳐('겔치다'는 '가르치다'의 방언형) 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

10201 @ 켈차주고 응 노래가 지금까지 또 기억이 나네요이~. {가르쳐 주고 응 노래가 지금까지 또 기억이 나네요.}

10201 # 제간빠끼는 몰라요. {조금밖에는 몰라요.}

10201 @(웃음)

10201 # 우 침 아피 머 처으메가 머잉고 제목또 모르고. {우, 침, 앞에 뭐 처음이 뭐인지 제목도 모르고}

10201 @ 음. {음.}

10201 # 벨지슬 다 해찌요이~. {별짓을 다 했지요.}

10201 # 그래가 저너그로도 글 배우로 가:허고 인자 에리서는 글 배우로 가:고 그라헨넌디 인자 좀 커서는 울 아버지가 구:싱 영:가미 되야가꼬 바람난다고 또 나가도 못 하게 해요. (웃음) {그래가지고 저녁이면 글 배우러 가고 이제 어려서는 글 배우러 가고 그리했는데 이제 좀 커서는 우리 아버지가 구식 영감이 되어가지고 바람난다고 또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웃음)}

10201 @ 음 아버지::량은 주로 농사 지션나요? {음, 아버지량은 주로 농사지으셨나요?}

10201 # 인자 울 오빠들 싹:: 구니네 재피가고 인자 도피한다고 인자 어디로 더::그 서,섬 나라에 그런 디 가서 머 강원도 우리 셋째 오빠는 강원도 머 무코당가 거그 가가꼬 또 오징 에뻔 딸 타로 따라댕기다가. {이제 우리 오빠들 싹 군인에 잡혀가지고 이제, 도피한다고 이제 어디로 저기 서, 섬나라에 그런 데 가서 뭐 강원도 우리 셋째 오빠는 강원도 뭐 묵호인지 거기 가가지고 또 오징어배 타러 따라다니다가,}

10201 @ 음. {음.}

10201 # 인자 함 번씩 호까다 함버씩 오면 그냥 오징에 수류미 물룽 거. {이제 한 번씩 어찌다('혹가다'는 '어찌다'의 뜻) 한 번씩 오면 그냥 오징어 오징어('수류미'는 '오징어'의 일본말) 말린 것.}

10201 @ 응. {응}

10201 # 그걸 그냐 한 चु씩 가:오문 막 이,이,이가 아프드룩 씨버무꼬 나문 막 설싸가 그거 또 마:니 무궁개 설싸가 나데요. {그걸 그냥 한 चु씩 가져오면 막 이, 이, 이가 아프도록 씹어 먹고 나면 막 설사가 그것도 많이 먹으니까 설사가 나데요.}

10201# 막 설싸를 마:니 하고 그래쎄요. {막 설사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10201 # 그나 올 읍 올 아부지허고 나허고 인자 살리를 산:다고 살:고 메느리 데꼬 드:레
몬 나가고 궁께 맨마던 나만 인자 올 언니드른 다 시집 가뿌리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살림을 산다고 살고, 며느리 데리고 들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만만한('맨맛허다'
'는 '만만하다'의 방언형) 나만 이제 우리 언니들은 다 시집가 버리고,}

10201 @ 읍. {읍.}

10201 # 만::날 소 미기고 머 소 질드려 가꼬 포둑::씨 인자 소 질 떠러지면 세양치 선 하
동장으 가서 바까 큰 세 인자 포라 무거 뿌리고 소양치 함 마리 몰고 오면 또 우라부지 그
거 질 드린다문 또 나:가 아페 꼬:야 되요. {만날 소 먹이고 뭐 소 길들여가지고('질들이다'
는 '길들이다'의 방언형) 겨우 이제 소 길나면 ('질떨어지다'는 '길나다'의 방언형) 송아지('
세양치'는 '송아지'의 방언형) 하동장에 가서 바꿔 큰 소('세'는 '소'의 방언형) 이제 팔아 먹
어 버리고 송아지 한 마리 몰고 오면 또 우리 아버지 그것 길들인다면 또 내가 앞에 끌어
야 돼요.}

10201 @ 읍. {읍.}

10201 # 꼬:꼬 땡김스롱 인자 이라 허문 인자 따라서 땡기다가 인자 지리 얼추 떨어질라허
문. (웃음) {끌고('꼴다'는 '끌다'의 방언형) 다니면서 이제 이라 하면 이제 따라서 다니다가
이제 길이 얼추 내려 하면,}

10201 @(웃음)

10201 # 밀바테나 보리바테나 나:가 수머뿌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밀밭에나 보리밭에
나 나가서 숨어 버려라 그래요.}

10201 @ 읍. {읍.}

10201 # 수머 뿌리라 해서 어:디 수머 뿔면 누늘 흘금::허이 아:페 오다가 채리보고는 올
아부지를 막 흘챙이차 꿀:꼬 나헌티로 쪼차 오고. (웃음) 소가. {숨어 버려라 해서 어디 숨
어 버리면 눈을 흘금거리며 앞에 오다가 쳐다보고는('채리보다'는 '쳐다보다'의 방언형) 우
리 아버지를 막 극쟁이채('흘챙이'는 '극쟁이'의 방언형) 끌고 나한테로 쫓아 오고. (웃음)
소가.}

10201 #@ (웃음)

10201 # 그르고 세:상을 살: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10201 @ 읍 그래 인제 부모님들 농사 진:능 걸 도와 주시고. {읍, 그래 이제 부모님들 농

사짓는 걸 도와 주시고}

10201 # 또 공출. 일본 사람들 인자 논. {또 공출. 일본 사람들 이제 논.}

10201 @ 음. {음.}

10201 # 그거 인자 어디 가고 지:이 노으면 저네:: 우라 인자 우리는 모르제마는 우리 언니드른 인자 우리는 나으 느께 나:농께 그르찌마는 일본 사람들 노를 인자 올 아버지가 일본사람들 미테 가서 일:도 해 주고 인자 그렇 거를 허고 사라노 가서 살:다가 또 인자 너:무 집도 살:다가 그래농께 일본 사람드리 노를 줘:서 그거를 인자 적싼지 노니라고 그러데요. 그걸 보고. {그것 이제 얻어가지고 지어 놓으면, 전에 우리 이제 우리는 모르지마는 우리 언니들은 이제 우리는 늦게 낳아 놓으니까 그렇지마는, 일본 사람들 논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 밑에 가서 일도 해 주고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살아 놓 가서 살다가 또 이제 남의집도 살다가 그래 놓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논을 줘서 그것을 이제 '적산지논'이라 그러데요. 그걸 보고.}

10201 @ 음. {음.}

10201 # 일본사람 노를 줘:서 인자 그노를 공:추를 가꼬 인자 농사를 지여가 공:추를 해서 인잔 수를 가파요. 논, 노를, 논쭈를 가파요. {일본 사람 논을 줘서 이제 그것을 공출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여가지고 공출을 해서 이제 수를 갠아요. 논, 논을, 논 수를 갠아요.}

10201 @(헛기침)

10201 # 그르든 인절 또 가마니트를 해: 노코 가마이 짜는디 올 아버지는 뚜드리고 인자 요리 인자 지플 하날하날 요리 미기주든 올 아 인자 또 한쪼게서 우를 인자 올케 올케더리 나 언니가 인자 요리 자버당기고 나느 요리 미기주고 그래가 가마니 짜 가꼬 인잔 근대 널라고 사나쿠도 인자 토꼬게 까요. {그러면 이제 또 가마니트를 해 놓고 가마니 짜는데 우리 아버지는 두드리고 이제 이리 이제 쥘을 한 올 한 올 먹여 주면 올 아 이제 또 한쪽에서 우리 올, 이제 올케 올케들이나 언니가 이제 이리 잡아당기고 나느 이리 먹여 주고 그래가지고 가마니 짜가지고 이제 무게가 나가도록('근대내다'는 '무게가 나가도록 만들다'의 뜻) 새끼도('사나쿠'는 '새끼'의 방언형) 이제 툭툭하게('툭허다'는 '툭툭하다'의 뜻) 파요.}

10201 @ 음. {음.}

10201 # 그래가 가마니 뭉겨 가 그걸 인자 여 지그든 머 기계가 썬:썬:그러지만 저:: 문당 썬:썬:여그 성그장썬 한지락꺼지 또 저나야 되요. {그래가지고 가마니 뭉어가지고 그걸 이제 여, 지금은 뭉 기계가 썬으니까 그렇지만, 저 꼭대기집인데('문당'은 '꼭대기'의 뜻) 여기 섬거장('섬거'는 지명)에서 한지락(?)까지 또 저 내야 돼요.}

10201 # 공추를 헐라든. 그 일본사람 논 수를 줄라든. 그걸 보고 적싼지 노니라 그럼서 그

수를 인자 줄라든 어째든가네 우리 처:자때꺼정 그 논 쭈를 가파써요. {공출을 하려면. 그 일본 사람 논 수를 주려면. 그걸보고 적산지논이라 그러면서 그 수를 이제 주려면. 어쨌든 우리 처녀 때까지 그 논 수를 갚았어요.}

10201 @ 그래요? {그래요?}

10201 # 논. {논.}

10201 @ 그니깐 일본사람 간 뒤에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 간 뒤에도.}

10201 # 예. {예.}

10201 @ 그든 그, 그 노닐 인제 바드셔꾸마니요. 인자이~. {그러면 그 그 논을 이제 받으셨구먼요. 이제.}

10201 # 예. {예.}

10201 @ 아 그 노느리~. {아, 그 논을.}

10201 # 인자 쓰 농사를 지여 가 인자 해마동 인자 감능 거이라요 인자 말하자믄.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해마다('마동'은 '마다'의 방언형) 이제 갚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10201 @ 궁께 소:유는 인제 글 가게 되찌요, 그건. {그러니까 소유는 이제 갖게 되지요, 그건.}

10201 # 예 그러가 인자 인자 난:중에 인자 해방 되고는 인자 우리 우리 아푸로 도라저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 되고는 이제 우리 우리 앞으로 되었지요('돌아지다'는 '소유권 등이 옮겨지다'의 뜻).}

10201 @ 음. {음.}

10201 # 그거이 영:거이 인자. 그래가 열탄 마지기. {그것이 영구히 이제. 그래가지고 열닷 마지기.}

10201 @ 열탄 마지기. {열닷 마지기.}

10201 # 예. {예.}

10201 @ 노니 되꼬이~. {논이 됐고.}

10201 # 그라농께 어찌 해:똥가네 그래도 인자 노니 논 썸지기가 데지요. {그래 농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논이 논 썸지기가 되지요.}

10201 # 또 다랑지는 좀 사고 그래가 논썸지가 사고 그렇께 야 우라부지가 고상을 해 그러지 우리는 잘 무꼬 사라썸요. {또 다랑이('다랑지논'은 '다랑이'의 방언형) 좀 사고 그래가지고 논 썸지기 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해서 그렇지 우리는 잘 먹고 살았어요.}

10201 @ 열 판 마지기면 마:니 마:난네요. 노니. {열닷 마지기면 많이 많았네요, 논이.}

10201 # 인자 다랑지는 사고 궁개론 썸지기라문 스무점마지가 한섬지기 아십니까? {이제 다랑이 사고 그러니까 썸지기라면 스무 마지가 한 섬지기 아십니까?}

10201 # 그래 올 아버지가 고상을 해 그러치 우리 무꼬 사능 거 저네는 썸밥 해 무꼬 머송쿠밥 해 무꼬 모도 그리고 썸 캐:다가 모도 썰마가꼬 해 무꼬 무시밥 해 무꼬 그래도 우리지비는 그림 밥 암 무거썸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해 그렇지 우리 먹고 사는 것, 전에는 썸밥 해 먹고 뒤 송기밥('송쿠'는 '송기'의 방언형) 해 먹고 모두 그렇게 썸 캐다가 모두 삶아가지고 해 먹고 무밥('무시'는 '무'의 방언형) 해 먹고 그래도, 우리집은 그런 밥 안 먹었어요.}

10201 # 인제 벨:미로 인자 썸 캐 가꼬 인자 쪼깁::썸 서꺼 가꼬 소금 간간히 여: 가꼬 그래가꼬 해, 해 무으론 그거이 마시따 싸코 우리드론 그래고 사라썸. {이제 별미로 이제 썸 캐가지고 이제 조금씩 섞어가지고 소금 간간하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 해 먹으면 그것이 맛있다 썸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았지.}

10201 # 농사가 마:나가꼬 우리드론 인제 이:리 좀 데:서 그러치 그리 몸: 무꼬 살:고 그리는 안해썸요. {농사가 많아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일이 좀 고돼서 그렇지 그리 못 먹고 살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1.1.2 결혼 과정

10203 @ 음 그러네요. 음 그러론 인자 어쨌든 겨로는. 겨로는 어떠케 하셔썸요? {음, 그러네요. 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혼은,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10203 # 그냥 인자 늘:거가꼬 인자 열:거 가꼬 인자인자 그리 양서기 그리 이썸께 우리 저네 할무니가 우리 나 망 나서 올 할무니가 우리 지비는 좀 그래도 올 아버지가 애론::씨게 버리서 일:만 알고 밤만 알고 애:씨게 버리서 시미 조아서 버리농께 머 무그꺼임 쪼깁 그래도 넘보덤 좀 나:꼬 그렇께 자::꾸 우리 자그나부지들 썸비다 퍼다 주더라네요. 곡썸 그렇거를. {그냥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엷어가지고, 이제 이제 그리 양식이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전에 할머니가 우리 나 막 낳아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은 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애를 써서 벌어서 일만 알고 발만 알고 애쓰게 벌어서 힘이 좋아서 벌어 놓으니까 뭐 먹을 것이 조금 그래도 남보다 좀 낮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작은아버지들 집에다 퍼다 주더라네요. 곡식 그런 것을.}

10203 @ 누가요? {누가요?}

10203 # 우리 할무니가. {우리 할머니가.}

10203 @ 아. {아.}

10203 # 그래가 인자 나하고 우리 나 손미테 동생 인자 난 동생허고 손니를 바다가꼬 인는다 그 저네는 그거이 먼 그리 찼절게르 찌른 그거이 거선다고 짹:: 나:가 우리 인자 애:기 그거는 인자 막 다:미 달글다글 꼬러 가꼬 인자 주거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우리 내 밑에 동생 이제 낳은 동생하고 천연두를 앓고('손님을 받다'는 '천연두를 앓다'의 뜻)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무슨 그리 **** 끼면 그것이 뭐 한다고 짹 내가 우리 이제, 아기 그것은 이제 막 담이 다글다글 끓어가지고 이제 죽어 버리고,}

10203 @ 아. {아.}

10203 # 나:는 인자 좀 커놓개 그걸 이기내고 사:는디 인자 천::지가 여 막 따까리가 안 안 잔능가요 그거이 그거이. 그걸 짹:: 뜨더서 자::꼬 재:드라네요. 그거 쌀 퍼낸 숭 내니라고. 자꾸 씨러 모두더라네요. 따까리 떼: 가꼬. 나:가. {나는 이제 좀 커 놓으니까 그걸 이겨 내고 살았는데, 이제 사방이('천지'는 여기서 '곳곳'의 뜻) 이 막 딱지('따까리'는 '딱지'의 방언형)가 앓잖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그걸 짹 뜯어서 자꾸 쟁이더라네요, 그거 쌀 퍼내는 흥내('숭'은 '흥내'의 방언형) 내느라고. 자꾸 쓸어 모으더라네요('모두다'는 '모으다'의 방언형). 딱지 떼어가지고 내가.}

10203 # 그래가꼬 인자 인자 얼거놓개로 인자 곱:보라고 그래 궁개 시집 와서조창 그리 곱:보라고 인자 하:대르 바꼬.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엮어 놓으니까 이제 곱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집와서조창('조창'은 '조차'의 방언형) 그렇게 곱보라고 이제 하대를 받고}

10203 @ 그니까 그 증상이 이러케 어째든 곱보하면 얼 얼구리 얼케데지요이~? {그러니까 그 증상이 이렇게 어째든 곱보하면 얼 얼굴이 얹게 되지요?}

10203 # 네. {네.}

10203 @ 손니를 허게 데면. {천연두를 앓게 되면.}

10203 # 예. {예.}

10203 @ 옛날레느니? {옛날에는.}

10203 # 그래가꼬 큼서룽도 너마페 얼굴 함번 몬 내노코 팽::상 사래미 오면 싱키고 승:꼬.
{그래가지고 크면서도 남 앞에 얼굴 한 번 못 내놓고 평생 사람이 오면 숨기고('싱키다'는 '숨기다'의 방언형) 숨고.}

10203 @ 음 지그몬 별로 그러지를 안는데 엔:나레는. {음, 지금은 별로 그러지를 안는데 옛날에는.}

10203 # 인자 사리 빠징꼬 인자 늘궁께로 사리 주르미 징개 인자 그거이 음:써 저씨요. 저네는 마:니 그래씨요. {이제 살이 빠지고 이제 늙으니까 살이 주름이 지니까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10203 @ 음 그레 가지고 겨로는 그러몬 인제 어떠케 하서씨요? 누가 중매를 하션나요?
{음, 그래가지고 결혼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중매를 하셨나요?}

10203 # 인자 우리 오빠가 인자 인자 해:방이 되고 구니네를 인자 또 우리 오빠는 서울 조제처니라는 냥바니 우리 어무니 외:사초니등거이다네요. {이제 우리 오빠가 이제 이제 해방이 되고 군인을 이제, 또 우리 오빠는 서울 조재천이라는 양반이 우리 어머니 외사촌이었던 모양이에요.}

10203 # 그때 머 구켁가 머 구케으워닝가 서울써 해쓸 거이요. {그때 뭐 국회인가 뭐 국회의원인가 서울에서 했을 거예요.}

10203 # 거래가꼬 우리 여 지닐며네 사라는디 거 우리 인자 아저씨가 거그야 인자 이썩개로 우리 어무니가 인자 거그르 차자가서 우리 아들 좀 살리도라고 그리 가서 인자 사:정을 형개 인자 쟁:차레다가 여:줘씨. 인자 우리 크노빠는 인자 구니네르 양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진월면에 살았는데 그 우리 이제 아저씨가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리 가서 이제 사정을 하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넣어 주었어('영:다'는 '넣다'의 방언형). 이제 우리 큰오빠는 이제 군인을 안 가고.}

10203 # 인자 오빠드리 인제 두:리 서:이는 인자 구니네를 가따오고 그랜는디 그때는 인자 구니네 우리 크노빠 갈 때는 구니네 가문 막 중는 파니라예. {이제 오빠들이 이제 둘, 셋은 이제 군인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군인에 우리 큰오빠 갈 때는 군인에 가면 막 죽는 참이에요.}

10203 # 그레 우르 오빠는 인자 구니네 가서 아저저 서울 가서 인자 쟁:찰로 이꼬 우리 두:째 오빠는 가가꼬 머머 포병잉가 머 보병 보병이라드냐 차 물론 사람 차 몰코 땡기고 인자 거그::다가 차에 부리 나가꼬 하:상을 이버 가꼬 또 울 어무니 열::매나 또 세 키워노문 궁개 포라가꼬 또 거그에 멘:해 땡기고 땡워네 가서 거 됴: 수발허고. {그레 우리 오빠는 이제 군인에 가서 아 저 저 서울 가서 이제 경찰로 있고, 우리 둘째 오빠는 가가지고 뭐 뭐 포병인지 뭐 보병 보병이러더냐 차 모는 사람 차 몰고 다니고, 이제 거기다가 차에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얼마나 또 소 키워 놓으면 팔아가지고 또 거기에

면회 다니고 병원에 가서 거 뒷수발하고.}

10203 @ 음. {음.}

10203 # 그렇 거 험스롱 다 포라무꼬 또 서울 쟁:찰로 이썸성도 만::날 용도늘 또 와서 가
꼬 가제. {그런 것 하면서 다 팔아 먹고 또 서울 경찰로 있으면서도 만날 용돈을 또 와서
가지고 가지.}

10203 @ 월급또 바다쓸텐데. {월급도 받았을 텐데.}

10203 # 어찌 된 판 월:그블 열:매나 바단능고 모지랭개로 가서 도라지. {어찌 된 판, 월급
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자라니까 가서 달라지.}

10203 @ 음. {음.}

10203 # 향 완::날 와서 돈 도라고 그거 주고 저거 주고 자식딸남사 우리 부모들 참 고상
마니 해썬요. {만날 와서 돈 달라고 그것 주고 저것 주고 자식들 때문에('남사'는 '때문에'의
뜻) 우리 부모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10203 @ 응 그레끄망. {응, 그랬구먼.}

10203 # 그래가 소 키워노문 공개 포라 뿌리고 또 세양치 문 사가꼬 오문 또 그놈 질드
려가꼬 또 그놈 좀 클만허면 도니 아:서부먼 또 포라 뿌리고. {그래가지고 소 키워 놓으면
그러니까 팔아 버리고 또 송아지('세양치'는 '송아지'의 방언형) * 사가지고 오면 또 그놈
길들여가지고 또 그놈 좀 클 만하면 돈이 아쉬우면('아쉽다'는 '아쉽다'의 방언형) 또 팔아
버리고.}

10203 @ (웃음)

10203 # 만::날 세나 미기고 또 거 올 아버지 혼차서 이:를 그리 형개로 또 그 가마니 그
렁거또 또 나도 저내고 아버지 혼차서 저냉개로 노는 마:니 되제 일본사람들 노는 마:니 차
질 해:썰. {만날 소나 먹이고 또 그 우리 아버지 혼차서 일을 그리 하니까 또 그 가마니 그
런 것도 또 나도 저 내고 아버지 혼차서 저 내니까 논은 많이 되지, 일본 사람들 논을 많이
차지를 했지.}

10203 @ 음. {음.}

10203 # 공개 그 논 수를 주자형개 자::꼴 마:니 공:추를 해야 땡개. {그러니까 그 논 수를
주려 하니까('-자형개'는 '-려 하니까'의 뜻) 자꾸 많이 공출을 해야 되니까,}

10203 # 아버지가 짠:해서 나도 저내곤 아버지도 저내고 그래노면 동네 싸람드리 (웃음)

심 조코 막 씨열딸 뒤편 허싸코. {아버지가 짬해서 나도 저 내고 아버지도 저 내고 그래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웃음) 힘 좋고 막 **딸(?) 두었다고 해 쌓고}

10203 @ 먼 따리요? (무슨 딸이오?)

10203 # 씨열딸 존,뒤:따고. {씨열딸 뒀다고.}

10203 @ 씨열따리 뒀어요? {'씨열딸'이 뒀어요?}

10203 # (웃음) 인자 일 잘 허고 인자 그런 딸 뒤:따고 인자. {(웃음) 이제 일 잘하고 이제 그런 딸 뒀다고 이제.}

10203 @ 아. {아.}

10203 # 하 올 아부지허고 나허고 농사를 지:무꼬 그라농깨 시지블 와도 이:른 하나도 겁 안나요. {하,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농사를 지어 먹고 그래 놓으니까 시집을 와도 일은 하나도 겁 안 나요.}

10203 @ 아. {아.}

10203 # 이:른 하나도 거비 안 난디 몽능 거이 조감 이 지비도 무그 꺼는 마:넌디 만날 그대 로 괜찬트만 영:감 먼 장사허고 그랜는디 인자 열거때가꼬 인자 우리 씨어무니가 인자 나:를 줌 몬 빠져 그래. {일은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먹는 것이 조금 이 집도 먹을 것은 많은데, 만날 그대 로 괜찬터니 영감 뭐 장사하고 그랜는데, 이제 었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나를 줌 못 빠져 그래.}

10203 @ 그러면 그 결혼할 때는 그럼 이 그거또 가튼 여기니까는 누가 아라서 중매를 헤 꾸마뇨. {그러면 그 결혼할 때는 그럼 이 그것도 같은 여기니까는 누가 알아서 중매를 했구 먼요.}

10203 # 가:치 장사허다가 동넨::뿌니 인자 장사허고. {같이 장사하다가 동넨분이 이제 장사하고,}

10203 @ 음. {음.}

10203 # 올 오빠도 장사허고 인자 근디 올 엄니 인자 가치 인자 도와주로 장에 따라댕기고. {우리 오빠도 장사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제 같이 이제 도와 주러 장에 따라다니고,}

10203 @ 음. {음.}

10203 # 울 오빠 장사하는디 또 도와 주로 따라 댕기고 그러다가 동:네 뿌니 인자 함께 이
약 인자 우리 아저씨는 천지서 인자 중수를 해서 또 켜게 온다고 열거논개 켜게 온다고 인
자 웅거이 켜게 온다고 와도 그리 모뻐데요. 그래가 상 거이 그냥 쫓 앞:구지 그리 사라 가
꼬. {우리 오빠 장사하는 데 또 도와 주러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동네편이 이제 함께 이야
기 이제 우리 아저씨는 사방에서 이제 중매를 해서 또 쫓겨온다고 얹어 놓으니까 쫓겨 온다
고 이제 온 것이 쫓겨 온다고 와도 그렇게 못 보데요. 그래가지고 산 것이 그냥 알궂게 그
렇게 살아가지고.}

10204 @ 해해 예 결혼 할 때는 뭘 이러케 요새는 머 혼수도 망:코 막 허자나요이~? {해
해, 예, 결혼할 때는 뭘 이렇게 요새는 뭘 혼수도 많고 막 하잖아요?}

10204 # 예. {예.}

10204 @ 머머 어디 뭘 해 기억이 나십니까? 머를 해:야 가꼬 고로코 머 이렇 거뜰 그때
는? {뭘뭘 어디 뭘 해 기억이 나십니까? 뭘를 해가지고 그렇게 뭘 이런 것들 그때는?}

10204 # 요 지비서 농이 오문. {이 집에서 농이 오면,}

10204 @ 음. {음.}

10204 # 인자 지를 인자:: 오감허고 시지블 이꼬올 오감허고 인자 돈: 줌 허고 도:니자네
저네는 곡씨글 줘요. 싸를 항 가마니 준다든지 머 한 서물 준다든지 그리주믄 주고 인자 또
농허고 온 녀:가꼬 오라고 농 해 주고 그러믄 인자 우리드른 인사올 해 가꼬 오지요. {이제
짐을 이제 옷감하고 시집을 입고 올 옷감하고 이제 돈 줌 하고, 돈이 아니라('-잔해'는 '-는
것이 아니라'의 뜻) 전에는 곡식을 줘요. 쌀을 한 가마니 준다든지 뭘 한 섬을 준다든지 그
렇게 주면, 이제 또 농하고 옷 넣어 가지고 오라고 농 해 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예단('인사
옷'은 '예단'의 뜻) 해가지고 오지요.}

10204 @ 음 인사오슨 친척드레게 주론. {음, 예단은 친척들에게 줄 옷.}

10204 # 예. {예.}

10204 @ 음. {음.}

10204 # 인제 처채는 씨어메 씨아배 요 이부자리허고. {이제 첫째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요
이부자리하고.}

10204 @ 음. {음.}

10204 # 인잔 또 온 허고. {이제 또 옷하고}

10204 @ 음. {음.}

10204 # 또 인자 지바네 인자 지바니 마:느문 자그나부지들 인자 자그너무니들 모도 저네 우리들 시집올 때는 자그나부지드른 두루막 해 가꼬 오고. {또 이제 집안에 이제 집안이 많으면 작은아버지들 이제 작은어머니들 모두 전에 우리들 시집올 때는 작은아버지들은 두루마기 해가지고 오고.}

10204 @ 음. {음.}

10204 # 자그너무니드른 인자 저구리 시방 저고리라 그러지만 저네는 저구리 인자 그거 해 가꼬 오고. {작은어머니들은 이제 '저구리', 시방 저고리라 그러지만 전에는 '저구리' 이제 그것 해 가지고 오고.}

10204 @ 음. {음.}

10204 # 우리 엄니가 인자 질싸물 잘 형께 밍기 밍기저구리 인자 점부 자으너무니드른 해다 해:주고 해:오고 또 자그나부지드른 두루막 해:오고 인자 어런들 인자 또 먼 당숙모 인자 저런 분드른 인자 보신 향 커리썩. (웃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길쌈을 잘 하니까 명주('밍기'는 '명주'의 방언형) 명주저고리 이제 전부 작은어머니들은 해다 해 주고 해 오고, 또 작은아버지들은 두루마기 해 오고 이제 어른들 이제 또 뭐 당숙모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버선 한 켤레썩('커리'는 '켈레'의 방언형). (웃음)}

10204 @ 그러치요이. {그렇지요.}

10204 # 예 보신 향 커리썩 점부 해가꼬 오고 그래썩요. {예, 버선 한 켤레썩 전부 해가지고 오고 그랬지요.}

10204 # 그래 인자 고상을 해 농개로 지금도 여 농 아네 온 시지본 온 이썩요. 아까와서 나:뚜고 거 채리 봐요. (웃음) {그래 이제 고생을 해 놓으니까 지금도 이 농 안에 옷 시집온 옷 있어요. 아까와서 봐두고 그것 쳐다봐요. (웃음)}

10204 @ (웃음)

10204 # 멍:배 즉 멍:배 적삼도 열: 깨든 한 죽. {무명, 즉 무명 적삼도 열 개면 한 죽.}

10204 @ 아. {아.}

10204 # 멍:배 적삼도 한 죽, 저구리도 한 죽, 치매도 한 죽 채로 그 때 배카레로 가꼬 와 씨무니나 나:뚜고 찢라서 쓰 씨 씨먼 허꺼인디 먼:헌다고 썩:: 썩 썩그라서 가이로 찢아서 오슬 맨, 맨드라 가꼬 한 죽썩 땅 양:쫄글 딱딱 끼:매서 그러가 농을 여 다::뽕 두 농을 해주데. {무명 적삼도 한 죽, 저고리도 한 죽, 치마도 한 죽. 차라리('채로'는 '차라리'의 뜻) 그

때 베 가래로 가지고 왔으면 놔두고 잘라서 썼으면 할 것인데 뭐한다고 싹싹 잘라서('짱글다'는 '자르다'의 방언형) 가위로 잘라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한 죽씩 딱 양쪽을 딱딱 꿰매서 그렇게 해가지고 농을 넣어 가득 두 농을 해 주데.}

10204 @ 아이고 마:닌네여. {아이고, 많이 있네요.}

10204 # 계양 우리 소누에 언니가 나는 알구께 제까이 해 가꼬 주더마는 저저는 오슬 죽 쭈기 해서 준다고 또 와서 땡깡을 노라서 또 우런니가 뜯 뜯 좀 돌라가가고. {그냥 우리 손위 언니가 나는 알곳게 조금 해가지고 주더니만 저것은 옷을 죽으로 해서 준다고 또 와서 때를 써서 또 우리 언니가 또 좀 흠쳐가고.}

10204 @ (웃음)

10204 # 나는 알구께 해주 해 가꼬 시집보내드마는 저저는 그 마:니 해 준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누구 거치 그러자네 이 우리 서내기는 고상도 마:니 허고 해 그리 해 줘야 된다 세도 사 주꺼인디 세도 함 마리 준다 한는디 몬 쭈는디 오시나 젤 마:니 해 줘야지 글드만. 여그 웅께 오시 마나 농께 씨어메가 심녀를 사라도 온 항가지도 안 해 주데요. {나는 알곳게 해 주 해가지고 시집 보내더니 저것은 그 많이 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선악이는('선악'은 제보자의 이름) 고생도 많이 하고 해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소도 사 줄 텐데 소도 한 마리 준다 했는데 못 주는데 옷이나 제일 많이 해 줘야지 그러더구먼. 여기 오니까 옷이 많아 놓으니까 시어머니가 십 년을 살아도 옷 한 가지도 안 해 주데요.}

10204 @ (웃음)

10204 # 그렇거이 이꼬도 시방 인자 나마가꼬 저저그 시방 멍:배운 그렇 거는 저판 나 농 쏘게다 여:노코 채리 봐요. 인자 나 주금 때 되문 인자 가따 내:빠리등가 어찌등가. {그런 것이 입고도 시방 이제 남아가지고 저 저기 시방 무명 그런 것은 ** 내 농 속에다 넣어 놓고 쳐다봐요. 이제 나 죽으면 때 되면 이제 가져다 내버리든지 어찌든지.}

10204 @ (웃음)

10204 # 중가네 중가네 그걸 스 아줌마드리 사로 땡기데요. 사러 땡김성 포라근디 싸디 싸게 멍은 그렇 거를 싸디 싸게 사 가꼬 가능 아 나는 안 폰테써요. {중간에 중간에 그걸 아주머니들이 사러 다니데요. 사러 다니면서 팔라 그런데, 싸게 싸게 무명옷('멍'은 '무명'의 방언형) 그런 것을 싸디 싸게 사가지고 가는 아 나는 안 판됐어요.}

10204 @ 그거를 인자 어디 수이 가통 걸로 팔라나? {그것을 이제 어디 수의 같은 것으로 팔려나?}

10204 # 몰라요. 먼 혈라고 그렇고 그 땡 한중 사러 땡기드만 나 폴도 안 허고 나는. {몰

라요. 뭐 하려고 그런지. 그때 한창 사러 다니더니 나 팔지도 않고 나는.}

10204 @ 아니 여런데 거 사람 주그면 그렇 거 입짜나요. {아니, 이런 데 그 사람 죽으면 그런 것 입잖아요?}

10204 # 지그른 수이는 새로 맨드리는데요. 몰라 그 때는 인자 글로 폴라 그랜능가 어젠능가 아 인자 수이는 난자가 얼마 안 되지 안쏘. {지금은 수의는 새로 만드는데요. 몰라 그때는 이제 그것으로 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 이제 수의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소?}

10205 @ 겨론 헤 가지고 오 여 오니까 시테게 누가 어떤 데가 시꾸드리 이똥가요? 누구누구 이똥가요? {결혼 헤가지고 오 여기 오니까 시택에 누가 어떤 데가 식구들이 있던가요? 누구 누구 있던가요?}

10205 # 인자 오 남맨디 오 남맨디 인자 씨누는 여어 부리고 씨누는 여어 뿌리고 인자 씨아재들 미테 세: 개 나허고 인자 우리 영감허고 인자 그래치요. {이제 오남매인데 이제 시누이는 여의어 버리고 시누이는 여의어 버리고 이제 시동생들('씨아재'는 '시동생'의 방언형) 밑에 셋, 나하고 이제 우리 영감하고 이제 그랬지요.}

10205 @ 음. {음.}

10205 # 궁:개 너:히 인자 일곱 권세기 사라찌요. {그러니까 넷이 이제 일곱 식구가('권섹'은 '권석') 살았지요.}

10205 # 씨어무니 씨아부지 나 일고 권세기 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 일곱 식구가 살고.}

10205 @ 그 한 지베서 다 삼:니까? {그 한 집에서 다 삼니까?}

10205 # 예. {예.}

10205 @ 지비 쯔 커떤 모양이네요. {집이 쯔 컷던 모양이네요.}

10205 # 요짜게 요 지비. {이 쪽에 이 집이.}

10205 @ 아 그 어찌게 그러케. {아, 그 어떻게 그렇게.}

10205 # 여,여 여그에는 인자 아래차. {이, 이 여기에는 이제 아래채.}

10205 @ 아하. {아하.}

10205 # 아래차야 지플 가꼬 이:농개 계: 들고 계: 나고 그렇게 그 미전 보돕씨 췌까::만

노푼개 해놓개 미치 캥::캄해요 썩근 동:네 노인드른 모도 와서 우리 아래뺑에 모도 자고 그러데. 먼 {아래채 쥘을 가지고 이어 놓으니까 기어 들고 기어 나고 그러니까 그 밑은 겨우('보둑씨'는 '겨우'의 뜻) 조그만 높게 해 놓으니까 밑이 캄캄해요. 저기 동네 노인들은 모두 와서 우리 아랫방에 모두 자고 그러데, 뭐.}

10205 @ 사랑방처럼? {사랑방처럼.}

10205 # 네. {네.}

10205 # 덕쌩녕가미라 그럼서러 영:가미 올 띠도 갈 띠도 업:는 영:가미 인자 집찜마동 인자 지플 가꼬 덕썩 그검:: 맨드라 주고 그냥 입 어더무꼬. {명석영감이라 그러면서 영감이 올 데도 갈 데도 없는 영감이 이제 집집마다 이제 쥘을 가지고 명석('덕썩'은 '명석'의 방언형) 그것 만들어 주고 그냥 입 얻어먹고.}

10205 @ 음. {음.}

10205 # 그르고 산다고 우리 아래뺑에 와서 살: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 아랫방에 와서 살고.}

10205 @ 음. {음.}

10205 # 저녁그로 자고 인자 또 나주로는 너무지비 가 먼 덕썩또 맨 맨드르고. {저녁으로 자고 이제 또 낮으로는 남의 집에 가 뭐 명석도 만 만들고.}

10205 @ 음. {음.}

10205 # 방석도 맨드리고 그럼 거 인자 영:꿈서로 인자 너무지비 나주로는 가고 잘 띠가 업:써 우리지비 잔다고 자고 그러데. {도래방석도('방석'은 '도래방석'의 뜻) 만들고 그런 것 이제 엮으면서('영끄다'는 '엮다'의 방언형) 이제 남의 집에 낮으로는 가고 잘 데가 없어 우리집에 잔다고 자고 그러데.}

10205 @ 음. {음.}

10205 # 거 우리드리 시집와 가셔도 또 된:날 천 썩보게 인자 이러나서 뜯 어:르니라고 점::부 문녀러노고 바가테서 절허고. {그 우리들이 시집와셔도 또 뒷날 첫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또 어른이라고 전부 문 열어놓고 밖에서 절하고.}

10205 # 새봉마동 머리 비꼬 천썩보게 이러나서 머리 비:꼬 또 오 까라 입꼬. {새벽마다 머리 빗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또 옷 갈아입고.}

10205 @ 음 엔나래 그레썩요. {음, 옛날에 그랬썩요.}

10205 # 절허고 그래썬요. {절하고 그랬어요.}

10205 @ 예. {예.}

10205 # 거 인자 씨아바이 텔로 와서 아부지 절 바드시이다 그러면 인자 또 큼방으로 오문 난:자느 기찬타 허지마라.(웃음) {그 이제 시아버지 데리러 와서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이다'는 '-십시오'의 뜻) 그러면 이제 또 큰방으로 오면 나중에는 귀찮다 하지 마라.(웃음)}

10205 # 네:가 기찬차나 나:가 기찬타 오지 마라.(웃음) {네가 귀찮지 않고 내가 귀찮다 오지 마라. (웃음)}

1.1.3 전통 혼례식

10205 @ (웃음) 그러지요.(웃음) 그 엔:날 구식 께론 헤썬 께시고요. {(웃음) 그러지요. (웃음) 그 옛날 구식 결혼했을 것이고요.}

10205 # 예 지비서. {예, 집에서.}

10207 @ 지비서이. 어떤:: 인제 절차로 순서가 어뜨케 되고 어떤 시그로 결호늘 합니까? {집에서. 어떤 이제 절차로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합니까?}

10207 # 인제 장:개 온다고 인자 가:매 타고 오고. {이제 장가온다고 이제 가마 타고 오고,}

10207 @ 음. {음.}

10207 # 처:메는 지미 오고 켈:로 처메 인자 중시내비가 언자 서로 영겨를 해 주문 인자 양:쪽 허라글 마트문 인자 사:싱이라고 와요. {처음에는 짐이 오고 제일 처음에 이제 중신아비가 이제 서로 연결을 해 주면 이제 양쪽 허락을 맡으면 이제 사성이라고 와요.}

10207 @ 음. {음.}

10207 # 인자 그를 씨 가꼬 인자 사:싱을 인잔 펜:지봉투를 하나 가따 주문 우리 지비로 인자 실랑찌비서 가꼬 오면 인자 그놈 바다 노코 이씨문 인자 또 메친 날 인자 또 지몬다 그래요.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사성을 이제 편지 봉투를 하나 가져다 주면 우리 집으로 이제 신랑집에서 가지고 오면 이제 그것 받아 놓고 있으면 이제 또 몇 일 이제 또 집 온다 그래요.}

10207 @ 음. {음.}

10207 # 금 인잔 저 하동자 여그서는 하동장으 가서 장:농 사고. {그러면 이제 저 하동장 여기서는 하동장에 가서 장롱 사고.}

10207 # 또 우겔리미라고 인자 또 우돌 세: 벌씩 세: 벌씩 허고 인자 그놈 지고 농 지고 그래가꼬 둘:씩 둘:씩 인잔 징꾸니 두:리 인자 지고 와요. 농 한짝씩 지고 혼차서 한 항 커리를 다 몬: 징개. {또 '웃겔림'이라고 이제 또 윗웃 세 벌씩 세 벌씩 하고 이제 그것 지고 농 지고 그래가지고 둘씩 둘씩 이제 장꾼이 둘이 이제 지고 와요. 농 한짝씩 지고 혼자서 한 한 채('커리'는 '채'의 뜻)를 다 못 지니까.}

10207 @ 음. {음.}

10207 # 거 따 인자 짐 그놈 지고 여:코 인잔 갈라서 여:코 그래가꼬 오므 오든 거스글 인자 우리는 그냥 도:느로 주데요. 양서깅쓸. {거기에다 이제 짐 그것 지고 넣고 이제 갈라서 넣고 그래가지고 오면 오던 거시기를 이제 우리는 그냥 돈으로 주데요. 양식값을.}

10207 # 인자 상구 저네 엄:는 지비는 쌀:로 주고. {이제 사뭇('상구'는 '사뭇'의 방언형) 전에 없는 집은 쌀로 주고.}

10207 @ 음음. {음음.}

10207 # 근디 우리 집은 우리 농사가 망:코 그렇게 도:늘 얼마가 완능구 인자 모르제 나:는 인자. 인자 도:늘 이로 주고. {그런데 우리집은 우리 농사가 많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가 왔는지 이제 모르지, 나는 이제. 이제 돈으로 주고.}

10207 @ 낭간 이쪽 시테게서 도:늘. {그러니까 이제 시택에서 돈을.}

10207 # 예. {예.}

10207 @ 그럼니까? {그럼니까?}

10207 # 예. {예.}

10207 @ 그거 가지고 머 하라고?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

10207 # 인작 인작 머 장만혈 인자 그럼 우겔리만 허면 인자 우리 지비서 인잔 소:곤 거 튕 거. {이제 이제 뭐 장만할 이제 그러면 '웃겔림'만 하면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속웃 같은 것.}

10207 @ 음. {음.}

10207 # 신 그렇 겔 점:부 인자 우리 지비서 사거등. 그렇겔 사::고 인자 그러라고 인자 주

는디 인잔 우리잔 또 우리지비서는 인자 우 그 씨대게 인자 또 절꺼속 현다 절깁씨라고 인자 뜯 자그나부지차 자그너무니들 그리 또 오슬 해 가꼬 오고. {신 그런 것을 전부 이제 우리집에서 사거든. 그런 걸 사고 이제 그러라고 이제 주는데, 이제 우리집 또 우리집에서는 이제 우 그 시댁에 이제 또 절 거시기한다 절값이라고 이제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들 그리 또 옷을 해 가지고 오고.}

10207 @ 음 절깁씨랑 거슨. {음, 절값이란 것은}

10207 # 지그른 도:노로 안 주능가요? {지금은 돈으로 주잖아요?}

10207 # 절 바드른 예식장에서 절 바드른 도:니 궁께 그그 인자 그 갑씨지 인자 온 해다 주능 거는 저네는. 저네는 오슬 해:다 쥘:넌 지그른 인자 도:노로 안 주능가요. {절 받으면 예식장에서 잘 받으면 돈이 그러니까 그그 이제 그 값이지 이제 옷 해다 주는 것은 전에는. 전에는 옷을 해다 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으로 주잖아요?}

10207 @ 그든 오슬 해:다 준다는 마른 자그너머니가 오슬 해,해서 주셔따고요? {그러면 옷을 해다 준다는 말은 작은어머니가 옷을 해 해서 주셨다고요?}

10207 # 이 인자 우리 시시 친정에서 자:나부지드른 두루막 허고. {아, 이제 우리 시시 친정에서 작은아버지들은 두루마기 하고.}

10207 @ 아아아. {아아아.}

10207 # 자:너머니드른 저고리허고 {작은어머니들은 저고리 하고} @ 인사 온 인사오슬 {예단 예단을} # 인사오슬 그리 해 가꼬. 시방은 점:부 도:노로 안 주능가요 절 바드른. {예단을 그리 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돈으로 주잖아요. 절 받으면.} @ 예예예 그러치요. {예예예. 그렇지요.} # 그러니까 절깁씨라 인자 온 해:다주능. {그러니까 절값이라 이제 옷 해다 주는.}

10207 @ 응응. {응응.}

10207 # 그래가꼬 인자 시지비라고 가:매 타고 인자 또 나를 바다가꼬 계론나를 바다가꼬 실량은 가:매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이라고 가마 타고 이제 또 날을 받아가지고 결혼 날을 받아가지고 신량은 가마 타고.}

10207 @ 음. {음.}

10207 # 인제 또 상:각 아부지는 상:각 딸:코. {이제 또 위요('상각'은 '상객'또는 '위요'의 방언형) 아버지는 위요 따르고}

10207 @ 음. {음.}

10207 # 또 친구들 우인들하고. {또 친구들 우인들하고.}

10207 @ 음. {음.}

10207 # 우인드리 인자 함: 지고 또 따라와 하고. {우인들이 이제 함 지고 또 따라와서 하고.}

10207 @ 음. {음.}

10207 # 그래 인제 음음 이인 먼 예:를 지내지요. {그래 이제 음 음 뭐 예를 지내지요.}

10207 @ 예 예:를? {예, 예를?}

10207 # 예: 지내고 인자 날라게 해서 인자 하리뺨 자고 오는 사람. {예 지내고 이제 빨리 ('날라게'은 '빨리'의 뜻) 해서 이제 하룻밤 자고 오는 사람,}

10207 @ 으흠. {으흠.}

10207 # 또 이틀뺨 자고 오는 사람. {또 이틀 밤 자고 오는 사람.}

10207 @ 음. {음.}

10207 # 나를 바드문. {날을 받으면.}

10207 @ 시글 인제 심부지베서 하자나요? {식을 이제 신부집에서 하잖아요?}

10207 # 예. {예.}

10207 @ 식 하고 하루뺨 자고. {식 하고 하룻밤 자고.}

10207 # 인자인. {이제}

10207 @ 하루나 이틀뺨 자고 오고. {하루나 이틀 밤 자고 오고.}

10207 # 인자 실랑이 인자 장:개 와서 하리 시:여 오는 사람. {이제 신랑이 이제 장가와서 하루 쉬어 오는 사람,}

10207 @ 으흠. {으흠.}

10207 # 된:날 인자 날라게 해썬요. 된:날 바로 오는 사람. {뒷날 이제 빨리 했어요. 뒷날 바로 오는 사람.}

10207 @ 음. {음.}

10207 # 음 인자 된:날 올 싸라든 인자 오늘 연방 한저리 또 치닌허고 한저리는 또 떡 허고 한쪼가리는 떠그 지그든 방애씨리 이제마넌 그때는 방애썰도 업:꼬. {음, 이제 뒷날 올 사람은 이제 오늘 계속 한쪽에서('저리'는 '자리'의 뜻이며 여기에서는 '쪽'의 뜻) 또 사람 접대하고('친인'은 '사람들을 접대하다'의 뜻으로 추정됨) 한 쪽은('쪼가리'는 '쪽'의 뜻) 또 떡 하고 한 쪽은 떡, 지금은 방앗간이('방앗실'은 '방앗간'의 방언형) 있지마는 그때는 방앗간도 없고.}

10207 @ 음. {음.}

10207 # 동구리 국썩 그렇 거 다 인자 친지 친정아서 사 가꼬. {동고리 ** 그런 것 다 이제 친지 친정에서 사가지고,}

10207 @ 음. {음.}

10207 # 동구리에다가 또 찰떡 항 거 메:떡 항 거. {동고리에다가 또 찰떡 힌 것 메떡 한 것.}

10207 # 연방 치닌 허고 나머 인자 또 동:네싸람들 한저네 인자 그 가리를 뽀서가야데요. 안쪼게는. {계속 대접하고 나면 이제 또 동네 사람들 ??? 그 가루를 뽀아야 돼요, 안쪼에서는.}

10207 @ 음. {음.}

10207 # 일인 그래고 또 하,하리뽀 자는 나른 인자 시:는 날 이틀뽀 자는 나른 인자 시:는 날 인자 허고 그러허든 인잔 또 시:는 나른 인자 아척뽀 해 노든 친척들 먼 지바네 머: 오빠들 먼: 동생들 머이 해 가꼬. {이이 그리고 또 하 하룻밤 자는 날은 이제 쉬는 날 이틀 밤 자는 날은 이제 쉬는 날 이제 하고 그리하면 이제, 또 쉬는 날은 이제 아침밥 해 놓으면 친척들 뭐 집안의 뭐 오빠들 뭐 동생들 뭐 해가지고.}

10210 # 실랑 심부 또 바블 한 상에 노코 또 떼 미기고 서로 떼 미이라 자바서 시,시기고. 해우, 해우싸를 싸가꼬 또 거따가 꼬막 껍떼기 머 계기 빼따우 그렇 걸 여: 가꼬 실랑을 무그라 (웃음) 싸 여:주고. {신랑 신부 또 밥을 한 상에 놓고 또 떼어 먹이고 서로 떼어 먹여라 잡아서 시 시키고. 김('해우'는 '해의'로서 '김'을 가리킨다) 김을 싸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고막 껍질 뭐 고기 빼('빼따우'는 '뽀따귀'의 뜻)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신랑을 먹으라 (웃음) 싸서 넣어 주고.}

10210 @ 아 왜 놀릴려고 그렇가요? {아, 왜 놀리려고 그러나요?}

10210 # 아 인자 거:: 인자 암 무거든 인자 또 인자 꺼꾸루 다라 메: 노코 인자 뽀드리고.

{아, 이제 그 이제 안 먹으면 이제 또 이제 거꾸로 매달아('달아매다'는 '매달다'의 뜻) 놓고 이제 두들기고.}

10210 @# (웃음)

10210 # 그런 세상을 살다가 인자 금. {그런 세상을 살다가 이제.}

10210 @ 그 인제. {그 이제}

10210 # 지그른 조:은 세상 아잉가요? {지금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10210 @ 실랑은 그러케 다라 어 이러케 다루능 거슨 어:디나 다 이찌요. 거니까 머. {신랑은 그렇게 매달아 이렇게 다루는 것은 어디나 다 있지요. 그러니까 뭐.}

10210 # 아 실랑 다라 매능 거는 인자 천날 저녁 그르케 해도 그러 인자 널: 갈꺼 거툼 천날 저녁 다라매고. {아, 신랑 매다는 것은 이제 첫날 저녁 그렇게 해도 그러 이제 내일 갈 것 같으면 첫날 저녁 매달고.}

10210 @ 음. {음.}

10207 # 그라너문 재:인꺼름 오면 사흘마네 또 재:인꺼르를 가요. {그렇지 않으면 '장인걸음' 오면 사흘만에 또 '장인걸음' 가요.}

10207 @ 재:인꺼르미 뭐예요? {'장인걸음'이 뭐예요?}

10207 # 사흘마네 또 인자 처가찌비 인자 또 인사허러 가요. {사흘만에 또 이제 처갓집에 이제 또 인사하러 가요.}

10207 @ 사흘마네 시택 지브로 가따가 다시 또 처,처가에 가요? {사흘만에 시택으로 갔다가 다시 또 처 처가에 가요?}

10207 # 아문 인자 시 오늘 시집 요지브로 또 시집 와쓰른, 하리 시: 가꼬 사흘마네 또뜯. {아무럼('아문'은 '아무럼'의 방언형). 이제 시 오늘 시집 이 집으로 또 시집왔으면, 하루 쉬 어가지고 사흘만에 또.}

10207 @ 또. {또}

10207 # 또 처가찌비 인자. {또 처갓집에 이제}

10207 @ 어그는 지비 가까우니까 열룽 가따 올 쭈 인는데 먼: 데는 그러케 안테자나요? {여기는 집이 가까우니까 열른 갔다 올 수 있는데 먼 곳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10207 # 인자 어쩔능고 모르지요 인자 우리드른 인자. 궁께 저네는 보:통 개죽헌 디로 마:니 안 와능가요? {이제 어땠는지 모르지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보통 가까운('개죽헌다'는 '가깝다'의 뜻) 데로 많이 오잖아요?}

10207 @ 음. {음.}

10207 # 서르 이 동네 저넨 똥네 중시내비가 땡김스로 중시늘 양쪼그로 해 가꼬. {서로 이 동네 저 동네 중신아비가 다니면서 중신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10207 @ 음. {음.}

10207 # 인자 선:도 बे기고 인자 그러장께 개죽헌 디로 저네는 마:니 해찌요. {이제 선도 보이고('베기다'는 '보이다'의 방언형) 이제 그러려니까 가까운 데로 전에는 많이 했지요.}

10207 @ 아 그 사연마. {아 그 사연만}

10207 # 지그믄 머 외:국써도 오고 머 서울써도 오고 그래찌마는. {지금은 뭐 외국에서도 오고 뭐 서울에서도 오고 그랬지마는.}

10207 @ (웃음)

10207 # 저네는 서르 이 동네 저 동네 서룩 그래가꼬 마:니 해찌요. {전에는 서로 이 동네 저 동네 서로 그래가지고 많이 했지요.}

10207 @ 음 거 처가에도 사흘마네 함 번 가서 또 인사 드리고. {음, 그 처가에도 사흘만에 한 번 가서 또 인사 드리고}

10207 # 예. {예.}

10207 @ 예. {예.}

10207 # 무슨 노무 떠근 하:수편상 떡 썩 눈:는 떡썩썩근 이:고 땡기고 사흘마네 오믄 인자 또또 떡 해가꼬 또 줘요. {무슨 놈의 떡은 항상('하수편상'은 '항상'의 뜻) 떡속 넣는(?) 떡바구니는 이고 다니고 사흘만에 오면 이제 또 또 떡 해가지고 또 줘요.}

10207 @ 아, 엔:나레는 헐 껴시 업썩께 따로 그냥 떠기 제일 저기. {아, 옛날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따로 그냥 떡이 제일 저기.}

10207 # 떠기 제:리라. 사흘마네 오믄 또 그냥 모뻘낸다오 또 그 떠글 해:서 또 또 이: 보내고. {떡이 제일이야. 사흘만에 오면 또 그냥 못 보낸다고 또 그 떡을 해서 또 또 이어 보내고.}

10207 # 떡또 잘 헌디 배 고폰 세상이 데:농께 그냥 저네는 떡또 그리. {떡도 잘 하는데, 배고픈 세상이 돼 놓으니까 그냥 전에는 떡도 그렇게.}

10207 @ 그러지요.(웃음) {그렇지요.(웃음_)}

10207 # 마:니 해찌예. {많이 했지요.}

10207 @ 귀항 거시지요. {귀한 것이지요.}

10207 # 예 시방 머 해나도 떡 묵또 아너고. {예, 지금 뭐 해 봐도 떡 먹지도 않고.}

10207 @ (웃음)

10207 # 망:구에 조:은 세상 아이요. {만고에 좋은 세상 아니요?}

10208 @ 그러케 그런 그런 데 엔:날 그 혼인식 때는 어떤 음식뜨를 주로 준비하등가요? 떡 말고 그바께 장만항 거뜨리? {그렇게 그런 그런 곳 옛날 그 혼인식 때는 어떤 음식들을 주로 준비하던가요? 떡 말고 그밖에 장만한 것들이?}

10208 # 전: 부치고 데:지 잡꼬 머 내:나 그렇 거이지요 뭐. {전 부치고 돼지 잡고 뭐 내나 그런 것이지요 뭐.}

10208 @ 음. {음.}

10208 # 유개허고. {유과 하고('유개'는 '유과'의 방언형).}

10208 @ 유개허고. {유과 하고.}

10208 # 인제 지그믄 까:자가 인제 저네는 유:과. {이제 지금은 과자가 이제 전에는 유과.}

10208 @ 음. {음.}

10208 # 유개를 해 가꼬 붕:: 예. {유과를 해가지고 붕 예.}

10209 # 겔혼식 날:자버 노먼 메:칠 저네부터 술 해 여코 그냥 그 머스 머이라니 저네 술 치로 땡기는 사람들 아이고. {결혼식 날 잡아 놓으면 며칠 전부터 술 해 넣고 그냥 그 뭐 뭐냐 전에 술 단속하러('치다'는 '단속하다'의 뜻)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10209 # 저네는 살링게 찌권도 나무해 노먼 살링게 찌귀니 와서 야:다이고. {전에는 산림 계 직원도 나무해 놓으면 산림계 직원이 와서 야단이고.}

10209 @ (기침) 아 세무서에서 와서. {아, 세무서에서 와서.}

10209 # 세무서에서 또 술 치로 땡기고 {세무서에서 또 술 단속하러 다니고.}

10209 @ 음. {음.}

10209 # 수리 막 북작북작 끈능 거시 저:: 세무서에서(웃음) 널 모레 인자 결혼할 때 이자 걸러 가꼬 무글 쭈를 큰:: 도가지에다가 인자 지반 만:헌 사람든 큰:: 도가지에다 막 싸를 여나무 되씩 꼬두바블 찌서 수를 해 여: 노코 북작북작 끄르믄 세:무서 찌귀니 오면 그냥 거:짐말로 금뚜주를 치고 애:기 나 나:따고. {술이 막 보글보글('북작북작'은 '보글보글' 꺾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끓는 것이 저 세무서에서 (웃음) 내일 모레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걸러 가지고 먹을 술을 큰 독에다가 이제 집안 넓은 사람들은 큰 독에다 막 쌀을 여남은 되씩 고 두밥을 찌서 술을 해 넣어 놓고 보글보글 끓으면 세무서 직원이 오면 그냥 거짓말로 금줄을 치고 아기 낳 낳았다고.}

10209 @ (웃음)

10209 # 부:정 인는다고 몬: 뜨로게. {부정 탄다고 못 들어오게.}

10209 @ 어. {어.}

10209 # 금뚜주를 연방 치고 야다니 노면 그거또 난:중에는 소양도 엄씨 치로 드로고 별: 그블 물:고 막 그래쎄요. 쟈. {금줄을('금뚜줄'은 '금줄'의 뜻) 계속 치고 야단을 하면 그것도 나중에는 소용도 없이 단속하러 들어오고 별금을 물고 막 그랬어요, 저.}

1.1.4 결혼 생활

10211 @ 영(웃음) 그래쎄요. 그 다메 겨로늘 헤 가지고 그럼 인자 신혼 살리믄 어,어:디에서 이러케 그냥 한,한데서 사라쎄니까? {영, 그랬지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신혼 살림은 어 어디에서 이렇게 그냥 한 한 곳에서 살았습니까?}

10211 # 저네는 인자 큰메느리는 큰지베 한테 어:른들허고 살:고 자근메느린 인자 저:그물 내: 노코 그래쎄요. {전에는 이제 큰며느리는 큰집에 한테 어른들하고 살고, 작은며느리는 이제 분가를('저금'은 '분가'의 뜻) 내어 놓고 그랬지요.}

10211 @ 음 그 큰메느리세요? {음, 그 큰며느리세요?}

10211 # 예. {예.}

10212 @ 아 큰며느리니까 그러믄 한테서 사쎄네. {아, 큰며느리니까 그러면 한테서 사쎄네?}

10212 # 아이 따로 사라썬요 그렇께. {아이,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10212 @ 음 아, 한:참 이따가 나중에 따로 사라썬요. {음, 아, 한참 있다가 나중에 따로 살았지요.}

10212 #(한숨)구년 녀:팔마네. {구 년 녀 달만에.}

10212 @ 아 가치 산 지 구년 녀:팔마네. {아, 같이 산 지 구 년 녀 달만에.}

10212 # 꼭:: 살:라고. {꼭 살려고.}

10212 @ 음. {음.}

10212 # 멍청이 시늬를 허고 그리 박대를 해:도 그냥 우리 친정어머니가 뽕따구마 나마도 거그 사라야 억지 썬야 된다고. {멍청이 시늬를 하고 그렇게 박대를 해도 그냥 우리 친정어머니가 뽕만('뽕따구'는 '뽕따귀'의 뜻) 남아도 거기 살아야 억지 썬야 된다고.}

10212 @ 음. {음.}

10212 # 또 우리 오빠는 남자는 구니네 가서 중능 거이고. {또 우리 오빠는 남자는 군인에 가서 죽는 것이고,}

10212 @ 음. {음.}

10212 # 여자는 그 사립관 드러가무 그 자리에서 뽕따구가 나마도 그 지비서 사능 거인디 나오기만 나오면 우리 지비는 발 못 뽕꺼잉께 몬 나오라제 암:: 디도 가본 디는 업:쥬. {여자는 그 사립문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뽕가 남아도 그 집에서 사는 것인데 나오기만 나오면 우리 집에는 발 못 뽕 것인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아무 데도 가본 곳은 업:지.}

10212 @ 갈 떼가 업:네. {갈 곳이 업:네.}

10212 # 갈 떠가 업:서 그냥 주그나 사나 살:고 올 업니 평상 친정 어머니는 뽕따우만 나마도 사라라. 뽕따우만 나마도 사라라. {갈 곳이 업어 그냥 죽으나 사나 살고, 우리 어머니 평생 친정어머니는 뽕만 남아도 살아라, 뽕만 남아도 살아라.}

10212 @ 음. {음.}

10212 # 그래가 그냥 멍청이 시늬으로 상:께 궁께 날:보고 멍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멍청이 시늬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멍체이라고.}

10212 @ 음. {음.}

10212 # 동네 싸람도 멍체이라고 그러고 나를. {동네 사람도 멍청이라고 그러고 나를.}

10212 # 지바네서도 점:부 멍체이라고 그냥 멍청::허이 밤만 무꼬 패:면 마꼬. {집안에서도 전부 멍청이라고 그냥 멍청하게 밥만 먹고 패면 맞고.}

10212 @ (웃음)

10212 # 그냥 그르코 사라썌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10212 @ 예. {예.}

10212 # 그래가 인자 구년 녀:딸마네 인잔 구년 살:고는 인자 하도 몬 쌀거태서 나:가 인자 눈치도 생기고 인자 께도 쪼감 나:고 그래서 실랑을 보고 인자 애기 두 개 세 개로 나:노코. 나 어:디 인자 그러자 인자인자 우리 여 너메 똥네 나허고 가치 시지본 사립 도망을 간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 년 녀 딸만에 이제 구 년 살고는 이제 하도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눈치도 생기고 이제 께도 조금 나고 그래서 신랑보고 이제 아이 둘 셋 낳아 놓고, 나 어디 이제 그러자 이제 이제 우리 이 너머 동네 나하고 같이 시집온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10212 @ 음. {음.}

10212 # 진:주여게 가뜨라네요. {진주역에 갔더라네요.}

10212 @ 아. {아.}

10212 # 진:주여게 가가꼬 이썌개로 누가 (웃음) 할메가 하나 와서 날: 따라 갈라냐 그래 따라 간당개 주그 딸레 지비 식땅허는 디다 마:를 해 주르떠다네요. {진주역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웃음) 할멈이 하나 와서 날 따라 가겠느냐고 그래서 따라간단니까 자기 딸네 집에 식당하는 데다 말을 해 주더라네요.}

10212 @ 아. {아.}

10212 # 그래 따라 간는다 성:거가 끝나 가꼬 아 성:거 때가 데야 가꼬 성:거 험다고 가치 항께 머 할메 하나허고 두:리 인는다 식땅에 거그 두:리 인는다 그 할메가 성:거허러 간다 가는다 일씨를 모니거뜨라네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선거가 끝나가지고 아 선거 때가 되어가지고 선거한다고 같이 하니까, 뭐 할멈 하나하고 둘이 있는데 식당에 거기 둘이 있는데 그 할멈이 선거하러 간다 가는데 하루도 못 있겠더라네요.}

10212 # 그래서 또 쫓 도로 와 뿌리가꼬 그 인잔 운 그 우리 칭구가 인자 가치 시지블 와 농께 그 칭구가 나도 몬 쌀거따고 그렇게로 사:능 거는 망:구에 배 부르케 무꼬 살: 진는다 그 할메가 무다니 메치른 이썌는다 그 할메가 칠 거 성:거허러 간다고 가뿌렁개로 일씨로

그 막 애기드리 보고 자와 몬 니껴뜨라고. {그래서 또 도로 와 버리고, 그 이제 그 우리 친구가 이제 같이 시집을 와 놓으니까 그 친구가 나도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사는 것은 만고에 배부르게 먹고 살겠는데 그 할멈이 괜히 며칠은 있었는데 그 할멈이 그 선거하러 간다고 가 버리니까 하루도 그 막 아이들이 보고 싶어 못 있게더라고.}

10212 # 그 지비도 애기를 두: 개로 나: 노코 간는다. {그 집도 아이를 둘 낳아 놓고 갔는데,}

10212 @ 음. {음.}

10212 # 일씨로 모니꺼 해:서 그냥 와따고 그리완. {하루도 못 있겠어서 그냥 왔다고 그래서 왔.}

10212 @ 음. {음.}

10212 # 그래 그리 이야글 해 주글 나도 가볼라고. (웃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길(래) 나도 가 보려고. (웃음)}

10212 @ (웃음)

10212 # 나도 가 볼라고 인자 우리 지비 인자 올 아 큰 오빠가 나올 제는 마:를 허고 나와야지 멀:리 나오면 우리 살림 모 쟁개 그래 아:라고 저네는 멀:리 도망을 가면 막 장:개 드리도라고 처가찌비 올라 가고 날:리가 나고 그래썬요. 저네는. {나도 가 보려고 이제, 우리 집 이제 우리 아 큰오빠가 나올 적에는 말을 하고 나와야지 멀리 나오면 우리 살림 못 사니까 그리 알라고. 전에는 멀리 도망을 가면 막 장가 들어 달라고 처가에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전에는.}

1021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12 # 그래놓개 우리 살림 모 쟁다고 그러글 지서에 가서 말:허고 그로라는 뽀느로 지서에 나:가 그럴제는 순경이 무수마서 어리 기:는디 어찌 지서를 가꺼잉가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살림 못 산다고 그러길래, 지서에 가서 말하고 그러라는 *** 지서에 내가 그럴 적에는 순경이 무서워서 ** 기는데 어찌 지서를 갈 것인가요?}

10212 # @ (웃음)

10212 # 그래서 인자 스 실랑이라고 보고 인자 나:가 주거도 몬 살 거통개. {그래서 이제 신랑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못 살 것 같으니까,}

10212 # @ 예. {예.}

10212 # 나 갈란다. 당신도 날: 배르 배 차아서 두드라 패고 씨어메는 씨어메대로 그르고 씨아제드른 씨아제들대로 날: 명체이라 허고 나 몬: 쌀 거통께 나 가꺼잉께 가서 싱모 사라가꼬 도:는 보내 줄 꺼잉께 우리 애기들 하꼬는 당신돈 글 몬 빼와가꼬 그렇께 나:도 우리 애기들 개출 거잉께 난 어디 가서 어디 정:해가 살:기는 안 허꺼잉겐 싱모 사라가 돈: 보내 줄 꺼잉께 그러라 허드만. {나 가겠다고. 당신도 날 배를 배 차서 두드려 패고 시어머니는('시어메'는 '시어머니'의 방언형) 시어머니대로 그러고 시동생들은 시동생대로 날 명칭이라고 하고, 나 못 살 것 같으니까 나 갈 테니 가서 식모 살아가지고 돈은 보내 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는 당신도 글 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테니까 난 어디 가서 어디 정해가지고 살지는 안 할 테니까 식모 살아가지고 돈 보내 줄 테니까, 그러라 하더구먼.}

10212 # 실랑이 땡김서 방을 어디 가꼬. {신랑이 다니면서 방을 얻어가지고.}

10212 @ (웃음)

10212 # 내라치메 지물 실:로 오꺼인디 나는 그 그렇 중도 모리고 저녁께 싹:: 요령 거를 싹 싹:라데요. {내일 아침에 짐을 실러 올 것인데 나는 그 그런 줄도 모르고 저녁에 싹 이런 것을 싹 싹:라데요.}

10212 # 싹라 싹 거더가 싹라 그러글렌 싹 노코 나는 우리 지비는 이렇 거 안 가 가꺼이라 그렇께 수를 향:: 치해드룩 무꼬 와가꼬는 만땅고 무꼬 와서 걸 싹 싹라글레 나 이거 싹 노키는 싹 나도 우리 지비는 나는 안 가 가꺼이다 나:가. 나:는 움만 가 가제 안 가가꺼이라 그래들만. {싹라 싹 건너가지고 싹라 그러길래, 싹 놓고 나는 우리집에는 이런 것 안 가지고 갈거야 그러니까 술을 아주 취하도록 먹고 와가지고는 만취하도록('만땅고'는 '만(滿)tank'의 일본식 발음) 먹고 와서 그걸 싹 싹라길래, 나 이것 싹 놓키는 싹 봐도 우리집에는 나는 안 가 가겠다 내가. 나는 움만 가지 안 갈거야 그랬더니만,}

10212 # 수를 얼마나 무거뜯지 복잡해놓께 고 얼마나 무거뜯지 쎄:가 안 도라가데요.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복잡해 놓으니까 그 얼마나 먹었던지 허가 안 돌아가데요.}

10212 @ 음. {음.}

10212 # 그래서 그냥 싹 노코 인자 싹라 싹서 인자 해:나 때리카 시퍼서 싹라 싹아서 인자 싹 노코 인자 술찌메 누: 자부루글레 나도 인자 따라 자찌요이~. {그래서 그냥 싹 놓고 이제 싹라 싹서 이제 행여나 때릴까 싶어서 싹라 싹서 이제 싹 놓고 이제 술김에 누워 줄기에('자불다'는 '졸다'의 방언형) 나도 이제 따라 잤지요.}

10212 # 글 따라서 인잔 애기들 인자 큼 방에 인잔 자고. {그 따라서 이제 아이들 이제 큰 방에 이제 자고,}

10212 @ 음. {음.}

10212 # 나 나한테 인자 점 뭉능 건 항 개 허고 자근 모이마하고 인자 가이나 저저 장애
자 됴 가이네 저건허고 인자 데꼬 인자 자:쥬. 그 뉘:날 아치메 자고 일라서 막:: 사올 떠런
디 아치메 보리 방애 쥬: 가꼬 밥 밥 허는디 여 너메 동네 남자고 여자고 그냥 느르러니 그
냥 우리 시라뽕으로 그냥 쥬::허니 막 나라비로 서서 드로와요. {나 나한테 이제 쥬 먹는 것
하나하고 작은 사내애하고('모이마'는'사내애'의 방언형) 이제 계집애('가이나'는 '계집애'의
방언형) 저 저 장애자 된 계집애 저것하고 이제 데리고 이제 왔지. 그 뉘:날 아침에 자고 일
어나서 막 사월인데 아침에 보리방아 쥬어가지고 밥 밥 하는데 이 너메 동네 남자고 여자고
그냥 줄지어서('느르러니'는 '줄지어'의 뜻) 그냥 우리 ???으로 그냥 쥬하고 막 줄지어('나라
비'는 '줄지어'의 일본말) 서서 들어와요.}

10212 @ 음. {음.}

10212 # 그랜 먼 니랑고 해:뜨마느 그 싸: 농 그걸 인자 막 동:네 싸람들 점:부 드러가서
드러내:데요. {그래 무슨 일이고 했더니마는 그 싸 놓은 그걸 이제 막 동네 사람들 전부 들
어가서 들어내데요.}

10212 # 그리 드러냉:께 우리 씨어메란 사라른 농 착 어퍼노코 아들 온 쥬:: 빼뜨라 뿌루
고 안 주데요. {그리 들어내니까 우리 시어메란 사람은 농 착 얹어 놓고 아들 옷 쥬 빼앗아
버리고 안 주데요.}

10212 @ 나간다고? 미와서? {나간다고? 미워서?}

10212 # 부모 마다 나간다고. {부모 마다하고 나간다고.}

10212 # 아이고 머. 다 헐라먼, 이야글 다 헐라먼 머. {아이고 뉘. 다 하려면, 이야기를 다
하려면 뉘.}

10212 @ 씨아, 시아버지는 그럼 뉘 암 말씀도 안 하션나요? 그럼. {시아, 시아버지는 그럼
뉘 아무 말씀도 안 하셧나요? 그럼?}

10212 # 씨아부지는 영: 조아요. {시아부지는 아주 좋아요.}

10212 @ 영 조은데 어쥬 이러케 고생. {아주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

10212 # 네 고부라 그런다. 이거이 고부다. 고봉께 쥬감만 더 살:면 괜차느꺼이다. 만:날
드:레 날보고 가,가자고. {네 고비라('고부'는 '고비'의 뜻) 그런다. 이것이 고비다. 고비이니
까 조금만 더 살면 괜찮을 것이다. 만날 들에 나보고 가, 가자고.}

10212 @ 음. {음.}

10212 # 그래가 드:레 가면 나를 만:날 흘가요. {그래가지고 들에 가면 나를 만날 흘려요('}

홀기다'는 '홀리다'의 방언형).}

10212 @ 음. {음.}

10212 # 씨아바이는. 인자 그만 합씨다. 그렇 거는. {시아버지는. 이제 그만 합시다. 그런 것은.}

10212 @ 예.(웃음) {예.}

10212 # 다 헐라든 뭐 연소끄글 하나 꺾미도 나:가 뭐. {다 하려면 뭐 연속극을 하나 꾸며도 내가 뭐.}

10212 @ 예. {예.}

10212 # 묻 모따허 꺼이고. {못, 다 못 할 것이고.}

10212 @ 예. {예.}

10212 # 그렇 거이 다 채게 나가든 또 꼴부꼬. {그런 것이 다 책에 나가면 또 꼴불견이고.}

10213 @ 예 아이 예기 가져쓸 때 머 어려워뎌 이리나 기어게 남:는 이리 이썬요? 예기 예이, 아이들 가져쓸 때. {예, 아기 아기 가졌을 때 뭐 어려웠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아기 아기, 아기들 가졌을 때.}

10213 # 뭐 에이 그리 사:는 세상에 뭐 뭐 애:기 선다고 어찌고 뭐 허도 몬 허고 바블 몬 무거썬요 인자. {뭐, 에이 그렇게 사는 세상에 뭐 뭐 아기 선다고 어찌고 뭐 하지도 못하고 밥을 못 먹었지요, 이제.}

10213 @ 예 입더시 심해서? {예, 입덧이 심해서?}

10213 # 예. {예.}

10213 @ 음. {음.}

10213 # 양:거또 몸 무꼬 배:를 짜고 인는디 만::날 게우고 뭇 몬 무꼬 누니 캥::캄해 가꼬 난:장애는 인자 배 짜다가 인자 아야어 막 몬 견저이 늑: 드러누워 뿌리썬요. {아무 것도 못 먹고 배를 짜고 있는데 만날 게우고 뭇 못 먹고 눈이 캄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배 짜다가 이제 아야 막 못 견디고 늑 드러누워 버렸어요.}

10213 @ 음. {음.}

10213 # 그래선 존: 니레 나르 우리 지비나 좀 보내 도라고 우리 지비나 날: 좀 보내 도라고. {그래서 좋은 일에 나를 우리 집애나 좀 보내 달라고 우리 집애나 날 좀 보내 달라고.}

10213 @ 음 친정 찌배. {음, 친정 집애.}

10213 # 예. {예.}

10213 # 아 그래놓께 인잔 실랑이란 사라미 인자 중매한테다 이야글 헨:능가 인자 인자 묵 또 묻 허고 만:날 게우기만 게우고 데자 뭐 그냥 거러가다도 턱 자빠져 부루고 꺼꾸라져 뿌리고 궁개 인자 보내 주데요. {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신랑이란 사람이 이제 중매장이한테다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이제 먹지도 못하고 만날 게우기만 게우고 과연 뭐 그냥 걸아가다가도 턱 넘어져 버리고 거꾸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내 주데요.}

10213 @ 예.

10213 # 보내 줘:서 인자 우리 지비 강::개 우리 어메 인자 장:사 허든 거시기 이쌍개 뭇 막 인능 건 엄:능 건 가꼬 와서 해 주고 모린 밍태도 탕::탕 두드려 가꼬 막 미여꼭또 끼레 주고. {보내 줘서 이제 우리집에 가니까 우리 엄마('어메'는 '엄마'의 방언형) 이제 장사하던 거시기 있으니까 뭇 막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와서 해 주고 마른 명태도 탕탕 두드려가지고 막 미역국도 끓여 주고.}

10213 @ 아. {아.}

10213 # 또 무꼬 잔 음식또 머 중 무꼬 자면 죽 해 주고 밤 무꼬 머 밤 무꼬 잠 밥 해 주고 그러고 우리:: 크놀케가 나 네: 살 무거서 와따네요. {또 먹고 싶은 음식도 뭐 죽 먹고 싶으면 죽 해 주고 밥 먹고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해 주고 그러고, 우리 큰 올케가 나 네 살 먹어서 왔다네요.}

10213 @ 아하. {아하.}

10213 # 근디 인자 우리 어머니란 사람든 인자 올 아버지 일:만 알:고 밤만 양:개 올 어무니가 인자 살리물 인자 두: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란 사람은 이제 우리 아버지 일만 알고 발만 아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살림을 이제 두량을 해요.}

10213 # 올 어무니 인자 머 도:니 엄:쓰른 비즐 내:로 가도 우러무니가 가고 장을 보러 가도 우러무니가 가고 그렇 그렇게 먼 아들레를 구니네 가고 저렁 건 먼 수발하능 거또 올 어무니가 땡임서 허고 그렇게 올 아버지는 일:만 알:고 밤만 알:고 궁개 지비 암부터 이썬요. 살림 인자 검바께 돌:고 글른 올 올케가 어메메니로 나를 거:쳐늘 해요. 올 올, 올케도 설:리 커따네요. 부모가 예리서 주거 뿌루고. {우리 어머니 이제 뭐 돈이 없으면 빚을 내러 가도 우리 어머니가 가고 장을 보러 가도 우리 어머니가 가고 그러 그러니까, 뭐 아들네를 군인에 가고 저런 것 뭐 수발하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는 일만 알고 발만 알고 그러니까 집에 안 붙어 있어요. 살림 이제 금박에 돌고 그러면 우리 올케가 엄마처럼 나를 돌봐 줘요. 우리 우리 올케도 서럽게 컸다네요. 부모가 어려서 죽어 버리고.}

10213 @ 음. {음.}

10213 # 그래 사람 마:는 디 시지블 가고 잡따 해서 우리 지비로 와따고. 아 우리 씨 씨아재들 데꼬 장난도 치고 씨아재들도 성수가 아이고 어, 어메는 방,박, 바까트로 동:깨로.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시집을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집으로 왔다고. 아, 우리 시 시동생들 데리고 장난도 치고 시동생들도 형수가 아이고 어 엄마는 방 밖 밖으로 도니까.}

10213 @ 음. {음.}

10213 # 성수를 부모거치 생각하고. {형수를 부모같이 생각하고.}

10213 @ 음

10213 # 엔 인자 나:를 애기 인자 당시니 농: 거멩이로 팽상 저네는 업:꼬 땡기고 그래따네요. 네: 살 무꼬 그럴 쩌에는. 그라고 우리 올케가 그리 부모멩이로 평생 바로 부모로 사마썰요. {이제 나를 아기 이제 당신이 낳은 것처럼('멩이로'는 '처럼'의 뜻) 평생 전에는 업고 다니고 그랬다네요. 네 살 먹고 그럴 적에는. 그리고 우리 올케가 그렇게 부모처럼 평생 바로 부모를 삼았어요.}

10213 @ 음. {음.}

10213 # 아 글글 올케가 그래가꼬 웅께로 뭇:몸 무꼬 그래 몰라가꼬 웅께로 오:만 걸 다해 주고. {아, 글 글 올케가 그래가지고 오니까 뭇 못 먹고 그래 말라가지고 오니까 오만 것을 다 해 주고.}

10213 # 이 얘기를 나아가꼬 가도 그냥 우리 올케한테다 내:비리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칭구들허고 놀:로 땡기고 그래요. {이 얘기를 낳아가지고 가도 그냥 우리 올케한테다 내버리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칭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10213 @# (웃음)

10213 @ 음. {음.}

10213 # 하::룬네 언:데로 땡김서 놀:다가 가라고. {하룻내 어느 곳으로 다니면서 놀다가 가라고.}

10213 @ 음. {음.}

10213 # 올 올케가. {우리 올케가.}

10213 @ 음. {음.}

10213 # 아 올케가 저지 마나 가꼬 인자 난:중에는 인자 꼬터리에는 인자 우리 크나들허고 우리 올케 인자 망내이 아들허고 가치 나썬요. 한 동가비라예. {이 올케가 젓이 많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끝에는 이제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올케 이제 막내아들하고 같이 낳았어요. 한 동갑이에요.}

10213 @ 음. {음.}

10213 # 나:농개 저지 마나 가꼬. {낳아 놓으니까 젓이 많아가지고.}

10213 @ 그 저줄 머꼬. {그 젓을 먹고.}

10213 # 그냥 전 미기서 텔꼬 이꼬 나는 놀로 땡기고 그래썬요. 친정에 가면. {그냥 젓 먹여서 데리고 있고 나는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친정에 가면.}

10213 @ (웃음) 올케가 조으신 부니네. {(웃음) 올케가 좋으신 분이네.}

10213 # 예. {예.}

10213 @ 음. {음.}

10213 # 그래 오, 오래 몬 살고 거열 고만 중가네 그냥 주거 부리고. {그래 오 오래 못 살고 그 그만 중간에 그냥 죽어 버리고.}

10213 @ 아. {아.}

10213 # 똑 부모 주궁 거멩이로. {꼭 부모 죽은 것처럼.}

10213 @ 음. {음.}

10213 # 그래요. 시방도 생각하문 우리 올케가 그리 불쌍해 주커데요. {그래요.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올케가 그렇게 불쌍해 죽겠데요.}

10214 @ 예 예:기들 키우고 **** 무슨 베기리나 돌 잔치 가통 거또 막 세:고 그러서썬니까? {예, 아이들 키우고 **** 무슨 백일이나 돌잔치 같은 것도 막 쇠고 그러셨습니까?}

10214 # 머 잔치 허도 안 해썬요. {뭘 잔치 하지도 않았어요.}

10214 @ 음 별 거 안하고요이~. 음 산:후 에 나:코 조리는 그러므는 주로 친정에서 하선
네요. {음, 별 것 안 하고. 음 산후에 나중에 조리는 그러면은 주로 친정에서 하셨네요.}

10214 # 아니요. 애나 애기들 그, 곧 친정어 가도 애기들 해나 거그서 노으면 여 씨어머니
가 먼 트꺼리 잡는다고. {아니오. 행여나 아이들 그 그 친정에 가도 아기들 행여나 거기서
낳으면 시어머니가 무슨 트집이나('트꺼리'는 '트집'의 뜻) 잡는다고.}

10214 @ 아. {아.}

10214 # 우로빠가 절때 누구집 까 노으라고 몬 노게 해. {우리 오빠가 절대 너희집 가 낳
으라고 못 낳게 해.}

10214 @ 아. {아.}

10214 # 거 여그서 나:찌요. {그 여기서 낳았지요.}

10214 @ 예. 그러믄 머 산후에 먼 시어머니한테 별로 데접또 몬 바드셔쨌네. {예, 그러면
뭐 산후에 뭐 시어머니한테 별로 대접도 못 받으셨겠네요.}

10214 # 올 저녁 똑 세: 개는 바드로 나쨌요. {올 저녁 꼭 셋은 밤으로 낳았어요.}

10214 @ 예. {예.}

10214 # 바드로 나가 오늘찌녀게 노으면 인자 널 하리 인젠 누: 씨믄 된:날 아치메도 오늘
나아 노크면 인자 된날 아치메 인자 하리 밥 어더 무음 된날 아침 밥 어더 무으면 하리 놓:
꼬 인자 사흘마네 썸: 피운다 그래꺼등뇨, 저네는. {밤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낳으면 이제
내일 하루 이제 누워 있으면 뒷날 아침에도 오늘 낳아 놓으면 이제 뒷날 아침에 이제 하루
밥 얻어 먹으면 뒷날 아침 밥 얻어 먹으면 하루 눕고 이제 사흘만에 '썸 피운다' 그랬거든
요, 전에는.}

10214 @ 썸: 피운다? {썸 피운다?}

10214 # 예. {예.}

10214 # 썸: 피운다 그럼스롱 인자 그 애기 그 미역 항 가닥허고 썸:허고 저:리 채리 노커
등뇨, 애기를 노으면 저네는. {'썸 피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 그 미역 한 가닥하고 썸
하고 저쪽에 차려 놓거든요, 애기를 낳으면 전에는.}

10214 @ 예. {예.}

10214 # 애기를 움모게다가 인잔 썸 한되나 허고 인자 인자 그 인자 봉 마, 북 빠드라고

그른::다고 마:른 인절 그래쉴 쌀 줌 허고 인자 미역 항 가닥허고 요리 물 떠 가꼬 상에다
저:리 나: 노코 나:먼 인자 사혈마네 인자 인자 오,어찌녀아 나:썩께 오늘 하리 이따가 내라
치메 인자 {아기를 윗목에다 이제 쌀 한되나 하고 이제 이제 그 이제 복 복 받으라고 그런
다고 말은 이제 그랬어, 쌀 줌 하고 이제 미역 한 가닥하고 이리 물 떠가지고 상에다 저쪽
에 놔 놓고 나면 이제 사흘만에 이제 이제 엿저녁에 낳았으니까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
침에 이제,}

10214 # 그걸 그거 그거 미역 그놈 가꼬 쌀허고 가꼬 나와가꼬 그놈 가 밥 해 가꼬 그 상
에다 채리 노래요. {그것 그것 그것 미역 그놈 쌀하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놈 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 상에다 차려 놓으래요.}

10214 @ 음. {음.}

10214 # 그러면 사혈마네 글든 나와서 밥 채리 노문 머 글 어찌 드러가꺼잉가요? {그러면
사흘만에 그러면 나와서 밥 차려 놓으면 뭐 그 어찌 들어갈 것인가요?}

10214 @ 그래서 이를 시작하능 거예요 인제?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214 # 아 일 시작허지요. {아, 일 시작하지요.}

10214 @ 음. {음.}

10214 # 물 여다 밥또 해 무꼬 그애가 인자 사혈 사혈 너머 가고 낭:깨로 그 세도 오짐
마:니 안 누능가요이? {물 여다가 밥도 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 사흘 넘어가지고 낳
으니까 그 사이에도 오줌 많이 누잖아요?}

10214 @ 예. {예.}

10214 # 한 함 번 누문 한 동우라요. {한 한 번 누으면 한 동이예요('동우'는 '동이'의 방
언형).}

10214 @ 예예. {예. 예.}

10214 # 한 동우제. {한 동이지.}

10214 # 또 테:지 그 테:지막 아페다 또 구더글 요리 파 나 가꼬는 그따가 그 또 오짐 그
논는디 내:로든 테:지도 그 꾸정물만 몽는디 머 오짐 마:니 누지요이. {또 돼지 그 돼지우리
앞에다 또 구덩이를('구덕'은 '구덩이'의 뜻) 이렇게 파 놔가지고는 거기다가 그 또 오줌 그
놓는 데 내려오면 돼지도 그 꾸정물만 먹는데 뭐 오줌 많이 누지요.}

10214 @ 예예. {예. 예.}

10214 # 하리 데:지 오짐 한, 한 동우 뜯 시꾸가 마:능깨 사:람 오짐 한 동우. {하루 돼지 오줌 한 한 동이, 또 식구가 많으니까 사람 오줌 한 동이.}

10214 # 뜯 세 오짐 그거 싸: 노문 세 오짐 한 동우. {또 소 오줌 그것 싸 놓으면 소 오줌 한 동이.}

10214 # 요 이 건:네 요 요거이 우리 큰 집 바친디 인젠 나:가 인잔 나와 뿌, 상:깨 그서한디 인자 시방 씨아재가 데꼴 씨어메를 데꼬 이쌍깨로 인자 씨, 씨아재가 시방 해 뭉는디 요 요 아페 요 감:나무 받 저 저거이 인자 씨어메 바친디 아침마둥 저건 여내야 되요. {이 이 건너 이 이것이 우리 큰집 밭인데, 이제 내가 이제 나와 사니까 뭐한테 이제 지금 시동생이 데리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있으니까 이제 시동생이 지금 해 먹는데, 이 이 앞에 이 감나무 밭 저것이 이제 시어머니 밭인데 아침마다 저것 여내야 돼요.}

10214 @ 아. {아.}

10214 # 예. 세 오짐 함 본, 데:지 오짐 함 본, 사라모짐 함 본. {예. 소 오줌 한 번, 돼지 오줌 한 번, 사람 오줌 한 번.}

10214 # 그거 여내 노코느 또 나면 또 애:기 머 똥 싸고 오짐 싼 뜯 빨래 씨꺼야제. {그것 이어서 내어 놓고는 또 나면 또 아기 똥 싸고 오줌 싼 또 빨래 씻어야지('씨끄다'는 '씻다'의 방언형).}

10214 # 그러장깨 인제 또 어른 빨래도 뜯 씨꺼야되고 응께. {그러려니까 이제 또 어른 빨래도 또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10214 # 애기 그 배:서 그리 이:를 그리 나락 흘제, 애:기 배: 가꼬 모 승구제 나락 흘제, {아기 그 배어서 그렇게 일을 그렇게 버 타작하지 아기 배어가지고 모 심지 버 타작하지,}

10214 @ 음. {음.}

10214 # 논 매:제, 점:부 다 그렇 걸 다 애기 배: 가꼬도 형깨로. {논 매지, 전부 다 그런 것 다 아기 배어가지고도 하니까.}

10214 # 애기를 나: 노면 날라가꺼맹이라요. 모미 개벼와서. {아기를 낳아 놓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서.}

10214 @ (웃음)

10214 # 궁께 머 애기야 머 울:면 머 내:나 드러가서 저 주는 거이제 머. 암:디 아픈 디도 읍seyo. {그러니까 뭐 아기야 뭐 울면 뭐 내나 들어가서 젖 주는 것이지 뭐, 아무 곳 아픈 곳도 없어요.}

10214 @ 음. {음.}

10214 # 근디 일 저무나 사나 이:를 해:도 머. {그런데 일 젊으나 마나 일을 해도 뭐.}

10214 @ 건강하셔서 그래요. {건강하셔서 그래요.}

10214 # 그리고 시:상을 사라쥬요. 시방 싸람들 뭐 조리허니 뭐 어찌니 해도 조리허꺼이 어디가 이쥬요? {그렇게 세상을 살았지요. 지금 사람들 뭐 조리하느니 뭐 어찌니 해도 조리 할 것이 어디 있어요?}

10216 @ 예. 자 자식 키우면서 제일 기어게 남는 일 하나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는데 자식들 가운데서 머 그 따, 따, 따님 그 장애가 인는 따니메 우리 마으메 늘 걸리셔쥬쥬요 이. {예, 자 자식 키우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는데 자식들 가운데서 뭐 그 따 따 따님 그 장애가 있는 따님에 우리 마음에 늘 걸리쥬쥬어쇼.}

10216 # 그걸남세 저금나쥬요이~. {그것 때문에 분가했지요.}

10216 @ 아 그래쥬요? 그 딸 떼무네 또. {아, 그랬어요? 그 딸 때문에 또?}

10216 # 아드른 머이마만 두: 개 나: 농깨로 조아서 우리 씨아바이는 수리 마::니 잡쥬요. {아들은 사내아이만 둘 낳아 놓으니까 좋아서 우리 시아버지는 술을 많이 잡쥬요.}

10216 @ 아. {아.}

10216 # 정때 여: 해거름판 되문 아적뺨 잡쥬꼬 나가::시문 해 너머갈 때 되문 인잔 지비 인자 인자 모도 가튼 이랭드리 모도 인자 제경 쥬블 차자강께 혼차 그 주마게 몬니꼬 {점심 때 이 해거름판 되면 아침밥 잡수고 나가시면 해 넘어갈 때 되면 이제 집에 이제 이제 모두 같은 일행들이 모두 이제 제각기 집을 찾아가니까 혼자 그 주막에 못 있고,}

10216 @ 음. {음.}

10216 # 가:치 나오면 온:: 동네를 땡임서롱 아글 쥬요. {같이 나오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악을 쥬요.}

10216 @ (웃음)

10216 # 아글 쥬. {악을 쥬.}

10216 @ 술 잡쥬면. {술 잡수면.}

10216 # 예. 온:: 동네를 땡임서 아글 쥬문 우리 지븐 손지 그 건. {예, 온 동네를 다니면

서 악을 쓰면 우리 집은 손주 그것}

10216 @ 으흥. {으흠.}

10216 # 우리 애기가 그리 예뻐데요 저네. 예뻐 가꼬 요래 가꼬 자꼬 아글 씨고 땡기른 애기가 곧 너러치꺼멩이라요. 고노문 하나씨가 깍:: 요래 자꼬 요래가 땡이먼 (웃음)시방도 동네 아그, 할메드리 숭을 봐. {우리 아기가 그리 예쁘데요 전에. 예뻐가지고 이래가지고 잡고 악을 쓰고 다니면 아기가 곧 떨어질('너러치다'는 '떨어지다'의 뜻) 것 같아요. 그놈의 할아버지가 꼭 이렇게 잡고 이래가지고 다니면 지금도 동네 아이, 할머니들이 흠을 봐.}

10216 # 아버지 애기 날 주씨요 그러면 봐:라 봐:라 그런다고 (웃음) 그래가 땡임서 아글 씨고 그냥:: 동:네가 어그너그니 아글 씨고 야:다니고 글드만, 가이네 그거는 나: 농깨로 가이네 나:따 체리도 안 봐요. {"아버지 애기 날 주세요" 그러면 "봐라, 봐라." 그런다고. (웃음)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악을 쓰고 그냥 동네가 떠들썩하게('어긋너근이'는 '떠들썩하게'의 뜻) 악을 쓰고 야단이고 그러더니만 계집애 그것은 낱아 놓으니까 계집애 낱았다고 쳐다도 안 봐요.}

10216 @ 아하. (웃음) {아하.}

10216 # 체리도 안 보고 나는 나무 땡기고 나무허로 땡기고 인자 씨어무니는 인자 들게 땡기지요 인자이~. {쳐다도 안 보고 나는 나무 다니고 나무하러 다니고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들에 다니지요 이제.}

10216 @ 영. {영.}

10216 # 여르메는 삼빨갱, 삼동에는 멍: 잔능 거. 멍: 잔는 물레에 멍: 잔능 거 그거 허로 가면 애기를 말리에다가 내: 봐요. {여름에는 '삼빨갱', 겨울에는 무명 잣는 것. 무명 잣는 물레에 무명 잣는 것, 그것 하러 가면 애기를 마루에다가('말리'는 '마루'의 방언형) 내어 놓아요.}

10216 @ 음. {음.}

10216 # 근디 여여가 시방은 우리가 인자 요린 점부 무: 내농깨 그러지 여:가 점:부 대바치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리 전부 묵혀 놓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전부 대밭이에요.}

10216 @ 아하 그레꾸나. {아하, 그랬구나.}

10216 # 여 말리엔 저쪽 말리에 해도 안 드로와요. 대:: 처 가꼬 또 대 포라 무글라고. {이 마루에 저쪽 마루에 해도 안 들어와요. 대 처가지고 또 대 팔아 먹으려고.}

10216 @ 아. {아.}

10216 # 대 처서 풀면 돈 버틸라고 아 날 샌 중얼 몰라요. 저,저, 저네 시집 쌀 때. {대 처서 팔면 돈 벌려고 아 날 새는 줄을 몰라요. 저 저 전에 시집 살 때.}

10216 # 대바 쏘기 되야가꼬 캥::캄 해 가꼬 날 샌 중도 모르거꼬 그랜는디 그 대밭 소게다가 시:상에 애기를 그리 한: 디다가 오짐 찐다고 방에 냄:새 난:다고. {대밭 속이 되어가지고 캄캄해가지고 날 새는 줄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 대밭 속에다가 세상에 아이를 그렇게 한테다가 오줌 찐다고 방에 냄새 난다고,}

10216 @ 으흠. {으흠.}

10216 # 바가테다 내: 노코 멍 떨기 하로 가고 나는 나무허로 가고 그러고 나면 아:가 떨다가 떨다가 지지리 함 본 치고 떨다가 떨다가 지지리 함 본 치고. {밖에다 내어 놓고 목화('멍'은 여기서 '목화'의 뜻) 떨기 하러 가고 나는 나무하러 가고, 그러고 나면 아이가 떨다가 떨다가 진저리 한 번 치고 떨다가 떨다가 진저리('지지리'은 '진저리'의 방언형) 한 번 치고,}

10216 # 그러나 나무를 안 하무 또 날리가 나 꺼이고 그렇 걸 나:뛰고 나갈라문 나도 울고 제도 울고 그래가꼬 인자 가서 나무 해 가꼬 저::그 이십니나 되꺼이요. {그러나 나무를 안 하면 또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런 걸 놔두고 나가려면 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나무해가지고 그 이십리나 될 거요,}

10216 # 그런디서 나무 그걸 고개에다 해 가꼬 이고 오고 나면 캥:캄 어두부꼬 그래 다:서 싸를 무거도 근 서도 못 해썌요. {그런 곳에서 나무 그것을 고개에다 해가지고 이고 오고 나면 캄캄 어둡고('어두릅다'는 '어둡다'의 방언형), 그래서 다섯 살을 먹어도 그 서지도 못 했어요.}

10216 # 음. {음.}

10216 # 만::나리 그 궁텅이만 꼬꼬 땡이제 설 쭈를 몬 해썌. {만날 그 궁둥이만 끌고 다니지, 설 줄을 몰랐어.}

10216 @ 음. {음.}

10216 # 그래 인자 삼동에 그거이 썌,썌 소아마비가 와똥갑썌요. {그래 이제 겨울에 그것이 저 저 소아마비가 왔던가 봐요.}

10216 @ 음. {음.}

10216 # 어러 가꼬. 소아마비가 와서 인자 우리지비 양:바는 인자 장을, 장을 보고 인자 그

러다가 인자 무신 날로는 애기들도 키우고 그러장께 돈:도 마:니 들고 그러등께 유리빵을 하나 채리썬요, 저:: 멘 소지에다가. {얼어가지고, 소아마비가 와서 이제 우리집 양반은 이제 장을 장을 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싯날로는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려니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유리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저 먼 소재지에다.}

10216 # 유리빵을 하나 채리 난:는디 저 우리 친정 똥네 싸라미 장작 짱수를 여:수로 땡기 썬요. {우리 가게를 하나 차려 놓았는데 저 우리 친정 동네 사람이 장작 장사를 여수로 다 냈어요.}

10216 @ 음. {음.}

10216 # 장 나무를 함:: 배 실:코 여:수 가서 풀고 또 오고 그랜는디, 자 거따가 열라글 해 가꼬 여:수 유리빵에 가서 인자 그 인자 열뚜 무를 끼우 물 마:니 드는 날 장자글 함::배 실:코 가는디 금 그 실:코 감서롱 가는디 인자 따라감서 인자 짐때 인자 저::금 배가 절:고 그러면 인자 막 짐때 내릴 거석 짐때 그노를 인자 살:때 질러주고 그러그 견 헌:개로 자기도 조:코 운는 가선 거따가 인자 거울 거통 거 그러그 거 인저 실:코 웅께 조:코. {장 나무를 한 배 싣고 여수 가서 팔고 또 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여수 유리 가게에 가서 이제 그 이제 열두물을 ** 물 많이 드는 날 장작을 한 배 싣고 가는데, 지금 그 싣고 가면서 가는데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샷대('짐때'는 '샷대'의 뜻) 이제 저기 배가 절고 그러면 이제 막 샷대('샷대'는 '샷대'의 방언형) 내릴 뉘 샷대 그것을 이제 샷대 질러주고 그런 것 하나까는, 자기도 좋고 우리는 가서 거기다가 이제 거울 같은 것 그런 것 이제 싣고 오니까 좋고.}

10216 @ 음. {음.}

10216 # 차를 불러 가꼬 실코 오면 도:니 망:코 그러개 인자 거그 따라가서 지,짐때 저 살:때 질러주고 그러그 견 허고 인자 그 배에다 움서는 실:코 오고 근는디 아:가 풍:: 불 잉 그라근 이만저마니고 해 가꼬 숨도 몬 썬고 아:가 영:: 주께 데:썬 인자. 아파서 인자. {차를 불러가지고 싣고 오면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따라가서 샷대 저 샷대 질러주고 그런 것 하고 이제 그 배에다 오면서는 싣고 오고 그러는데, 아이가 불잉걸은('불잉그락'은 '불잉걸'의 방언형) 이만저마니고 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아이가 영 죽게 됐어 이제. 아파서 이제.}

10216 @ 여리 나따고요? {열이 났다고요?}

10216 # 예. {예.}

10216 # 그래 인자 저:그 장터 인자 약빵에 이사 그때는 진:니사라 그래썬요. {그래 이제 저기 장터 이제 약방에 의사 그때는 진의사라 그랬어요.}

10216 @ 음. {음.}

10216 # 그 약빵도 허고 이:사도 허고 그랜는디 거그 가서. {그 약방도 하고 의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10216 # 저녁게 인자 오, 저녁빤 무꼬 아::무래도 아놔서 인자 열 씨나 되:서 인자 물때꺼를 알고 할메가 서:메서 와논께 물때꺼를 알:고 인자 날보고 아:를 어부라 그러데요. {저녁에 이제 오, 저녁밥 먹고 아무래도 안 와서 이제 열시나 돼서 이제 물때를('물때꺼'는 '물때'의 뜻) 알고 할머니가 섬에서 와 놓으니까 물때를 알고 이제 나보고 아이를 업으라 그러데요.}

10216 # 아:를 어버라 그러글레 인자 업:꼬 인젠 나랑 두:리 인자 건 약빵아페가서 선는디 이 지를 실:코 오능 거이 되:논께 무리 다드러야 인자 다 든다거는 마:니 드러야 배가 올로 오꺼이랴요. {아이를 업으라 그러길래 이제 업고 이제 나랑 둘이 이제 거기 약방 앞에 가서 서 있는데, 이 짐을 싣고 오는 것이 돼 놓으니까 물이 다 들어야 이제 다 든다는 것은 많이 들어야 배가 올라올 거예요.}

10216 @ 아. {아.}

10216 # 이 꼬랑꺼지 올라오장께 무리 다드러서 오장께로 열 뛰시가 너머요. 그란 그 이야글 힐라면 참:: 가슴 아파요. {이 도랑까지('꼬랑'은 '도랑'의 뜻) 올라오려니 물이 다 들어서 오려니까 열두시가 넘어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참 가슴 아파요.}

10216 # 그래 인제 거 약빵아페 가서 인자 씨어메도 이꼬 나도 이꼬 인젠 떨:고 인잔 두:리서 인잔 애기는 업꼬 애기는 등거리가 뜨겁 쟁도로 불 염, 막 여,여리 올라 뿌리꼬. {그래 이제 그 약방 앞에 가서 이제 시어머니도 있고 나도 있고 이제 떨고, 이제 둘이서 이제 아이는 업고 아이는 등이 뜨거울 정도로 불 영 막 열 열이 올라 버리고,}

10216 @ 음. {음.}

10216 # 그래가 인는디 오데요. 그래 인자 그래 인자 가:게 아페 거그 그게 가게 무늘 열:고 가게::에서 인자 가:게가 바로 뵈기요, 이 약빵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오데요. 그래 이제 그래 이제 가게 앞에 거기 그게 가게 문을 열고 가게에서 이제 가게가 바로 보여요, 이 약방하고.}

10216 # 그랜 가:게 무늘 열:글라깁 인잔 그러고 이야글 몬 허게 해요. {그래 가게 문을 열려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게 해요.}

10216 # 서방 각씨 이야글 몬 허게 만나질 몬 허게 해요. {서방 각씨 이야기를 못 하게, 만나지를 못 하게 해요.}

10216 @ 아 씨,씨어머니가. {아, 시 시어머니가.}

10216 # 예. 그래 나는 가마::니 서쌍깨로 가드마는 아:가 아파가 와따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가더니마는 아이가 아파가지고 왔다 그래요.}

10216 # 인제 거그 인잔 근처야 상:께로 인자 그 지:니사도 이무릅찌요이~, 쪼깐. {이제 거기 이제 근처 사니까는 이제 그 진의사도 임의롭지요.}

10216 # 그래 인 따라 오라그러글래 저:: 안찌비 이떠마요. 그래 안찌비로 데꼬 감스롱 인자 약빵은 장가 나꼬 안찌브로 안집 시, 세림무늘 알:고 인자 그렇게 가드마는 두드리드만. {그래서 따라오라 그러길래 저 안집이 있더구먼요. 그래서 안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제 약방은 잠귀 놓고 안집으로 안집 사립문을 알고 그러니까 가더니마는 두드리더구먼.}

10216 # 밤중에 누가 그래 주꺼잉가요이~, 모:린 사람 거트먼. 그랜 인자 호:텐디 인자 나가 호태요 호태요 그렇게 뭘 니링가 그림시로 나오데요. 나오더마는, 애기가 아파서 나:가 물젠 허로 가따 와뜨마는 애기가 너무 마:니 아프네요. 그래 그렇게 좀 데꼬 드로라고 글드만. 인자 그때 인제 베니싱 베니싱 그 주사를 한 대 주데요. {밤중에 누가 그래 줄 것인가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이제 호텐데 이제 "내가 호태요 호태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나오데요. 나오더니마는 아이가 아파서 내가 물 하러 갔다가 왔더니마는 아이가 너무 많이 아프네요. 그래 그러니까 좀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러더구먼. 이제 그때 이제 페니실린 페니실린 그 주사를 한 대 주데요.}

10216 # 베니싱 그 주사를 한 대 주드마는 그거 인자 저냥 인자 마쳐가꼬 웅개 여:리 내링깨로 그이 아프면 자꾸 여러 날 병위느로 가야 허껀 아잉가요? {페니실린 그 주사를 한 대 주더니마는 그것 이제 그냥 이제 맞혀가지고 오니까 열이 내리니까 그것이 아프면 자꾸 여러 날 병원으로 가야 할 것 아닌가요?}

10216 @ 예. {예.}

10216 # 몽까게 해요. 그래가 방꾸서다 인자 처바가 놔:도 농개 저거이 그만 뇌가. {못 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방구석에다 이제 처박아 놔 놓으니까 저것이 그만 뇌가.}

10216 @ 쫘쫘. {쫘쫘.}

10216 # 모:지래고 그만 아:가 저릴. {모자라가지고 그만 아이가 저리.}

10216 @ 열 때무네 그래요. 여러 노픈 열 때무네 뇌가 상해요. {열 때문에 그래요. 열이 높은 열 때문에 뇌가 상해요.}

10216 # 그 어째똥가네 그래가꼬 그날 찌넉 베니싱 주사 한 대 마치고 우리 집따 데리다 놓 거이 저래가 저리 뺑:시니 되야 가꼬 다:쌀 목또로꺼지 거:또 못 해요. {그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페니실린 주사 한 대 맞히고 우리집에다 데려다 놓은 것이 저래가지고 저리 병신이 돼가지고 다섯 살 먹도록까지 걷지도 못해요.}

10216 # 그르능 글 천지서 인자 장사르 탕깅께 자네가 그리 말:고 데꼬 나오게. {그러는 걸 사방에 이제 장사를 다니니까 자네가 그리 말고 데리고 나오게.}

10216 # 그른 부모 미테서 사라봐:짜 벨 거석또 엄:네. 그 제:집또 그레 노치 마:고 데꼬 나오게.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 봤자 별 뭐도 없네. 그 제 집도 그레 놓지 말고 데리고 나오게.}

10216 # 그래싸:서 인자 데꼬 인잔 나도 모리게 궁께 방을 그리 어더 노코 어더 노코 데꼬 나와 가꼬 인자 자기가 버려 가꼬 인자 노를 동간들 쥔추고 인자 무꼬 살고 그려고 쪼끔씩 남:능 걸 저추글 형 거이 인자 저네는 그 머이나 치게또니라고. {그래 쌓아서 이제 데리고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방을 그리 얻어 놓고 얻어 놓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벌어가지고 이제 논을 동기간들 가르치고 이제 먹고 살고 그리고 조금씩 남는 걸 저축을 한 것이 이제 전에는 그 뭐냐 장체계라고('치겟돈'은 '장체계'의 방언형).}

10216 @ 네. {네.}

10216 # 안 이쨌능가요? {있었잖아요?}

10216 @ 예. {예.}

10216 # 그 인자 체계또늘 인자 노코 인자 그래가폰 인자 그걸 가꼬 노를 서: 마제기, 두: 마제기 까빠긴 안돼. 우리 씨자으나부지가 인자 여, 여 미테 또 여그 살:다가 저그 꺼:치로 인자 이사를 감성 그 노를 풀:고 갈라 항 *깨. {그 이제 장체계를 이제 놓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을 서 마지기, 두 마지기 값밖에 안 돼. 우리 시작은아버지가 이제 이 이 밑에 또 여기 살다가 저기 꺼치로('꺼치'는 지명) 이사를 가면서 그 논을 팔고 가려 하니까,}

10216 # 자그나부지 그, 그를 그리 말고 그 도를 나:를 주시요. 그리 노를 주시요. 도:니 모:지래서(울음) 함 마지는 그냥 서: 마지기를 자봄서롱 함 마지기는 도:니 모질항께 나:가 그냥 갈라무끼로 지:꼬 두: 마지기 값싼 나:가 도:느로 드리꺼잉께 밍녀네 나:가 도:니 되건 네요. {"작은아버지, 그 그를 그리 말고 그 논을 나를 주시요. 그리 논을 주시요. 돈이 모자라서 (울음) 한 마지기는 그냥 서 마지기를 잡으면서 한 마지기는 돈이 모자라니까 내가 그냥 병작을('갈라묵기'는 '병작'의 뜻) 짓고 두 마지기 값은 내가 돈으로 드릴 거니까 내년에 내가 돈이 되겠네요."}

10216 # 체계또늘 또 바꼬 그러면 밍녀네는 함 마지기값쓸 되건는디 그리 모, 이 노를 그리 몬 허문 이 노를 모 찹꼬 함 마지기 두마지기는 어디 살 떠도 업:꼬 그렇게 이 노를 나:를 주시요. 그러면 나 올해 함 마지기는 나 갈라무끼를 해 가꼬 쌀로 디리고 밍녀네 나:가 함 마지기값싼 자그나부지를 디리게요. 궁께 그러라 그러드라네요. {"장체계를 또 받고 그러면 내년에는 한 마지기 값이 되겠는데 그리 뭐 이 논을 그리 못하면 이 논을 못 잡고 한 마지기 두 마지기는 어디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논을 나를 주시요. 그러면 나 올해

한 마지기는 나 병작을 해가지고 쌀로 드리고 내년에 내가 한 마지기 값은 작은아버지를 드릴게요.”}

10216 # 그래 가꼬 나 시집 웅께 노를 서: 마지기 사 놔떼요. 그래 이~ 그 논 그 서: 마지기 그 노를 인자 가꼬 나간는디 가꼬 나가고 인자 근 제그를 나가꼬 너무 인자 저빵으로 나가꼬 저빵에서 또 나가래서 그렇 걸 데꼬 나가 가꼬 저:그 어디야 먼 논, 지비 풀고 간다는 지브 비줄 내 가꼬 그걸 사라 삼간 지블 참 빼다도 조:코 저 모까 마으래 산는디. {그래가지고 나 시집오니까 논을 서 마지기 사 났데요. 그래 이 그 논 그 서 마지기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갔는데, 가지고 나가고 이제 그 분가를('제금'은 '분가'의 뜻) 해가지고 남의 이제 셋방으로 나아가지고, 셋방에서 또 나가라고 해서 그런 것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기 어디야 무슨 논, 집이 팔고 간다는 집을 빚을 내가지고 그걸 살아 삼간 집을 참 빼대도 좋고 저 못 가 마을에 샀는데,}

10216 @ 어. {어.}

10216 # 피지 키를 너머 가요. 논도 다 때려 여:도 안 되거데요. 그 비지. {빛이 키를 넘어가요. 논도 다 때려 넣어도 안 되겠데요.}

10216 @ 음. {음.}

10216 # 그래서 인간 그냥 집 그노를 도로 내: 나:썩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 그것을 도로 내놔어요.}

10216 # 뉘 저빵이라도 그냥 혈란다게. 문자 저빵 쥐:편 집또 메느리허고 하비 안 되서 따로 사:는디 그 할메가 우리 아래채에 와서 사라라 그르데요. {누구 셋방이라도('셋방'은 '셋방'의 뜻) 그냥 하겠다고 해. 먼저 셋방 쫓던 집도 며느리하고 합이 안 돼서 따로 사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아래채에 와서 살아라 그르데요.}

10216 @ 음. {음.}

10216 # 그러자 인자 저,저 정지나무 문자 지지파 안 허등가요? {그러자 이제 저 저 정지나무(?) 먼저 지었다 하잖던가요?}

10216 # 그 다라미 저근 저 운녀그로 인자 시, 이새로 간다고 그 지비 나:딱 혼디 다:: 오, 오 계:들고 계:나는 지비 한 차 나서 그냥 너무 저빵 사느이 빈, 비지 쪼감 지나파나 인자 큰 비즌 인자 짐 문자 찌 인자 새론 잡, 사가꼬 간 지블 포라 가꼬 큰 비즌 갑꼬 에 자:근 비즌 쪼간만 해 가꼬 누:가 그냥 요 지블 사라 너무 저빵 가능 거뽏동 나:파. {그 사람이 저기 저 옷넉으로 이제 시 이사를 간다고 그 집이 났다고 하는데 다 오오 기어 들고 기어 나가는 집이 한 채 나서, 그냥 남의 셋방 사느니 빈 빛이 조금 지더라도('나파나'는 '-더라도'의 뜻) 이제 큰 빛은 이제 집 먼저 이제 새로 잡 사가지고 간 집을 팔아가지고 큰 빛은 갖고 에 작은 빛은 조금만 해가지고, 누가 그냥 이 집을 사라 남의 셋방 가는 것보다 났다.}

10216 # 그래서 인잔 그 지블 그럴찌 알무 인자 나 옥째피 가꼬 머이 머인 종도 모르 나:는 인잔 따라만 댕이는 거이라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그럴 줄 알면 이제 나 붙잡혀가지고('옥잡히다'는 '붙잡히다'의 뜻) 뭐가 뭘 줄도 모르고 나느 이제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10216 # 그래 인잔 서방이라고 인자 댕김서 그럴 걸 해 가꼬 그 지블 자버 가꼬 인자 게: 들고 게:나:나따나 노니 안 너머 강께 살:거떼요. 또 배가 고파 어찌 사꼬 시퍼서. {그래 이제 서방이라고 이제 다니면서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기어 들고 기어 나가더라도 논이 안 넘어 가니까 살겠데요. 또 배가 고파 어찌 살꼬 싶어서,}

10216 @ 음. {음.}

10216 # 가:쁜 그녀네 인잔 이사는 오기는 인자 오두막 찌비로 이노뎌 똥네로 오기는 완는 디 금녀네 농사 징: 걸 가꼬 점:분 매상을 하고 인잔 북떼기 인자 홀테로 그때 홀터 농깨 인자 가장가리 그럴 거 인자 북떼기가 인는디 그거 똥게로 한: 서미 곧 싹:: 인잔 나무치는 매상을 해 빠리고 인자 밭 까파 뿌리고 그 항 가마이를 한 서물 찌이가꼬 무꼬 낭깨롭 머얼매나 몽능가. {하여튼 그해에('그년'은 '그해'의 뜻) 이제 이사는 오기는 이제 오두막집으로 이놈의 동네로 오기는 왔는데, 금년에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전부 매상을 하고 이제 북떼기 이제 탈곡기로 그때 타작해 놓으니까 이제 '가장가리'(타작할 때 나오는 북떼기) 그런 것 이제 북떼기가 있는데 그것 뜨니까 한 섬이 곧 싹 이제 나머지는 매상을 해버리고 이제 밭 갈아버리고, 그 한 가마니를 한 섬을 쪼어가지고 먹고 나니까 뭐 얼마나 먹는지.}

10216 # 우리 친정 어무니가 장에 가면 올때 드로니라 그러면 또 아들 몰리 또 바께쓰 가꼬 오니라 그러면 바께쓰로 하나 가꼬 댕임서 주문 그 노를 이고 요 강: 건너서 이고 건너와 가꼬 또 해 무꼬. {우리 친정어머니가 장에 가면, "올 때 들어오너라" 그러면 또 아들 몰래 또 "양동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양동이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주면 그것을 이고 이강 건너서 이고 건너와가지고 또 해 먹고.}

10216 @ (웃음)

10216 # 참:: 우리 어메 아버지 나 골뎡드린네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골뎡 들었네요.}

10216 @ 예. {예.}

10216 # 그래 인자 오두막 거: 삼:성 인자 비지 인자 쪼깁:: 인자 참 키우는 안 거서그고 또 그래도 인자 오두마글 사라도 인자 비즌 비지라. {그래 이제 오두막 그 살면서 이제 빗이 이제 조금 이제 참 키우는 뭐 안 하고 또 그래도 이제 오두막을 살아도 이제 빗은 빗이라,}

10216 # 얼쭈 가:꼬 낭 요미테 요: 하라씨안데 여: 하라쓰가 하나, 하나 사라는디 하라씨가 서:딸 그름나리 똥께 우리 시라빠 호:태 어찌가 항상 어찌까 그래가 인잔 어제간 인자 또

그 비줄 가:꼬 나 장사 허등 거또 싹:: 포라 냉기 빠리고. {얼추 갇고 나 이 밑에 이 할아버지한테('하라씨'는 '할아버지'의 방언형), 이 할아버지가 하나 하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선 달 그름이 되니까 우리집 양반 호태 어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지 이제 또 그 빚을 갇고 나 장사하던 것도 싹 팔아 넘겨 버리고,}

10216 @ 음. {음.}

10216 # 인자 그러고 이따항께 장사허다 그러고 이따항께로 인자 상인드리 인자 돌봐줘요. {이제 그러고 있다 하니까 장사하다가 그러고 있다 하니까는 이제 상인들이 이제 돌봐줘요.}

10216 # 미:원 메 뽕다리 주고 비누 메 짱 주고 성냥 메 뽕 주고 그래가꼬 포라 가꼬 가프께. 풀:면 그날 그 나리 가:꼬 {미원 몇 봉지 주고 비누 몇 장 주고 성냥 몇 봉 주고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갇으니까. "팔면 그날 그 날에 갇고.}

10216 # 또 나무치기 남:능 거는 자네 또 먼 용, 개양푼 씨고 그러고 나, 장으로 나오게 그래서 인자 나가서 인자 장사를 허는디, 인잔 가이네 저걸 모도 다 저래 노치 말고 뽕워느로 줌 데꼬 가보게 그래싸서 그래서 인잔 논 저걸 가꼬 인자 그 오두막 찌비 그 아래찌비 인::자 대문찌비라고 이썬요. {또 나머지('나무치기'는 '나머지'의 방언형) 남는 것은 자네 또 뽕용(돈) 가용돈 쓰고 그러고 나 장으로 나오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계집애 저걸 모두 다 "저렇게 놓지 말고 병원으로 줌 데리고 가 보게" 그래 쌓아서 그래서 이제 논 저걸 가지고 이제 그 오두막 집이 그 아랫집이 이제 대문집이라고 있어요.}

10216 # 대문찌비 가서 인자 인자 우리 할무이허고 친척기라 아재라 그래요. {대문집에 가서 이제 이제 우리 할머니하고 친척이라 아저씨라 그래요.}

10216 # 아재아그 저그 논 여 늬 자꼬 나:가 저 가이네르 데꼬 뽕:워늘 줌 가봐야거쑈. 모도 다 뽕워늘 가른 나수꺼이라 썬는디 저걸 안 제 팽상 안잔는 거뽕동 해:나 거러나 모 모:씨나따나 거러나 뽕기른 오짐 뽕이나 안 개림, 개리른 안 살거쑈 그래가꼬. {아저씨 ** 저기 논 이것 잡고 내가 저 계집애를 데리고 병원을 줌 가 봐야겠소. 모두 다 병원을 가면 나을 거라 쌓는데 저걸 언 제 평생 앉아 있는 것보다 행여나 걸어나 못쓰나마나 걸어나 다니면 오줌 뽕이나 안 가리, 가리면 살잖겠소 그래가지고,}

10216 @ 음. {음.}

10216 # 그래서 인자 글 논 등끼르 가꼬 강께 등끼로 가꼬 강께 인잔 그러치마는 나가 자네 노늘 잡꺼능가 버른 대로 잡쑈. {그래서 이제 그 논 등기를 가지고 가니까 등기를 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렇지마는 내가 자네 논을 잡겠는가 버른 대로 잡쑈."}

10216 @ 아. {아.}

10216 # 그럼성 도:늘 주데요. {그러면서 돈을 주데요.}

10216 # 그애 여:수 애야워네 인자 드리댕기는 사라를 어찌 아라가꼬 인자 장사하러 댕깁개 인자 순천 싸람 머 어디 싸람 모이서 허능 거이 되:농깨 장사를 모이는 디가 되:농깨 순:천 인자 아저씨드리 인자 장, 가튼 장사허는 아저씨드리 여:수 애야워네 그리 잘 본다네. {그해 여수 애야원에 이제 들어다니는 사람을 어찌 알아가지고 이제 장사하러 다니니까 이제 순천 사람 뭐 어디 사람 모여서 하는 것이 돼 놓으니까 장사를 모이는 데가 돼 놓으니까 순천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장, 같은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여수 애야원에 그리 잘 본다네.}

10216 @ 음. {음.}

10216 # 거그 댕기는 아무거 씨를 차자 가소 금서 인자 그 인자 주소를 저거 줘:서 그 주소를 가꼬 인자 나하고 두:리 업:꼬 나는 자기가 얘기를 몬 너꺼똥개 인자 다서쌀 뭇는 걸 업:꼬 참 삼사워레 해는 질:고 그걸 업:꼬 그그 애야워네 드는 드나드는 인자 이사가 야글 주구 지비다 인자 좀 가따 논능갑때 인자 마리레쫘 인자. {거기 다니는 아무개 씨를 찾아가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주소를 적어 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나하고 둘이 업고, 나는 자기가 아이를 못 업겠으니까 이제 다섯 살 먹는 걸 업고 참 삼사월에 해는 길고 그걸 업고 그 그 애야원에 드는 드나드는 이제 의사가 약을 자기 집에다 이제 좀 가져다 놓나 보데. 이제 말일쫘 이제.}

10216 @ 아. {아.}

10216 # 인자 썩벼다 논는 거이지요이~. 가따 낱::능가 한재로 미기라 그러데요. {이제 훔쳐다('썩벼다'는 '훔치다'의 뜻) 놓는 것이지요. 가져다 났는지 한 재를 먹이라 그러데요.}

10216 @ 음. {음.}

10216 # 근디 그때 또느로 육쳐넌 마:니쳐너닌디 그때 또느로 돈 육쳐너늘 인자 가꼬 인자 간는디 야기 반:재깁빠끼는 안 되데요. {그런데 그때 돈으로 육천원 만이천원인데 그때 돈으로 돈 육천원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갔는데, 약이 반 재 값밖에는 안 되데요.}

10216 # 그래 도:니 요러타 그렇개로 한재르 미기씨몬 톱 씨건는디 할 쭈 음따고 금성 그냥 반:재라도 미기야 야:가 건는디 그러데요. {그래 돈이 이렇다 그러니까는 한 재를 먹였으면 꼭 좋겠는데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반 재라도 먹여야 아기가 걷는디 그러데요.}

10216 @ 음. {음.}

10216 # 아이 그걸 미기 농깨로 요론 디를 자꼬 서드란 마리오. {아이 그걸 먹여 놓으니까 이런 데를 잡고 서더란 말이오.}

10216 @ 아. {아.}

10216 # 베름빠글 잡고 서서 인자 자:꼬 세우라데요. 그래 인자 세우고 그러 인자 자:꼬 세우고 다리를 주물라 주고 그렇게 인자 자꼬 요리 인자 베름빠글 자꼬 선, 인저간나 서따 서따 험서 인자 조:탕개 제도 조와서 그냥 이:꼬 그래선 그러드마는 이제 거르른 건:는디. {벽을('베름빠'은 '벽'의 방언형) 잡고 서서 이제 자꾸 세우라데요. 그래 이제 세우고 그러 이제 자꾸 세우고 다리를 주물러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잡고 이리 이제 벽을 잡고 서 이제 ** 섰다섰다 하면서 이제 좋다 하니까 저도 좋아서 그냥 웃고('잇다'는 '웃다'의 방언형) 그래서 그러드마는 이제 걸음은 걷는데,}

10216 # 한 쪽 다리를 인잔 평::상 말리에다가 꼬:네 노른 여래 가꼬 뽏고 요래가꼬 인는 디 여그 요 건 말리에 이나 단: 디는 겐차나요. {한쪽 다리를 이제 평생 마루에다가 꺼내 놓으면 이래가지고 뽏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것 마루에 내나 닿는 데는 괜찮아요.}

10216 @ 음. {음.}

10216 # 연 통:: 요런 디는 바가테 요요 바람 썬 디는 똑:: 어러 도링 건뎡키라요. {이 통 이런 데는 밖에 이 이 바람 썬 데는 꼭 얼어서 도린 것 같아요.}

10216 # 어릉어릉어릉이 그 노른. 인자 예리서 인자 좀 거러댕기고 인자 여나, 여나무 살 무글 때 요린 여르멘 반 반중우 요렁 걸 이피서 내: 노먼 좀 싹싹 날:보고 씨끼라 그래요. 안 씨끼서 그러타고 사람드리. 흑바테 궁그러등 걸 더러 씨끼지 아:를 저래 논는다고 지비를 데리다 좀 씨끼 봐. {어릉어릉해('어릉어릉하다'는 '어릉어릉하다'의 뜻) 그것은. 이제 어려서 이제 좀 걸어다니고 이제 여나, 여남은 살 먹을 때 이러 여름에 반 반바지('반중우'는 '반바지'의 뜻) 이런 걸 입혀서 내 놓으면 좀 싹싹 나보고 씻겨라 그래요. 안 씻겨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흙 위에('흙밭'은 '흙으로 덮힌 땅 위'의 뜻) 굴렀던 걸 더러 씻기지 애를 저렇게 놓는다고. "댕들 데려다 좀 씻겨 봐."}

10216 # 그, 그 사를 똑떼기 디리다 봐. 그거이 뎡가 머잉가 그러믄. {"그 그 살을 똑똑히 들여다 봐. 그것이 때인지 뭐인지." 그러면.}

10216 # 잇젠, 인자 쿵개로 인자 근 제:가 오슬 감충개 저러치 통:: 어를오도롱 건메이라요, 사리. 땅에 이나 땅에 말리에 단:디는 겐차나요. {이제 이제 크니까 이제 그 제가 옷을 감추니까 저렇지 통 옷이 오른 것 같아요, 살이. 땅에 오히려 땅에 마루에 닿는 데는 괜찮아요.}

10216 #(한숨) 그라가꼬 또 오다가 소아파에 순:천 소아파에 들리 가꼬 또 약 쯤 타고 그래저래 인자 저건한테만 최:서늘 다 인자 해: 가꼬 완농개 인자 거러댕기리기는 인자 짝은 땅짜울땅 저리 다리 절:고 거러 뎡이는다 다름도 몬: 치고. {(한숨) 그라가지고 또 오다가 소아파에 순천 소아파에 들려가지고 또 약 쯤 타고 그래저래 이제 저것한테만 최선을 다 이제 해가지고 와 놓으니까 이제 걸어다니기는 이제 기우똥기우똥('짜우땅짜울땅'은 '기우똥기우똥'의 방언형) 저렇게 다리 절고 걸어 다니는데 달음박질도('다름'은 '달음질'의 방언형) 못치고.}

10216 # 뇌도 좀 시기면 허고 안 시기면 안 허고 그래요. {뇌도 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래요.}

10216 @ 아이고.(웃음) {아이고. (웃음)}

10216 # 그러 나 하:도 괴썸해 나 씨어메 나 차또 안허요. {그래 나 하도 꽤썸해서 나 시어머니 나 찾지도 않아요.}

10216 @ 그러시. {그러시(겠어요.)}

10216 # 가보도 안 허요. {가 보지도 안 하오.}

10216 @ 그러시진네요.(웃음) {그러시겠네요. (웃음)}

10216 # 그래가꼬 시방 구십 여서 쌀 무거. {그래가지고 지금 구십여섯 살 먹어.}

10216 @ 으응. {으응.}

10216 # 근는디 날:보고 머 그지께도 씨어메는 주, 씨어메 주글 때는 가야지 그러. 나:가 거그 딸:허러 가꺼이요. {그랬는데 나보고 뭐 그제도('그지께'는 '그제'의 방언형) 시어머니는 주, 시어머니 죽을 때는 가야지 그래. 내가 거기 뭐 하러 갈거요?}

10216 @ 아. {아.}

10216 # 이적찌 안 차즌 씨어메 인자 날: 씨어메 차즈꺼요. 나 양 가꺼이요. {여지껏('이적찌'는 '여지껏'의 방언형) 안 찾은 시어머니 이제와서 시어머니 찾을 것이요? 나 안 갈 것이요.}

10216 @ 음. {음.}

10216 # 거:서 동네 싸람드리 욱: 안허건능가? 너미 욱 험다고 나:가 사그, 그 요게 겹나서 나 거그 가꺼이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욱 안 하겠는가? 남이 욱한다고 내가 그 욱에 겹나서 나 거기 갈 것이요?}

10216 @ 음. {음.}

10216 # 양가 꺼이요 나. 하:., 하:다 몸씨리가 나서 나 양가요. {안 갈 것이요 나. 하, 하도 몸씨리가 나서 나 안 가요.}

10216 @ 음. 할무네 폐무네 손녀가 그러케 되야 부러꾸만. {음. 할머니 때문에 손녀가 그렇게 돼 버렸구먼.}

10216 # 예. {예.}

10216 @ 결국그니~. {결국은.}

10216 # 나 하나 지::형 거는 갠차나요. {나 하나 제한 것은 괜찮아요.}

10216 # 어찌그나 시방거치 딸세상에야고 딸세상에 요리는디 저거 하나를 뉘피 노코 저너기문 이 에미 업는 자식 두 개 뉘피 노코 저거 저리고 눈:능 거 채리보든 나:가 저너게 자를 몬 짜요. {어쨌거나 지금처럼 딸세상이라고 딸세상에 이러는데 저것 하나를 눅혀 놓고 저녁이면 이 어미 없는 자식 둘 눅혀 놓고 저것 저리고 누워 있는 것 쳐다보면('채리보다'는 '쳐다보다'의 뜻) 내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10216 @ 음. {음.}

10216 # 아봐요, 자미. 초저너게 한 심 자고 나쁜 잠 안 자요. {안 와요, 잠이. 초저녁에 한 숨 자고 나면 잠 안 와요.}

10216 @ 아이고. {아이고.}

10216 # (울음소리) 나 산: 세:상을 다:: 마:를 헐라문 참:: 비:극 연소끄글 한남 끼미도 모따 끼미꺼요, 나무 꺼요. {(울음소리) 내가 산 세상을 다 말을 하려면 참 비극 연속극을 한편 꾸며도 한 편 꾸며도 다 못 꾸밀 것이오. 남을 것이오.}

10218 @ 시어머니를 어떤 고야칸 시어머니를 보셔가꼬 그러케 되네요. {시어머니를 어떤 고약한 시어머니를 보셔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1.1.5 시집살이

10218 # 오직:: 나:가 오:직허면 나가 사:라므로 태:가 너무 지비 와 가꼬 너무 큰메느리로 안진 나:가 부모를 안 찬는 나:가 오직 허면 그러거쑈. {오죽('오직'은 '오죽'의 방언형) 내가 오죽하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남의 큰며느리로 앓은 내가 부모를 안 찾는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소?}

10218 @ 음. {음.}

10218 # 나도 부모 되꺼인디 나도 메느리한테 나도 씨어메라. 나도 너무 멘, 딸한테 씨어 무이요. {나도 부모 될 것인데 나도 며느리한테 나도 시어머니야. 나도 남의 딸한테 시어머니요.}

10218 @ 음. {음.}

10218 # 그런디 오직허면 나:가 씨어무이를 안 차껴쑈. {그런데 오죽하면 내가 시어머니를 안 찾겠소?}

10218 @ 에이고 참 어째서 그러케 말:도 못 허게 허카이~, {아이고 참 어째서 그렇게 말도 못하게 할까?}

10218 # 말:도 못 허능 거이 아이라 이 머리가 자기 먼 거서기랴요 그냥. {말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자기 뭐 뭐예요 그냥.}

10218 @ 아하 막 멀크탱이를 자꼬 그냥. {아하 막 머리끄덩이를('멀크탱이'는 '머리끄덩이'의 방언형) 잡고 그냥.}

10218 # 쟈깅만 멈 자기한테 마땅차눔 막 뜨더데요 그냥. {조금만 뭐 자기한테 마땅찮으면 막 뜯어대요 그냥.}

10218 @ 아하. {아하.}

10218 # 그래가꼬 씨아제들또 그 처럼는 거뜨를 뚜드 패라고 저, 저녀를 벌, 저녀니 제 사리 아파야 저녀니 마:를 드르꺼이라고 나:가 마:란든능 거이 머 이썸. 시기는 대로 허고 허는다. {그래가지고 시동생들도 그 철없는 것들을 두들겨 패라고 저 저 녀를 벌 저 녀이 제 살이 아파야 저 녀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내가 말 안 듣는 것이 뭐 있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데.}

10218 @ 하여튼 미워, 미와꾸만 하여튼 이유 업씨 미워서. {하여튼 미워, 미웠구먼 하여튼 이유없이 미워서.}

10218 # 예. {예.}

10218 @ 응. {응.}

10218 # 그러니 씨아제들또 그 어매가 그러명 나이 그래도 중하꼬 고등하꼬를 땡기썸. {그러니 시동생들도 그 어머니가 그러면 나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으면.}

10218 @ 알 텐테이~, {알 텐데.}

10218 # 그런 사:례를 아: 꺼인디 주:메가 패:란다고 패거쑈? {그런 사리를 알 것인데 저희 어머니가 패란다고 패겠소?}

10218 @ 쫌쫌 아이고 형수를. {쫌쫌, 아이고, 형수를.}

10218 # 태권도 선상을 저:그 어치가서 고등하꼬 조립허고 태권도를 배우고 어치서 선상을

해:씨요. {태권도 선생을 저기 어치('어치'는 지명)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어치에서 선생을 했어요.}

10218 @ 음. {음.}

10218 # 정제 언젠 우리지비 영:감 인자 장사가면 인자 어메야 새보그로 전:피주고 머:: 험다고 또 따라가요. 따라가고 아무도 엄:꼬 나 혼자 이썬요. {부엌('정제'는 '부엌'의 방언형) 언제 우리집 영감 이제 장사 가면 이제 시어미니야 새벽으로 전표 주고 뭐 한다고 또 따라가요. 따라가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요.}

10218 # 그러믄 무다니 지비 와따가 그냥 정지 빠당 안 주글 떠만 팽:개 꿈지길 떠도 몬:꿈디기고 한나잘::내 올:고 이따가. {그러면 괜히('무다니'는 '괜히'의 뜻) 집에 왔다가 그냥 부엌 바닥 안 죽을 데만 패니까 꿈적일 데도 못 꿈적이고 한나절('한나잘'은 '한나절'의 방언형) 내내 올고 있다가,}

10220 @ 글 그 시동생이 그냥 괴:니 그래요? {그 그 시동생이 그냥 괜히 그래요?}

10220 # 하무요. {아무렴요.}

10220 @ 참, 고 노미 이상하네. 허 지금 보니까 모시고 사는 시동생. {참 그놈이 이상하네. 하 지금 보니까 모시고 사는 시동생.}

10220 # 예. 그러가꼬 그 아들한테로 기어이~ 따라 가썬요. 그러고 나서 인자 요 집터를 지블 지:라테요. {예. 그러가지고 그 아들한테로 기어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터를 집을 지으라테요.}

10220 # (울음소리) 인자 장:개 가고 주구도 각씨들 데꼬 살:고 흥개 인저 좀 어쩡가 우리가 그 지비 공개 뒤:에서 이런 바우가 너머 와가꼐 지둥 나무를 하나 뚜드리 빼:논개 미리 뿌:논개로 지비 반:파가 된:논디 인자. {(울음소리) 이제 장가 가고 저희도 각씨들 데리고 살고 하니까 이제 좀 어쩡가, 우리가 그 집이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바위거 넘어와가지고 기둥 나무를 하나 때려 버려 놓으니까 밀어 버려 놓으니까 집이 반파가 됐는데 이제,}

10220 # 천지다 인자 터를 인자 지블 살:라고 비줄 또 지나파나 어디 빈: 지비 이썬면 하나 살:라고 천지에도 지비 업떼요, 그때는. 시방은 모도 내:비리고 주꼬 어찌고 해:논개 지비 이썬도. {천지에도 이제 터를 이제 집을 사려고 빚을 또 지더라도 어디 빈 집이 있으면 하나 사려고 천지에도 집이 없떼요, 그때는. 지금은 모두 내버리고 죽고 어찌고 해 놓으니까 집이 있어요.}

10220 @ 으으음. {으으음.}

10220 # 빈: 지비 업써서 (한숨) 지블 질라고 봉개 도:는 옹꼬. {빈집이 없어서 (한숨) 집

을 지으려고 보니까 돈은 없고.}

10220 # 그래서 인자 어디 오두마이나 또 또 어디 오두마이나 항 개 인능가야 아무리 차자도 엄:꼬 그랜는디 인자 주구 마:미 내:도능가 어째능가 인자 인자 생이라고 차자 땡기고 인자 그랜는디 도:늘 인자 망녕이 씨아제 그걸 그거 인자 참 돈 번:대로 주구를 다: 겠차, 그를 겠찬는다. {그래서 이제 어디 오두막이나 또 또 어디 오두막이나 하나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마음이 돌았는지 어쨌는지 이제 이제 형이라고 찾아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돈을 이제 막내('망녕이'는 '막내'의 방언형) 시동생 그걸 그거 이제 참 돈 버는 대로 저희를 다 가르쳐 글을 가르쳤는데,}

10220 # 주구도 요랑 이꺼찌이다이~. 그래가 도:늘 첨마나늘 빌리 주꺼잉개 이자 엄:씨 주꺼잉개 지블 지:라데요. {저희도 요랑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돈을 천만 원을 빌려 줄 것이니까 이자 없이 줄 것이니까 집을 지으라데요.}

10220 # 그래 여그따가 지:라 그래서 나 여 안 진는데씨요. 나가 그 세상을 또 가서 어찌 사 끼이요. 난 양 가꺼이요. {그래 여기다가 지으라 그래서 나 여 안 짓는댔어요. 내가 이 세상을 또 가서 어찌 살 것이요? 나 안 갈 것이요.}

10220 # 나 어그라지나파나 여그 살라요. 여그 살제 양 가꺼이요. 그래 또 저봐로 힘스롱 그따가 지블 지:라고 인자 글 안 허,허그 안 험다고 그래. 어찌 그 성지리 어디로 가고 안 허꺼이요. 나 안 허꺼이요 그렇게 난:중엔 주구가 테꼬 간다 그르데요. {나 허물어지나파나 ('어그라지다'는 '허물어지다'의 뜻) 여기 살겠소. 여기 살지 안 갈 것이요. 그래 또 전화를 하면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라고. 이제 안 그런다고 그래. 어찌 그 성질이 어디로 가고 안 할 것이요? 나 안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데리고 간다 그르데요.}

10220 # 그러드만 대:자 인자 그른다고 인자 주구감 인자 정 그러면 우리가 모:시고 가꺼잉개 여그 따 지블 지:라 그렇게는 우리 아들허고 영:감허고 기여이 여따 집:띠다. 그래서 여:와 사는디 여그 웅개 또 그래요. {그러더니 과연('대자'는 '과연'의 뜻) 이제 그런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 그러면 우리가 모시고 갈 것이니까 여기다 집을 지으라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하고 영감하고 기여이 여기다 짓습디다.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데 여기 오니까 또 그래요.}

10220 # 요짜게 삼:서롱 도로 그래요. {이쪽에 살면서 도로 그래요.}

10220 # 도로 그러고 하:수평상 집 뜨더내라고 바:작떼기르 작떼기르 가꼬 와서 이너나 집 뜯, 영:감 인자 그러자 여그 와가꼬 인자 한 사: 녀닝가 오: 녀닝가 살:다가 여그 집 찌 노코 주거씨요. {도로 그러고 계속 집 뜯어 내라고, 지겟작대기를('바작떼기'는 '지겟작대기'의 방언형) 작대기를 가지고 와서, 이년아 집 뜯, 영감 이제 그러자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 사년인지 오 년인지 살다가 여기 집 지어 놓고 죽었어요.}

10220 # 날마다 여그에다가 집 뜨더내라고 날:보 이너나 집 찌더내라니 어찌 사꺼이요?

{날마다 여기에다가 집 뜯어 내라고 나보고 이년아 집 뜯어 내라니 어찌 살 것이요?}

10220 # 인자 그레이 인:자 나:가 도매에 오능 계기요. 응? 나:가 인자 멀: 차무꺼이요? 그
래 인자 인잔 두:리 싸와 대:찌. {이제 그래 이제 내가 도매에 오른 고기요. 응? 내가 이제
뭘 참을 것이요? 그래 이제 이제 둘이 싸워 댔지.}

10220 @ 아. {아.}

10220 # 두:리 싸와 대:씨요, 인자. {둘이 싸워 댔어요 이제.}

10220 # 니 모 찰면 나 모 찰고 인자. 그래 인자 대:게 인자 그리 싸와댕:께 인자 아드리
데:꼬 가데. {네 못 살면 나 못 살고 이제. 그래 이제 되게 이제 그렇게 싸워 대니까 이제
아들이 데리고 가데.}

10220 # 아 그랜는디 나:가 그 찰, 부모라 차꺼쏘? 안 차자요. 그런 세상을 사라씨. 응.
{아, 그랬는데 내가 그 찰, 부모라 찾겠소? 안 찾아요. 그런 세상을 살았어. 응.}

10220 @ 음, 아조. {응, 아주.}

10220 # 궁께 그 이 딸 요거이 쉼::롬 모게 걸리서 나:가. {그러니까 그 이 딸 이것이 제일
목에 걸려서 내가.}

10220 @ 그러건네이~. 아느 켜차늘 쑈 이썸는데. {그러겠네요. 아 켜참을 수 있었는데.}

10220 # 예. {예.}

10220 @ 야글 제대로 모: 쓰고. {약을 제대로 못 쓰고.}

10220 # 딸만 너무 딸거치 잘 가 살:고 요로문 나 나:가 이해해요. 저네 세상이라 시집 사
는 세상이다 허고 나:가 살: 건는다. {딸만 남의 딸처럼 잘 가 살고 이러면 나 내가 이해해
요. 전에 세상이라 시집 사는 세상이다 하고 내가 살겠는데,}

10220 # 딸꺼정 저래눔 글 보문 나:가 문, 문 차꺼떼요. {딸까지 저렇게 해 놓은 걸 보면
내가 못 못 찾겠데요.}

10220 # 너미 천만 마:를 허고 만: 마:를 해:도 나 귀에 안 드려와요. {남이 천만 말을 하
고 만 말을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10220 @ 예 그러, 노미야 사:정을 알 거씨요? {예, 그러 남이야 사정을 알겠어요?}

10220 # 예. {예.}

10220 @ 마으믈. {마음을.}

10220 # 그래서 자식 키우거이 젤:로 그거이 자식 키움서로. {그래서 자식 키우는 것이 제일 그것이 자식 키우면서.}

10220 @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10220 #(울음소리)

10220 @ 그만하세요. 너무 그냥 감정에 복바치셔서. (웃음) {그만하세요. 너무 그냥 감정에 복받치셔서.}

10220 # 응 참말로 나:가. {응, 참말로 내가.}

10220 @ 예. {예.}

1.2 거주 생활

1.2.1 가신과 조상 숭배

10610 @ (웃음) 자 그러면 인제 오늘 제가 여:쥬보능거슨 (침을 다시며) 엔:나레 사:시던 생활 이야깁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쭙 보는 것은 (침을 다시며) 옛날에 사시던 생활 이야기입니다.}

10611 @ 엔:나레느뇨이~ 지베 집 지베 지반 고꼬세가 구:시니 드러가따고 해:가지고, {옛날에는요 집에 집 집에 집안 곳곳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 예. @ 그 막 밥 체레 노코, {그 막 밥 차려 놓고} # (웃음) @ 그레짜나요? {그랬잖아요?} # 예.

10611 @ 예를 드러서, 위디 {예를 들어서 어디} # 소 숨비비고 막. {소 손 비비고 막} @ 예 숨비비고, {예, 손 비비고} @ 위디 어:디에다가 주로 마:니헨? 지반 어:디? {어디 어디에다가 주로 많이 했? 집안 어디?}

10611 # 쩌: 움모게. {저 윗목에}

10611 @ 움모게다가요? {윗목에다가요?} # 예. @ 아, 움모게다가 누구한테 빔:니까? 어떤 신 어떤 신한테요? 며. {아, 윗목에다가 누구한테 빔:니까? 어떤 신 어떤 신한테요? 뭐}

10611 # 인자 조항님네, {이제 조왕님네} @ 예. # 인자 우릴 우예 선조들 인자, {이제 우리 위 선조들 이제} @ 어. # 근눔 빌:고, {그것 빌고} @ 음. # 인자 개꾸는 쪼차 내고, {웃음} {이제 껌귀는 쫓아내고} @ 으음음

10611 @ 조항 조항신? {조왕, 조왕신?} # 예. @ 조항니른 먼:시니데요? 머편 시그로 어떤? {조왕님은 무슨 신이대요? 어떤 식으로 어떤?}

10611 # 조항이 내나 우리 애기들 씨 배다중 그렇거이 인자 조항이고, {조왕이 내나 우리 애기들 씨 배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조왕이고,} @ 조항이. {조왕이} # 부떠게 조항들. {부뚜막에('부떡'은 '부뚜막'의 방언형) 조왕들}

10611 @ 부떡. {부뚜막} # 예. @ 아 어아저 인제 지금 가트른 부어게 인는 시는. {아, 어 아 저 이제 지금 같으면 부엌에 있는 신은,} # 예. @ 조항가통거, 예. {조왕 같은 것, 예}

10611 @ 또, 머 샘: 가튼데도 머 이러케 해:씀니까? 엔나레? 우무리나 이런데도? {또 뭐 샘 같은 데도 뭐 이렇게 했습니까? 옛날에? 우물이나 이런 데도?}

10611 # 지금도 허는 사라른 해:요. {지금도 하는 사람은 해요.}

1061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611 # 예 바가지에다가, {예, 바가지에다가} @ 예. # 자 양가란즈라고, 바가지에다가 인자 싸를 다마가꼬, {이제 가라앉지 말라고 바가지에다가 이제 쌀을 담아가지고,} @ 예. # 거:: 인자 싸레다가 인자 초뿌를 꼬자가꼬 저녁내 서떨 그믄날 저녁 부를 써나요. {그 이제 쌀에다가 이제 촛불을 쫓아가지고 저녁내 선달 그믄날 저녁 불을 켜('쓰다'는 '켜다'의 방언형) 뵈요.} @ 아.

10611 # 그럼 인자 저녁:내 인자 그래 다마 노으면 저녁내 인자 부리 부터 내려가요. {그럼 이제 저녁내 이제 그렇게 담아 놓으면 저녁내 이제 불이 붙어 내려가요.}

10611 @ 음 그럼 저기 고 무쭈 무리 무뤼에 둥둥 떠이쨌네요? {음, 그럼 저기 고 물 속 물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쨌네요?} # 예. @ 오 왜: 그렇거예요? {오, 왜 그런 거예요?}

10611 # 인자 공다리능 거이제, 그거는. {이제 공 들이는 것이지, 그것은.}

10611 @ 아 공다리능거. {아, 공 들이는 것.} # 예. @ 자기 지바니나 자식플 잘 되라고? {자기 집안이나 자식들 잘 되라고.} # 예.

10611 # 인자 저녁는 인자 그리 인자 밥 따마노코, {이제 전에는 이제 그리 이제 밥 담아 놓고,} @ 음. # 인자 개꾸 쪼차 낸:다고 네 구석찌에다가 {이제 객귀 쫓아 낸다고 네 구석에다가('구석지'는 '구석'의 방언형)} @ 예. # 쑥뿌를 피워요, 나가라고 {쑥불을 피워요 나가라고.} @ 오 # 잡썸들 나가라고. {잡썸들 나가라고.}

10611 @ 쑥뿌를 피우면 뜨구와서 나강가요? {쑥불을 피우면 뜨거워서 나가나요?}

10611 # (웃음) 몰:라요 뭐 행이 구저서 나가능 거잉가 어찌능가 {(웃음) 몰라요. 뭐 향이 굿어서 나가는 것인지 어찌는지} @ 아 # 쑥뿌를 그리 피우데요. {쑥불을 그리 피우데요.} @ 아:

10611 @ 그다메 움모게다가 상 체레노코? {그 다음에 윗목에다가 상 차려 놓고}# 예. @ 손 비비구요? {손 비비고요?} # 예 @ 음:

10611 @ 그다메 거 아가 아까그 세마구 세마:구 거 거그도 합니까? 소인는데?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외양간('세마구'는 '외양간'의 방언형) 외양간 거 거기도 합니까? 소 있는데?}

10611 # 인자 소늘 비비무 막 인자 짓 점쟁이가 와서, {이제 손을 비비면 막 이제 점쟁이가 와서} @ 음. # 천:지를 막 땡김서롱 막 물러나라고 막 카를 가꼬 땡임서 막 이려고 대 끝 트러가꼬 땡임서 뚜:드리고, 그래가 썸: 쪼차내:노코 가 그래쪼. {사방을 막 다니면서 막 물러나라고 막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대나무 끝 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썸 쫓아내 놓고 가. 그랬지요.}

10611 # 저네머 아픈 사라마 이꺼나, {전에 뭐 아픈 사람이 있거나} @ 아 그러면 {아, 그러면} # 머이 좀 지바네 머 좀 찍찌그이 찌고 머 구진 거세기 이쓰른, {뭐가 좀 집안에 뭐 좀 찼찼한 것이 끼고 뭐 곳은 뭐가 있으면,} @ 음. # 그래 소늘 비비요이 그래. {그렇게 손을 비벼요 그래.} @ 음.

10611 @ 고건 인제 천제 뭐 그런 인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 불러다가 항 거시고, {그건 이제 순전히 뭐 그런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 불러다가 하는 것이고,} # 예. @ 인자 안: 그러치 앙코 그냥 지반 어:러니, {이제 안, 그렇지 않고 그냥 집안 어른이,} # 예. @ 거 인제 머 이러케 예 지반 머 마당에다가도 머 한다등가 막, {그 이제 뭐 이렇게 예 집안 뭐 마당에다가도 뭐 한다든지 막,}

10611 # 저이 이유제 또: 머 그리 인자 잘주:생기는 사라마 이씨른, {저희 이웃에 또 뭐 그리 이제 잘 주워 삼키는 사람이 있으면,} @ 음. # 인자 그사라마 인자 불러다가 인자 바블 해:서 채리 노코, 마당까에나 저런디다 채리 노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불러다가 이제 밥을 해서 차려 놓고, 마당 가에나 저런 곳에다 차려 놓고} @ 으음. # 인자 대꾸 트러가 손때를 자바요. {이제 대나무 끝 들어가지고 손대를 잡아요.} @ 음.

10611 # 그래가꼬 막 주:생김성 막 두리고 어찌고 해가꼬 막 모 바비랑 거 상에 채리 나뎡 거 막 바가지에다 물 좀 해가꼬 가꼬 나가서 막 부정을 치고 그러믄, 인자 시락빠게다 지펄 까라노코 그노를 부어 노믄, 짐성터르 와서 무꼬 개:도 무꼬 고양이도 무꼬 또 새:도 와서 무꼬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주워 삼키면서 막 속이고('두리다'는 '속이다'의 뜻) 어찌고 해가지고 막 뭐 밥이랑 그 상에 차려 났던 것 막 바가지에다 물 좀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막 부정을 치고 그러면 이제 쪽박에다('시락박'은 쪽박의 뜻) 짚을 깔아 놓고 그것을 부어 놓으면 짐승들이 와서 먹고 개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또 새도 와서 먹고 그래요.}

10611 @ 음 그러믄 머 거기에 귀:시니 잡귀가 거가 부터인능가 거 다무거부런능가 그런 뜨시 {음, 그러면 뭐 거기에 귀신이 잡귀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 다 먹어 버렸는지 그런 뜻이,}

10611 # 인자 구:시니 웅:가 무고 간쨌 인자, {이제 귀신이 오는지 먹고 갔는지 이제} @ 어 # 강거이지요 인자. {간 것이지요 이제.} @ 음

10611 @ 고 그호 그사라믄 무:당도 아닌데도 그냥 참 잘 쓰 {그 그 그 사람은 무당도 아닌데도 그냥 참 잘 쓰,} @ 예.

10611 # 우리 여여 아래찌비 여그 아지매가 참 자래요. {우리 여 여 아랫집 여기 아주머니가 참 잘해요.} @ 오호. # 우리 지뇌가에 아지매빨 되는데, {우리 진외가의 아주머니벌 되는데,} @ 음. # 그 아지매가 영: 잘드 그렇겠 자래요. {그 아주머니가 아주 잘 드 그런 것을 잘해요.}

10611 # (웃음) @ 그레요이~? 예:. {그레요?}

10611 # 저네는 여: 어깨 요런디가 아프고 그러며, 또 싸를 요리 삼 저 바끄르게다 요리 다마가꼬, 쟈까넌 수:거늘 요리 꼬 둘러 씨:가꼬 잡꼬 그노플 가꼬 또 막 흠쳐 세움성 요리 운짜고, {전에는 여 어깨 이런 데가 아프고 그러면 또 쌀을 이리 삼 저 밥그릇에다 이리 담아가지고 조그만 수건을 이리 둘러싸워가지고 잡고 그것을 가지고 또 막 움켜('흠치다'는 '움키다'의 방언형) 세우면서 이리 문지르고('운짜다'는 '문지르다'의 뜻),}

10611 @ 거머 고걸 머락합니까? 그렇거슬? {그러면 그걸 뭐라 합니까? 그런 것을?}

10611 # 그걸보고 머라 하테예? (웃음) {그걸보고 뭐라 하더라?} @ 고걸 다른데선 잠밤메 긴다고, {그걸 다른 곳에서는 잠밥 먹인다고.} # 아이 잠밤 메긴다. {아이, 잠밥 먹인다.} @ 예? # 잠:밤 미긴다고. {잠밥 먹인다고.} @ 그러조이~? {그러지요?} # 예. @ 잠밤 미긴다고 그러조이~? {잠밥 먹인다고 그러지요?} # 예.

10611 # 요이 여 우리 아지매가 참: 자래썌요. 그런디 지금 서울가 사라요. {이이 여 우리 아주머니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살아요.} @ 아:.

10611 @ 잠밤 미거머는 인자 아픈데가 좀 나아 시원해지고 막 이런다하고, (웃음) {잠밤 먹이면은 이제 아픈 데가 좀 나아 시원해지고 막 이런다 하고, (웃음)} # (웃음)

10611 # 그거이 마:메 공시니지. {그것이 마음에 구신이지.} @ 아 # 마:메 구신. 지그문 그렇거 안해도 머, (웃음) {마음에 귀신. 지금은 그런 것 안 해도 뭐 (웃음)} @ (웃음) 음 # 지그문 인자 점부 물리치로로 가능거이제, 어디가 아프문. {지금은 이제 전부 물리치료를 가는 것이지, 어디가 아프면.}

10611 @ 그러치요. (웃음) 엔:나렌 그렇거 모:를 떼는 그러케 다, {그렇지요. (웃음) 옛날 엔 그런 것 모를 때에는 그렇게 다.}

10611 # 음 또 이:월 바람 올린다고. {음, 또 이월 바람 올린다고.} @ 예? # 이:월 바람 올린다고. {이월 바람 올린다고.} @ 그제 무슨 마립니까? {그제 무슨 말입니까?}

10611 # 저저저 이:위레 바람 올린다고 그럼서롱 떡허고 해가꼬, {저 저 저 이월에 바람 올린다고 그러면서 떡하고 해가지고,}

10611 # 시방 나 그 날:도 이저뿐네 메친날 메친날 나를 바다가꼬, {지금 나 그 날도 잊어버렸네, 몇 일 몇 일 날을 받아가지고,} @ 음. # 거 대나무르 꼬너다 세워 노고 거따 형겁 떼기 {그 대나무를 끊어다가 세워 놓고 거기에다 형겼} @ 음. # 색새까지로 형:거플 짤막 짤막 요망썌허이 해가꼬 거 대에다 다락 시:리랑 다라노코, 그미테다가 또 지필가꼬 따바르 요리 영꺼가꼬, {색색으로 형겼을 짤막짤막 이만큼씩하게 해가지고 그 대에다 달아 실이랑 달아 놓고, 그 밑에다가 또 짚을 가지고 파리('따바리'는 '파리'의 방언형) 이렇게 엮여가지고,} @ 음. # 거따 물쭙바를 떠 떠다노코 또 아침마동 거따 무를 가라요. {거기에다 물 쭙발을 떠 떠다 놓고 또 아침마다 거기에다 물을 갈아요.}

10611 @ 음 이:월따래. {음, 이월에.} # 예. @ 그거또 그거또 뭐, {그것도 그것도 뭐.}

10611 # 그 인자 바람 큰 바람 올라가는 나른 여라그랜 나린다, {그 이제 바람 큰 바람 올라가는 날은 열아흐렌데,} @ 아. # 그 아:네 페틴날 페틴나른 줄 잘 모리건네, {웃음} 이저 뿌리고. {그 안에 몇 일 몇 일인 줄 잘 모르겠네.} @ 그거이 바람 올린다고? {그것이 바람 올린다고?} # 예. @ 바람 올린 {바람 올린.} # 이:월때리 바라미 젤:로 세:거등요. {이월이 바람이 제일 세거든요.} @ 아:. # 형께 바람 올린다고 인자. {그러니까 바람 올린다고 이제.}

10611 @ 바람 올린다는 마른 거 바람 따라서 누가 올라가능가? {바람 올린다는 말은 그 바람 따라서 누가 올라가나?} # {웃음} 그러게요. {(웃음) 그러게요.} @ 으음 그레요이~. {음, 그레요?}

1.2.2 금기생활

10614 @ 자:, 그 엔나래 보른 노인드리 어떨때는 먼:허지 마라, 이런 머머 허지 마라는 이리 마나요? {자, 그 옛날에 보면 노인들이 어떤 때는 뭘 하지 마라, 이런 뭐 뭐 하지 말라는 일이 많아요.}

10614 @ 정월 초하루 나른 너무 머 여자드리 너무지비 머 어떻게 간 드러가지 마라, {정월 초하루는 남의 뭐 여자들이 남의 집에 뭐 어떻게 들어가지 마라.} # 가지마라. 예. {가지 마라, 예.} @ 예. 그런거뜰 마니짜나요? {예,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10614 # 언:제나 초하루 나른 너무 지비 드러가지 마라고, {언제나 초하루는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 아. # 넘 {남}

10614 # 여자드른 너무 지비 드러가른 재수가 업따고, {여자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다고.} @ 음. # 저네 우리 친정 아버지도, {전에 우리 친정아버지도,}

10614 # 또 남자드리 지내문 여자가 뽀르르이 건네가지 마고, {또 남자들이 지나가면 여자가 뽀르르 건네가지 말고,} @ 아. # 언:제나 남자들 지내가고 나문 가고, {언제나 남자들 지나가고 나면 가고,} @ 음.

10614 # 뭐 지금도 차가 저그 오면 그 차 보내노코 건네 가지, 저:그 차 오는데 아페 뽀르르이 건네가고 그거이는 여자드른 그런 이를 안허능 거이고. {뭐 지금도 차가 저기 오면 그 차 보내 놓고 건네가지, 저기 차 오는데 앞에 뽀르르 건네가고 그것은 여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이고.} @ 음.

10614 @ 음 특히 여자들헌테이~. {음, 특히 여자들한테.} # 예. @ 하꾸요이~. {하고요.}

10614 # 그런다구요. 울 아버지도 저네 시집올 때 그렇길 싹: 안치노코 시키요. {그런다고
요. 우리 아버지도 전에 시집올 때 그런 그런 길 싹: 얹혀 놓고 시켜요.} @ (웃음)

10614 # 이 이전 노:이니 데야가꼬. {이전 노인이 되어가지고.} @ (웃음) # 구식만 탕:탕:
해가꼬. {구식만 탕탕 해가지고} @ 음.

10615 @ 또 겨론할 때, 인자 겨론 허 허 할 때는 또 먼:허지 마라 그렇거 이쓸까요? 겨론
식 나:두고는 머: 어찌르, {또 결혼할 때 이제 결혼 하 하 할 때는 또 뭘 하지 마라 그런 것
있을까요? 결혼식 놔 두고는 뭐 어째}

10615 # 게론할 때 가 가:매타고 가:면, 가:매 타고 가는다. {결혼할 때 가 가마 타고 가면,
가마 타고 가는데}

10615 # 그 동네 머: 애기를 나아평가, {그 동네 뭐 아기를 낳았든지,} @ 음. # 그렇거려
면, 애기 논: 지비 이꼬 그러면, {그런 것이면, 아기 낳은 집이 있고 그러면,}

10615 # 그 아페다가 호:바글 큰 호:바글 하나 앙꼬 가요. {그 앞에다가 호박을 큰 호박을
하나 안고 가요.}

10615 @ 그 집 지나갈 때는? {그 집 지나갈 때는?}

10615 # 그 동:네 가문. {그 동네 가면} @ 아:. # 그 동네 애기 논: 지비 이씨문. {그 동
네 아기 낳은 집이 있으면} @ 예. # 게론하고 감스록 게론해가꼬 가:매를 타와가먹, 가:매
여페다가 무나페다가 호:바글 요리 나:노코 뒤에 안자 호:박 뛰에 안자가꼬, {결혼하고 가면
서 결혼해가지고 가마를 타고 가며 가마 옆에다가 문 앞에다가 호박을 이리 놔 놓고 뒤에
앉아 호박 뒤에 앉아가지고,} @ 아:. # 그이 머 구:신 쫓는거이다여. {그것이 뭐 귀신 쫓는
것이대.}

10615 @ 호:바기? {호박이?} # 예. @ 오.

10615 # 형개 제:사문 제:사때 다롱거는 다: 나도 호방너무른 안노커등요. {하니까 제사면
제사 때 다른 것은 다 놔도 호박나물은 안 놓거든요.}

10615 @ 아하 호:바기 귀신 쫓는 나무린게요. {아하, 호박이 귀신 쫓는 나물이니까요.} #
예. @ 음 흥미롭네요. {음, 흥미롭네요.}

10615 @ 에 겨론 때 그런 재미인은 저기 인네요. 또 다롱거는 혹시 겨론할 때는 머? {예,
결혼 때 그런 재미있는 것이 있네요. 또 다른 것은 혹시 결혼할 때는 뭐?}

10615 # 몰라 그렇 거는 인자 다롱 거는 몰라요. {몰라. 그런 것은 이제 다른 것은 몰라
요.} @ 음 그래요. {음, 그래요.}

10617 @ 또 사:라미 주거서 초상칠 때는, 또 머머 하먼 안된다. {또 사람이 죽어서 초상치를 때에는 또 뭐 뭐 하먼 안 된다.}

10617 # 거그도 또 요 요어지 애기 논디허고 초상허고는 또 서로 저기데야가꼬, 초상을 인자 개구니 데야가꼬 할 쭈 엄써서 인자 가문 인젠 저녀게 드로면 막 부:정을 처야지요. {거기도 또 요 요 아기 낳는 곳하고 초상하고는 또 서로 적이 되어가지고 초상을 이제 계원이('계군'은 '계원'의 뜻) 되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제 가면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막 부정을 처야지요.}

10617 @ 머 어떠케 칩니까? 부정을 어떠케? {뭐 어떻게 칩니까, 부정을 어떻게?}

10617 # 막 소그물 현 뿌리고. {막 소금을 뿌리고,} @ 음. # 인자 깨끄시 인자 거석허고, 거그서 머 오토 가라입꼬 드로라 인자, {이제 깨끗이 이제 뭐하고, 거기서 뭐 옷도 갈아입고 들어오너라 이제,} @ 음. # 더:럽따고, {더럽다고.} @ 음. # 그러지요. {그러지요.} @ 음.

10617 @ 그러조이~. (헛기침) {그러지요. (헛기침)}

10617 # 초상친디 가따오문 저네는 애기가 그리 울:면, 초상친디 가따와서 저지러서 그런다고, 그리 마:리때요. {초상 치르는 데 갔다 오면 전에는 아기가 울면 초상 치르는 데 갔다와서 저질러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이 있데요.}

10617 @ 아 초상지베 가따오며는 그게 모미 더:러와지고 좀 그런다고요이~? {아, 초상집에 갔다오면은 그게 몸이 더러워지고 좀 그런다고요.} # 예.

10614 @ 또 이 때에 따라서 머 정초에는 너무지베 바늘 빌리러 가지 마라라 머 그럼말도 이릅니까? {또 이 때에 따라서 뭐 정초에는 남의 집에 바늘 빌리러 가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습니까?}

10614 # 굴:도 싸로 가지 마라. {불도 따러 가지 마라.} @ 예? # 불도 따러 가지 말, {불도 따러 가지 마}

10614 # 저네는 이 성냥 거통거이 귀허고 그렇께, {전에는 이 성냥 같은 것이 귀하고 그러니까,} @ 어. # 이우쩍써 부를 마니 싸가꼬 와써요. {이웃집에서 불을 많이 싸가지고 왔어요.} @ 아.

10614 # 불쌀개에다가 그지비 잉그라글, {불쏘시개에다가('불쌀개'는 '불쏘시개'의 방언형) 그 집 잉걸불을('잉그락'은 '잉걸불'의 방언형),} @ 예. # 다머가꼬 그냥 쪼:차와가꼬, {답아가지고 그냥 쫓아와 가지고,} @ 음. # 인자 부를 부:면 거서고, 막 오다가 그냥 바라메 그냥 부리 이러나가꼬 막 중가네다가 막 널쭈고 그래써요, 저네는. {이제 불을 불면 뭐하고, 막 오다가 그냥 바람에 그냥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중간에다가 막 떨어뜨리고('널쭈다'는 '널'

떨어뜨리다'의 방언형) 그랬어요, 전에는.}

10614 @ 음. (웃음) 그런 다른 정위례는 그걸 하지 마라고요? {음. (웃음) 그런 다른 정월
에는 그걸 하지 마라고요?} # 예. @ 음 왜 그럴까요? {음, 왜 그럴까요?}

10614 # 인자 해러붕께, 어:른드리 그러지요. {이제 해로우니까 어른들이 그러지요.}

10614 @ 음: 그래요이~. 아라썅니다. (기침) {음,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침)}

1.3 질병과 민간요법

1.3.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2 @ 그다으메 그다으메는 인제, 엔나레 지금도 병이 만:치만 엔나레도 병이 만:치 아 나썸니까? 근데 야기 별로 업:쓰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에 지금도 병이 많지만 옛날에도 병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이 별로 없으니까,} # 예. @ 사:람드리 인자 그 민간 요:빠비라 해:가지고, 엔:나레는 인제 저기를 해썌요. 어떤 치료를 한다고 막 여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그 민간요법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저기를 했어요. 어떤 치료를 한다고 막 여러가지로,} # 예. @ 헨는데. {헨는데}

10702 @ 예:를 드러서 막 버즈미 마:니 생게따 피부뽕 열구리 베즘 버즈미 마:니 생겨따, 그러면 엔엔:나레는 먼 어트케 치료를 해:썸니까, 버짐이? {예를 들어서 막 버짐이 많이 생겼다 피부병 얼굴이 버짐 버짐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옛 옛날에는 무슨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버짐이?}

10702 # 이에 약뿌랭이 거통거 조:타는 약뿌랭이 머 그렇걸 캐:다가 인자 막 짜:서도 보리고 음 글거서도 보리고, {이제 약초 뿌리('뿌랭이'는 '뿌리'의 방언형) 같은 것 좋다는 약초 뿌리 뭐 그런 걸 캐다가 이제 막 쥘어서도 바르고 음 끓어서도 바르고,}

10702 @ 음 약뿌랭이를? {음, 약초 뿌리를} # 예. @ 음:.

10702 # 우리 (웃음) 우리 시방 세째 아드리 또 기 띠예 여그에가 도래버짐이 생기가꼬, {우리 (웃음) 우리 지금 셋째 아들이 또 귀 뒤에 여기에 도래버짐이('도래버짐'은 둥그렇게 생긴 버짐) 생겨가지고,} @ 예. # 망:우~이 야글 해도 안데고 해서, 똥을 보르면 난:는대서 똥을 볼라농께, 주거도 안볼릴라고 울:고 야:다니서, {아무리('만고에'는 '아무리'의 뜻) 약을 해도 안 되고 해서 똥을 바르면 낫는대서 똥을 발라 놓으니까 죽어도 안 바르려고 울고 야 단이어서,}

10702 # 또 마느를 짜:부치가꼬 헤글트리면 그가꼬 야글 보리면 난:는다고, {또 마늘을 쥘어 붙여가지고 헤어지게 만들면('헤글트리다'는 헤어지게 만들다의 뜻) 그래가지고 약을 바르면 낫는다고,}

10702 @ 어떤 머? {어떤 뭐?} # 마늘. {마늘} @ 헤글트니 머예요? {'헤글튼'이 뭐예요?}

10702 # 인자 그걸 볼라노:먼 사리 막 뜨거워서 그냥 해:지지 안나요? {이제 그걸 발라 놓으면 살이 막 뜨거워서 그냥 헤어지잖아요?} @ 어어웅. # 그래가까꼬 해:글트린다 그래가꼬.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 예.

10702 # 그걸 좀 짜: 볼라뜨만 아이고 야:가 그양 네:바를 띠:데요, 뜨거 막 아파서. {그걸 좀 쥘어 발랐더니 아이고 아이가 그냥 네 발을 뛰데요. 뜨거 막 아파서.} @ 음. # 그 그래

도 난:는 그래 안 나싱개, 그래가꼬 나순다고 인자 그래. {그래도 낫는 그래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낫게 한다('낫우다'는 '낫다'의 사동형)고 이제 그래.}

10702 # 인자 나:끼는 나:산는디, 거가 머리가 두문 두문해이 항개씩 이꼬 머리가 엄썬요. {이제 낫기는 나왔는데 거기가 머리가 드문드문하게 한 개씩 있고 머리가 없어요.}

10702 @ 오 (웃음) 지금도요? {오, 지금도요?}

10702 # 지금도 좀 자:가요. 함범 뿌리가 안낭개. {지금도 좀 작아요. 한번 뿌리가 안 나니까.} @ 아아 # 근디 인자 지그른 인자 쪼깁 요리 지룽개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리 기르니까('길우다'는 '길다'의 사동형)} @ 예. # 지룽개 우:에 머리가 와서 요리 더퍼가꼬 요런디. {기르니까 위의 머리가 와서 이리 덮어가지고 이런 데}

10702 # 저네는 인자 나:가 머리로 까까조요, 우리 애기더른. {전에는 이제 내가 머리를 깎아 줘요.} @ 예. # 수뿐찌로. {스포츠 머리로.} @ 예. # 나:가 머리르 까꾸문, 여기 한 쪼개는 여가 머리가 두문두문해니 나:고 알구께 나:농개로, 제간 나:를 원:망을 해. {내가 머리를 깎으면 여기 한 쪽에는 여기에 머리가 드문드문하게 나고 알긋게 나니까 제가 나를 원망을 해.}

10702 # 엄마는 먼헌다고 낯: 여파가 이래허이 멀 도쿤걸 불라가 이 머리도 안나게 해난 나. {엄마는 뭐 한다고 낯 여기에다 이렇게 뭘 독한 걸 발라가지고 이 머리도 안 나게 해놔느냐?}

10702 @ (웃음) 궁게 엔:나레는 똥:을 보르면 버지미 난:는다. {(웃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똥을 바르면 버짐이 낫는다.} # 예. @ 마늘 도캥걸 하면 난:는다. {마늘 독한 걸 하면 낫는다.}

10702 # 똥:을 보리든 그거이 머: 뿌라 올리서 난:는다고 또 똥:을 보리라 고 모도 그래싸: 터마는, (웃음) 주거도 애기가 데:농개 더:럽따고 그걸 암보릴래, {똥을 바르면 그것이 뭐 빨아 올려서 낫는다고 또 똥을 바르라고 모두 그래 썻더니마는, (웃음) 죽어도 아이가 되어 놓으니까 더럽다고 그걸 안 바르려고 해.} @ (웃음) # 마느리 찌: 부치썬요. {마늘을 찢어 붙였어요.} @ 음.

10702 @ 그다으메, 머 땀 땀때나 이러거 땀띠가통거 나면 어뜨게 엔:나레는 어뜨게 치료 할찌, 땀띠는. {그 다음에 뭐 땀 땀띠나 이런 것 땀띠 같은 것 나면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치료할지 땀띠는?}

10702 # 땀뽕이 나모 마 애기드른 부늘 불라주고, 저네 {땀띠('땀뽕이'는 '땀띠'의 방언형) 나면 마 아이들은 부늘 발라주고, 전에} @ 아아 예. # 부늘 불라주고 그래썬요. {부늘 발라주고 그랬어요.} @ 으음.

10702 @ 지금도 그러지요? 뭐 이러케 좀 피부가 이제카든, {지금도 그러지요? 뭐 이렇게 좀 피부가 이러면} # 예. @ 분볼라주고. {분 발라 주고.}

10702 # 지금도 애기들 막 물:고 그러면, {지금도 아이들 막 무르고 그러면} @ 예. # 사치 물:고 그러면 볼라주고 그래. {살이 무르고 그러면 발라 주고 그래.} @ 음.

10702 @ 또 머 부스 부스르미나 이러거 이러거 나:면 어떠케 어떠케 치료 하시나요, 부시럼 가튼거 나:면? {또 뭐 부스 부스럼이나 이런 것 이런 것 나면 어떻게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부시럼 같은 것 나면?}

10702 # 찰밥나무. {찰밥나무} @ 예? # 찰밥나무. {찰밥나무} @ 예 # 그거를 인자 저네는 그런 나무가 썩:썩:겨등요. {그것을 이제 전에는 그런 나무가 썩었거든요.} @ 예. # 시방은 막 거이 조:태가꼬 다 파가가고 어찌고 막, 한:창 그거 조:타고 그냥 모도 그냥 탄: 칸 음 톱: 난:가꼬 땀임서 그냥 썩이 가꼬 땀임서 모도 막 남자드리 파가가고 날:리를 천는다, 글썩는 그러거이 썩야썩개, {시방은 막 그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파가지고 가고 어찌고 막 한창 그것 좋다고 그냥 모두 그냥 탄 음 칼 톱 낫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썩이 가지고 다니면서 모두 막 남자들이 파가지고 가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썩었으니까,}

10702 # 찰밥나무 미테 뿌리를 캐:면 캐:가꼬 와서 그걸 인자 캥::깡 찌:면 찰지디 찰저요. {찰밥나무 밑에 뿌리를 캐면 캐가지고 와서 그것 이제 황황 쪼으면 차지디 차저요.} @ 예.

10702 # 그걸 인자 요리 막 음 해를 빼낸다고 그러길 보리고 그래썩요. {그걸 이제 이리 막 '해'(?)를 빼낸다고 그런 걸 바르고 그랬어요.}

10702 @ 아 그럼 부스르미 넘 난:나요? {아, 그럼 부스럼이 났나요?} # 예. @ 어 그럼 일종에 약초네요이~. {어, 그럼 일종의 약초네요.}

10702 @ 기계뚝 가튼거 올라오면 어떠나요? 기계뚝 오르면, 머리에. {기계충 같은 것 올라오면 어떠나요? 기계충 오르면 머리에.}

10702 # 궁개 그러길 마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해요.} @ 예 그런 시그로? {그런 식으로.} # 예.

10702 # 저 질갱이, {저 질경이.} @ 예. # 질갱이 그거또, {질경이 그것도.} @ 빼뿌쟁이? {'빼뿌쟁이?} # 예 빼뿌제미. {'빼뿌제미.} @ 예. # 저넨 우이들뜨른 빼뿌제미라헌디 여채게는 질갱이데요. {전에는 우리들은 '빼부제미'라 하는데 여 채에는 질경이데요.} @ 예.

10702 # 그거또 캐:가꼬 막 뿌리차, {그것도 캐가지고 막 뿌리채.} @ 음. # 찌:가꼬 볼라주고. {쪼어가지고 발라 주고.} @ 음:

10702 # 또: 제:비꼴, {또 제비꽃.} @ 네. # 제:비꼴 그거또 찌:가꼬 볼라주고, 머 푸른 장

맹이 양꼬 그런디는 또 그렇길 또 불러주고. {제비꽃 그것도 찢어가지고 발라 주고. 뭐 푸른 멍이('푸른 장맹이'는 '푸른 멍'의 뜻) 앓고 그런 데는 또 그런 걸 발라 주고.}

10702 @ 푸 푸렁장맹이? {푸, '푸렁장맹이'?}

10702 # 장:맹이 나불고지고 그런디는, {멍이 들어 나불거지고 그런 데는.}

10702 @ 아 멍들고 이런데? {아, 멍들고 이런 데?} # 예.

10702 # 그렇길 또 찢:가꼬 불러도 주고, {그런 걸 또 찢어가지고 발라도 주고.} @ 음. # 저네는 그라지만 뉘가 요새는 그렇거 아무도 아내요. {전에는 그러지만 누가 요새는 그런 것 아무도 안 해요.} @ (웃음) # 무조건 병워느로 가지. {무조건 병원으로 가지.}

10702 @ 누네 병:이 날: 수도 이짜나요? 머 농꼬비 낀:다등가이~. {눈에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뭐 눈곱이 낀다든지.}

10702 # 저넨 소금무를 막 점:부 써꺼요. {전에는 소금물을 막 전부 씻어요.}

10702 @ 소금물로? {소금물로?} # 예. @ 에 머 다:라 다:레끼 나고 이래도 막 다랴, {예, 뭐 다래끼 다래끼 나고 이래도 막 다래끼('다랴'은 '다래끼'의 방언형)}

10702 # 아 다레께 낭 그렇거능 인자, 그 짜면 나:꼬. {아, 다래끼 난 그런 것은 이제 그 짜면 낫고.}

10702 @ 짜면 나:꼬. 소그므로 하고이~. 또 머에 이 엔:나레는 누네피라 해:가지고 누네 병:이 생기자나요? {짜면 낫고. 소금으로 하고. 또 뭐야 이 옛날에는 눈병이라('눈에피'는 '눈병'의 방언형) 해가지고 눈에 병이 생기잖아요?}

10702 # 공개 눈뺨이 와서 그냥, 그또 오리거등요? {그러니까 그게 눈병이 와서 그냥 그것도 읊거든요.('오리다'는 '읊다'의 뜻.)} @ 네.

10702 # 하나이 아프면 그냥 시꾸대로 다 그러고 그러면 공개 소그무르 강가느이 해야꼬 만:날 써꼬, {하나가 아프면 그냥 식구 모두 다 그러고 그러면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간하게 해가지고 만날 씻고,} @ 음. # 그래쪼요. {그랬지요.} @ 음.

10702 @ 그다으메 여기 엔:나레 무좀 이렇거쑤 이 손 사이에 무좀가통거 이짜나요 발 사이에, {그 다음에 여기 옛날에 무좀 이런 것은 이 손 사이에 무좀 같은 것 있잖아요? 발 사이에?} # 예. @ 가렵꼬, 그렇거뜨른 어:떠케 치료 해쉴까요? {가렵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10702 # 그렇거또 어쨌튼 씨:코 거그를 안다코로, {그런 것도 어떻든 씻고 거기를 닿지 않게.} @ 음.

10702 # 머 감:도 쪼개가꼬 보리고, {뭉 감도 쪼개가지고 바르고,} @ 가:를 쪼게요? {감을 쪼개요?} # 예. @ 썰감? 생 {생감? 생?} # 감, 썰감. {감. 생감.} @ 영. # 썰가물 쪼개가꼬 또 새:에다가 여코. 또 머이나? {생감을 쪼개가지고 또 사이에다 넣고('넣다'는 '넣다'의 방언형). 또 뭐냐?}

10702 # 무화가. {무화과.} @ 예. # 요새 무화가. {요새 무화과.} @ 예. # 그걸보고 다:래라 하거등요, 저네 우리더른. {그걸보고 '다래'라 하거등요. 전에 우리들은.} @ 무화과를 다:래라고 그레썬요? {무화과를 보고 '다래'라 그렸어요?} # 예. @ 오호.

10702 # 다:래 그걸르 인자 해:놈 막 그 찌니 영 그거이, {다래 그것을 이제 해 놓으면 막 그 진이 영 그것이,} @ 하얀 찜, {하얀 진.} # 영: 그거이 도캐요. {영, 그것이 독해요.} @ 예 하:얀 찌니 나오조. {예, 하얀 진이 나오지요.} # 그걸 보리고 막 그레썬요. {그걸 바르고 막 그렸어요.} @ 으음 그레썬요이~. {음, 그렸어요.} # 야기 업썬서. {약이 없어서.} @ 예.

10702 @ 감:기 감:기는 주로 어떠케 치료를 해썬까요? 야겍썬 떼는? {감기 감기는 주로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10702 # 댄니파리허고, 또 그거 이르미 머이나. 호:건 꼬치 요리 지대머니 이썬문 그거 썰라묵꼬 그러는디. 그걸 먼 나무라니라? 그 나무 이르플 모르진네. {땃잎하고 또 그것 이름이 뭐니라, 하얀 꽃이 이리 길다랗게('지땃허다'는 '길다랗다'의 뜻) 있으면 그것 빨아 먹고 그러는데. 그걸 무슨 나무라고 하니라? 그 나무 이름을 모르썬네.}

10702 # 그거를 인자 막 썰마가꼬. {그것을 이제 막 삶아 가지고,} @ 음. # 그 무를 마시고. {그 물을 마시고.}

10702 @ 댄니파리하고? {땃잎하고} # 예. @ 댄닙썬하고이~? {땃잎하고.}

10702 # 그 나무를 머 윤:동초라 그러데요. {그 나무를 뭐 인동초라('윤동초'는 '인동초'의 방언형) 그러데요.} @ 윤:동초? {인동초?} # 예. @ 오.

10702 # 윤:동초 나무 그거를 인자 막 능끄레기로 거더다가, 대바까야 그거이 마:니 능끄러 올라가거등요. {인동초 나무 그것을 이제 막 녁쿨을('능끄레기'는 '녕쿨'의 방언형) 건어다가 대밭 가에 그것이 많이 녁쿨이 올라가거등요.} @ 음. # 그걸 인자 베:다가 댄니파리허고 막 베:가꼬 와서 썰:마 노면 북썬:허니 무리 그레요. {그걸 이제 베어다가 땃잎하고 막 베어가지고 와서 삶아 놓으면 불그스름하게('북썬허다'는 '불그스름하다'의 뜻) 물이 그레요.}

10702 # 검: 그거를 인잔 마시고 막 따플 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마시고 막 땀을 내지요.} @ 음. # 이우르 둘러 썬고 막, {이불을('이울'은 '이불'의 방언형) 둘러썬고 막.} @ 음. # 찌 (웃음) 찜:질허는 시그로, {찜질하는 식으로.} @ 으음. # 따플 내고 그레썬요.

이저네는. {땀을 내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10702 # 우리들 감:기 드러가꼬 그래가 누:씨른, 어페드리 가서 그걸 해:다 쌀마가꼬 항그
룩 그냥, 머 당걸 타 저네 요새는 설탕이 이꼐 허제마:는 저네는 당원, 우리들 클째는 당원,
그노를 타가꼬. {우리들 감기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워있으면, 엄마들이 가서 그걸 해다
삶아가지고 한 그릇 그냥 뒀, 단 것을 타 전에 요새는 설탕이 있곤 하지마는 전에는 당원,
우리들 클 적에는 당원, 그것을 타가지고,}

10702 # 달:게 해가꼬 인자 주른 그눔 항그룩 마신 마신 무어 점 마시레 노코는 그냥 이우
르 가따 처더퍼가꼬 그냥, (웃음) {달게 해가지고 이제 주면 그것 한 그릇 마신 마신 뒀 전
부 마시라 해 놓고는 그냥 이불을 가져다 쳐덮어가지고 그냥 (웃음)} @ (웃음) # 따를 쪽::
빼주고 그래썬요. {땀을 쪽 빼 주고 그랬어요.} @ 음.

10702 @ 예 그 효:파가 이썬나요? {예, 그 효과가 있었나요?}

10702 # 인제 따를 빼:논개 나산능가, 그걸 무꼬 나산능가, (웃음) {이제 땀을 빼 놓으니까
나왔는지 그걸 먹고 나왔는지, (웃음)} @ (웃음) # 나리 가서 나산능가 모르지요 인자. {날
이 가서 나왔는지 모르지요, 이제.} @ 예:. # 그거이 야기라고 그래가꼬 무거썬개. {그것이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었으니까.}

10702 @ 그다으메 머, 콧무리 마니 난:다던가이~, 가:레가 이따덩가 이러면 또 어:떠케 치
료를 해썬까요? {그 다음에 뭘 콧물이 많이 난다든지 가래가 있다든지 이러면 또 어떻게 치
료를 했을까요?}

10702 # 그렇거능 머 먼냐글 헨:능고 잘 모르거썬요. {그런 것은 뭘 무슨 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예.

10702 @ 풍이 든 사람 이짜나요? 풍 풍마자따고. {풍이 든 사람 있잖아요? 풍 풍 맞았다
고.} # 예. @ 예.

10702 # 풍마즌 사람 떨:고 드란잔는 사람. {풍 맞은 사람, 떨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

10702 @ 예 목 반 반:쫓기 한 잘, {예 목 반 반쫓이 한 잘,} # 예. @ 어:떠케 치료 합니
까 치료가 인나요? 엔:나레 그런 냥반드른,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가 있나요? 옛날에 그
런 양반들은.}

10702 # 엔:나레는 그래가 드란즈먼 이자 바로 병:신맹이로 드러 안자썬썬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들어앉아 있으면 이제 바로 병신처럼 들어 앉아 있었지요.} @ 음. # 머 나산능
가요, 저네는. {뭘, 나왔나요? 전에는?}

10702 @ 그레쫓이~, 예. {그랬지요. 예.}

10703 @ 그다으메 또 인제 엔나레는 체하 체를 체하기도 마:니 헤:짜나요이~ 짹짹 {그 다음에 또 이제 옛날에는 체하 체를 체하기도 많이 했잖아요? 짹짹.} # 예. @ 체하고이~, 그러면 어:떠케 헤:씀니까 엔:나레는? {체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10703 # 훌짜녀기 따:찌 머. 요런디. { ??? 땀지 뭐.} @ 손까라게 꼬테? {손가락에 끝에.} # 바늘로 가꼬. {바늘을 가지고} @ 음: 피를 네 {음, 피를 내.} # 따고 훌꼬, 배가 아프면 훌꼬. {따고 훌고, 배가 아프면 훌고.} @ 아.

10703 # 배도 훌른 사라미 이썬요. {배도 훌는 사람이 있어요.}

10703 @ 아 잘 훌른 사라미, {아, 잘 훌는 사람이?} # 예. @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지배 갑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집에 갑니까?}

10703 # 아이고 명제리 데머 우리지비 우리 친정 어머니 배 훌른 사라미라. {아이고, 명절 이 되면 우리 집 우리 친정어머니 배 훌는 사람이야.}

10703 # 인자 오모까심 소:글 쪽::쪽 요리 훌터가꼬 등거리를 뚜디리고, {이제 오목가슴 속을 쪽쪽 요리 훌어가지고 등을('등거리'는 '등'의 방언형) 두드리고,} @ 아하. # 또 손툼민 요런디를 따고, {또 손툼 밑 이런 데를 따고,} @ 아하.

10703 # 거 급체현사람 그렇게 대방 나뻐요. {그 급체한 사람 그러니까 대번에 낫데요.}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 급체허는 사람. {급체한 사람.} @ 음.

10703 # 가:가꼬 그냥 어:러니고 아:고 명절 떠 데문 그냥 우리 지비 피바리 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른이고 아이고 명절 때 되면 그냥 우리 집에 줄이('피발'은 아마도 줄 정도의 의미인듯.) 서요.}

10703 @ (웃음) 마:니 머꼬? {(웃음) 많이 먹고?}

10703 # 예. 언치따고. {예. 얹혔다고.} @ 으음.

10703 @ 또 체를 체:를 넌: 사람도 이짜나요, 체 넌:다고. {또 체를 체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체 낸다고?}

10703 # 인자 체 내:능거는 인자 증가네 그래꼬, {이제 체 내는 것은 이제 중간에 그랬고} @ 증가네. {중간에} # 증가네 인자 체르 내:썬요. {중간에 이제 체를 냈지요.} @ 음. # 상구 저네 우리 켜간해:서는 내:는 사람도 업:꼬. {사뭇('상구'는 '사뭇'의 방언형) 전에 우리 조그마해서는 내는 사람도 없고.} @ 음. # 무조건 막 훌른거이라 막 창시로 훌터 내레찌. (웃음) {무조건 막 훌는 거야 막 창자를 훌어 내렸지.}

10703 @ (웃음) 그래꾸나. 거또 잘 하는 사라미 이썬니까요이~. {(웃음) 그랬구나. 그것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 예.

10703 @ 체 # 어디가 여무다네요. 홀트먼. {어디가 여물다네요, 훑으면.} @ 음?

10703 # 창소를 요:리요:리 누지리무, {창자를 이리이리 누르면('누지르다'는 '누르다'의 뜻),} @ 음. # 어디가 여문데가 이따네요. {어디가 여문 데가 있다네요.} @ 아하. # 거그를 인자 몬질 몬질호니 그래가꼬 인자 무리게 해가꼬 홀터 내룬데요. {거기를 이제 만지작 만지작하게('몬질몬질허다'는 '만지작만지작하다'의 뜻) 그래가지고 이제 무르게 해가지고 훑어 내린대요.} @ 음.

10703 # 거 우리더른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그 우리들은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 음. # 그래도 우리 어메는 그걸 자래.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걸 잘해.} @ (웃음)

10703 @ 나중에 중가네 인자 체 네:는 사람 요그 이런데도 체 네는 데가 이썬스니까? {나중에 중간에 이제 체 내는 사람 여기 이런 데도 체 내는 데가 있었습니까?}

10703 # 저 하동가며 이썬썬요. {저 하동 가면 있었어요.} @ 하동까지 가야데요? {하동까지 가야 돼요?} # 예 저: 과냥도 이꼬. {예, 저 광양도 있고.} @ 오호.

10703 # 아 순천 순천. 순천 거그 저저 그 불끄는 그거 머이라 하능 거이, {아, 순천 순천, 순천 거기 저 저 그 불 끄는 그것 뭐라 하는 것이,} @ 소방 # 소방서 미테. {소방서 밑에} @ 음.

10703 # 그:가면, 체를 저그 잘랜다고 함:참 오:지게 땡건는다. 난주에느 그거이 머 마:수리라 싸코 그머 그래 싸테. {거기 가면 체를 저기 잘 낸다고 한창 오달지게('오지다'는 '오달지다'의 방언형) 다녔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뭐 마술이라 쌓고 그 뭐 그래 쌓테.} @ 음.

10703 @ 체를 머하면 이렇게 고기가, {체를 뭐 하면 이렇게 고기가.}

10703 # 무운 거또 엄는다 머 되:지괴기 그렁걸 어쩜 그 소:게서 나옴거이 그저 썩또 안허고 가마니 싱싱허길 항걸 줌서 요걸 내:파고, {먹은 것도 없는데 뭐 돼지고기 그런 걸 어찌 그 속에서 나온 것이 그저 썩지도 않고 가만히 싱싱하기를 한 것을 주면서 이걸 냈다고,} @ 아하. # 뵈:주고 그런다고. {보여 주고 그런다고.}

10703 @ 아 거진마리다고? {아, 거짓말이라고.}

10703 # 그리고 어떤 사람드른 거 체를 냉개 난:는닥 허고, 어떤 사라드른 또 그거이 마:수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체를 내니까 낫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이 마술이라,} @ 음. # 근다 그러고, 그래 싸튼만 몰라요. {그런데 그리하고 그래 쌓더니마는 몰라요.} @ 그레요이~. {그레요.} # 뉘: 마리 오룽고. {누구 말이 옳은지.}

10703 @ 자 그다옴메 토사광란 이렇거눔 막 토하고, {자 그 다음에 토사광란 이런 것은 막 토하고,} # 아 예. @ 설사하고 그렇게 이썬요 갑짜기. {설사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갑자기.} # 강:라네 그 약찌로 가파고. {광란에 그 약 지으러 갔다고.} @ 그렇거슨 야기 뭐

해야되나요? {그런 것은 약이 뭐 해야 되나요?}

10703 # 우리드 클찌게는 머이나, 소:다 소:다 그걸 그냥 무꼬 무를 마시고 막 정겨주준허이 그러커등 그거이. {우리들 자랄 적에는 뭐냐 소다 소다 그걸 그냥 먹고 물을 마시고 막 건건찹찹하게('정겨주준허다'는 '건건찹찹하다'의 방언형) 그렇거든 그것이.} @ 예. # 그걸 무꼬 망 그러고,{그걸 먹고 막 그리하고}

10703 # 인자 어메가 배를 잘 흘통께 흘꼬, {이제 엄마가 배를 잘 흘으니까 흘고}

10703 # 또 소금도 한:주먹 그때는, 시방은 짜붕거또 암몽는다는디, {또 소금도 한 주먹 그때는, 시방은 찐 것도 안 먹는다는데,} @ (웃음) # 소금도 한:주먹 무꼬 그냥 무를 자:꼬 무꼬 막, {소금도 한 주먹 먹고 그냥 물을 자꾸 먹고 막} @ 아. # 무를 막 항그러글 다:마시라 그러고, {물을 막 한 그릇을 다 마시라 그러고} @ 음:.

10703 # 그러고 나면 인자 또 막 등거리를 뚜:드리고, 배를 흘꼬 손꾸라글 따고 인자 그러면,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막 등을 두드리고, 배를 흘고 손가락을 따고 이제 그러면}

10703 # 거 대:게 설사가 나다가 사라미 씨러지고 금 막 녀씨 엄시뿐 드러누워씨문 또 막 흰주글 썩가꼬 주고 그러데요. (웃음) {그 되게 설사가 나다가 사람이 쓰러지고 그러면 막 정신이 없이 들어누워 있으면 또 막 흰죽을 썩가지고 주고 그러데요.}

10703 @ (웃음) 그레씨요이~. {(웃음) 그랬어오.}

10704 @ 그다으메, 예 트키 예:드리 마니 그러조이~ 딸꼭찌리이~. {그 다음에 예 특히 애들이 많이 그러지요 딸국질이.} # 예. @ 어: 어:떠케 그칩니까 거 딸꼭찌른? 막 오래 하는 수가 이짜나요? {어 어떻게 그칩니까 그 딸꼭질은? 막 오래 하는 수가 있잖아요?}

10704 # 그거또 인자 따:꼭찌를 허면 등거르 뚜디고 무를 자꼬 마시고 그러데요. {그것도 이제 딸꼭질을 하면 등을 두드리고 물을 자꾸 마시고 그러데요.} @ 아: 무를 마시고? {아, 물을 마시고?} # 예. @ 음:.

10704 @ 그다으메 예:드리 막 놀:레가지고 경 정끼가 {그 다음에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경 정끼가.} # 정끼. {정끼} @ 어 그거슨 어떻게 또, 그거 이런 {그것은 어떻게 또 그거 이런}

10704 # 저네는 머 빨강걸 베기면 더 근다고, {전에는 뭐 빨간 걸 보이면 더 그런다고.} @ 아하. # 막 꺼명 보따르 가따 둘러씨:고 막, 그러데요. {막 검정('꺼명'은 '검정'의 뜻) 보따리를 가져다 둘러씨우고 막 그러데요.}

10704 # 그거또 깝깝 언치면 그거이 정끼가 나요 애기들또. {그것도 껍깍 없으면 그것이 정끼가 나요 아기들또.}

10704 @ 아 언치먼? {아, 없히면.} # 언치먼. {없히면} @ 음: 음:.

10704 # 시방 그런 애기들 업씨요이~. 저네는 영:, {시방 그런 애기들 없어요. 전에는 영.}

10704 @ 지금도 이슬끔니다? 가끔 며제 쫘 영 언처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마는.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뭐 꼭 없 없혀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마는.}

10704 # 아이고 저네는 저그 정끼가 나:문 그냥 새:파래이 아:가 주거뿐는다. {아이고, 전에는 저기 경기가 나면 그냥 새파랗게 애기가 죽어 버리는데.} @ 아. # 시방 그렇거이 업:는다. {시방은 그런 것이 없는데.} @ 아:.

10704 # 해기는 쪼감 시방은 쪼감 어찌문 와 병:워느로 다라낭개 머. {하기는 조금 시방은 조금 어찌면 와 병원으로 달아나니까 뭐.} @ (웃음) # 약또 췌:꼬 시방은. {약도 췌고 시방은.}

10704 @ 또 여: 췌빠느리 혀애가 일: 일: 수도 이짜나요, 췌빠다게~, 췌빠느리~. {또 이 혀바늘이 혀애 일 일 수도 있잖아요, 혀바닥에 혀바늘이.}

10704 # 어찌똥가네 췌: 이베 거서거능거는 소그미를 가꼬 허데요. {어쨌든지 혀 입에 뭐 하는 것은 소금을 가지고 하데요.}

10704 @ 아. # 소금. @ 소그미~ 음:. {소금이. 음.} 10705 @ 그 다으메, 다으메 엔:나레다 하신 말쓰민데이~. {그 다음에 다음에 옛날에 다 하신 말씀인데.}

10705 @ 머 저네 손니메 데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주션는데 손니몬 증:상이 어쩔니까? 이게 여가 빨근빨근, {뭐 전에 손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손님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가 불긋불긋}

10705 # 거또 인자 여:리 오리고 그러능갑떼요. {그것도 이제 열이 오르고 그러나 보데요.} @ 어:.

10705 # 여리 어뜨 오리고 인자 그더몬 인자, {열이 오르고 이제 그러면 이제} @ 머 물찌비 생깁가요? {뭐 물집이 생기나요?} # 인자, 오 하무요. {이제, 오 아무렴요.}

10705 # 거 인자 물:찌비 생기고, {그 이제 물집이 생기고.} @ 음. # 그러문 인자 저 그거 인자 그냥 가마니 이쓰 안 저지리면 소로가지 그냥 그거이 딱:지가 내리문 잔차는다, {그러면 이제 저 그거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 안 저지르면 쉽게 가지. 그냥 그것이 딱지가 내리면 괜찮은데.} @ 음:.

10705 # 인자 저지라노면 막 그걸 궁는다데요 막. {이제 저질러 놓으면 막 그걸 굶는다네요 막.}

10705 @ 그 가려우니까이~. {그 가려우니까.} # 예. @ 예.

10705 # 글거가꼬 인자 따까르 자:꾸 주어 뜯는다데요. {굼어가지고 이제 딱지를 자꾸 주워 뜯는다데요.} @ 음. # 저지르먼. {저지르먼}

10705 @ 그러믄 인제 여기 흥터가 생기고이~. {그러면 이제 여기 흥터가 생기고.} # 예. @ 예.

10705 @ 그 아까 인제 풀 푸썸? 푸썸? {그 아까 이제 학 학질('푸썸'은 학질의 방언형) '학질'?} # 예. @ 푸썸은 증:상이 어떻가요? {학질은 증상이 어떤가요?}

10705 # 거:또 여:리 오리고 인자 한:참 여르 올라따가 인자 또 막 또 추위가 달라 드러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그것도 열이 오르고 이제 한창 열이 올랐다가 이제 또 막 또 추위가 달려들어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 음.

10705 # 대:게 떨:제는 이울 두:개 세:개 더퍼도 소:게서 떨리요. {되게 떨 적에는 이불 두개 세 개 덮어도 속에서 떨려요.} @ 으음:.

10705 # 그 인자 한:창 그래 알:코나며 인자 막 그 시간씩 그러고 나면 인자 막 더위가 올라와요. {그 이제 한창 그렇게 앓고 나면 이제 막 그 시간씩 그러고 나면 막 더위가 올라와요.} @ 아하. # 여:리 올라와요. {열이 올라와요.}

10705 @ 음: 사라미 더위따 추위따가, {음, 사람이 더웠다 추웠다} # 예. @ 기우니 기냥 다 빠:지게 생겼네요. {기운이 그냥 다 빠지게 생겼네요.}

10705 # 궁께 그: 한번허고 나며 여름철 그냥 사람 맥빠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한번 하고 나면 여름철 그냥 사람 맥빠진다고 그러고.} @ 음:.

10705 @ 그다으메 흥지니요? 흥지는? {그 다음에 흥역은요? 흥역은?}

10705 # 흥지니 내:나 그거이지. {흥역이 내나 그것이지.}

10705 @ 예:들한테 이똥거 아니여요, 흥진 호녀? {애들한테 있던 것 아니예요? 흥역 흥역?}

10705 # 아: 호녀. {아, 흥역.} @ 어 # 그거또 또 또들또들또드래이 그래요. {그것도 또 도톨도톨하게 그래요.} @ 음: # 흥진도. {흥역도.} @ 음:.

10705 # 거:또 여리나. {그것도 열이 나.} @ 아 거또 여리나고? {아, 그것도 열이 나고.} # 예. 거:또 여리나서 그냥 아:가 그냥 불링그락거테. {예, 그것도 열이 나서 그냥 아기가 그냥 잉겔불('불링그락'은 '잉겔불'의 뜻) 같아.} @ 어:.

10705 # 그냥 이비 막 헤:지고. {그냥 입이 막 헤지고.} @ 음: 음:.

10705 # 시방 홍역 주사가 이상께 그만 나아 뿌리고***. {시방 홍역 주사가 있으니까 그만 나아 버리고.} @ 그러조 예:방이 ****. {그러지요. 예방이 ***}

=1 (휴대전화소리)

10705 @ 그다으메 어리네드리 이러케 보리 이러케 쭉,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쭉} # 불치기. {불거리.('불치기'는 '불거리'의 방언형.)} @ 불치기. {불거리} # 예. @ 보리 좀 부:짜나요이~. {불이 좀 붓잖아요.} # 예. @ 그거슨 어 증:상이 어떻가요? 그냥 불만 분:나요? 그 아:푼데가 인나요? {그것은 어 증상이 어떤가요? 그냥 불만 붓나요? 그 아픈 데가 있나요?}

10705 # 아휴 보:리 부서서 한쪼기 요:러치요 막. {아휴 불이 부어서 한 쪽이 이렇지요 막.} @ 어. # 그: 대리보문 막 뜨근뜨근해요. 여리 올라가꼬 여가 별::그레이 요래. {그 만져 보면 막 뜨근뜨근해요. 열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별장게 이렇게.}

10705 @ 음: 그럼 그걸 어떠케야 난:는데요? {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낫는데요?}

10705 # 글썸은 인자 베니신 주사르 가서 마치요. {그럴 때는 이제 페니실린 주사를 가서 맞혀요.} @ 아. # 열 내리는 주사를. {열 내리는 주사를.} @ 페니실린으로.

10705 # 베니신 이라고 그 주사를 마치고 또 그래도 열롱 안갈리가문, 인자 먼 야래 먼: 야글 헨:능가 모르거따. 먼: 야글 헨:는디. {페니실린이라고 그 주사를 맞히고 또 그래도 열론 안 내려가면 이제 무슨 이렇게 무슨 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무슨 약을 했는지.}

10705 # 어디 장터 어디 강개로, 거 그리 말:고 노랑조시 {어디 장터 어디 가니까 그 그리 말고 노른자('노랑조시'는 '노른자'의 방언형).} @ 음. # 계란 노랑조시에다가 흰조시 빼:뿔고 노랑조시에다가 소그를 여라테요. {계란 노른자에다가 흰자('흰조시'는 '흰자'의 방언형) 빼 버리고 노른자에다가 소금을 넣으라테요.} @ 예.

10705 # 소그를 여:가꼬 헤:: 저싱개로, 소그를 여:먼 자꾸 데:저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휘휘 저으니까 소금을 넣으면 자꾸 돼져요.} @ 아.

10705 # 데:지면 인자 그거를 인자 문쫑우에다가, 저네 창호지. {돼지면 이제 그것을 이제 문쫑이에다가 전에 창호지.}

10705 # 창호지를 인자 쪼간:허이 요리 잘라가꼬 그거이에라가 요리 페:가꼬 불라농개로 그거이 또 야기데. {창호지를 이제 조그맣게 이리 잘라가지고 그것에다가 이리 펴가지고 발라 놓으니까 그것이 또 약이데.}

10705 @ 오 불치기 야기예요? {오, 불거리 약이에요?} # 예. @ 하 노랑조시에다가? {하, 노른자에다가.}

10705 # 예 노랑조 조시에다가 소그물 여:가꼬 저싱께, 자:꾸 여 데:지데요. {예, 노른자 자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저으니까 자꾸 돼지데요.} @ 음. # 그럼 인자 수꾸라글 가 글거가꼬. {그럼 이제 숟가락을 가지고 긁어가지고,} @ 음. # 짹: 까라가꼬 딱 부치놓께로 그거 또 야기로 나:폐. {짹 갈아가지고 딱 부쳐 놓으니까 그것도 약으로 낫데.} @ 네:.

10705 # 주사르 마치서 나산능가, {주사를 맞혀서 나왔는지,} @ (웃음) # 그거이 야기라고 그래서 나산능가, 나:폐요. {그것이 약이라고 그래서 나왔는지 낫데요.} @ 예.

10705 # 그러고 나머 애기드리 빼:뽀 애비저요 그거또 허고 나면. 불치기도 허고 나면.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빼빼 야위어저요('애비지다'는 '야위어지다'의 방언형). 그것도 하고 나면. 불거리도('불치기'는 '불거리'의 방언형) 하고 나면.} @ 고놈 보테껴 가지고. {그것 보대껴가지고} # 예 여:리 나고 그러께. {예, 열이 나고 그러니까.}

10705 @ 예 저 봉:사는 누니 암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예, 저 봉사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 예. @ 근데 누니 암보이는데도 누니 암보이는, 그 이저네 먼 병을 아라께 짜요 늑뽕을이~. 어찌다가 누니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데도 눈이 안 보이는 그 이전에 무슨 병을 앓았겠지요 눈병을. 어찌다가 눈이?}

10705 # 모르지요 어쨌는지 그렇거는. {모르지요 어쨌는지 그런 것은.} @ 음:.

10705 @ 고건 치료 방버비 엔:나레도 치료가. {그건 치료 방법이 옛날에도 치료가?}

10705 # 우리 저 친정에 거 우리 친구 주구매가 그래가꼬 드러안잔는다, {우리 저 친정에 그 우리 친구 저희 엄마가 그래가지고 들어앉았는데,} @ 음. # 더드마서도 영: 이:를 잘:헌다네요. {더듬어서도 영 일을 잘 한다네요.}

10705 @ 안보여도? {안 보여도?}

10705 # 예. 더드마서. {예, 더듬어서.}

10705 @ 으음 인 잘 아는 근:처는 외우고 이찌요? {으음, 이제 잘 아는 근처는 외우고 있지요.} # 인자 {이제}

10705 # 외우고 이썩께 그렇가 어쨌가, 뭘 메느리가 어디든 나가뿌리도 멀: 잘 차자다 무꼬 그런다데요.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지 어쨌지 뭘 며느리가 어디든 나가 버려도 뭘 잘 찾아다 먹고 그런다네요.}

10705 @ 집 아:네서는 {집 안에서는} # 예. @ 익죽하니까, 세로운디 가면 인자 모:타고.

{익숙하니까, 새로운 곳 가면 이제 못하고}

10705 # 인자 인제 {이제 이제} @ 예. # 방에만 드러 안자쌍께, {방에만 들어앉아 있으니까} @ 예. # 말리거튼디 그런디 나오고 냉:장고에서도 뭇 더드마서따 가따 무꼬 근:다 그래싸테. {마루 같은 데 그런 데 나오고 냉장고에서도 뭇 더듬어서 가져다 먹고 그런다 그래쌍데.} @ 예.

10706 @ 그다으메 엔:나레 무:당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병: 고친다고 그러거 보셔썬요? 어떤지븐 보통 불러다가 허자나요 굳허고이~. {그 다음에 옛날에 무당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병 고친다고 그런 것 보셨어요? 어떤 집은 보통 불러다가 하잖아요? 굳하고.}

10706 # 꼭 구드 구슬허고 그러지마네도 그래서 곤칭는가 어쨌능가 그러고 나면 모도 난:는다고 모도 그러싸툼만. {꼭 곳을 곳을 하고 그러지마는 그래서 고쳤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나면 모두 낫는다고 모두 그래 쌍터구만.} @ (웃음) # 몰라요 (혀를 차며) 나는 손 암비버 바:썬요. {몰라요. (혀를 차며) 나는 손 안 비버 봤어요.}

10706 @ 예 근데 어떤 지븐 그러길 조아하는 지비 이썬요? {예, 그런데 어떤 집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집이 있지요?}

10706 # 이 정월되문 이 요 요새 막 집집마다 두드릴꺼여. {이 정월 되면 이 요 요새 막 집집마다 두드릴 거야.}

10706 @ 아 갈궁치고 다녕거? {아, 걸립('걸궁'은 '걸립'의 방언형) 치고 다니는 것?}

10706 # 예. @ 아. # 떠개노코. {떡 해 놓고.} @ 음.

10706 # 서:레 떠글 쪼까만 한다 그래요. 저저그 안택올때, {설에 떡을 조금만 한다 그래요. 저기 안택 올 때.} @음. # 헨다허고 그거 인자 안태기라고 지비서 그 나를 바다가꼬 점재이~한테 가 저를 해가꼬 언제 며친날 우리집 뚜디리 도라고. {한다 하고 그것 이제 안택이라고 집에서 그 날을 받아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해가지고 언제 몇 일 우리집 두드려 달라고.} @ 음. # 그러무 와서 인자 뚜드리고. 뚜드리문 또 점재이~ 반:치나 쥘:부리고. {그러면 와서 이제 두드리고. 두드리면 또 점쟁이 반이나 쥘 버리고.} @ 음:

10706 # 욱썬 마는 점재이~는 머 쌀도 마:니 나라 머 머또 떡또 마:니 나라 우썰가 썬 썬 썬머지고 가고. {욕심 많은 점쟁이는 뭇 쌀도 많이 놔라 뭇 뭇도 떡도 많이 놔라 어쨌서 썬 썬 썬어지고 가고.} @ 음:

10706 @ 아 정위레? 점쟁이 불러다가 그러케 하는 데도 이꼬? {아, 정월에? 점쟁이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 보르마네. {보름 안에.} @ 응 보르마네이~. {응, 보름 안에.} # 예. @ 음:

10706 @ 또 인제 어 어떤 막 정신뺑이 이따거나 막 그런 사람드른 구테가지고 막 막 할
{또 이제 어 어떤 막 정신뺑이 있다거나 막 그런 사람들은 굿해가지고 막 막 할}

10706 # 귀:신 드러따고. {귀신 들었다고.} @ 어. # 그람 막 메:에도 가서 뚜두리고. {그
럼 막 묘:에도 가서 두드리고.}

10706 @ 어디요? 메 메? {어디요? 묘, 묘?}

10706 # 무다니 귀:신드러따고 머 저쩌그문 선조들 메:에 가서 뚜두리고, {괜히('무다니'는
'괜히'의 뜻) 귀신 들었다고 뭐 걸핏하면 선조들 묘:에 가서 두드리고,} @ 으으음. # 머 니
가 드러서 이룬다 그러고 머를 잘못 해줘서 그룬다 그러고 인자, 점재이~ 마레게야 이찌요.
{뭐 네가 들어서 이룬다 그리하고 뭐를 잘못 해 줘서 그룬다 그리하고 이제, 점쟁이 말하
기에 달렸지.} @ 음.

10706 # 그러고 저: 네:거리에 가서 또 뭐 그사람 오슬 뭐 가따가 또 꼬실라 주고 어찌고
머 막 그래싸트만 우는 그러고 안해바는 몰라요. 놈 허능 검만 봐:찌. {그리고 저 네거리에
가서 또 뭐 그 사람 옷을 뭐 가져다가 또 불살라('꼬시르다'는 '불사르다'의 뜻) 주고 어찌고
뭐 막 그래 썩더니마는 우리는 그런 것 안 해 봐서 몰라요. 남 하는 것만 봤지.} @ 네:.

1.3.2 약초 캐기

10707 @ 또 진:상은 사니 주위에 만:차나요이~. {또 진상은 산이 주위에 많잖아요.} #
예. @ 그러니까 약초가튼거 좀 캐고 그러셔쎄요? {그러니까 약초 같은 것 좀 캐고 그러셨
어요?}

10707 # 삼초, 또 머 향가꼬, {'삼초', 뭐 엉경퀴('향가쿠'는 '엉경퀴'의 방언형)} @ 음. #
머 저렁걸 캐:다 모도 막 찰:마 무꼬 그래땡때. {뭐 저런 걸 캐다 모두 막 삶아 먹고 그랬다
고 하네}.@ 음.

10707 @ 삼초는 어떠 어:디 아픈데 쓰나요? {'삼초'는 어떠 어디 아픈 데 쓰나요?}

10707 # 몰라요. 나능 그러걸 머 제:처레 땡이니라고 안해 받는다. {몰라요. 나는 그런 것
뭐 광양제철에 다니느라고 안 해 봤는데.} @ 음: # 할메드리 그러걸 캐:다가 막 소테다가
찰:마가꼬 무를 마시고 날리를 치데요. {할멈들이 그런 걸 캐다가 막 술에다가 삶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난리를 치데요.} @ (웃음) 그래요? {그래요?}

10707 # 나는 나 살:기가 복짜배가꼬, 둠:벌라고만 애:를 써쎄. {나는 나 살기가 복잡해가
지고 돈 벌려고만 애를 썼지,}

10707 @ 으음음 그런 약초에 대해서는 관시미 업:써꾸마뇨. {으음음, 그런 약초에 대해서

는 관심이 없었구먼요.} # 예. @ 음:

10707 # 또 모:캐러 가는 사라미 저 하동 자아~ 가먼 거: 캐:다가 즈저그 막 다라이 거튼 디 노코 풀먼 인자 거 그거 면무더리 사다가 쌀마 무꼬. {또 뭐 캐러 가는 사람이 저 하동 장에 가면 그 캐다가 저 저기 막 넓은 대야('다라이'는 넓은 대야를 뜻하는 일본말) 같은 데 놓고 팔면 이제 그 그거 몇 무더기('무더리'는 '무더기'의 방언형) 사다가 삶아 먹고} @ 음

10707 # 머 돌가지 대:추 골고루 골가래 저으저저 참꼬뿌렁이 {뭐 도라지 대추 고루고루 고루고루 저기 저 진달래 뿌리('참꽃'은 '진달래'의 방언) @ 음 # 캐:다가 막 쌀:마가꼬 거 따가 담:바블 해 뭇는 사람 머 머: 어찌고 해:싸튼만, 그래서 멍:이 징:가 멍:이 진:사람 썬 야썬따다. (웃음) {캐다가 막 삶아 먹고 거기에다가 식혜를('단밥'은 '식혜'의 방언형) 해 먹 는 사람 뭐 뭐 어찌고 해 썬더구마는 그래서 명이 긴지 명이 긴 사람 썬습디다.}

1.4 세시풍속과 놀이

1.4.1 세시풍속

10801 @ (웃음) 자 그다음에, 엔:나레는 인제 설: 보름 머 머 달마다 {(웃음)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설 보름 뭐 뭐 달마다,} # 예. @ 머시 다: 이짜나요. 그래가지고 행사 그때마다 머 머 특빠라게 어뜨 이 하는 이:리 이꼬 그러자나요. {뭐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사 그때마다 뭐 뭐 특별하게 어뜨 이 하는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10801 # 그렇걸 다 해:가꼬 {그런 걸 다 해가지고} @ 예. # 하문 그러지요. {하면 그러지요.} @ 자 함 그거슬 인자 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예서 설:. {자 한 그것을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한 번 여기서 설,}

10801 @ 서:리몬 지그몬 인자 마:니 풍스비 달라저찌마는 {설이면 지금은 이제 많이 풍습이 달라졌지마는,} # 예. @ 엔:날 정월 보 초하루 여기 서:리몬. {옛날 정월 보 초하루 여기 설이면}

10801 # 서:떨 그믐날 저녁에 밥 채리노코. {선달 그믐날 저녁에 밥 차려 놓고,}

10801 @ 서:떨 그믐날 밥 바블 채려놓니까? {선달 그믐날 밥 밥을 차려 놓습니까?}

10801 # 예, 걸:게 해가꼬, {예, 걸게 해가지고} @ 오. # 제:사를 모:시요. {제사를 모시요.} @ 그래요? {그래요.} # 예.

10801 # 저 예나 정월 초하루나른 떠꾸끼리노코. {저 ** 정월 초하루는 떡국 끓여 놓고,} @ 아 제:사는, 차례는, {아, 제사는 차례는} # 그믐날 저녁에 하고. {그믐날 저녁에 하고} @ 아:

10801 @ 그걸 머:라고 그래요? 무슨 고거이 이르미 이썸니까? 서:딸 그믐나레 하능 거 보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그것이 이름이 있습니까? 선달 그믐날에 하는 것보고} # 인자 제:사 모신다 그러지요. {이제 제사 모신다 그러지요.} @ 제:사모신다고 그래요. {제사 모신다고 그래요.} # 예. @ 아 글고요. {아, 그리고요.}

10801 # 제:사 모:시고, 인자 또 정월 초하루날 인자 또 떠꾸끼리노코 또 제:사 모:시고. {제사 모시고 이제 또 정월 초하루날 이제 또 떡국 끓여 놓고 또 제사 모시고} @ 음 # 또 보르메 하고. {또 보름에 하고.}

10801 @ 보르메는 주로 멸: 합니까? {보름에는 주로 멸 합니까?}

10801 # 보르멘 또 인제 찰밥 오:곡밥 해노코 인자. {보름엔 또 이제 찰밥 오곡밥 해 놓고 이제,} @ 예. # 또 채리노코. {또 차려 놓고}

10801 @ 음식은 인제 보르메 체려 노치마는, {음식은 이제 보름에 차려 놓지마는}

10801 @ 아 또 서우레는 서울 쪼게는 이렇게 이떼요. 거 딱딱한 머 땅:콩이나 이렇걸 가 따가 깨 멍는 보르메. {아, 또 서울에는 서울 쪽에는 이런 게 있데요. 그 딱딱한 뭐 땅콩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깨어 먹는 보름에.} @ 아 그 예. # 여기도 그렇게 이씀니까?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

10801 # 그냥 여:는 오:곡빡 해:요. {그냥 여기는 오곡밥 해요.} @ 오:곡빡 허지요이~. {오곡밥 하지요.} # 예. @ 예. # 오:곡빡 허고 또 새: 쪼꼬, 보름날. (웃음) {오곡밥 하고 또 새 쪼꼬 보름날. (웃음)}

10801 @ 새:쫘는 날 어떠케 어:디가서 새:쫘능가요? {새 쪼는 날 어떻게 어디 가서 새 쪼 나요?}

10801 # 새보게 인자 또 모닥뿔 나: 노코. {새벽에 이제 또 모닥불 놓아 놓고,} @ 어. # 인자 새:쪼꼬. {이제 새 쪼꼬}

10801 @ 새보게 어:디다 모닥뿔 피어요? {새벽에 어디에다 모닥불 피워요?}

10801 # 저지 암:테라도 마당에 어디 해:노코는 막 새:쫘는다고 우여 우여. (웃음) {저기 아무 테라도 마당에 어디 해 놓고는 막 새 쪼는다고 우여 우여 (웃음)}

10801 @ 오 그거이 무슨 마리카요? 왜 그러까요? {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10801 # 또 더우 포라뭉는다고 또 내더우 허고. {또 내 더위 팔아 먹는다고 또 내더위 하고.}

10801 @ 어 그러조이~. {예, 그러지요.} # 예. @ 니더우 네더우이 더우 포라 뭉는다고 이~. 예. {네 더위 내 더위 더위 팔아 먹는다고.}

10801 @ 그다으메 또 그거 허션 나 나무지베 머 찰밥또 이러케 돌라서 머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 하셧 남 남의 집에 뭐 찰밥도 이렇게 훑쳐서 먹기도 하고.}

10801 # 인제 조:레르 가꼬 어드로 땡기요. {이제 조리를('조레'는 '조리'의 방언형) 가지고 얻으러 다녀요.}

10801 @ 아 어드로 땡긴다? 조:레로? {아, 얻으러 다닌다? 조리로?} # 예 조:레르 가꼬. {예, 조리를 가지고}

10801 # 집점마동 어:드로 땡겨. {집집마다 얻으러 다녀.}

10801 @ 음: 웨 어드로 다닐까요? 웨? {음, 왜 얻으리 다닐까요? 왜?}

10801 # 더우 파라 몽는다고 인자. 그러 인자 가문, {더위 팔아 먹는다고 이제 그러 이제 가면.} @ 어. # 조레를 가꼬 어드로 가문, {조리를 가지고 얻으리 가면} @ 예. # 머:시아 그러면 대:다물 허면, 내더우 그러면 더우 인자 그지비서 더우 포라멍는다 허고. {뭐야 그러면 대답을 하면 내 더위 그러면 더위 이제 그 집에서 더위 팔아 먹는다고 하고.} @ 아 그러고. {아, 그러고}

10801 # 인자 몬자부린 사لامي 인자 대:다블 허면 인자 엽 더우를 포라몽능거이고, 근다고. {이제 먼저 부른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면 더위를 팔아 먹는 것이고, 그런다고.} @ 으음.

10801 @ 동:네들 끼리도 뭐 행사가 인나 노 노리가 이썸니까? 이 중네하고 저 동네하고 머그먼 저기를 한다당가? {동네들끼리도 뭐 행사가 있나 노 놀이가 있습니까?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뭐 그러면 저기를 한다든지?}

10801 # 달집 진는 거이지. {달집 짓는 것이지.}

10801 @ 달집 진는다고? {달집 짓는다고.}

10801 # 예. 동:네마동. {예, 동네마다.}

10801 @ 달찌폰 어떠케 진는? {달집은 어떻게 짓는}

10801 # 인자 미테다가 인자 집 꺼통걸 마:니 여코 대: 켜다가 인자 세워가꼬 지블 맹그리가꼬 요리 해. {이제 밑에다가 이제 쪼 같은 걸 많이 넣고 대 베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이리 해.} @ 음.

10801 # 인자 거따 인자 또 소를 베다가 또 인자, {이제 거기다 이제 또 소나무를 베다가 또 이제} @ 음. # 해가꼬 그래 인자 꼬시리능 거 인자 . {해가지고 그래 이제 불사르는 거야 이제.}

10801 # 보르메 달리 뜨문 인자 불보름:허니 뜨문 인자, 거따 소:원 빌지요. 켜췌금 인자, 모 자석한테 허구잔 사람 머 뉘:한테 허구잔 사람 들매김성, {보름에 달이 뜨면 이제 불그스레하게 뜨면 이제 거기에다 소원 빌지요. 각자('켜췌금'은 '각자'의 뜻) 이제. 뭐 자식에게 하고 싶은 사람 뭐 누구한테 하고 싶은 사람 들먹이면서.} @ 어. # 그사람 오슬 가따가 거따가 여:노코 인자 막 저를 허고 막, (웃음) 이라가꼬 저를 허고 그래요. {그 사람 웃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넣어 놓고 이제 막 절을 하고 막, (웃음) 이리해 가지고 절을 하고 그래요.}

10801 @ 어 달집 달찌블 인제. {어 달집 달집을 이제}

10801 # 올해도 허꺼이네요. 저저저 그러면 인자, 동:네 인자 집집마동 인잔, 동네똥 헌다고. {올해도 할 거예요. 저 저 저 그러면 이제, 동네 이제 집집마다 이제 동넛돈 한다고.}
@ 음. # 머 마:넛 내:는 사이 이마넛 내는 사람 머 직쩌금 이냐 성이꼇 내:면 그놈 가:꼬 인자 동네또네 씨고 그래요. {뭘 만원 내는 사람 이만원 내는 사람 뭘 각자 그냥 성의꼇 내면 그것 가지고 이제 동넛돈에 쓰고 그래요.}

10801 @ 아 지금도 합니까 행사가? {아 지금도 합니까 행사가?} # 예. @ 달집 태운다고. {달집 태운다고.}

10801 # 장녀네는 재화이 재화니 지비서 또 오신 소님드리, {작년에는 재환이 재환이 집에서 또 오신 손님들이,} @ 어허 # 인자 질:띠가 엄써가서 그 아페 거그 논 한:나이 논 인는디 거따가 지으갸꼬. {이제 지을 데가 없어서 그 앞에 거기 논 하나 논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어가지고,} @ 아하. # (웃음)

10801 @ 사람 마:니 구경하러 가쎄요? {사람 많이 구경하러 갔어요?}

10801 # 예. @ 어 거 지으갸꼬 그냥 재화니 지비 오는 소님드르 모도 막 저녁게 차가 메때가 오고 막 그래가 그러고. {어 그 지어가지고 그냥 재환이 집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막 저녁에 차가 몇 대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10801 # 또 멘:장이 땡김서롱 또 동네마동 또 돈: 주고. 다뭇 머 이:마넛 쟈기라도 주고 가고. 자 또 머 성:거에 날 싸람덜또 와서 또또 한넛썩 쟈 주고 가고. {또 면장이 다니면서 또 동네마다 또 돈 주고 다만('다면'은 '다만'의 방언형) 뭘 이만 원썩이라도 주고 가고. 이제 또 뭘 선거에 나갈 사람들도 와서 또 또 한 잎썩 주고 가고.}

10801 @ (웃음) 장녀네는 풍성헨네요. {(웃음) 작년에는 풍성헨네요.} # 예. @ (웃음) 음:

10801 @ 그니깐 그러케 노:능거시,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것이}

10801 # 말:고치고. {풍물놀이('말고'는 '풍물놀이'의 뜻) 하고} @ 메:구치고이~. {풍물놀이 하고} # 예.

10801 @ 보르미 쟈:로 거 머시 만:네요이~, 보름나리. {보름이 제일 그 뭐야 많네요. 보름날이.} # 예. @ 정월 보름때면. {정월 보름 때면}

10801 # 인자 동:네 싸람드리 천는디 인자, 저저 데모난 디로부터서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천는데 이제 저 저 데모난 뒤로부터서는} @ 어:. # 재화니 지비서 인자 메고꾼들 소리 해요. {재환이 집에서 이제 풍물놀이꾼들 소리 해요.}

10801 @ 음: 메고꾸는 어:디서 와요? {풍물놀이꾼은 어디서 와요?}

10801 # 몰라요, 어이서 오능고.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

10801 @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이 동네 사람 아니고?}

10801 # 예. @ 오: # 금 사라미 와서 그런 사람드리 오문 인자 재화니 지비서 인자 대:지 대:지머리 인자 사가꼬 인잔, 몬추몬 내:난는디, 장녀네는 또 우리 동:네서 또 해:가꼬 또 대 지 제:쌍 채리는디 또 노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재환이 집에서 이제 돼지 돼지머리 이제 사가지고 이제 먼저는('몬춤'은 '먼저'의 방언형) 내어 놓았는데 작년에는 또 우리 동네서 또 해가지고 또 돼지 제사상 차리는 데 또 놓고}

10801 # 거따가 머 도:늘 물리고 (웃음) 주를 처노코 또 도:늘 바다서 거딱 걸: 주레다가 까:고. {거기다가 뭐 돈을 물리고 (웃음) 줄을 쳐 놓고 또 돈을 받아서 거기다가 그걸 줄에다가 꿰고.} @ (웃음)

10801 # 그러면 인자 또 머 동:네 사워되는 사암드리 먼: 술도 바다 오는 사람 돈:도 거:는 사람 또 과:일도 사다 주는 사람 {그러면 이제 또 뭐 동네 사워되는 사람들이 뭐 술도 받아 오는 사람 돈도 거는 사람 또 과일도 사다 주는 사람,} @ 음: # 음 여러가지라에. {음, 여러가지예요.}

10801 @ 저네는, {전에는} # 그래. @ 여 동:네 사람드리 글면 동:네 사람드리 메구칠리리 업네? 다른데서 와버리면. # 예.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풍물놀이 할 일이 없네? 다른 데서 와 버리면?} @ 어:

10801 # 인자 저 진상 멘판지에 모도 또 메고치는 사람 또 안인능가요? {이제 저 진상 멘소재지에 모두 또 풍물놀이 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 예. # 절문삼들. {젊은 사람들.} @ 예.

10801 # 인자 또 어이서 안 불러오문 인자 또 그런사람드리 치고 땡기고. {이제 또 어디서 안 불러오면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치고 다니고.} @ 으음:

10801 # 어째뚜가네 메고 소리는 내:대. (웃음) {어쨌든지 풍물 소리는 내데.} @ (웃음) 그러지요이~. {그러지요.}

10801 @ 자 정위레는 그니간, 보르미꼬 정월 초하루 이꼬 그레가지고 놀:고. {자, 정월에는 그러니까 보름 있고 정월 초하루 있고 그레가지고 놀고,}

10801 @ 다음 이:위레는? {다음 이월에는?}

10801 # 바람 올리능 거이고. {바람 올리는 거이고.}

10801 @ 아까 바람 올리능거 말쌈 {아까 바람 올리는 것 말쌈} # 예. @ 하셔쪼이~. 예. {하셨지요. 예.}

10801 @ 사뭇레는? {삼월에는}

10801 # 사뭇레는 또 삼진날 모도 또 멀: {삼월에는 또 삼짓날 모두 또 뭘,} @ 음: # 거서 현는다. 시방 일허니라고 안해요. {거기서 하는데. 시방 일하느라고 안 해요.}

10801 @ 그니까 엔:날 기여글 더슬리면, 삼진나레는 멀: 하션나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거스르면 삼짓날에 뭘 하셨나요?}

10801 # 저네는 머 삼진날 인자, 날 바다가꼬 인자 뭇 땀 {전에는 뭇 삼짓날 이제 날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때}

10801 # 동네사람드른 안해도 인자 직찌금 인자 마음찌그로 인자 삼진날 인자 조은나리라 바다가꼬 인자 무슨 안택또허고 머 손도 비비고 그런 사람들 그럭허고. {동네 사람들은 안해도 이제 각각 이제 마음으로 이제 삼짓날 이제 좋은 날이라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안택도 하고 뭇 손도 비비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고,}

10801 @ 음: 그래요이~. {음, 그래요.}

10801 @ 사:워레는 인제 초파이리 인네요? {사월에는 이제 초파일이 있네요.}

10801 # 초팸:른냐 모도 공드리러 가고 놀:러 가고. {초파일날은 이제 모두 공 들이러 가고 놀러 가고,}

10801 @ 이저 저레로 저레로 가능거이고 공 가 공드리러 가능거는? {이제 절로 절로 가는 것이고 공 가서 공 들이러 가는 것은,}

10801 # 이따 가서 저레 가서 인자 책찌금 인자 소원 빌:고. {이따 가서 절에 가서 이제 각각 이제 소원 빌고,} @ 음:

10801 # 인자 저: 하동 송림 거튼디, 그런디 인자 모도 모이지면 거그 가서 논:닥허무 인자 거그 머 놀:면 인자 먼 모도 술찌메 지그른 술찌미지머 술찌메 모도 춤치고 놀:고 그런다고 온대요. {이제 저 하동 송림 같은 데 그런 데 이제 모두 모여지면 거기 가서 논다고 하면 이제 거기 뭇 놀면 이제 뭇 모두 술김에 지금은 술김이지 뭇 술김에 모두 춤추고 놀고 그런다고 온대요.}

10801 @ 음: 여기는 어떤 절로 갑니까? {여기는 어떤 절로 갑니까?}

10801 # 이제 책찌금 인자,책찜 민는 저리 다 따로 안 인능가요. {이제 각각 이제 각각 민는 절이 다 따로 있잖아요?} @ 음: 그래요이~. {음, 그래요.}

10801 @ 초팸:른 그러케 저레가고 놀:고이~. {초파일은 그렇게 절에 가고 놀고,}

10801 @ 오:위례는? {오월에는?}

10801 # 인자 다:논나리제. {이제 단오날이지.}

10801 @ 다논나른 지 지그른 다논나른 안세지마는, 혹시 엔:나레 기여기 이썸니까 다노?
{단오날은 지 지금은 단오날은 안 쇠지마는 혹시 옛날에 기억이 있습니까? 단오?}

10801 # 다논날 머 어:디 저저그 하동 송리거튼디 그런디, {단오날 뭐 어디 저 저기 하동
송림 같은 데 그런 데,} @ 음 # 막 계:를 해가꼬, {막 계를 해가지고} @ 음 # 거그 가서
하동 송리메 그네가 이꺼등요. {거기 가서 하동 송림에 그네가 있거든요.}

10801 @ 송리 송리미라는 데가 소나무 수피꼬 {송림 송림이라는 데가 소나무 숲이 있고,}
예. @ 그러는데 말하는. {그러는 데 말하는} # 예요.

10801 # 그 하동그 다리까에 거 다리미테 거그 {그 하동 그 다릿가에 그 다리 밑에 거기,}
@ 음 # 거그가서 막 메고치고 놀:고. {거기 가서 막 풍물하고 놀고,} @ 음

10801 # 쟁썸 동네 인자 계:를 해가꼬 거 가서 인자 그런날 놀:고 오고 그래썸요. {각각
동네 이제 계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날 놀고 오고 그랬어요.}

10801 @ 음: 아 여기는 하동으로 마:니 놀:로가네요이~. {음, 아 여기는 하동으로 많이 놀
러 가네요.} # 예. @ 저도 그쫘그로 한번 가바야테젠네 하루는 (웃음) 어떠케그냥 가바야젠
네. 예 그네도 떠:고. {저도 그쪽으로 한번 가 봐야 되겠는데 하루는 (웃음) 어떻게 그냥 가
봐야겠네. 예 그네도 뛰고.}

10801 # 예 그 하동 거그 가면 그네 종:거 메:나썸요. {예, 그 하동 거기 가면 그네 좋은
것 메어 뵈어요.} @ 음:

10801 # 지그른 인능가 몰라 난:, 거그 안가본자 여러해 대:썸. {지금은 있는지 몰라. 난
거기 안 가 본 지가 여러 해 뵈어.} @ 예. # 저네는 그 놀:로 계:를 해가꼬 거그 놀:로도
가고, {전에는 그 놀러 계를 해가지고 거기 놀러도 가고,} @ 음 # 막 함:복입꼬 가서 다논
나리라 그네 텐다고 그냥 계:를 해가꼬 안 놀:고 오고 그랜는디, 그 {막 한복 입고 가서 단
오날이라 그네 태운다고 그냥 계를 해가지고 놀고 오고 그랬는데,}

10801 # 모래바테 막 다름치기 하고 {모래밭에 막 다름박질 치기('다름치기'는 '다름박질
치기'의 뜻) 하고} @ 예. # 다름치기 해아꼬 비누 메짱썸 따고 막 그냥 {다름박질 치기 해
가지고 비누 몇 장씩 타고 막 그냥,} @ 음 # 동네서 그리 장나늘이루고 그랜는디, 지그른
야가가꼬 (웃음) {동네서 그렇게 장난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아가지고,} @ (웃음) 야
가가꼬? {(웃음) 약아가지고?} # 야가가꼬 쟁썸금 살림만 살:라하오 도:니나 별락 허고 누
늘 까고 그러지 머. {약아가지고 각각 살림만 살려 하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눈을 까고 그
러지 뭐.}

10801 # 유:월 처른요? 다노 다음 유:월. {유월철은요?, 단오 다음 유월.}

10801 # 유두. {유두.} @ 유두 유두 때는 머 합니까? {유두 유두 때는 뭐 합니까?}

10801 # 유두제 안지내요? {유두제 지내잖아요?}

10801 @ 유두제. {유두제.} # 예. @ 엄

10801 # 저네는 유두주 지낸다고 또 떡해가꼬 논: 물끼미테 또 떡 가따가 부꼬 채리노코.
{전에는 유두제 지낸다고 또 떡 해가지고 논 물꼬 밑에 또 떡 가져다가 붓고 차려 놓고,}

10801 @ 논: 물꼬 인는데다가? {논 물꼬 있는 데다가?}

10801 # 예 물뀌에 물드러가는 물뀌에, {예, 물꼬에 물 들어가는 물꼬에,} @ 예. # 거따
떠글가따노코 그래따여. {거기다 떡을 가져다 놓고 그랬대요.} @ 오: # 유두제라고. {유두
제라고.}

10801 @ 고 거기또 거그 구신한테 또. {그 거기 또 거기 귀신에게 또}

10801 # 거 구:신 달개능거 그거또. {그 귀신 달래는('달개다'는 '달래다'의 방언형) 것 그것
도.} @ 달개는 거조. {달래는 거지요.} # (웃음) @ (웃음) 유두제~ 음. {유두제. 음.}

10801 @ 그다몬 치위른? {그 다음은 칠월은.} # 백쫑. {백중.}

10801 @ 백쫑. {백중.}

10801 # 머심들 설:랄. {머슴들 설날.}

10801 @ 아: 머심드른 인제 고생해따고? {아, 머슴들은 이제 고생했다고.} # 예. @ 어:

10801 # 공개 그런 노래가 다 안인능가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다 있잖아요?} @ 아:

10801 @ 그러면 머심드를 위해서 먼: 합니까? 머 어떻게 음식 채려주고. {그러면 머슴들
을 위해서 뭐 합니까? 뭐 어떻게 음식 차려 주고.}

10801 # 인자 머심들 서:리라고 하문 채리가꼬 인자 우리도 놀:고 인자 머심들또 놀:고 인
자, {이제 머슴들 설이라고 하면 차려가지고 이제 우리도 놀고 이제 머슴들도 놀고 이제.}
@ 음 # 그래쪼요. {그랬지요.} @ 음

10801 # 외나 추석뽕동 보름 저 치윔 백쫑을 더 크게 세:썩요. {오히려('외나'는 '오히려'의
뜻) 추석보다 보름 저 칠월 백중을 더 크게 췌어요.}

10801 @ 아 엔:나레느뇨? (아, 옛날에는요?) # 예.

10801 # 추서근 씨꼬지로 간다고, 김: 그거이 양식허러 가능거. {추석은 쉼 쫓으러 간다고, 김 그것이 양식하러 가는 것,} @ 아:

10801 @ 암 추석때요? {암, 추석 때요?} # 예 @ 아:

=1 # 저: 지리산 밋에 그런디 가서 인자 씨:펼쩌가꼬, {저 지리산 밋에 그런 데 가서 인자 쉼나무를 찌 가지고,} @ 음:

=1 # 스무대:지 인자 그거이 시방 마래자거트문. {해장죽('스무대'는 '해장죽'의 방언형) 이제 그것이 시방 말할 것 같으면,}

=1 @ 스무데? {해장죽?} # 예. @ 데:~ {대?} # 대:요. {대요.}

=1 # 가느소름헌 대: {가느스름한 대.} @ 으으음 예. # 막 가지 마:이 낭거. {막 가지 많이 난 것.}

=1 @ 그걸 여긴 씨피라 합니까? {그걸 여기는 쉼이라 합니까?}

=1 # 거:인자 산:주기라 그래요. {그 이제 산죽이라 그래요.} @ 음 # 산:주기고, {산죽 이고.}

=1 # 지그문 여으가 깔바치 업썌요. {지금은 여기가 갈대밭이('깔밭'은 '갈대밭'의 방언형) 없어요.} @ 예. # 저네는 여으 방침밋에서부터 내리드리 처:그 {전에는 여기 저수지('방침'은 '저수지'의 뜻) 밋에서부터 내리 저기,} @ 아하 # 광영꺼장 깔바치라요. {광영까지('광영'은 지명) 갈대밭이에요.} @ 예.

=1 # 그문 그걸 항: 찌가꼬 떼배를 무거가꼬 무리 다든너나 떼배를 무거가꼬 올라오는디는 막 올라 오고, {그러면 그걸 항 찌가지고 떼배를 묶어가지고 물이 다 들어온 때나 떼배를 묶어가지고 올라오는 데는 막 올라오고,} @ 음

=1 # 또 일:꾼 업:는 지비는 그걸 막 여자들또 막 마지비르 나와가꼬 한다발씩 이고 오고, {또 일꾼 없는 집은 그걸 막 여자들도 막 마중을('마지비'는 '마중'의 방언형) 나와가지고 한 다발씩 이고 오고,}

=1 # 그래가 그노를 인자 난:나치 추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낱알이 추려요.} @ 음 # 막 요런디가 막, {막 요런 데에 막}

=1 @ 씨플? {썌을?} @ 인자 그 머이야, {이제 그 뭐야?} @ 깔? {갈대?} # 깔. {갈대.} @ 까르 {갈대를.}

=1 # 인자 그건 일련뻘끼는 모대요. {이제 그건 일련뻘끼는 못해요.} @ 음 # 일련뻘끼는 모더고. 저 산:주기라고 저:근 지리산 미테 그런디 가서 이에 스무대 찌가 웅거는, {일 년뻘끼는 못하고. 저 산죽이라고 저기 지리산 밑에 그런 데 가서 해장죽 찌가지고 온 것은.} @ 음 # 된:년에도 한 삼년해:요. {다음 해에도('뿔년'은 '다음 해'의 뜻) 한 삼 년 해요.} @ 으 음: # 궁께 그거능 비싸고 요거는 싸고. {그러니까 그것은 비싸고 이것은 싸고.}

=1 # 그 그래가 인자 그노를 대:깨씩 요리 몽쳐서 지플가꼬 점:부 가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땃개씩 이리 몽쳐서 짚을 가지고 전부 감아요.} @ 음 # 그래가 인자 요리 한다 발씩 한다발씩 해가꼬, 인자 배:르 메치씩 어울라 가꼬,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한 다발씩 한 다발씩 해가지고 이제 배를 몇씩 어울러가지고,} @ 음 # 심지어 뻘:면 인자 인자 도리 아니 인자 글 보고 머라헨니 저네, 인자 수도르 요리 내:노코 인자 또 여나무 집씩 요래 한:수도고 일수도 이:수도 그리 해가꼬 그리 허면, {심지름(?) 뻘면 이제 둥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했니? 전에, 이제 수도를 이리 내어 놓고 이제 또 여남은 집씩 이렇게 한 수도고 일 수도 이 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1 # 인자 끼리끼리, 일수도 사암들 인잔 여나무시 허고, {이제 끼리끼리 일 수도 사암들 이제 여남은이 하고} @ 음 # 이:수도 싸암들 이:수도 싸암들또 여나무시 오오, {이 수도 사암들 이 수도 사암들도 여남은이 오고,} @ 음 # 그래가 인자 제경 인자 개지근데로 해가꼬 그걸, 그냥 이러케 그냥 떼배 떼배맹키로 이러구 우예다 요리 시러가꼬 그 우예가 막 사:람들 점부 오게오게 해가꼬, 배를 두대씩 인자 저:그 태인도 가서 어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그냥 떼배 떼배처럼 이렇게 위에다 이리 실어가지고 그 위에 막 사암들 전부 웅기종기('오게오게'는 '웅기종기'의 뜻) 해가지고 배를 두 대씩 이제 저기 태인도 가서 얻어다가,} @ 으흠

=1 # 두:개를 요래가꼬 인자 여근 쌍나르 요리 떼로 요리 매야가꼬, 여파가 막 이러케 하문 그냥 우예 인자 사:라미 마:니 안자서 톱 머 구더로가능.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쌍날을 이리 떼로 이리 매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위에 이제 사람이 많이 앉아서 꼭 뭐 굿하러 가는} @ 음

=1 # 그래가 머 정:심 머 새:꺼리 머 싸가꼬, 가서 인자 물꺼리를 인자 꼬바노코 인자 저녀게 인자 또 두:댕개 인자 갈라가꼬 글쎄 인제, 갈때는 짐 실꼬 갈라고 인자 두:대로 몽꺼찌마는 올찌게는 직썰 갈라가꼬 인자 치늬치느므로 인자, 이 배타고자비 이배타고 저배타고자름 저배타고라 인자 들무래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뭐 점심 뭐 결두리('셋거리'는 '결두리'의 뜻) 뭐 싸가지고 가서 이제 '물거리'를 쫓아('쫓다'는 '쫓다'의 방언형) 놓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두 대니까 이제 갈라가지고 그때 이제 갈 때는 짐 실고 가려고 이제 두 대로 묶었지마는 올 때에는 각각 갈라가지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친함친함으로'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뜻) 이제 이 배타고 싶으면 이 배 타고 저 배 타고 싶으면 저 배 타고 이제 밀물에('들물'은 '밀물'의 방언형) 올라와요.}

=1 @ 예 이케 그게 김 양식하기위해서 데를 쫓꾸마뇨. {예, 이렇게 그게 김 양식하기 위해서 대를 쫓구먼요.} # 예.

=1 # 인자 그카몬 그걸 인잡 남:자드리 인잡 요리 발로가 딴:능거 이꼬 인자 미치 쪼:뻔허니 우에 잠능거디꼬 그래야꼬 발로 가:꼬 막 쭈세가꼬 흔들면, 그 모래바테가 드러가며 인자 얼릉 또 우리더른 인자 글 꼬꼬 땡임서 얼릉 꼬자야대요. 언능 안꼬지른 거 구녕이 매케 빠링께.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남자들이 이제 이리 발로 딛는 것 있고, 이제 밭이 쪼뻔하게 위에 잡는 것 있고, 그래가지고 발로 가지고 막 쭈서가지고 흔들면 그 모래밭에 들어가면 이제 얼른 또 우리들은 이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얼른 꽃아야 돼요. 얼른 안 꽃아지면 그 구멍이 막혀 버리니까.} @ 음:

=1 # 그거 빼:자마자 또 얼릉 꼬꼬 또 빼, 또 요래가꼬 이따가 또 남자들 심미 드러서 이막 흔들서룽 올: 꼬자 노:먼 언능 빼:먼 인자 또 얼릉 꼬꼬. {그것 빼자마자 또 얼른 꽃고 또 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또 남자들 힘이 들어서 막 흔들면서 이리 꽃아 놓으면 얼른 빼면 이제 또 얼른 꽃고.} (웃음) # 하유 사:람 사:능거이 사:능거이 아이라. {아휴 사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야.}

10801 @ 그게 주로 파월 보름때 파월 {그게 주로 팔월 보름 때 팔월.} # 예: 보름씨예, {예, 보름 때예.} @ 에 그때 함 하나까. {그때 하나까.} # 예.

10801 # 궁께 추서글 몬: 시요. {그러니까 추석을 못 쇠요.} @ 그러구나 {그렇구나.} # 그걸허로 가니라고. {그걸 하러 다니느라고.} @ 으음: # 그렇게 인자 치를 백쫑에 그냥 재미께 놀:고. {그러니까 이제 칠월 백쫑에 그냥 재미있게 놀고.} @ 치될 백쫑에. {칠월 백쫑에.} # 예

=1 @ 아까 머 일수도 이:수도 그럴때 수도라능 거슨 머:예요? {아까 뭐 일 수도 이 수도 그럴 때 수도라는 것은 뭐예요?}

=1 # 인자 요:리 인자 점:부 요리 인자 주를 자바서 요:리 허먼 인자 여나무시 요:리 인자 쪽: 그러면 여그를 인자 배가 드러가고러 널찍허이 요래 나:또요. {이제 이리 이제 전부 이리 이제 줄을 잡아서 이리 하면 이제 여남은이 이리 이제 쪽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배가 들어가게 널찍하게 이리 놔 뒤요.} @ 아

=1 # 그 도동놈더리 저그 저저그 저 개적헌디 태인도 저런디 도동념드리 {그 도둑놈들이 저기 저 저기 저 가까운 데 태인도 저런 데 도둑놈들이.} @ 음 # 저녀그로 와서 짹 뜨더가 가부리요 {저녁으로 와서 짹 뜯어서 가 버려요.} @ 아:

=1 # 뜨더 강:개 인자, 요 우리 동네에서 인자 또 상:격꾸니라고 저녀그로 지키는 사라를 하나 도:요 {뜯어가니까 이제 이 우리 동네에서 이제 또 '상격꾼'이라고 저녁으로 지키는 사람을 하나 뒤요.} @ 음 # 배르 타고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1 # 근자 그사암드리 인자 가서 그사암들 자바가꼬 오면 인자 디:예 인자 재피 노면 디:예 시끄럽쪼 인자.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오면 이제 뒤에 이제 잡혀 놓으면 뒤에 시끄럽지요. 이제.} @ 음:

=1 # 인자 별그블 무러라 어째라 또 모 {이제 별금을 물어라 어째라 또 뭐,} @ 근데 아까 {그런데 아까,} # 도:늘 무러내라. {돈을 물어내라,} @ 일수도 이:수도 그레션는다? {일 수도 이 수도 그레션는데,}

=1 # 그렇게 인제 요리 피:노먼 인자 요 배타고 들꺼 아니요 여그에 인자 일수도고, {그러니까 이제 이리 피 놓으면 이제 이 배 타고 들어갈 것 아니예요? 여기에 이제 일 수도고,} @ 어 # 또 요만치 인자 배타고 드러갈 때 마:니 냉가노코, {또 이만큼 이제 배 타고 들어갈 때 많이 남겨 놓고,} @ 아 또 구역기 이꾸나. {아, 또 구역이 있구나,} # 또 그다으메 또 요리 책쩌금 구역게 요:래먼 또 이:수도. {또 그 다음에 또 이리 각각 구역에 이리 하면 또 이 수도,} @ 아 구역기 일:수도 이:수도 아 자기 구역기구나. 음 {아, 구역이 일 수도 이 수도 아 자기 구역이구나. 음} # 그래가꼬 기:를 해 무거써요. {그래가지고 김을 해 먹었어요.} @ 음: 그레써요. {음. 그랬어요.}

=1 # 요쪽 강가에서 등이 이쓰른 인자, 요거이 등거트문 저쪽 강가에야꺼장 {이쪽 강가에서 등이 있으면 이제 이것이 등 같으면 저쪽 강가에까지,} @ 음 # 쪽:허니 인잔 도:니 자:꼬 줌 혈싸라미 엄:는 사:라든 드문드문 해이꼬, {쪽 이제 돈이 자꾸 줌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드문드문 해 있고,} @ 예 # 인제 일:꾼 망:코 인자 해무글 싸라미 마:는 사람드른 그냥, 서필 마:니 해아꼬 함빡 그냥 총:총 꼬꼬. {이제 일꾼 많고 이제 해 먹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쏠을 많이 해가지고 흠빡 그냥 촌촌하게 쫓고} @ 예.

=1 # 그러문 파래가 이나무야서 지나무야 절:고 지나무야서 지나우로 또 불철선 느러놓거 맵키라요. {그러면 파래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 걸고 저 나무에서 저 나무로 또 전깃줄('불철선'은 전깃줄의 뜻) 늘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요.} @ 음 # 그러문 요:리 한주먹 흠치가 꼬 바구리에 다머 뽕뽕해요. {그러면 이리 한 주먹 움켜가지고 바구니에 담아 가득해요.} @ 음

=1 # 거 배가 잘금잘금잘금 허드럭까지 인자 막, 한지비 두:리 가는 사람 하나 가는 사람 막 서:이 오는 디는 배쪼분디 서:이 와따고 또 야:다니고, 그래노먼 인제 {그 배가 잠길락 말락('잘금잘금잘금'은 '배가 잠길락 말락 할 정도로'의 뜻) 하도록까지 이제 막, 한 집에 들어 가는 사람, 하나 가는 사람, 막 셋이 오는 데는 배 좁은데 셋이 왔다고 또 야단이고 그래 놓으면 이제,}

=1 # 내려갈 때는 무리 다: 드러서 내려가찌마내도, 올라올 때는 무리 꼬랑에 물 쪽: 빠져 뿌닝까 물 든대로 따라 올라 올랄랑께, 지미 차서 몬 놀랑께, 저:그 태인도다가 사:람 싹 푸러 내:비리요. {내려갈 때는 물이 다 들어서 내려갔지마는 올라올 때는 물이 도랑에 물 쪽 빠져 버리니까 물 드는 대로 따라 올라 올라가려니까 김이 차서 못 올라가니까 저기 태인도에다가 사람 싹 풀어 내 버려요.}

=1 @ 아하 # 인자 {이제} @ 김만 가져오게끔? {김만 가져오게끔}

=1 # 인제 지 내 전:는 사:람만 이꼬, 나무치는 전:는 사람만 맨 냉가노코 싹 가라그러문 거:서 거러올라와요. {이제 저 노 젓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나무치'는 '나머지'의 방언형)}

젓는 사람만 남겨 놓고 싹 가라 그러면 거기서 걸어 올라와요.}

=1 # 매: 아페오는 사람 다르플 치고, 몬 따라오문 디:에 처지고, {맨 앞에 오는 사람 달음
질을 치고 못 따라 오면 뒤에 처지고,}

=1 @ (웃음) 그 그녀 기:를 언제부터 해때요 이게 광양에? {(웃음) 그 그녀 김을 언제부터
했데요?}

=1 # 저네 우리 아버지들부터서 다 핸:능갑때요. {전에 우리 아버지들부터서 다 했나 보데
요.} @ 아 그래요이~ {아, 그래요.} # 그러:면 저:그 오중에 나루 꼬테리라고 근는디, 거그
그야간 거그도 무리 드는 디가 이썬요. {그러면 저기 오징어 나루 끝이라고('오징어 나루 끝
'은 지명) 그랬는데 거기 그 ?? 거기도 물이 드는 데가 있어요.} @ 음

=1 # 글 안호문 저:리 오꼬글 도라와야 텅개로, 시방 거: 그 개마근디 그리 건내오 그리 오
문. {그렇지 않으면 저리 옥곡을 돌아와야 되니까 시방 그 그 개 막은 곳 그리 건너 그리
오면,}

=1 # 그니까 무란대 파레 물 안대고잔 사라문 인자 켜썸 치늬치르미 어버 건내요. 하나이
나 그거 어름무레다 바를 당구고 나오면 인자, (웃음) 모도 어버서 건내고. {그러니까 물
안 대 팔에 물 안 대고 싶은 사람은 이제 각각 친한 사람들끼리 업어 건너요. 하나나 그것
얼음물레다 발을 담그고 나오면 이제 (웃음) 모두 업어서 건내고.} @ 음 # 그레썬요. {그
랬어요.}

=1 @ 그 김 갑썬 어때썬니까, 그때? 엔:나레는 조아찌 안나요? 김갑썬? {그 김값은 어땀썬
니까 그때? 옛날에는 좋았지 않나요? 김값은?}

=1 # 하모예. 그래가 인자 여으 조하베서 해:태 조하베서, 인자 조합지권드리 인자 또 빼
뜨로 땡기요. 조하베 안넌는다고. 조하베 여:문 또 즈그가 수수로르 땡:개로, {아무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조합에서 해태 조합에서 이제 조합직원들이 이제 또 빼앗으리('빼틀
다'는 '빼앗다'의 뜻) 와요. 조합에 안 넣는다고. 조합에 넣으면 또 저희가 수수료를 떼니
까.} @ 음

=1 # 그거 안떼일라고, {그것 안 떼이려고.} @ 음 # 하동장으로 인자 멀:리 이고 가요.
{하동장으로 이제 멀리 이고 가요.} @ 음 # 멀:리 이고 가다 빼끼면 인자 또, {멀리 이고
가다 빼앗기면 이제 또,}

=1 @ 으:무저그로 조하베다 네야돼 메:상을 해:야 데능거요? {의무적으로 조합에다 내야
돼 메상을 해야 되는 것이예요?}

=1 # 예. @ 아 # 거넌디에 멀:리 포라 무을라다 들리몬, {그랬는데 멀리 팔아 먹으려다 들
키면('들리다'는 '들키다'의 뜻)} @ 음 # 들리몬 빼:끼몬 인자 또 구마나라요. {들키면 빼앗

기면 이제 또 그만이에요.}

=1 @ 아하 (웃음) 그거또 으:무저기니 저기가. {아하. (웃음) 그것도 의무적이니 저기가.}

=1 # 그러 우리 망내 저걸 저저 사평이란데 지낼 거그에 또 조하비 이썬는다, 저 태인도 싸라미 거그서 인자 조하브 지귀느로 인자 거: 인는다, {그러 우리 막내 저걸 저 저 사평이란데 진월 거גיע 또 조합이 있었는데, 저 태인도 사람이 거기서 이제 조합의 직원으로 이제 그 있는데,}

=1 # 서기란 사라미 어:떠께 도케 그사라문, 지 장:모거또 빼뜨린다고 그사람. {서기란 사람이 어떻게 독해 그 사람은, 제 장모 것도 빼왔는대요, 그 사람.} @ 음 # 너무 누니 예러 붕개. {남의 눈이 어려우니까.} @ 음

=1 # 그래서 그등에는 기:미 놀:헌디, 우리거는 새캄해요. {그래서 그 등에는 김이 노란데, 우리 것은 새캄해요.} @ 음: # 그래 빼끼빼리고, 하동 장에 우리 망내르 업꼬 가가꼬 빼끼 빼리고, {그래 뺏아겨 버리고 하동 장에 우리 막내를 업고 가가지고 빼앗겨 버리고,}

=1 # 그때 세:통을 가간냐, 야달개씩 거이 세:통을 인잔 포::각 누질라가꼬 그래가 집 싸가꼬 인자, 두테기로 인자 우리 애:기 인자, 포대기지 인자 시방은, 저네 두대기를 모라가꼬 그래가꼬 이:고 간는다, {그때 세 통을 가지고 갔나 여덟 개씩 거의 세 통을 이제 아주 짹('포각'은 '아주 짹'의 뜻)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쥘 싸가지고 이제 기저귀로('두테기'는 '기저귀'의 뜻) 이제 우리 아기 이제 포대기지 이제 시방은. 전에 기저귀를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고 갔는데,}

=1 # 갈 때는 몸 만대노건디, 우리 친구 주구 언니가 그걸 행:는다, 그또 그 함께 험짜꾸니라. {갈 때는 못 만날 건데, 우리 친구 저희 언니가 그걸 했는데 그 또 그 함께 험잡꾼이야.} @ 음:

=1 # 인자 그사라를 사가꼬 인자 좀 자바도라, 그렇걸 나는 짬도 모르고 그 언니를 보고, 언니 나와 인제 생이라고 그래찌 저네는, 생이 나 요걸 애기를 업꼬 가꼬 완는다 좀 포라조 그러드만, 더르렁 가꼬와서 데꼬와서 가꼬가. (웃음) {이제 그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좀 잡아 달라 그런 걸 나는 짬도 모르고 그 언니를 보고 언니 나와 이제 형이라고 그랬지 전에는. 형이 나 이걸 아기를 업고 가지고 왔는데 좀 팔아 줘 그랬더니마는 더르렁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가져 가.}

=1 @ 아우 # 그래가 이 인자, {그래가지고 이 이제,} @ 아 아:논 사라민데도 그래요? {아 아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 하모 동:네 언니지. {아무렴, 동네 언니지.} @ 음:

=1 # 그래 인자 씨예 그 빼끼빼리고 그냥 와가꼬, 인제 씨예는 인자 김: 뜨더웅거 다 몰류고 인자 조구메 인자 차즈로 강개, {그래 이제 '씨예' (?) 그 빼앗겨 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씨예는' (?) 이제 김 뜯어온 것 다 말리고 이제 조금에 이제 찾으러 가니까,}

=1 # 인자 그사람드리 빼뜨려 감서 인자 또 전포르랑 해 조요. 암:디 지귀닝께 그리 차즈로 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가면서 이제 또 전포랑 해 줘요. 아무 데 직원이니까 그리 찾으러 오라고.} @ 음: # 차즈로 가면 인자 싸디 싸게, 그냥 안 빼뜨라무꼬, {찾으러 가면 이제 싸디 싸게 그냥 안 빼앗아 먹고,} @ 음 # 싸디 싸게 해서 조요. {싸디 싸게 해서 줘요.}

=1 # 그래 강 애:기도 업:꼬 인자 조고메 인자 하리 가:닝께, 영:가미 하나 그걸 김: 그거 다발 무끄는 사라미데요. {그래 그냥 아기도 업고 이제 조금에 이제 하루 가니까 영감이 하나 그것 김 그것 다발 묶는 사람이데요.} @ 음 # 가 어찌 와쑈 그러듬만, 나 아리게 하동 장날 저 기:물 여그 서기등가 그 당신한테 빼끼쑈 그래서 그거 차지러 완네요 그란디 {가 어찌 왔소 그러더구먼. 나 며칠 전에 하동 장날 저 김을 여기 서기인지 그 사람한테 빼앗겼소. 그래서 그것 찾으러 왔네요 그런데}

=1 # 우리 애기가 세:사리나 무거씨꺼요 그러다봉께 애기가 점:심 때가 지:논께 막 배아 고파 정우리를 해:쌍께, 인자 또 인자 딴 사람들허고 머 만날 싸라미 이씨가 그사라른 술무그로 가뿌리고 업:꼬 그 영:가미 뭉끄다가, {우리 애기가 세 살이나 먹었을거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점심 때가 넘어 놓으니까 막 배가 고파 청얼대니까 이제 또 이제 딴 사람들하고 뭐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술 먹으러 가 버리고 없고 그 영감이 뭉다가,}

=1 # 나:가 나도 모리게 가:가따 허꺼잉께 언능 요거 썰이가꼬, 요 동:네르 드러가마 아 저 이 지 저저 동네 입구에 거 거그 주막찌비 거 술 무그로 가쌍께, {내가 나도 모르게 가져 갔다 할 거니까 얼른 이것 몰래 가지고 이 동네를 들어가면 아 저기 저 저저 동네 입구에 거 거기 주막집 거기 술 먹으러 갔으니까,} @ 음 # 동:네르 가지마고 저:리 해서 방 개까에 방천미트로 해서 쪽 가라 그러데요, 그 노이니. 얼롱가꼬 가씨요 쫓쫓이썰면 오겨요 고래, {동네를 가지 말고 저리 해서 갯가에 저수지 말로 해서 쪽 가라 그러데요, 그 노인이 얼른 가지고 가시오 조금 있으면 올 거요 그래.} @ 음

=1 # 그먼 하라씨는 어찌꺼요 난:중에 이거 조:따고 하라씨 어찌꺼요 궁께, 나도 모리게 가:가따 그러꺼잉께 다 걱정 말고 가꼬 가라 글데. 그래서 차자가꼬 와쑈. {그러면 할아버지는('하라씨'는 '할아버지'의 방언형) 어쩔 거요? 나중에 이것 쫓다고 할아버지 어쩔 거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져 갔다 그럴 것이니까 다 걱정 말고 가지고 가라 그러데. 그래서 찾아 가지고 왔어.} @ (웃음)

=1 # 차자가꼬 와서 인자 노: 조하베다 여:씨요. {찾아가지고 와서 이제 노 조합에다 넣었어요.} @ 어: (웃음) 저 별말 업뎡가요? {(웃음) 저 별말 없던가요?} # 하모요. {아무렴요.} @ 어:

=1 # 그거또 포라 무글라른 그리 어시고, 저녁:내 사능거이 사능거이 아니랴요. {그것도 팔아 먹으려면 그리 궁하고('어시다'는 '궁하다'의 뜻) 저녁내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예요.} @음

=1 @ 쉬웁게 하나도 엄네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네요.} # 예.

10801 @ 음 그런디 그 때무네 하여튼 파뤄른 추서근 그냥 데:충 보내시고 백쫑은 좀 걸:게 하고이~. {음, 그런데 그 때문에 하여튼 팔월은 추석은 그냥 대충 보내시고 백중은 좀 걸게 하고.} # 예. @ 아~

10801 @ 그다으메 구:월 구:월 이렇거 머 머 이썸니까? {그 다음에 구월 구월 이런 것 뭐 있습니까?} # 구:월 기일. {구월 기일.} @ 기일? # 예. @ 구:월 기이리 머예요? {구월 기일이 뭐예요?}

10801 # 저네는 이 부모들 주그먼 삼년상 안추리능가요이~. {전에는 이 부모들 죽으면 삼년상 치르잖아요?} @ 예. # 건:디 인자 상:자드리. {그런데 이제 상주들이,} @ 예. # 상:주드리 구:월 기일나른 인자 바블 해가꼬 메 메:야 인자 차자가요. {상주들이 구월 기일날은 이제 밥을 해가지고 묘 묘에 찾아가요.} @ 예:

10801 # 그 제:충을 지:노코 마당가에다 제:충을 지:노코, {그 '제충'을 지어 놓고 마당가에다 '제충'을 지어 놓고,} @ 음: # 거그서 또 고:그 허고, {거기서 또 곡하고.} @ 오: # 상주드리, {상주들이.}

10801 @ 아아 구:워른 그러는 다리구뇨. {아아, 구월은 그러는 달이군요.}

10801 # 상주드리 점:부 와서 인자 인자 추석 그런때는 켜썸금 밥 채려논니라고 아노는 사라미 마:나요, {상주들이 전부 와서 이제 이제 추석 그런 때는 각자 밥 채려 놓느라고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 음 # 아드리라도. {아들이라도.} @ 음: # 아는 사라미 마:는데, 기일나른 인자 야:무 거세기 엄썸께 점:부 다 와요. {안 오는 사람이 많은데 기일날은 이제 아무 뭐가 없으니까 전부 다 와요.} @ 예: # 궁께 바로 제:사 지내는 날. {그러니까 바로 제사 지내는 날.}

10801 # 제:사 모시는 나링께로, 인제 점:보 고걸허고, 큰지비서 인자 세:상 배린 지비서 음시글 해가꼬, 새보게 {제사 모시는 날이니까 이제 전부 그걸 하고 큰 집에서 이제 세상 떠난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새벽에,} @ 음 # 새보게 인자 제:사 모:시고 또 인능걸 엄:능걸 채:레가꼬 또 ,산소예로 가요. {새벽에 이제 제사 모시고 또 있는 것 없는 것 차려가지고 또 산소예로 가요.} @ 음

10801 # 산소에 가서 인자 또 절 허고 그래 와서 또 지비 머 와서 밤무꼬 인자 갈리고. {산소에 가서 이제 또 절하고 그래 와서 또 집에 뭐 와서 밥 먹고 이제 헤어지고('갈리다'는 '헤어지다'의 뜻).} @ 음

10801 @ 그 다으메 시:워르뇨? {그 다음에 시월은요?}

10801 # 시:워른 먼 나리니? {시월은 무슨 날인가('-니'는 '-는가'의 뜻)?}

10801 @ 시:워른 네 뭐 시:워른 상:다리라고 허는, {시월은 네 뭐 시월은 상달이라고 하
는,} # 어. @ 그러는 그렇게 이썸니까? {{그러는 그런 게 있습니까?} # 어.

10801 # 그거는 인자 보 상:딸. 보름딸. {그거는 이제 보 상달 보름달.} @ 예 # 시:월 보
름딸. {시월 보름달.} @ 예 # 그거 인자 그거느닌자 머 별로 채:리는 거또 업:꼬 {그거 이
제 그것은 이제 뭐 별로 차리는 것도 없고,} @ 예 #그러코. {그렇고}

10801 @ 그러면 인자 서:딸. {그러면 이제 선달.}

10801 # 저 인제 동지딸. {저 이제 동짓달}

10801 @ 응 동지딸 동지. {응 동짓달 동지.}

10801 # 동지 때는 동지죽 썬무꼬. {동지 때는 동지죽 썬 먹고.}

10801 @ 동지죽 썬무꼬. {동지죽 썬 먹고.} # 예. @ 죽만 썬니까? 아니믄 동지죽을 또 가
꼬 뭐 다른 {죽만 썬니까? 아니면 동지죽을 또 가지고 뭐 다른}

10801 # 인제 동지죽 썬가꼬 천:지다 뿌리지요. {이제 동지죽 썬가지고 사방에다 뿌리
지요.}

10801 @ 아 천지다가. {아, 사방에다가.}

10801 # 시 시간 마차서. {시 시간 맞춰서.}

108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801 # 동지 시가 안 인능가요? {동지 시가 있잖아요?} @ 아: # 거:먼 인제 수두르 떠
나:따가, {그러면 이제 '수두'(?를 떠 났다가,} @ 음 # 인자 입 안대고 인자 그르게 떠나:
따가 인자 모도 무꼬. 저녁꺼트며 저녁 그시에 인자 천지다 막 뿌리지요. {이제 입 안 대고
이제 그릇에 떠 났다가 이제 모두 먹고, 저녁 같으면 저녁 그 시에 이제 사방에다 막 뿌리
지요.}

10801 @ 음: 인자 나쁜 귀:신 인자 다 업:째라 업:써지라고이~. {음, 이제 나쁜 귀신 이제
다 없애라 없애지라고.} # 예.

10801 @ 그다으메 인자 서:따레는? {그 다음에 이제 선달에는?}

10801 # 서:따레는 인자 내나 그믐날 채리논능. {선달에는 이제 내나 그믐날 차려 놓
은 것.}

10801 @ 그믐날 채려 논능 거시조이~? {그믐날 차려 놓는 것이지요?}

10801 # 그래서 일런 가조. {그래서 일 년 가지요.}

10801 @ (웃음) 그러네요. {그러네요.}

10801 # 동지에도 짹: 채리나요 방에. {동지에도 짹: 차려 놓아요, 방에.} @ 아: # 동지죽 썬가꼬 짹: 채리나. {동지죽 썬가지고 짹: 차려 놔.} @ 아

10801 @ 동지죽또 채려놓니까? {동지죽도 차려 놓습니까?} # 예 @ 음 방에다 채려 노코 또 바께 뿌리고이~. {음, 방에다 차려 놓고 또 밖에 뿌리고.} # 예. @ 예.

10801 @ 과:거에는 달마다 행사가 이썬네요이~. {과거에는 달마다 행사가 있었네요.}

=1 # 내:일 내일 머 호남 찌방에 비온다덤마는 여그도 올랑가 어쩔랑가. {내일 내일 뭐 호남 지방에 비 온다더니마는 여기도 오려는지 어찌려는지.}

=1 @ 비온데요? {비 온대요?} # 예. @ 음: # 근디 여그도 올랑가 모르건네. {그런데 여기도 오려는지 모르겠네.}

=1 @ 음: 머 일하실꺼 이쓰세요? {음, 뭐 일하실 것 있으세요?}

=1 # 오게되문 저 치놀바틀 거더야지 비로 마쳐야지. {오게 되면 저 비닐밭을 거둬야지 비를 맞춰야지.} @ 음:

=1 @ 비마칠라면 그 아 비니루 비니루 거드시게? {비 맞히려면 그 아 비닐 비닐 거드시게?} # 예. @ 음 시가니 그러며는 일하셔야되건 네요. 그럼 이정도로 하까요? {음, 시간이 그러면은 일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 정도로 할까요?}

=1 # 더 허꼐 이썬면 허시요, 안종피. {더 할 것 있으면 하시오. 어차피('안종피'는 '어차피'의 뜻).} @ 아니 더 허꺼 시가니 시가니 한 시가니 더 허꺼시야 이썬요, 인는데. {아니, 더 할 것 시간이 시간이 한 시간이 더 할 것이야 있지요 있는데,}

=1 # 해 해:서 썬 얼릉 {해, 해서 썬 얼른.} @예. 안 # 냉게 부먼 쓰거. {넘겨 버리면 쓰겠.} @ 썬썬 {조금}

=1 @ 더 하조 그러면 {더 하지요 그러면.}

1.4.2 전통 놀이

10802 @ 자 이러케 행사드리 이썬 때 남자드른 주로 어떤 이:를 하고 노란능가 헐는데, 아까 메구치기도 하고 남자드리요이~. {자 이렇게 행사들이 있을 때 남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놀았는지 했는데 아까 풍물 치기도 하고 남자들이요.} # 예. @ 남자 남자 여자 드른 메구 메구 안창가요? {남자 남자, 여자들은 풍물 풍물 안 치나요?}

10802 # 왜 여자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고. {왜, 여자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고.} @ 어 남자 드른 주로 머: 합니까? 놀 놀 논:다 헐 떼는, {어 남자들은 주로 뭐 합니까? 놀 놀 논다 할 때는?}

10802 # 인자 여자드른 안:닐 하고 남자드른 바깥닐 허지요. {이제 여자들은 안일하고 남자들은 바깥일 하지요.} @ 음:

10802 # 머 달집 찢는디 달집또 찢:꼬, {뭐 달집 짓는데 달집도 짓고.} @ 음: # 남자드른 지:꼬 여자드른 꼬어다 주고. {남자들은 짓고 여자들은 끌어다 주고.} @ 음:

10802 # 저 남자들또 지그믐, 저네는 그걸 해 소를 술까지 그렇걸 술가 술깁이 술깁이라 그래요, 저저 이파리 달링 걸. {저 남자들도 지금은 전에는 그걸 해 술을 술가지 그런 걸 술가 '술깁이', '술깁이'라 그래요. 저 저 앞 달린 걸.} @ 예예 # 술깁이 그거를 인자 남자드리 해가꼬 몽겨주면, 인자 제비집매이로 지어가 책제금 인자 다발다바리 여:다 나르고, {술가지('술깁이'는 '술가지'의 방언형) 그것을 이제 남자들이 해가지고 묶어 주면 이제 제비집 처럼 지어가지고 각자 이제 다발다발 여다 나르고,} @ 음 # 대도 몽겨주면 꼬어다 나리고 그랜는다. {대도 묶어 주면 끌어다 나르고 그랬는데.} @ 음

10802 # 지그믐 그냥 남자드리 그냥 차로, {지금은 그냥 남자들이 그냥 차로.} @ 음 # 인자 베:미피머 인자 여자드리 가서 인자 요리 개리주고, {이제 베 ??면 이제 여자들이 가서 이제 이리 가려 주고,} @ 음 # 개리주문 남자드리 몽꼬가 차에다 올라가 차로 막, {가려 주면 남자들이 묶어가지고 차에다 올라가지고 차로 막,}

10802 # 재하니지비 차로 가꼬 용달차르 가꼬 와서 한:차 실꼬 와 그냥 형개 시:버요. {재환이 집 차를 가지고 용달차를 가지고 와서 한 차 싣고 와 그냥 하나까 쉬워요.} @ (웃음) # 저네는 저무나 새:나구 그래. {전에는 '저무나 새나구' (?) 그래.}

10802 @ 막 줄다리거나 이렇거또 헤써요 과:거에? 동:네에하고 어뜨기 동:네하고 막 저기. {막 줄다리거나 이런 것도 했어요 과거에? 동네하고 어떻게 동네하고 막 저기}

10802 # 그렇거는 저네는 인자 그렇거를 인자 헨:능가썸띠다마내도, 저네는 시방은 저 하꼬서 그 줄다리기 하리썸 {그런 것은 전에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했는가 싶습디다만 전에는 시방은 저 학교서 그 줄다리기 하리썸,} @아아 # 안허능가요. {하잖나요?} @ 예 하꼬서. {예, 학교서.} # 그렇게 인자 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요.} @ 응 # 켜썸 동:네별로 노:능거이재. {각자 동네별로 노는 것이지.}

10802 @ 여자드른 머 그네를 떼:다등가 너:를 떼:다등가 그렇거뜨른 마:니 헤짜나요. {여자들은 뭐 그네를 떼다든지 널을 떼다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했잖아요?}

10802 # 저네는 마:니 널: 마니 띠:찌요. {전에는 많이 널 많이 뛰었지요.}

10802 @ 너:른 주로 언제 띠연나요? {널은 주로 언제 뛰었나요?}

10802 # 설:래 띠지 머. {설에 뛰지 뭐.} @ 설래. {설에.} # 예. @ 아: # 인자, {이제}

10802 # 손님들 오머 초하리 초이틀 초사할 {손님들 오면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10802 # 인자 딸레드른 인자 사 사허리 너머야 인저 켜찌금 찌비 손님 다 접때허고 나면
친정에 웅께. {이제 딸네들은 이제 사 사흘이 넘어야 이제 각자 집 손님 다 접대하고 나면
친정에 오니까.} @ 음:

10802 # 친장오면 인자 막 또 초다췌꺼장 가고 그러면 인자, {친정 오면 이제 막 또 초닷
새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10802 # 널: 나아노코 널: 띠고. {널 봐 놓고 널 뛰고,} @ 으흠:

10802 # 노푼 나무미테 인자 이씨면 또 군데도 땔: 쭈구도 이꼬. {높은 나무 밑에 이제 있
으면 또 그네도('군데'는 '그네'의 방언형) 땔 수도 있고.} @ 예 군데띠구요이~. {예, 그네
뛰고요.}

10802 # 애기드른 췌:끼 차고. {아이들은 제기('췌끼'는 '제기'의 방언형) 차고.}

10802 @ 췌:끼 차고? (웃음) {제기 차고 (웃음)} # 예. @ 그다음에 그 요것, {그 다음에
그 이것.}

10802 # 빼 팽이 치고. {빼 팽이 치고.}

10802 @ 팽이 치고이~. {팽이 치고.}

10802 @ 자: 그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요.}

10802 # 또 연: 띠우고. {또 연 띄우고.}

10802 @ 아: 여:는 여:는 주로 나 예:드리 띠:고 남자드리 띠:고 그러조이~? {아, 연은 연
은 주로 나 아이들이 띄우고 남자들이 띄우고 그러지요?}

10802 # 인자 어:런데리 인자 애기들 데꼬 띠우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띄
우지.}

10802 @ 음:, 그러게찌요. {그러겠지요.}

10802 # 시방 어디 연:띠운디가 어디 인능가요. {시방 어디 연 띄운 데가 어디 있나요?}
@ (웃음)

10802 # 나 저그 해:네 우리집 연:맨드라주까 시퍼서 저 스무대를 주:다 난:는디 아무도 머
거:또보도 안 허고, {나 저기 행여나 우리집 연 만들어 줄까 싶어서 저 해장죽을 주워다 봤
는데 아무도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10802 # 그리고 시바근 머이마드리 귀형깨, 게지배드링깨로머 연 맨드라도라 쏘리도 안허
고. {그리고 시방은 사내아이들이 귀하니까 게집애들이니까 뭐 연 만들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 (웃음)

10802 # 여:그도 연짜새요. 우리 애기거, {여기도 열레요('연자새'는 '열레'의 방언형). 우리
아이 것.} @ 으음 # 저 방아도 항개 이꼬 여그도 이꼬. {저 방에도 한 개 있고 여기도 있
고.} @ 음:

10802 # 돔:만주고 사다노코. {돈만 주고 사다 놓고.} @ (웃음)

10802 @ 그건 데:게 아부 아빠허고 가치해야 할텐디. {그건 대개 아버 아빠하고 같이 해
야 할 텐데.}

10802 # 예. 그래 해:나 저거 이썬서, 오라 맨드리꺼이나 형깨로 허도 안허고 마네. {예.
그래서 행여나 저것이 있어서 오라 만들까 하니까 하지도 않고 마네.} @ (웃음) 자.

10802 @ 그거 머 그정도로 하시구요이~ {그것 뭐 그 정도로 하시고요.}

10803 @ 어린애기, 막 인제 테어나서 한살 두:살 요런 애기들. 지난버네 제:가 한번 여쭙
봐씀니다만, 막 기어다니다가 기어다닌 노미 인제 막 슬라고 막 허자나요. {어린 아기 막
이제 테어나서 한 살 두 살 이런 애기들,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여쭙 봤습니다만 막 기어다
니다가 기어다닌 녀석이 이제 막 서려고 막 하잖아요?} # 예. @ 네: 그러든 인자 어:떠케
놀립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놀립니까?}

10803 # 아히고 우리 애기 서파서파서파:. {아이고, 우리 아기 섰다섰다섰다.} @ 음: # 섬
마섬마섬마 그러며, 서문 인자 아이고 서파서파. (웃음) {섬마섬마섬마 그러면 서면 이제 아
이고 섰다섰다.} @ (웃음)

10803 @ 아 섬마섬마는 막 슬라고~ {아, 섬섬섬마는 막 서려고.}

10803 # 예:. 서라고. {예, 서라고.} @ 서 서라 {서, 서라.} # 서라고. 애기 서라고. 인자
섬마섬마섬마섬마 그러면 막 장애 싸:서 막 이:꼬 여리 제:가 억찌로 요리 포도:시 서머 아
히고 서파서파서파 숨빠닥 뚜드리고. {서라고. 아기 서라고. 이제 섬마섬마섬마섬마 그러면
막 장하다고 해 썬아서 막 웃고('잇다'는 '웃다'의 방언형) 이리 제가 억지로 이리 겨우('포도
시'는 '겨우'의 뜻) 섬마 아이고 섰다섰다섰다 손바닥 두드리고.} @ 아: (웃음) 그러지요

이~. 음: {아, (웃음) 그러지요. 음.}

10803 @ 저 예기드른 인제 놀리는 노리가 여러 거 여러가지가 이짜나요이~. 고개를 자꾸 돌린다등가. {저 아기들은 이제 놀리는 놀이가 여러 그 여러 가지고 있잖아요? 고개를 자꾸 돌린다든지.}

10803 # 도래도래도래 하고, 짹:짹구, 짹:짹. {도래도래도래 하고 짹짹구 짹짹} @ 예 숨빠 닥 뚜드링건 작 작:짹. {예, 손바닥 두드리는 것은 작 작짹} # 짹:짹. {작짹.} @ 예. # 또 지얌지얌. {또 쥐엄쥐엄} @ 예.

10803 @ 또 머 이써씀니까? {또 뭐 있었습니까?}

10803 # 또 여:보고 머라니라? {또 이것보고 뭐라니라?} @ 아 고 # 곤지곤지. {곤지 곤지.}

10803 @ 예 곤지곤지. 또 예:기드리 이러케 여 여기 이써짜나요 이러게. 여푸로 자칭거. 여푸로 자칭가, 요 아:푸로 {예, 곤지곤지. 또 아기들이 이렇게 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젖히는 것. 옆으로 젖히는것. 이 앞으로.}

10803 # 불미야: 불미야: {폴무야('불미'는 '폴무'의 방언형) 폴무야.} @ 어 불미야. {어, 폴 무야.} # 꿩:상도는 대불미, 질라도는 소불미. (웃음) {경상도는 대폴무, 전라도는 소폴무.} @ 아하하 그러게 헤써요? 어: {아하하 그렇게 했어요.} # 요 달:깡달깡 허고. {이 '달깡달 깡' 하고} @ 예: 그래요이~. {예, 그래요.}

10804 @ 찌고는 좀 깡난 예:기드리고, 인제 쯔 큰 예기드른? 아까 말한 제치기를 한다등 가. {저것은 좀 깡난아이들이고 이제 쯔 큰 아이들은? 아까 말한 자치기를 한다든지,}

10804 # 재:치기 허고, 딱찌치기 허고. {자치기하고 딱지 치기 하고.}

10804 @ 또 예 아까머 *** 막 발로 차능 {또 예 아까 뭐 ??? 막 발로 차는}

10804 # 제끼차기 허고. {제기차기 하고}

10804 @ 예: 그 연: 연:띠우기 가통거 하구요이~. {예, 그 연 연 띠우기 같은 것 하구요.} # 예. @ 예:.

10804 @ 그: 정월 보름엔 막 요른데다가, 논뚜렁 가튼데다 불질르고 막 불 돌리고 그런 놈 놀이 {그 정월 보름엔 막 이런 데다가 논뚜렁 같은 데에다 불 지르고 막 불 돌리고 그런 놈 놀이.}

10804 # 그 보름날, {그 보름날.} @ 예. # 보름날 애기들, {보름날 아이들.}

10804 @ 그 머라고해, 그런 노리를 머라고합니까 그러면? {그 뭐라고 해, 그런 놀이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10804 # 그걸 보고 저네는 시방 불끈노리가 따로 이째마는, 걸:보고 불끈노리라 그래찌저네. {그걸 보고 전에는 시방 불꽃놀이가 따로 있지마는 그걸 보고 불꽃놀이라 그랬지 전에.}

10804 @ 아 불끈노리라 그레썬요? {아, 불꽃놀이라 그랬어요.} # 예. @ 아:

10804 # 깡:통에다가 부를 여:가꼬, {깡통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 어. # 잉그라글 여:가꼬 돌리가꼬, {잉걸불을('잉그락'은 '잉걸불'의 방언형) 넣어 가지고 돌려가지고} @ 어. # 부리 막 잉글잉글 허머 가따 살째기, 논뜨락 그런디 푸레다 요리 대:문 막 부리 활:허니 부터가, {불이 막 이글이글하면('잉글잉글허다'는 '이글이글하다'의 방언형) 가져다 살짝('살짜기'는 '살짝'의 뜻) 논두렁 그런 데 풀에다 이리 대면 막 불이 훨훨 붙어가지고,}

10804 @ 아아 그러코이~. {아아, 그렇고.}

10804 @ 그다으메~. 그다이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5 특수지역 생활

1.5.1 어촌 생활

10909 @ 아까 조금 하든 하시든 이야기 가운데 요기서는 인제, {아까 조금 하던 하시던 이야기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10909 @ 진상 여기가 조금 특수해서요이~. 바다일도 하시고, {진상 여기가 조금 특수해서요. 바닷일도 하시고,} # 예. @ 농사도 지:꼬, {농사도 짓고.} # 산닐도 허고, {산일도 하고.} @ 산닐도 하고, 그러자나요이~. {산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 예. @ 예:. # 산 중가네 이썬요. {산 중간에 있어요.} @ 어 우선 인자, 바다이를 아까 또 김: {어 우리 이제 바닷일을 아까 또 김.} # 예. @ 형거 이야기는 하셔꼬. 그거 말:고도 바다까에서 해서 하셔떠닐이 떠:여썬요? {하는 것 이야기는 하셨고, 그것 말고도 바닷가에서 해서 하셨던 일이 뭐였어요?}

10909 # 조개 잡썬요. {조개 잡지요.} @ 아:

10909 @ 조개, # 조개. @ 어떤 조개드를 주로, {어떤 조개들을 주로?}

10909 # 배갑또 잡꼬, 우럭또 잡꼬, {백합도 잡고 우럭도 잡고,} @ 음 # 또: 요새 꿀뎡이도 주어가꼬 오고. {또 요새 굴도('꿀뎡이'는 '굴'의 방언형) 주워가지고 오고.}

10909 @ 꿀뎡이? {'꿀뎡이'?} # 예. @ 구:리라는 {굴이라는}

10909 # 굴:. @ 어. # 그 껍찌차. {그 껍질채} @ 아.

10909 # 거 인자 호미로 쪼사 탕탕 뿌드리면 인자 알:등검만 초레이 늘썬요. {그 이제 호미로 쪼아 탕탕 두드리면 이제 알 든 것만 조르르 떨어져요('늘썬다'는 '떨어지다'의 뜻.)} @ 어어 # 그럼 그놈 주:다마가꼬. {그럼 그놈 주워 담아가지고,} @ 으음 그야말로 자연사 니네요. {으음, 그야말로 자연산이네요.}

10909 # 또 마또 빼:고. {또 맛도 빼고.} @ 아:

10909 # 마짜븜서 인자 글그며, 호미로 글그며 인자 조개거통거 나오면 그렇거 다 줍또 앙코. {맛 잡으면서 이제 굶으면 호미로 굶으면 이제 조개 같은 것 나오면 그런 것 다 줍지도 않고.}

10909 @ 그 호미로 다 합니까? {그 호미로 다 합니까?}

10909 # 예 호미로 허고, 남자드리랑 가면 인자 마짬능거는 인자 널썬::허니 인자 막 거더요. {예, 호미로 하고, 남자들이랑 가면 이제 맛 잡는 것은 이제 널썬하게 이제 막 걷어요.}

10909 # 물 모뜨러가게 호부작허이 요래 해노코, {물 못 들어가게 '호부작하게' (?) 이리 해놓고} @ 음: # 인자 도라감서 인자 물 모뜨로젠허문, 구녀기 빠끔빠끔 톱 올개미 꾸녕매이

로 글 이쓰문 인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물 못 들어오게 하면 구멍이 빠끔빠끔 쪽 올라
미 구멍처럼 그렇게 있으면 이제,} @ 음 # 마때 요만:형거이 인는디 미테 이느리 요리 달
리썬요. {맛대 이만한 것이 있는데 밑에 미늘이('이늘'은 '미늘'의 방언형) 이렇게 달렸어요.}

10909 # 그 요래 폭 쭈썬 디꼬 여:가꼬 요래 허먼 인자 그 이느레 걸려가꼬 몬내레가고
따:라올러와요. {그 이렇게 폭 쭈썬 ?? 넣어가지고 이리 하면 이제 그 미늘에 걸려가지고
못 내려가고 따라 올라와요.}

10909 @ 음: 이느리 머:예요? 이느리? {음, 미늘이 뭐예요? 미늘이?}

10909 # 인제 그거 만 몬:내려가고 인자 요래 꼬어 올리능거. {이제 그것 맛 못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끌어 올리는것.} @ 오. # 그거 인자 요리 세:모로 요리 세:모로 되아가 이썬
요. 가운데 여그 마때가 꼬피고 요리 세:모로 되아가 그거야 딱 걸려가꼬 올라와요. {그것
이제 이리 세모로 이리 세모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어기 맛대가 꽃히고 이리 세모로
되어가지고 그것에 딱 걸려가지고 올라와요.}

10909 @ 그러케해서 마슬 잡네요이~. {그렇게 해서 맛을 잡네요.} # 예.

10909 @ 근데 여 저그 뽕뽕이 이러케 테스추로 담능게쥬이~. {그런데 이 저기 개펄 등
이 이렇게 *** 담는 것이겠지요?} # 예. @ 빠레서이~. {개펄에서.} # 예. @ 아: 음:

10909 @ 그리고 또 인제 조개 잡꼬 또 딴 다룽건 머이썬니까? 조개 말고 게: 가통거도 잡꼬?
{그리고 또 이제 조개 잡고 또 딴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조개 말고 게 같은 것도 잡고?}

10909 # 게:도 잡꼬 갱:주개. {게도 잡고 '갱주개'.}

10909 @ 갱:주개? {갱주개?} # 예. @ 그 갱 {그 갱}

10909 # 그 썬썬 썬그 저 요새 섬진강에 거 제첩. {그 저저 거기 저 요새 섬진강에 그 제
첩} @ 예. # 그러거이 요요 민 강 요 강에도 썬:썬요. {그런 것이 이이 밑 강 이 강에도
썬:썬요.}

10909 @ 아 그걸 여기서는 이르를 머라 갱:주개라고? {아 그걸 여기서는 이름을 뭐라 '갱
주개'라고?}

10909 # 갱:주개라 그래요. {'갱주개'라 그래요.} @ 아 갱:주개라고? {아, '갱주개'라고.} #
예. @ 어:

10909 # 요 요요 강 매:리 드리서 썬:썬요. {이 이 이 강 ??? 썬:썬요.}

10909 @ 제처븐 그니까 그거슨 조개 종:뉴지요? {제첩은 그러니까 그것은 조개 종류지요?}

10909 # 예.

10909 @ 음 게:는 아니고이~. {음, 게는 아니고.} # 예. @ 갱:주게이~. 예:. {갱주게. 예.}

10904 @ 게:는 어떤 게드리 인나요? 여그서 잠능 거슨. {게는 어떤 게들이 있나요? 여기서 잡는 것은?}

10904 # 밤:둥이. 밤:딩이. {'밤둥이', '밤딩이'}

10904 @ 밤:딩이, 또. {'밤딩이' 또}

10904 # 털보까이. (웃음) {'털보까이'} @ 예? # 털버까리. 터리 막 다리에 막 보실보실하니. {'털보까리'. 털이 막 다리에 막 보슬보슬하게.} @ 털게~. 털보까리. {털게. '털보까리'.} # 예. 그러치요 며. {예. 그렇지요.}

10904 @ 음 # 거또 여러가지라요 무당:게도 이꼬. {그것도 여러가지예요. '무당게'도 있고.} @ 음 # 포짱게라고 또 바르르이 가능거이 또. {'포짱게'라고 또 바르르 가는 것이 또.} @ 포짱게요? {'포짱게'요?} # 예. @ 어:어허

10904# 바리 뽕:그렇거이 그냥, 사:람 인:정끼만 이썬면 바르르이 달라요. {발이 뽕그스름한 것이 그냥 사람 인적기만 있으면 바르르 달아나요.} @ 어허 # 그거이 또 포짱게라고 이꼬. {그것이 또 '포짱게'라고 있고.} @ 아 # 여러 가지라요. {여러 가지예요.} @ 음:

10904 # 짜::간현 요령건 또 밀짱게. {조그마한 것이 이런 건 또 '밀짱게'} @ 밀짱게? {밀짱게} # 예. @ 어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10904 # 그거는 인자 저네 인자 칼 정지야 칼 저저 짜간한 저걸가 짜까마이 요러면 나오고 짜깁 요름 나오고. {그것은 이제 전에 이제 칼 부엌칼 저 저 조그마한 저걸 가지고 조그맣게 이러면 나오고 조금 이러면 나오고,} @ 음:

10904 # 거임 자바다가 인자, 저네는 사 도랑사구라고 그 사:구 쪼간헝거 이꺼드뇨. 그러니까 싹싹 까끄면 등거리가 흐:개요. {그것은 잡아다가 이제 전에는 사 '도랑사구'라고 그 '사구' 조그마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싹 깎으면 등이 하예요.} @ 오호

10904 # 거 인자 파싹 보까가꼬, 상추쌈:도 싸무꼬, {그 이제 바싹 볶아가지고 상추쌈도 싸서 먹고,} @ 오호 # 여르미면, {여름이면} @ 음 # 그래요. {그래요.}

10904 # 굴궁게는 그거이 영 이베 여코 베어무끼가 좀 사:나분디, {굵은 게는 그것이 영 입에 넣고 베어 먹기가 좀 사나운데,} @ 예. 그어는 짜:간헝개 와시락와시락허니 마시썬요. {예, 그것은 조그마하니까 와스락와스락 맛있어요.}

10904 @ 음: 밀짙게요? {음, 밀짙게요?} # 예. @음: (웃음) # (웃음)

10904 @ 여기는 바닷 바다에만 나가면 머 머글게 마 마:니 인네요. {여기는 바다 바다에만 나가면 뭐 먹을 것이 마 많이 있네요.} # 예: 또 사네도 가문 이꼬. {예, 또 산에도 가면 있고} @ (웃음)

=1 # 사네도 가면 너물종뉴 머 {산에도 가면 나물 종류 뭐.} @ 예 # 꼬사리너물 머 지:부 {꼬사리나물 뭐 '지부'} @ (웃음) # 썸:썸요. {썸어요.} @ 그거머 사네인능건 썸 이따 이야 기하구요. {그거 뭐 산에 있는 것은 썸 이따 이야기하고요.}

10904 @ 그 다음에 인제 예: 예서 고기도 나가서 베타고가서 잡기도 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서 고기도 나가서 배 타고 가서 잡기도 했나요?}

10904 # 인제 남자드리. {이제 남자들이.} @ 인자 남자드리요이~. {이제 남자들이요.} # 예. @ 음

10904 @ 그럼 여기서 주로 어떤 고기가 물리등가요? {그럼 여기서 주로 어떤 고기가 물리던가요?}

10904 # 남자드리 인자 낙씨거똥거 지금도 모두 가서 낙씨 해:가꼬 오테요. {남자들이 이제 낚시 같은 것도 지금도 모두 가서 낚시 해가지고 오테요.} @ 음: # 강에 그런디 가서. {강에 그런 데 가서.} @ 음:

10904 # 그 여그는 지 저너그로 저네 우리들 각씨 때, 총:각뜨리 가면, 인자 동:네 총:각뜨리 메치 어울라가꼬 해뽁씨잡꼬, {그 여기는 저녁으로 전에 우리들 처녀 때 총각들이 가면 이제 동네 총각들이 몇이 어울러가지고 핫불 켜서 잡고.} @ 으흠

10904 # 썸 인자 우리들 거서걸 때 인자 지르미 세구 지르미 이상께, {저 이제 우리들 뭐 할 때 이제 기름이 석유 기름이 있으니까.} @음 # 세구지르메다 깡:통에다가 기다문 작때기 가가꼬, 저:그 철사 거통걸 소:를 가마가꼬, {석유기름에다 깡통에다가 기다란 작대기 가져가가지고 저기 철사 같은 걸 숨을 감아가가지고.}

10904 # 가 지름깡:통 요리 들고 가아꼬 인적 부리 올쭈 부트면 인자 요골요골 적썰가꼬 또 요:리혀고 그러면 인자 한저는 인자, 문저리, {가서 기름 깡통 이리 들고 가가지고 이제 불이 대충('올쭈'는 '대충'의 뜻) 붙으면 이제 이걸 이걸 적셔가지고 또 이리하고 그러면 이제 한때는 이제 망둥이('문저리'는 '망둥이'의 방언형)} @ 아 문저리? {아, 망둥이.} # 모래 문저리, {모래망둥이.} @ 음 # 모래바테가 놀:해가꼬 업찌따네요. 무레가 말그면 무레가. {모래밭에 노랗게 옆드려 있다네요. 물에 맑으면 물에.}

10904 # 그러무 칼로가꼬 깡: 누질라가꼬 주:담꼬, 칼로가꼬 깡: 누질라가서 인자 미끄러웁개 칼로가꼬 땅: 누질라가꼬 주:담꼬 탁 요래 누지르면 또 가마니꼬 그래가꼬아, 저너그로 총:각뜨리 그래 가꼬오면 영: 우리 씨아재들 {그러면 칼을 가지고 짹 눌러가지고 주워 담고, 칼을 가지고 짹 눌러가지고 이제 미끄러우니까 칼을 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주워 담고, 탁 이리 누르면 또 가만 있고. 저녁으로 총각들이 그렇게 가지고 오면 영 우리 시동생들} @ 음 # 그래가오문 자바오문 막 해:를 해아꼬 마니 무거썸요. {그래가지고 잡아오면 막 회를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10904 @ 음: 예 문저리. {음, 망둥이.} # 예. @ 음

10904 # 무시 채:로 써리 여코, {무채를 썰어 넣고.}

10904 @ 으흠 그거 마:니 자피조? 지금도 마:니 자피능거 가떼요? 문저리는? {으흠, 그것 많이 잡히지요? 지금도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망둥이는?}

10904 # 예. @ 음 # 지그른 가자서 인자 바무로 만나가고 인자 한넝 주무 그냥 사다 무꼬 그렇게 그러지, 지금도 나감 이따네. {지금은 좋은 것만 골라 먹어서('갓다'는 좋은 것만 골라 먹음을 이르는 말.) 이제 밤으로 안 나가고 이제 한 잎 주면 그냥 사다 먹고 그러니까 그러지, 지금도 나가면 있다네요.}

10904 @ 음 혼헌 고기니까요. 예:. {음, 혼한 고기니까요. 예.}

1.5.2 산촌 생활

10911 @ 자 바다에서 삼:소로 그다으메 사네서 사네서는 인제 여그 그 사 사느로 머 나물 노물 캐러도 마:니 가 다니셔썬요? {자 바다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산에서 산에서는 이제 여기 그 사 산으로 뭐 나물 나물 캐러도 많이 가 다니셨어요?}

10911 # 예. @ 오호:

10911 # 꼬사리 꼬느로 가고 인자, 요즈믄 인 점:부 꼬사리 뿌리를 캐: 파다가, {고사리 꺾으러 가고 이제 요즘은 전부 고사리 뿌리를 캐 파다가,} @ 예. # 썩이르 가 파다가 썩썩 바테다 재배를 해가꼬 해도, {괭이를 가지고 파다가 각자 밭에다 재배를 해가지고 해도,} @으흠

10911 # 그저네는 요 치드리 막 점부 땡김서롱,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치'는 '사람'의 낮춤말. 여기서는 표준어와 달리 홀로 쓰인다.) 막 전부 다니면서,} @ 음 꼬사리 마:니 꼬느 {음, 고사리 많이 꺾어,} # 꼬사르 꼬느로. {고사리 꺾으러,} @ 예:

10911 @ 또 꼬사리 말고 다롱거는 머이. 약 {또 고사리 말고 다른 것은 뭐가? 약.}

10911 # 인자 꼬사리 꼬느로 가며 인자, 딱:쭈주도 이썬면 캐:여코, 또 돌가지도 이썬면 캐:여코, {이제 고사리 꺾으러 가면 이제 잔대도('딱쭈'는 '잔대'의 뜻) 있으면 캐서 넣고 또 도라지도 있으면 캐서 넣고.} @ 음:

10911 # 인자 그리 여러가지른 너물도 이썬면 뜨더가꼬 여:코, {이제 그리 여러 가지 나물도 있으면 뜯어가지고 넣고,} @ 음 # 그러믄 결:지요 지비가서 푸러 노으면. {그러면 결지요, 집에 가서 풀어 놓으면.} @ (웃음)

10917 @ 또 머 버섯까튼거또 따고 그러서썩요? {또 뭐 버섯 같은 것도 따고 그러셨어요?}

10917 # 저네는 싸리버서비 술밤미테 이썩따요만해도 그건 지그른 잘 업:썩요. {전에는 싸리버섯이('버섯'은 '버섯'의 방언형) 술발 밑에 있었대요마는 그건 지금은 잘 없어요.}

10917 @ 음: 버서비. {음, 버섯이.} # 예.

10917 # 싸리버세비라고, 예: 그냥 똑 요: 송꾸라끄터리매이로 요령거이 요령거이 막 몽태이가 이썩요. {싸리버섯이라고 예 그냥 꼭 이 손가락 끝처럼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막 몽태이가 있어요.} @ 예 # 그랜는다, 지그른 그렇거이 업:썩요. 그거또 칠파레 따가 오두마뇨.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도 칠팔월 따가지고 오더구먼요.}

10917 @ 그러면 인제 그런 너물가튼거슨 하고, 아까 말해똥건 그 사니 사니 집꼬 그러면 약초가튼거또 마느니까, 딱:쭈도 약초 아님니까이~. {그러면 이제 그런 나물 같은 것은 하고, 아까 말했던 것은 그 산이 산이 깊고 그러면 약초 같은 것도 많으니까 잔대도 약초 아님니까?} # 예. @ 약떼능거~. {약 되는 것.} # 예. @ 그렇거또 여기서는 마:니 한사람도 이꼬 그러나요? {그런 것도 여기서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요?}

10917 # 저네 할메하나에 암꺼또 업씨 사는 할메하나이 팽상 그렇검만 캐:로 땡기요. {전에 할멈 하나가('하나이'는 '하나가'의 뜻) 아무 것도 없이 사는 할멈 하나가 평생('팽상'은 '평생'의 방언형) 그런 것만 캐러 다녀요.} @ 아 약초만. {아, 약초만.} # 예. @ 음:

10917 # 가: 캐:다가 저 하동장아~ 가서 팔고. {가서 캐다가 저 하동장에 가서 팔고,} @ 음 # 거머 아:드리 곁렁패 아드리 이썩가꼬 돈:다 빼뜨라 가고. (웃음) 그러다 그냥 병에 걸리 주거썩요. {그 뭐 아들이 곁렁패 아들이 있어가지고 돈 다 빼앗아 가고 (웃음) 그러다 그냥 병에 걸려 죽었어요.}

10917 @ 음: 지그른 그 아주 지겹썩그로, {음, 지금은 그 아주 직업적으로.}

10917 # 재화니 엄마도, {재환이 엄마도,} @ 예: # 재하니 엄마도 꼬사리 팔짜로 꼬너요. {재환이 엄마도 고사리 마치 팔자인 듯이 잘 꺾어요.} @ 아: 그레요이~? (웃음) {아, 그레요? (웃음)} # 봄대면 {봄 되면,} @ 어: # 꼬너다가 딸레들또 주고, {꺾어다가 딸네들도 주고,} @ 음 # 또 풀:기도 허고 그래. {또 팔기도 하고 그래.}

10917 @ 그니까 텔레비가튼거 보면, 강원도나 경상도 가튼데 보면, 머: 송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같은 것 보면 강원도나 경상도 같은 데 보면 뭐 송이} # 송이버섯. {송이버섯.} @ 송이 송이버섯 자연산 고놈 모 요러케 따:로 땡기기도 하고, 약초 또 캐로 다닌 사람도 이꼬. {송이 송이버섯 자연산 그것 뭐 이렇게 따러 다니기도 하고, 약초 또 캐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10917 # 저 송이 버서슨 나 안따 받는다: {저 송이버섯은 나 안 따 봤는데,} @ 예. # 그럼 머 인니웨 먼: 버서비냐 그 약떼능거. 그 먼: 버서비라드니 요새. 발그러잉거 {그럼 뭐 있을까? 왜 무슨 버섯이냐 그 약 되는 것? 그 무슨 버섯이라더냐? 발간 것?}

10917 @ 아 게따 양 양 양지? 양지버섯 양지버섯이라 그래요? {아 거 또 양 양 아지버섯? 양지버섯이라 그래요?}

10917 # 말고요 밤나무 위에 주로 마니 뵈요. {말고요. 밤나무 위에 주로 많이 보여요.} @ 음 # 거:는 나 좀 따바썰요. {그것은 나 좀 따 봤어요.}

10917 @ 음: 예 아이고.

10917 # 그 먼: 버서비란디 이저분네. {그 무슨 버섯이라는데 잊어 버렸네.} @ 음 # 시방 재:배를 해도, 저네는 사네서 그걸 마:니 따가꼬 완는다. {시방 재배를 해도 전에는 산에서 그걸 많이 따가지고 왔는데,}

10917 @ 음 요 요요위에서도 그런 약초 전문저그로 케로 다닌 사람드리 어찌다가 한명씩 이께 이썬네요. {음 이 이 이 위에서도 그런 약초 전문적으로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다가 한 명씩 이렇게 있었네요.} # 예. @ 예:.

10917 # 향가꼬뿌랭이. 딱:쪼뿌랭이. {영경귀 뿌리, 잔대 뿌리.} @ 음 # 돌아가지. 삼초뿌랭이. {도라지, 삼초 뿌리.} @ 음: # 그런 뿌랭인지 알:고 잘 마:니 캐:썰요. 그 할메는. {그런 뿌리인지 알고 잘 많이 썰어요 그 할멈은.} @ 음 예.

10917 # 우리드른 우리들 지빈니리 바쁘고, 그거 캐:로 대이니 채로 저 제:처레 불러가능 거이 나:썰요. {우리들은 우리들 집안일이 바쁘고 그것 캐러 다니느니 저 광양제철에 불러가는 것이 낫지요.} @ (웃음) 그러지요. {(웃음) 그러지요.}

10917 # 그런 할메드른 제:철 이를 모룻개 인자, 만:날 밥 싸가꼬 사느로 빼칭게그로. {그런 할멈들은 광양제철 일을 모르니까 이제 만날 밥 싸가지고 산으로 뺨치니까,}

10919 @ 또 어떤 혹시 여기 상 가까오니까 머 사네다가 더슬 나:가꼬 {또 어떤 혹시 여기 산 가까우니까 뭐 산에다가 더슬 놔 가지고}

10917 # 아 연:지버섯. 연지버섯. {아, 영지버섯 영지버섯.}

10917 @ 연지버섯. {영지버섯.} # 아 영:지 영. {아, 영지 영.}

10917 # 예 영:지버섯. {예, 영지버섯.}

10917 @ 예 양지가아니라 영:지버섯. {예, 양지가 아니라 영지버섯.} # 예. @ 영지버섯네. {영지버섯 네.}

10919 # 사냥가통거 어깨 허로 다닌 사람도 일 일썬나요? {사냥 같은 것 ??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나요?}

10919 @ 아히고 만:치요. {아이고 많지요.} @ 오오:

10919 # 요새는 인자 그 허가를 내:주면 형개로 모 그자해도, 그저네는 그냥 여 치드리 막 우이우이이 허고 땡기요. {요새는 이제 그 허가를 내 주면 하니까 뭐 그런다 해도 그전에는 그냥 여 사람들이('치'는 '사람'의 낮춤말) 막 우이우이우이 허고 다녀요.}

10919 @ 음: 사:람드리? {음, 사람들이.} # 예. @ 아: 짐승 몰 모:른다고? {아, 짐승 몬다고?}

10919 # 예 개:하고, 또 그 총 가꼬. {예, 개하고 또 그 총 가지고.} @ 주로 여기에 머 어떻게 만:통가요? {주로 여기에 뭐 어떻게 많던가요?}

10919 # 고라니 머 토끼 그렇거 자부로 대니조, 쫑: 비들키 머 앵:긴대로 잡쪼요 그런 사람드른. {고라니 뭐 토끼 그런 것 잡으러 다니지요. 쫑, 비들기('비들키'는 '비들기'의 방언형) 뭐 잡히는('앵기다'는 '잡히다'의 뜻) 대로 잡지요. 그런 사람들은.}

10919 @ 음: (웃음) 사니라 그렇게 마:나요 짐승이. {음, (웃음) 산이라 그런 게 많아요. 짐승이.} # 예. @ 예.

10919 # 거비나서, 하다 글썽에는 막 사:람드리 그리 마:니 땡기문, 그리막 우이 쏘리가 나면 그냥 나무 허다가도 막 미테가 돌팍 미테 수머가꼬 이꼬. {겹이 나서 하다 그때에는 막 사람들이 그리 많이 다니면 그리 막 우이 소리가 나면 그냥 나무하다가도 밑에 돌 밑에 숨 어가지고 있고,}

10919 @ (웃음)

=1 @ 사니 만하니까 이견 유기오편가 거 상당히 저기헤야께쪼요이~. {산이 많으니까 이견 육이오편가 그 상당히 저기했쪼요.}

=1 # 궁개 유기오 때:는 처오편는 사느로 올라간는데 난:중에는 산네서 발:랑구니 이쪼가 무장 저:르 바다그로 나가. {그러니까 육이오 때:는 처음에는 산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는('난중'은 '나중'의 방언형) 산에서 반란군이 있어가지고 점점 ('무장'은 '점점'의 뜻) 저기로 바다로('바닥'은 '바다'의 방언형) 나가.} @ (웃음) # 아리게 이약 안해땡가요? {떠칠 전에 이 야기 했었쪼아요?} @ 예 예. # 무서버예. {무서워요.}

=1 @ 자: 그다오편:. {자, 그 다음예.}

=1 @ 오느른 이정도로 하시조. 잔까니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지요. 잠깐이요.}

1.6 의생활

1.6.1 누에치기

10414 @1 지남버네 노그미 안텅 거 위에 {지난 번에 녹음이 안 된 것 위에. } # 아:하 예
@1 그거 그거 다시 말:쓰메 주시고 {그것 그것 다시 말씀해 주시고,}

10414 @1 그다메 온 온 만들기 또 머 채:소 제:위 나물채:취 미반찬 머 그렇 거시네요. 어
{그 다음에 옷 옷 만들기 또 뭐 채소 제위 나물 채취 밀반찬 뭐 그런 것이네요. 어}

10414 # 난 바차느 잘 허도 모:더는디 (웃음) {난 반찬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웃음)}

10414 @1 음 그럼 성:경이가 한 번 나:중에 온만들기부터는 성:경이가 무려 여:쥼바. {음,
그럼 성경이가 한번 나중에 옷 만들기부터 성경이가 물어 여쭙 봐.}

10414 @2 예. @1 네 누에질문. {네, 누에 질문} @2 누에요? {누에요?}

10414 @1 여기 사:십육조게 일췌 사췌 이:예 그 누에치기와 비:단짜기가 이췌. {여기 46
쪽에 1.4.2에 그 누에치기와 비단짜기가 있어.}

10414 @2 야~ @1 어어 엔:나레 누에도 키어 보셔딱 헤췌 길러 보셔딱 헤췌이~. {어어,
옛날에 누에도 키워 보셨다고 했지요? 길러 보셨다고 했지요?} # 예.

10414 @1 시집 와서 그레따 헤:똥가요 시집 오기 저네 그레똥가요? {시집와서 그랬다 했
던가요? 시집 오기 전에 그랬던가요?}

10414 # 저네도 허고 여 시집 와서도 허고 그레췌요 {전에도 하고 여 시집와서도 하고 그
랬어요.}

10414 @1 그레요? {그레요?} # 예. @1 어~ 고거슨 메:년 하셔췌요? {어, 그것은 몇 년
하셨어요?}

10414 # 예. @1 어~ 멩주시를 마:니 췌는 모양이네요이~. {어, 멩주실을 많이 췌는 모양
이네요?}

10414 # 인자 시집 와서 씨어머니가 인자 췌 키우고 나:가 키웅께 {이제 시집와서 시어머
니가 이제 췌 키우고 내가 키우니까,}

10414 # 키우능 거슬 양:께 씨어머니도 허고 나도 허고 그레가꼬 또 췌 허다가 인자 {키우
는 것을 아니까 시어머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레가지고 또 췌 하다가 이제,}

10414 @1 음: # 각씨 때 허고 인자 그 뒤에는 안 해써요. {새각시 때 하고 이제 그 뒤에는 안 했어요.}

10414 @1 예. 그러면 그 누에가 거 여기선 누에라고 안 하지요. {예, 그러면 그 누에가 그 여기서는 누에라고 안 하지요?}

10414 @1 이르미 니:? {이름이 '니'?}

10414 # 니:라 그래요. {'나'라 그래요.}

10414 @1 니:라고이~. {'니'라고.} # 예. @1 응.

10414 @1 니:라고 현 니:가 거 크기게 자:궁 거또 이꼬 쿵 거또 이꼬 그러자나요 별레가 이~ {'니'라고 한 누에가 그 크기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별레가?}

10414 # 인자 처:멘 알:씨룽거부터 {이제 처음에는 알 스는('실다'는 '슬다'의 방언형) 것부터,} @1 음 # 알:씨룽거 여그 손빠당마넌 니 종이에다가 아:를 씨룽거를 가따가 멘:사무소에 가서 가꼬 와요. {알 스는 것 여기 손바닥만한 이 종이에다가 알을 스는 것을 가져다가 면사무소에 가서 가져와요.} @1 예.

10414 @1 씨를 바다오구마 {씨를 받아오는구먼.} # 인자 네 인자 이:장이 가따가 주등가 {이제 예, 이장이 가져다 주든지,} @1 음

10414 # 저네는 구장 아니요? (웃음) {전에는 구장이잖소? (웃음)} @1 으음 # 이:장이 구장이라.{이장이 구장이야.} @2 아~ 구장이여써요? {아, 구장이었어요?} # 예

10414 # 저네는 이:장이 아이고 지금 이:장이지 저네는 구장이라 그랜는디 {전에는 이장이 아니고 지금 이장이지 전에는 구장이라 그랬는데,} @1 그러조. 예. 일구 이구가 그러니까. {그러지요. 예 일구 이구가 그러니까.} @2 아~

10414 # 구장인디 인자 그 요론 종이에:다가 거 알 씨룽거, {구장인데 이제 그 이런 종이에다가 그 알 스는 것.}

10414 @2 예 # 그걸 인자 멘:사무소서 가따 줘:요. {그걸 이제 면사무소에서 가져다 줘요.}

10414 # 가질로 오라고 인자 구장씨비서 인자 저네는 그래쎄. 그럼 가서 가:저오든 요그다, {가지러 오라고 이제 이장집에서 이제 전에는 그랬지.}

10414 # 시방 거트머 오봉 이 어저 오봉이제마는 저네는 함지, {시방 같으면 쟁반('오봉'은 '쟁반'의 일본말.) 이 이제 쟁반이지마는 전에는 함지,}

10414 @1 음 # 쪼까:넌 함지에다 다마가꼬 인자 여 인자스 이올 미테 요른디다 따따:더이
여: 노머 거:서 벌레가 꼬물꼬물꼬무꼬물 나와요. {조그마한 함지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이
이제 이불('이올'은 '이불'의 방언형) 밑에 이런 데에다 따뜻하게('따뜻허니'는 '따뜻하게'의
뜻) 넣어 놓으면 거기에서 벌레가 꼬물꼬물꼬물꼬물 나와요.}

10414 @2 며월따레나 그거를 멘처:메 가져오능 거시 그때가 며월딸 정도 데야 데요? {몇
월에나 그것을 맨 처음에 가져오는 것이 그때가 몇 월 정도 되어야 돼요?}

10414 # 인자 뽕 님 트면 트고 인자 쪼꿈 크문 이양 한 사뽀리나 되거찌이~. {이제 뽕있
트면 트고 이제 조금 크면 이제 한 삼월이나 되겠지.} @2 아 # 사뽀, 음녀그로 사뽀 인나
되거찌. {삼월, 음력으로 삼월이나 되겠지.}

10414 @2 그문 사:월 정도 {그러면 사월 정도.} # 사:월 정도 되지. {사월 정도 되지.}
@ 음

10414 # 허:무 인자 그거를 인잔 아페 나온 노문 인자 또 또 꼬르슬 하나 노코 인자 또
{아무렴. 이제 그것을 이제 앞에 나온 놈은 이제 또 또 그릇을 하나 놓고 이제 또,}

10414 # 거따가 인자 머 거석 그걸 가꼬 마:니 해. 저:얼 닥 날:개 거 큼 거 큼 거 거 빼:
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거시기 그걸 가지고 많이 해. 저 닭 날개 그 큰 것 그 빼어다
가,} @2 아

10414 # 그걸 가꼬 요:리요:리 {그걸 가지고 이리 이리,} @2 움겨요? {웁겨요?} # 썰문
잘 씨러저요 술:맹키로 {썰면 잘 썰어저요, 술처럼.} @2 예

10414 # 인자 그 소:른 거 인자 생:깨로 인자 벌레감 안탱개 {이제 그 술은 그 이제 세니
까 이제 벌레가 안 대니까.} @2 예

10414 # 그러문 인자 나으? 머 쫘:털 거튼거 인자 닥털 거튼거 이자 거 신 디:예 굴:근
{그러면 이제 *** 뭐 쫘털 같은 것 이제 닭털 같은 것 이제 그 신 뒤에 굶은} @2 예 # 꼬
랑탱이 그노물 가꼬 인자 요:리 상구 징:꼬랑데이 말고 저 짜링거 그노물 가꼬 요:리요:리요
대 썰면 {꼬리 그놈을 가지고 이제 이리 사뽀 긴 꼬리('꼬랑탱이'는 '꼬리'의 방언형) 말고
저 짧은 것 그놈을 가지고 이리 이리 이리 썰면,}

10414 # 씨러서 인자 따로 노코 인자 그거이 나온: 거는 인자 또 뽕을 따다가 인자 자자::
러이 씨리 다지가꼬 여: 주고 또 염방 나오면 인자 또 그노물 또 씨리 여:코 또 그래가꼬
올라쥬. 한잠 자고 {썰어서 이제 따로 놓고 이제 그것이 나온 것은 이제 또 뽕을 따다가 이
제 자잘하게 썰어 다져가지고 넣어 주고 또 계속 나오면 이제 또 그놈을 또 썰어 넣고 또
그래가지고 올려 쥬. 한 잠 자고.} @2 예

10414 # 또 메:치를 묶는 그 무그무 한잠 자능가 나 그 일주이링가? {또 며칠을 먹는 그

먹으면 한 잠 자는지 나 그 일주일인지?)

10414 @2 오:일 정도 {오 일 정도} # 오이링가? {오 일인가?} @2 일주일 {일 주일} # 오이~

10414 # 그 정도되문 인자 그때는 처리 업써놓개 어:런드리 허능거잉개 인자 짜를 몰라제 메치 메칠 이쓰며 오:이링가 하여튼 치리링가 되문 인자 한잠 자따 그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철이 없어 놓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제 사정을 몰랐지('잠을 몰르다'는 '사정을 모르다'의 뜻). 며칠 며칠 있으면 오 일인지 하여튼 칠 일인지 되면 이제 한 잠 잤다 그리하고,}

10414 # 네 또 그 그러무냐 그거 잠잘 찌게는 쪼간 빵을 덜: 무꺼드뇨 {예, 또 그 그러면 이제 그것 잠 잘 적에는 조금 빵을 덜 먹거든요.}

10414 # 그럼 인자 잠잔다고 인자 쪼감 찌간썰:만 허쳐주고 인자 {그러면 이제 잠 잔다고 이제 조금 조금씩만 흘뿌려('허치다'는 '흘뿌리다'의 뜻) 주고 이제.}

10414 # 쫌 느께 온 노문 또 느께 나옴거는 인자 또 그걸 무꼬 그러게 인자 찌:간썰 허쳐 주고 {쫌 늦게 온 놈은 또 늦게 나온 것은 이제 또 그걸 먹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흘뿌려 주고,}

10414 # 인자 고개를 요:리 틀고 이썬. 가마::니 요래 가꼬 이썬요. {이제 고개를 이리 틀고 있어. 가만히 이래가지고 있어요.}

10414 @2 자 잘 # 자늘 니: 잘 찌게느. 그래가 이쓰문 인자 또 게:댕기는 그그 그거는 인자 또 무꼬르 인자 어찌다가 쪼간:썰 허쳐 주고 그러문 {잠을 누에 잘 적에는. 그래가지고 있으면 이제 또 기어다니는 그 그 그것은 이제 또 먹고는 이제 어찌다가 조금씩 흘뿌려 주고 그러면,}

10414 # 인자 메치를 자능고 어쩜능가 한잠 자따 그러고 인자, {이제 며칠을 자는지 어찌는지 한 잠 잤다 그리하고 이제,}

10414 # 어른드리 인자 또 새로 빵을 썬리 여: 주고 나문 인자 석:짱꺼지 자고 나:문 니:가 인자 막 이망썰 국:썰요. {어른들이 이제 또 새로 빵을 썰어 넣어 주고 나면 이제 석 잠까지 자고 나면 누에가 이제 막 이만큼씩 굶지요.} @2 예

10414 # 그러무 인야 막 빵 가:지를 쳐다가 인자 상:구 그속 굴:근 가지만 뜯내고 그냥 바로 체파네다가 인자 언:저 주며 그냥 거그야 우예 기:댕김성 무꼬. {그러면 이제 막 빵 가지를 쳐다가 이제 사뭇 거시기 굶은 가지만 뜯어 내고 그냥 바로 쏘에다가('체판'은 여기서'썰'의 뜻으로 쓰임) 이제 얹어 주면 그냥 거기에 위에 기어다니면서 먹고.}

10414 # 그러다가 인자 요리 니:가 놀:해지면 발도 놀: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리 누에가 노래지면 발도 노래지고}

10414 # 머rido 놀 놀미야:해지고 그러면 인자 (기침) 요래 보면 놀:해요 요리 꺼꾸리 들고, 바리 우로 가고리 요:러면 놀:해요 그러문 {머rido 놀 놀면해지고('놀미암하다'는 '놀면하다'의 방언형) 그러면 이제 (기침) 이리 보면 노래요 이리 거꾸로 들고, 발이 위로 가게 이러면 노래요. 그러면}

10414 # 그걸 인자 새끼에다가 지플 요정도 씨리가꼬 낸 새끼를 요:리요:리 인잔 비제게가꼬 그 소:게다 한: 주멍 여가꼬 켜::간씩 요리 돌리서 잡꼬 새끼다리 요:리 나오면 인자, {그걸 이제 새끼에다가 쫘을 이 정도 썰어가지고 * 새끼를 이리 이리 이제 구부러가지고('비제이다'는 '구부리다'의 뜻으로 추정됨) 그 속에다 한 주먹 넣어가지고 조금씩 이리 돌려서 잡고 새끼들이 이리 나오면 이제,}

10414 # 쭈세미메이로 쭈:세메이르 요:리 인자 냉가감서 보문 별:짐메이로 요런 거떠가 거따가 {수세미처럼 수세미처럼 이리 이제 넘겨가면서 보면 별집처럼 이런 거기에다 거기에다}

10414 # 또 인자 체빤지르 인자 그 그걸 보고 머:이라 한느디 이르믈 이저분네 인자, 오:래데논개 {또 이제 쏘을 이제 그 그걸 보고 뭐라 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제 오래 되어 놓으니까.} @1 음 # 쭈세미 거툭 그거이. {수세미 같은 그것이.} @1 음

10414 # 그거 인자 물 두발썰 요리 디게로 해 가꼬 요:리 노코 요:리 노코 인자 두: 두:줄썰 요:리 나:가 노무 인자 한테가 요리 앵기가 왕: 안 형가요? {그것 이제 뭘 두 발씩 이리 되게끔 해가지고 이리 놓고 이리 놓고 이제 두 두 줄씩 이리 나가 놓으면 이제 한테 이리 옮겨가지고 번성하잖아요('왕허다'는 '번성하다'의 뜻) ?} @1 음

10414 # 그무 거따가 올리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올려요.}

10414 # 거따가 인자 편지 두문두문허이 요:리 인자 니:를 편지눔 거:서 인자 지블 지여. (웃음) {거기에다가 이제 던져 드문드문하게 이리 이제 누에를 던져 놓으면 거기서 이제 집을 지어. (웃음)}

10414 # 지블 지무 인자, 또 일주일 정동가 어찌 이쓰른 인자 저네는자 어:런더리 형깨로 인잔 따라만 항개 모르지. {집을 지으면 이제 또 일 주일 정도인지 어찌 있으면 이제 전에는 이제 어른들이 하니까 이제 따라만 하니까 모르지.}

10414 # 일주일 정도나 인능가 그러머, 저 꼬치를 하나 여 따 가꼬 요:리 흔들문 딸랑딸랑 딸랑을. 소:게서 {일 주일 정도나 있는가 그러면 저 꼬치를 하나 이 따가지고 이리 흔들면 딸랑딸랑딸랑 속에서.} @2 아~ 네

10414 # 거무주를 요:리요리 처 가꼬 제가 드러감성 자::꼬 인자 처 드러가문 인자 난:중에는 안 보이. {거미줄을 이리 이리 쳐가지고 제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처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는 안 보여.} @2 네 # 지으가

10414 # 처:메느 짝: 보이. 제:가 막 거 주를 처서 요리 도라가능거를. {처음에는 짝 보여. 제가 막 그 줄을 처서 이리 돌아가는 것을.}

10414 # 허므 인자 그거이 안 보이고 그러머 인자 한 일쭙일 정도 그리 이씨문 인자, {하면 이제 그것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한 일 주일 정도 그리 있으면 이제,}

10414 # 이견능가 본다고 인자 요리 따 가꼬 요:리 흔들머 소게서 인자 그거이 몰라저가꼬 방이 따싱개 {익었는지 본다고 이제 이리 따가지고 이리 흔들면 속에서 이제 그것이 말라저가지고 방이 따뜻하니까,} @2 네

10414 # 몰라저가꼬 딸랑딸랑허문 인자 전분 체빰지르 인자 마당으로 인자 막 꺼:내 가꼬 따싱개 {말라저가지고 딸랑딸랑 하면 이제 전부 쏘을 이제 마당으로 이제 막 꺼:내가지고 따뜻하니까,} @2 네 # 꺼:내가꼬 인자 막 어:런더리 막 점부 따요. {꺼:내가지고 이제 막 어른들이 막 전부 따요.}

10414 # 그거 체빰지하꺼이. 금 막 집 올 그거이 오지를 싸가꼬 또 인잔 구징 거는 또 구징 거 이꼬 {그것 쏘 한 것. 그러면 막 집 그것이 오줌을 싸가지고 또 이제 궂은 것은 또 궂은 것 있고,}

10414 # 위에서 또 그거이 오지를 쌍: 거이 내:로 와가꼬 미테 {위에서 또 그것이 오줌을 싼 것이 내려와가지고 밑에,} @2 웃음 # 구증 거 이근 인능 건 이꼬 그러면 인자 구징건 따로 개리고, {궂은 것 익은 있는 것은 익고 그러면 이제 궂은 것은 따로 가리고,}

10414 # 인자 조:웅 거는 조:웅 거때로 그래가꼬 인자 조:웅 거는 인자 덴:사무소에 가따달:리고, {이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면사무소에 가져다 무게를 달게 하고('달리다'는 '무게를 달게하다'의 뜻)}

10414 # 구징 거는 인자 또 요만:헌 쥐아오가리라고 요론 또 오가리에다가 인자 미테다 부를 때: 가꼬 쌀무먼 {궂은 것은 이제 또 이만한 기와 오지독이라고('쥐아오가리'는 '기와 오지독' 정도로 추정됨) 이런 또 독에다('오가리'는 '오지독'의 뜻) 이제 밑에다 불을 때가지고 삶으면,}

10414 # 씹:꼬 인자 요:리 주리 나오문 인자 요요 미테서느 자:꼬 지부물가꼬 요로고 주를 인자 여: 하나는 강:꼬 {삶고 이제 이리 줄이 나오면 이제 이 이 밑에서는 자꾸 젓가락을('지뽀'는 '젓가락'의 방언형) 가지고 이렇게 줄을 이제 넣어. 하나는 감고,} @2 음

10414 # 물레로 물레멍이로 해가꼬 자세에다 가무머 거 인자 가마 가꼬 그걸 가꼬 또 배

로 나라 가꼬 논 멩지배를 논느디 {물레로 물레처럼 해가지고 자세에다 감으면 그 이제 감 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배를 날아가지고 놓은 명주배를 낳았는데,} @1 음

10414 # 그러무 인제 여페 애기드른 쏼대기 {그러면 이제 옆에 아이들은 번데기('쏼대기'는 '번데기'의 방언형) @2 예에 # 쏼대기 그거 어더 무글라고 그냥 아:드리 뽕: 돌려 안자꼬 (웃음) {번데기 그것 얻어먹으려고 그냥 아이들이 뽕 돌려앉아 있고,} @1 (웃음)

10414 # 거또 막 와삭와삭허이 마시꼬 그랜느디 지그른 나 그거이 안 무꾸자바. {그것도 막 와삭와삭하게 맛있고 그랜는데 지금은 나 그것이 안 먹고 싶어('잡다'는 '싫다'의 방언형).}

10414 # 저네는 온:씨글 따라댕임서도 올 엄니야 그걸 참 잘형개로 따라댕임성 만:날 어더 무꼬 또 나:가 망내라 테:농개 어매르 그리 딸:코 (웃음) {전에는 온 구석을 따라다니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그걸 참 잘하니까 따라다니면서 만날 얻어먹고 또 내가 막내가 되어 놓으니까 엄마를 그렇게 따르고. (웃음)}

10414 # 그람 마:니 어더 무꼬 그래썬요 {그러면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요.} @2 예 @1 음음

10414 @1 거 니: 올리능 건 표준말로 그냥 서피라고 그런데, 썩. 서베 올린다고 체빵가통게 서빙가? {그 누에 올리는 것은 표준말로 그냥 썰이라 그런데, 썰 썰에 올린다고 체판 같은 것이 썰인가?}

10414 # 체파니라 그래썬요 {'체판'이라 그랬어요.} @1 예에 # 우리드르 {우리들은.} @1 서베 올린다고 {썰에 올린다고.} # 예 @1 서페 올린다고 그러니까 {썰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 예

10414 # 체판지에다가 인자 {'체판'에다가 이제} @1 음 # 그 쑤세미를 쑤세미 그걸 보고 머이라 헨느디 그거느 이저부린네요 {그 수세미를 수세미 그걸 보고 뭐라 했는데 그것은 잊어 버렸네요.} @1 음

10414 # 그러머 인젠 그건 두: 발썩 데능 걸 인자 궁개 인잔 요:리 영꺼가 인자 가운데로 요리 꼬터리 요리 뭉꼬 뿌루문 인자 동그라:머이 요리 데지요. {그러면 이제 그것 두 발썩 되는 것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리 엮어가지고 이제 가운데로 이리 끝('꼬터리'는 '끝'의 방언형) 이리 묶어 버리면 이제 동그랴게 ('동그람허다'는 '동그랴다'의 뜻) 이리 되지요.}

10414 # 요:리 인제 두: 줄로 나: 가꼬 거따가 인지 이런 데 두문두문허이 편지 놈 이궁 걸 개:리가꼬 편지 노문 지분 {이리 이제 두 줄로 나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이런 데 드문드문하게 던져 놓으면 익은 걸 가려가지고 던져 놓으면 집은,}

10414 @2 그머는 한잠 자고 두:잠 자고 세:잠 자고 이러케 잠 자면 크기가 달라지자나요

{그러면은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이렇게 잠 자면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 예 @2 점점 크니까 {점점 크니까.}

10414 # 하: 쪼깐 커지고 쪼깐 커지고 {아무렴('하'는 '아무렴'의 뜻), 조금 커지고 조금 커지고,} @2 예예

10414 @2 그러면 이러케 잠 자기 전 이까 그 크기에 따라서 이러케 이르미 따로 혹시 이쨌냐요? {그러면 이렇게 잠 자기 전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따로 혹시 있었냐요?}

10414 # 그냥 한잠 장 거 두:잠 장 거 인자 {그냥 한 잠 잔 것 두 잠 잔 것 이제,} @2 하 # 그리 마:를 허재 {그렇게 말을 하지.} @2 예예

10414 # 인자 어:런더른 보문 딱 아라요. 두:잠 자겠네 그르고, 석:잠 자겠네 그르고. {이제 어른들은 보면 딱 알아요. 두 잠 자겠네 그르고 석 잠 자겠네 그르고.}

10414 @2 크기 보고 아라쓰까요 아니면 {크기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면?} # 예. 그럼 곁 보고 {예, 그런 곁 보고.} @2 여페 저미 이러케 이짜냐요 점 보고 아라쓰까요? (웃음) {옆에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점 보고 알았을까요? (웃음)}

10414 # 몰라. 점:도 하: 이쨌 {몰라. 점도 아무렴 있어.} @2 잉까 {그러니까} # 근:넌디 몰:라 어:런더리 인자 형개로 몰:라찌 우리더르 {그랬는데 몰라 어른들이 이제 하니까 몰랐지 우리들은.} @2 아

10414 @1 그러든 세깔드른 {그러면 색깔들은,} # 거 정:그능 거 가꼬능 안 거서 와 {그 ***것 가지고는 안 거시기 와.} @1 세깔도 좀 노루스름헤:지고 {색깔도 좀 노르스름해지고.}

10414 # 아이, 처:메는 경:꼬 {아이, 처음에는 겹고,} @1 음 @2 아~ # 인자 클쭈록 인자 흑:해저. 니:가 인자 사리 타무 흑:해지고 {이제 클수록 이제 하얘져('흑허다'는 '하얗다'의 방언형). 누에가 이제 살이 타면 하얘지고.} @2 네 # 인자 난:제는 놀:해지고 {이제 나중에 는 노래지고.}

10414 @1 크기 세깔 등등은 보게쨌. {크기 색깔 등등을 보겠지.} @2 네

10414 # 어 우리더른 그냥 {어, 우리들은 그냥} @2 네 # 밤:날 뽕 따다 나리지 궁개, 뽕. {밤낮 뽕 따다 나르지 그러니까 뽕.} @2 뽕 따시기 힘드셔쨌 뽕 따러 가~. {뽕 따시기 힘드셨지요. 뽕 따러 가.} #@ (웃음)

10414 # 궁겐 {그러니까} @2 네 # 만:날 뽕:만 {만날 뽕만.} @2 **쨌요 {**지요.}

10414 # 니:도 그냥 우리 여그 친정 어무니는 그냥 요그 하나인드아 한장이라거든요, 한 장. {누에도 그냥 우리 여기 친정어머니는 그냥 여기 하나인데 한 장이라거든요. 한 장.} @2 예

10414 # 그문 인자 녀:장씩 허문 이 통방으로 뽕: 도라감성 다:뽕 한방이랴요. 막 칭계를 해가고. {그러면 이제 녀 장씩 하면 이 통방으로 뽕 돌아가면서 다뽕 한 방이예요. 막 칭계를 해가지고.} @2 예 # 그 다:뽕 한방씩 그렇게 아글 한:정도 엄씨 마나. {그 다뽕 한 방씩 그러니까 ** 한정없이 많아.}

10414 @2 마:니 먹찌요 근데 이거. {많이 먹찌요 근데 이것.}

10414 # 만:치. 공개 점:두룩 나는 뽕:만 따란다고 나가 울:고 막 (웃음). {많지. 그러니까 저물도록('점두룩'은 '저물도록'의 뜻) 나는 뽕만 따라고 한다고 내가 울고 막. (웃음)}

10414 @2 그러면 자기 바테 뽕, 그 자기 바테 뽕:나무가 이꼬 뽕 키워야지 받 업쓰면 {그러면 자기 밭에 뽕, 그 자기 밭에 뽕나무가 있고 뽕 키워야지 밭 없으면,}

10414 # 지금 요 요 바깥에 매실나무 요령 거슬 스 심:때끼 {지금 이 이 바깥에 매화나무 이런 것을 심듯이,} @2 예 # 건:때는 {그런 때에는} @2 어 # 그를 제는 그냥 {그럴 제는 그냥} @2 응 # 받뜨러가가 점:부 뽕이고 또 정구 안해문 인자 마:니 혈랑개 인자 또 받 가운데도 송구고 땅 마:는 사라문 공개 마:니 송거찌요 막. {밭두렁이 전부 뽕이고 또 전부 안 하면 이제 많이 하려니까 이제 또 밭 가운데도 심고 땅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많이 심었어요 막.}

10414 # 산도 이씨무 상빼들게 그런 디도 막 송거 노꼬, 뽕:나무가 굴:근데 올라가서 그냥 따:고 그렇게 {산도 있으면 산기슭에('산비둑'은 '산기슭'의 뜻) 그런 데도 막 심어 놓고 뽕 나무가 굵은 데 올라가서 그냥 따고 그러니까,} @2 네

10414 # 지금 공개 그 매실 따고 요 감: 따고 요런디 날:거 나구재기 잘한다고 핑상 날:보고 오래서 또 감: 따로 가고는 *** {지금 그러니까 그 매실 따고 이 감 따고 이런 데 나를 그 나무에 올라 따는 일을('나구재기'는 '나무에 올라 과일 등을 따는 일'의 뜻) 잘한다고 항상 나보고 오라고 해서 또 감 따러 가고는 ***}

10414 @2 근디 자기 뽕 부조갈 경우도 이쓰 꺼 아니예요? {그러면 자기 뽕 부족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어요?}

10414 # 근 저:기 산중에, {그러면 저기 산중에} @2 예 # 인자 돌:뽕. {이제 산뽕('돌뽕'은 '산뽕'의 방언형)} @2 돌:뽕이랑 게 또 이씨요? {산뽕이란 것이 있어요?}

10414 # 저::그 저그 어치꼬랑에 저:그 배운산 밋에 저저 저 바구로봉 밋에 {저기 저 저기 어치('어치'는 지명) 골짜기에 저기 백운산 밑에 저저 저 바구니봉 밑에} @1 무슨 봉이요?

(무슨 봉이오?) # 바구리봉. {바구니봉('바구리'는 '바구니'의 방언형).} @1 바구리봉. 아~ 봉오리 {바구니봉. 아 봉우리.} # 예 @1 음

10414 # 바구리봉 미테 그런 디 그 인자 올라가서 막 숲 지튼디 그런디 가며 꼬랑까로 머 그냥 그런디 가문 {바구니봉 밑에 그런 데 그 이제 올라가서 막 숲 짚은 데 그런 데 가면 도랑 가로 뭐 그냥 그런 데 가면}

10414 # 채리보고 빵을 빵 따로 인자 니: 합밥 재치노무 빵이 모:지란다고 그냥 보파리 큰: 보파리르 가꼬 막 또 시꾸대로 가고 남자들도 가 가꼬 인자 비:내: 주문 따고 인자 이녀 빵나무는 {쳐다보고('채리보다'는 '쳐다보다'의 뜻) 빵을 빵 따로 이제 누에 한 밥 갖혀 놓으면 빵이 모자란다고('모지라다'는 '모자라다'의 방언형) 그냥 보파리 큰 보파리를 가지고 막 또 온 식구가 가고 남자들도 가가지고 이제 베어 내 주문 따고 이제 이녀 빵나무는,} @2 예 # 인자 아까바서 마:니 몬 비지. {이제 아까워서 많이 못 베지.}

10414 # 그래서 인자 그런 디는 가무 그양 똥구녀글 바로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가면 그냥 똥구멍을('똥구녀'는 '똥구멍'의 방언형) 바로 그냥,} @2 (웃음) # 비:뻘문 나자빠 지문 인자 막 여자드른 따고 {베어 버리면 나가자빠지면 이제 막 여자들은 따고,}

10414 # 인자 동네 메 찌비 여자들허고 남자 하나허고 어울라가꼬 가서 인자 남자드른 베: 남자가 베: 주문 인자 여자드른 점:부 따오그랑 한: 뽀파리썩 해가꼬 오고, {이제 동네 몇 집이 여자들하고 남자 하나하고 어울러가지고 가서 이제 남자들은 베어 남자가 베어 주문 이제 여자들은 전부 따 오거나 한 보파리썩 해가지고 오고,}

10414 # 또 빵 마지메 온다고 지비 이쁜 사람드른 키워 주고 지비 인자 니: 키우던 사람드른 또 어어 무겁다고 또 마지메 온다고 또 오고 글썽 차가 엄썩개 거리 땡강개, {또 빵 마중('마지메'는 '마중'의 방언형) 온다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키워 주고 집에 이제 누에 키우던 사람들은 또 어어 무겁다고 또 마중 온다고 또 오고 그럴 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니까,}

10414 # 인제 마지밀 허고 {이제 마중을('마집'은 '마중'의 방언형) 하고,} @1 둘 # 그래서 요. {그랬어요.} @1 돌빵이 마:니 이썩나요? {산빵이 많이 있었나요?}

10414 # 인자 새:가 인자 요 오둘개 요령 걸 따:서 무꼬 사네 가서 인자 {이제 새가 이제 이 오디('오둘개'는 '오디'의 방언형) 이런 걸 따서 먹고 산에 가서 이제,} @1 음 # 똥을 싸문 거그서 나:고 {똥을 싸면 거기서 나고,} @1 음

10414 # 지금 우리 여으 치너물바테 요론 디도 흑씨 요런 지금 빵을 안 해도 흑씨 저 사네 전:디 빵나무 인능 거 그렇 걸 따무꼬 와서 마니:: 나요. {지금 우리 여기 취나물 밭에 이런 데도 흑씨 이런 지금 빵을 안 해도 흑씨 저 산에 저런 데 빵나무 있는 것 그런 것을 따 먹고 와서 많이 나요.} @1 음 # 치너물바테도. {취나물 밭에도.} @1 음음

10414 @2 오들개 따:러 다니느라고 또 바쁠 때 뽕 바테서 (웃음). {오디 따러 다니느라고 또 바쁠 때 뽕 밭에서. (웃음)}

10414 # 공개 오들개 따무거 가는 또 그거이 흑:형 거이 또 찌거등. 흑:형 거이 찌:문 또 그걸 따:고 나문 망 머리로 끈:끈형 거이 그냥 {그러니까 오디 따 먹어 가면 또 그것이 하얀 것이 또 끼거든. 하얀 것이 끼면 또 그걸 따고 나면 막 머리로 끈끈한 것이 그냥,} @1 음. 찢 가통 게 이썬요? {음, 진 같은 게 있어요?} # 예.

10414 # 흑:형 거 그거이 막 찢니 막, {하얀 것 그것이 막 진이 막,} @1 음 # 거슨 또 머리 까마야 테고, 어 만:날 나는 뽕만 따란다고 또 울:고, 금 뽕 따면 막 이따감 머: 해 준다 머: 해 준다 흘가노콘 해 주도 안해 (웃음). {그것은 또 머리 감아야 되고, 어 만날 나는 뽕만 따라고 한다고 또 울고, 그러면 뽕 따면 막 이따가 뭐 해 준다 뭐 해준다 속여('흘기다'는 '홀리다, 속이다'의 뜻) 놓고는 해 주지도 않아.}

10414 @2 큰 이리여견네요, 뽕 따러 다니시능 거시. {큰 일이었겠네요, 뽕 따러 다니시는 것이?} # 이거 한:철 거이 버린디요 그 저네느. {이것 한 철 거의 버리는데요 그 전에는.} @1 음

10414 @2 아니 이게 @1 음 @2 며짬 자고 나면 커 가지고 {몇 잠 자고 나면 커가지고,} # 어 @2 하루에 며뻔:씩 먹썬요. {하루에 몇 번씩 먹썬요.}

10414 # 인자 무꼬 나:머 엄:씨면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야지 인자 공개, 자:꾸 마:니 중거느 빨리 올라가고 형개 요즈른 노:인들 그래 나:도 마:니 몽는 노미 아페든 올라간다고 아페 중는다 그러고. {이제 먹고 나면 없으면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자꾸 많이 준 것은 빨리 올라가고 하니까 요즘은 노인들 그래, "누에도 많이 먹는 놈이 앞에 올라간다고 앞에 죽는다." 그러고,} @2 음

10414 # (웃음) 여기 회:과네서도 앵간만 무거. 마:니 몽는 놈 아페 중능그잉개 그래싸 (웃음). {(웃음) 여기 회관에서도 "어지간히 먹어. 많이 먹는 놈 앞에 죽는 거니까." 그래 썬아.} @1 아 # 그래싸:코 그러데끼. {그래 썬고 그러듯이('-데끼'는 '-듯이'의 방언형).}

10414 # 어째등가 잘: 미깡자 시꾸 망:코 손대 조아서 마:니 미긴 사람드른 얼렁 올라가고, 인자 뽕:이 자:가가꼬 썰:간씩 주고 한:참 이따가 또 주고 그러면 또 느께 올라가고 인자. {어떻든 잘 먹여 이제 식구 많고 솜씨 좋아서('손대 좋다'는 '솜씨 좋다'의 뜻) 많이 먹인 사람들은 얼른 올라가고, 이제 뽕아 작아가지고 조금씩 주고 한참 있다고 또 주고 그러면 또 늦게 올라가고 이제,}

10415 @1 그 멥주실 뽕볼 때 헐 때는 어트지 어터케 과:정이 데요? 실: 뽕볼 때는. 꼬치 꼬치를 가지고. {그 멥주실 뽕을 때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과정이 돼요? 실 뽕을 때는. 꼬치 꼬치를 가지고.}

10415 # 어 인자 꼬치 그걸 인자 또 그 쭈세미에서 싹: 따 가꼬, {어, 이제 꼬치 그걸 이제 또 그 수세미에서 싹 따가지고,} @1 음 # 따 가꼬 인자 껌떠그로 인자 제: 집 질라 거:무장칭 거, {따가지고 이제 껌질로('껌딱'은 '껌질'의 방언형) 이제 제 집 지으려 거미줄 친 것,} @1 음 # 그렇 걸 싹: 또 까야 데요. {그런 걸 싹 또 까야 돼요.} @1 음 @2 음

10415 # 싹: 까 가꼬 인자 그거는 그거때로 인자 {싹 까가지고 이제 그것은 그것대로 이제,} @2 거:또 만들지요? {그것도 만들지요?}

10415 # 그걸 가꼬 그거는 가꼬 멀: 핸능고 모르겠네 애리논깨 그죽. {그걸 가지고 그것은 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네 어려 놓으니까 그때}

10415 # 어:런덜한테 거승만 하나. 그거는 그거때로 까머 그어또 막 소쿠리로 하나라요. {어른들한테 거시기만 하나. 그것은 그것대로 까면 그것도 막 소쿠리로 하나예요.} @2 예

10415 # 큰: 소쿠리 저넨 막 굴:근 소쿠리로 맨드라. {큰 소쿠리 전엔 막 굵은 소쿠리로 만들어.}

10415 # 맨드라가꼬 중물 젤: 인는 사라미 인자 그림 그너를 사다가 맨드라 가꼬 그렇 거 또 다: 또 항 거이고 그리 또 싹:: 까 가꼬 똥, 덕써게다 시방 비느리가 조:채마는 저네는 덕써글 그냥 또 남자들 두:리서 뜨 들고 그냥 탕:탕 두드려요, 티 묻는다고. {만들어가지고 죽물 제일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림 그놈을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또 한 것이고, 그리 또 싹 까가지고 또 멍석에다('덕석'은 '멍석'의 방언형) 시방 비닐이 좋지마는 전에는 멍석을 그냥 또 남자들 들어서 떠들고 그냥 탕탕 두드려요, 티 묻는다고.}

10415 # 탕:탕 두드리가꼬 인자 페: 노코 또 덕써게다가 싹: 내려서 당글당글호이 몰라가꼬 가야 또 거그서도 공:출 잘 바다 주지. {탕탕 두드려가지고 이제 퍼 놓고 또 멍석에다가 싹 내려서 당글당글하게 말려가지고 가야 또 거기서도 공출 잘 받아 주지.} @1 음

10415 @1 그걸 단 고치를 네: 버려요 봄 메상을? {그걸 단 고치를 내 버려요 봄 메상을?}

10415 # 매:상을 내:야 데요. {매상을 내야 돼요.} @1 아 # 그거또. {그것도.} @1 지베서 그걸 쌀마서 실: 뽑꼬나 안 하나고? {집에서 그걸 삶아서 실 뽑거나 안 하고?}

10415 # 궁께 인자 구징 건만. {그러니까 이제 굶은 것만.} @1 아, 구징 건만. {아, 굶은 것만.} # 예 @1 어

10415 # 구징 건만 허고 또 그거또 쫘 칫 잘 무궁 거능 구:께 지블 지꼬, {굶은 것만 하고 또 그것도 좀 잘 먹은 것은 굶게 집을 짓고,} @1 음 @2 음 # 몸:무궁 거는 잘고 그룽께, 그 장 거, 인자 물등 거, 그렇 거 인잔 에 시:를 뽀바요. {뭇 먹은 것은 잘고 그러니까 그 잔 것 이제 물든 것 그런 것 이제 에 실을 뽑아요.}

10415 @1 거 어떻게 {그 어떻게?} # 쌍:개 {삶으니까} @1 싹 그걸 싹마야지요 고치를.
{싹 그걸 삶아야지요 고치를.} @2 음

10415 # 고치를 궁:개 요만한 솜 소판지, {고치를 그러니까 이만한 솜 솜단지.} @1 어, 오
가리 {어 오지그릇 독.}. # 저네 저네 오가리 소판지. {전에 전에 오지술('오가리 솜단지'는
'오지술'의 뜻).} @1 음

10415 # 그거에다 인자 미테 스 인제, {그것에다 이제 밑에 스 이제,} @2 볼 느코 {볼 넣
고.} # 볼 러:코 인자, {볼 넣고 이제.} @1 음 # 다글다글 막 벉떡벉떡 꼬르문 인자 거따
꼬치를 또 지버 여:코 줄 빼:문 인자 또 싹: 뽕피 나가머니 또 인제 켠대기면 호물호물허니
이쓰 켠대기 소:게가 또 이썬요. {바글바글('다갈다갈'은 바글바글 끓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막 바글바글('벉떡벉떡'은 심하게 끓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끓으면 이제 거기에다 고
치를 또 집어 넣고 줄 빼면 이제 또 싹 뽕혀 나가면 또 이제 번데기만('켠대기'는 '번데기'의
방언형) 호물호물하게 있으 번데기, 속에 또 있어요.} @1 음

10415 # 호물호물호이 켠까만 이썬면 인자 그거 인자 또 켠대기 그거이 또 나와 뿌리며
혹씨나 여 시:리 안 조으까이~, {호물호물하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것 이제 또 번데기 그
것이 또 나와 버리면 혹씨나 이 실이 안 좋을까 봐,} @1 음

10415 # 켠감 인능 거 켠감 허물허물허이 인능 거 인자 요리 건지서 우리드를 주무 인자
우리으 요:리 찌저가꼬 인자 또 그걸 무꼬, {조금 있는 것 조금 호물호물하게 있는 것 이제
이리 건지서 우리들을 주면 이제 우리는 이리 찢어가지고 이제 또 그걸 먹고.} @2 음 @1
(웃음)

10415 @2 여러 사لامي 모여서 해야 데켄네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되겠네요.}

10415 # 인자 거그에 인자 허물허물런 그거 켠대기 소게 인제 껌떠게 인제 {이제 거기에
이제 허물허물한 그것 번데기 속에 이제 껌질에 이제,}@2 어 # 켠감 허물허물허이 인능 건
보고 요리 찌저가 무궁 그노문 인자 또 풀쏘그미라고 배 찜서로, {조금 호물호물하게 있는
것 보고 이리 찢어서 먹은 그놈은 이제 또 '풀소금'이라고 배 찜면서,} @1 음

10415 # 배 찜서 주리 떠 이리 저 오:리 떠러지머 인자 그걸 인자 또 잉애 때에다가 인자
요래 막 거러노코 만:날 추물 불라가 여러가 켠감 때: 가꼬 또 비비면 이서저 그걸 가꼬.
{배 찜면서 줄이 떠 이리 저 올이 떨어지면 이제 그걸 이제 또 잉앗대에다가 이제 이리 막
걸어 놓고 만날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떼어가지고 또 비비면 이어져. 그걸
가지고.} @2 아

10415 @1 고치 # 예 @1 크텐나 소:그로 {*** 속으로.} # 궁개 그걸 보고 풀쏘그미라 그
래썬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풀소금'이라 그랬어요.} @2 ** @1 음

10415 # 그래 그걸 인자 쪼끔 때: 가꼬 인자 그걸 가꼬 요:리 이:스머 안 떠러지면 또 배

를 짜고. {그래 그걸 이제 조금 떼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리 이으면 안 떨어지면 또 베를 짜고.} @ 음 # 그래 @1 아 @2 아

10415 # 거:또 안 쌀몽 거는 또 안 이서저요. 세:서. {그것도 안 삶는 것은 또 안 이어져요.} @2 아 @1 음

10415 # 세:서 안 이서지는 인자 그거또 쌀무머 인자, 인자 그거 엄:는 사람드른 그냥 모: 쌀 꺼 좀 구징 거 그렇 거를 또 지비 소테다가 쌀마야 데. {세어서 안 이어지는 이제 그것도 삶으면 이제, 이제 그것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못 쓸 것 좀 굶은 것 그런 것을 또 집 술에다가 삶아야 돼.}

10415 # 쌀마 가꼬 인제 그걸 잉앤 때에다가 인잔 꼬치 그걸 하나씩 인자 요린 내: 쌀마 부들부들형개 인자 요리 거:러 노:먼 또 오:리 떠러지면 요리 때: 가꼬 또 요래 가꼬 요리 두: 개로 요:리 이서 가꼬 땅 요로먼 또 이서지고 그래 가꼬 배 짜고. {삶아가지고 이제 그걸 잉앗대에다가 이제 고치 그걸 하나씩 이제 이리 내어 삶아 부들부들하니까 이제 이리 걸어 놓으면 또 올이 떨어지면 이리 떼어가지고 또 이리 해 가지고 이리 두 개로 이리 이어가지고 딱 이러면 또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배 짜고.}

10416 @2 베도 마니 짜서썩요? {베도 많이 짜셨어요?} # 마:니 짜:썩 (웃음). {많이 썩지. (웃음)}

10416 @1 거 이 멩지베 짜능 박 방버븐 삼베락 거이 가꼬요? {그 이 명주베 짜는 박 방법은 삼베와 거의 같고요?}

10416 # 배 짜능 거느 점:부 가태요. {배 짜는 것은 전부 같아요.} @1 어

10416 # 인자 거그에서 인자 보디 지비라 보디라고 인능 거이 인자, 다썩 보디 아홉썩 보디 야달썩 보디 인자 그렇거 이짖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디집이라 바디라고('보디'는 '바디'의 방언형) 있는 것이 이제, 닷새 바디 아홉새 바디 여덟새('야달'은 '여덟'의 방언형) 바디 이제 그런 것 있잖(아요?)}

10416 # 멩지 보디는 또 똑: 참비겔 겐:꼬 상:구 가늘고 그렇개 인잔 다썩 보디는 음 두문 두무너이 그러코 그래. {명주 바디는 또 꼭 참빳 같고 사뭇 가늘고 그러니까 이제 닷새 바디는 음 드문드문하게 그렇고 그래.} @1 음

10416 @1 세으막 {***} # 궁개 인자 {그러니까 이제} @1 음 # 다썩는 언능 언능 항개작 꼬너 주고 가는 배는 또 쪼감 더디게 꼬 짜 암:만해도 가능개 언능 아 아피 안 부룻개 인자 더디게 꿇코 {닷 새는 얼른 얼른 한 개씩 꿇어 주고 가는 배는 또 조금 더디게 꼬 짜 아무래도('암만해도'는 '아무래도'의 방언형) 가느니까 얼른 아 앞이 안 부르니까 이제 더디게 꿇고,} @1 음

10416 @2 그른 언:제 여르메 그걸 짜나요? 아니며는 베를 언:제 짜요? {그러면 언제 여름에 그걸 짜나요? 아니면은 베를 언제 짜요?}

10416 # 음 삼베는 인자 칠팔래 짜고 {음, 삼베는 이제 칠팔월에 짜고,} @2 예 # 멍:배는 인자 삼동에 짜고, {무명베는 이제 겨울에('삼동'은 '겨울'의 뜻) 짜고.} @2 아

10416 # 삼동에는 삼베는 좀 버실기리지 아나요. {겨울에는 삼베는 좀 바슬거리잖아요?} @2 그지요(그러지요.).

10416 # 어 공개로 {어 그러니까,} @2 어 # 인제 칠팔로 짜고 삼 인자 멍 저: 멍:배는 인자 삼동으로 짜고. {이제 칠팔월로 짜고 삼 이제 무명 저 무명베는 이제 겨울로 짜고.} @1 멍지베? # 인제 멍지베도 인제 삼동으로 짜고. {이제 명주베도 이제 겨울로 짜고.} @1 어 그레 삼동으로 짜고. {아 그레 겨울로 짜고.} @2 어

10416 # 인자 멍:지베는 인자 허는 사라미 썩: 드무라요. {이제 명주베는 이제 하는 사람이 썩 드물어요.} @1 아 그레요? {아, 그레요?}

10416 # 예. 집점마덩 허능 거이 아이고, {예. 집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 어 # 인자 멍지베는 참말로 숨씨 조은 사람들 썩비 {이제 명주베는 정말로 숨씨 좋은 사람들 집} @1 어 # 그런 지비서 허고. {그런 집에서 하고,} @1 음, 그런네요. 예. {음, 그렇네요. 예.}

10416 @1 그러면 인제 음 되:치 데:충 이야기텐네. {그러면 이제 음 대충 대충 이야기 됐네.}

10416 @1 그 다으메는 인제 온만 {그 다음에는 이제 옷만,} @2 네 @1 여:쥬 보고 그레 나는 할 릴 다 해:파. {여쥬 보고 그레, 나는 할 일 다 했다.} @2 (웃음) @1 음

1.6.2 옷 만들기

10419 @2 온또 마니 만드러서 이브셔썩요? {옷도 많이 만들어서 입으셨지요?} # 예

10419 @2 어유, 그 다 저네는 베 짜셔 가지고 그걸로 온 만드러서 이브셔썩요? {어휴, 그다 전에는 베 짜셔가지고 그걸로 옷 만들어서 입으셨어요?} # 예 @2 아들 오토 짜:시고 {아들 옷도 짜시고.} @1 (하품)

10419 # 인자 어:른드리 베: 주무 인자 맨들그든 맨드라 바:썩 {이제 어른들이 베어 주면 이제 만들거든. 만들어 봤어.}

10419 @2 예. 천 해:가지고 누구 온 만드셔 보셔썩요? {예, 천 해가지고 누구 옷 만드셔 보셨어요?}

10419 # 인자 {이제} @2 예기들? {아이들?} # 씨아버니 올허고 {시아버지 옷하고,} @2 아, 어:른들 {아, 어른들.} # 인제 어매들허고 {이제 엄마들하고,} @2 네 # 그렇 거고 {그런 것이고.}

10419 @2 머 딸:로 만드셔썬요 시아버지 오슨? {뭐 뭘로 만드셨어요 시아버지 옷은?}

10419 # 땡:배 가꼬도 허고 삼배 가꼬도 허고. {무명배 가지고도 하고 삼배 가지고도 하고.}

10419 @2 음. 그걸로 머 둘메기 가통거 머 그렇 거 만드셔썬요? {음, 그걸로 뭐 두루마기 같은 것 뭐 그런 것 만드셨어요?}

10419 # 인자 아홉 썬배 그렇 거능 가꼬 두루막 거통 거 그렇 거 허고, {이제 아홉 새 배 그런 것은 가지고 두루마기 같은 것 그런 것 하고,}

10419 @2 어뜨케 언뜨케 만드는지 두루막 어뜨케 만드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지 두루마기 어떻게 만드는지 좀 말씀 해 주세요.}

10419 # 인제 겹두루막 형 거 땡지 인제, {이제 겹두루마기 한 것 명주 이제,} @2 네 # 부:자쩍뜨른 인자 땡지 안 녀코 좀 살:만한 사람드른 땡지 안 여코 인자 두루마글 허고, 글 안 하무 거:느 인자 겹두루마 인자 또 땡지 엄:는 사람 비:다늘 떠다가 인자 또 아늘 여코, {부잣집들은 이제 명주 안 넣고 좀 살 만한 사람들은 명주 안 넣고 이제 두루마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겹두루마기 이제 또 명주 없는 사람 비단을 떠다가 이제 또 안 을 넣고,}

10419 # 인자 솜씨 조은 사람드른 그러고, 앵가년 사람드른 그냥 호뚜르막 해:서 입꼬 땡 기고 그래썬요. {이제 솜씨 좋은 사람들은 그리하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홀두루마기 해서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10419 # 요 요새가 가찌 머. 인는 사람드른 조:논넙꼬 땡이고 엄:는 사라문 그냥 아:무꺼이 라도 입꼬 땡기데끼 저네. {요, 요새와 같지 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 것이라도 입고 다니듯이 전에.}

10419 @2 그러면 천 떠가지고 만드러라 그러면 어떠께 만드셔요 어떠께? {그러면 천 떠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셔요? 어떻게?}

10419 # 인자 오토 베:는 사라미 따로 이썬요. 집마둥 다 베:능 거이 아이고. 인자 온 잘 베:는 지비 가서 베:가꼬 와서 인자 거 땡드러라 그러면 인자 땡드리곤드. {이제 옷도 베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집마다 다 베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옷 잘 베는 집에 가서 베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만들곤,}

10419 # 우리 친정 어무니는 그렇 거또 잘 배:고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런 것도 잘 배고,}
@2 음 # 그렇게 누에 고치 그렇 거또 잘 허고 그렇게 머 너한테 배우꺼이 영:꼬 우리 어
무니한테 배아쨌요. {그러니까 누에고치 그런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남한테 배운 것이
없고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지요.} @2 음

10419 # 거 인자 두루막 거통 거또 해 바야 시집 가문 {그 이제 두루마기 같은 것도 해
봐야 시집 가면,} @2 예 # 허능 거이라고, 우리 올캐르 열 딸 인자 어매다 업:는 사라플
우리 친정에도 좀 업:씨 사라쨌요. {하는 것이라고, 우리 올캐를 열 딸 이제 엄마 없는 사람
을 우리 친정에도 좀 없이 살았어요.}

10419 # 그릉께로 거 인자 올 어매가 그런 눈썰미:가 이쌍께 그렇 걸 배아 가꼬 만날 너무
배 매로 땡기고 배 나라 주고 배 짜고 머 그렇 걸 형께,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엄마가 그
런 눈썰미가('눈썰미'는 '눈썰미'의 방언형) 있으니까 그런 걸 배워가지고 만날 남의 배 매러
다니고 배 날아 주고 배 짜고 뭐 그런 걸 하니까,}

10419 # 인자 올 올캐르 인자 열다서쌀 몽능 걸, 어매도 영:꼬 그리 인능 거를 인자 데이
다가 주구 어매가 일칭이 주거 부리고 인자 호래비가 인자 말허자머 호라부지허고 인자 사:
능 걸 데꼬 와 농께 멸: 물: 모리는다, 그러 우리 올캐도 눈썰미가 그리 조아서 잘 배우드라
네요. {이제 우리 올캐를 이제 열다섯 살 먹은 걸, 엄마도 없고 그리 있는 것을 이제 데려
다가 저희 엄마가 일찍 죽어 버리고 이제 홀아비가 이제 말하자면 홀아버지하고 이제 사는
걸 데리고 와 놓으니까 물, 모르는데, 그러 우리 올캐도 눈썰미가 그리 좋아서 잘 배우더라
네요.}

10419 # 그래 인제 나 네:살 무거서 올캐가 완는다, 올 올캐, 올 업니는 그냥 금 바꾸로 떼
두리로 땡기고 머 금 바꾸러 너무 이:리나 땡기고 그래도, 인자 올 올캐르 그르시 잘 배와
농께로, {그래 이제 나 네 살 먹어서 올캐가 왔는데 우리 올캐 우리 엄마는 그냥 금 밖으로
뛰 *** 다니고 뭐 금 밖으로 남의 일이나 다니고 그래도, 이제 우리 올캐를 그렇게 잘 배워
놓으니까,}

10419 # 올 올캐가 그냥 어매메이라. 나이 예 애기라 농캐르 어매메이로 그리 사라농께,
올 올캐느 똑 또 자기 딸 키우데끼 나를 키우고, {우리 올캐가 그냥 엄마 같아. 내가 아기
였으니까 엄마처럼 그리 살아 놓으니까 우리 올캐는 똑 또 자기 딸 키우듯이 나를 키우고,}

10419 # 그래 올 올캐가 데꼬 안자서 올 어맨:테 배아 가꼬 또 올 올캐가 데꼬 안자 날 그
리 겹차 주고, {그래 우리 올캐가 데리고 앉아서 우리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또 우리 올캐가
데리고 앉아 날 그리 가르쳐 주고,} @1 음

10419 # 또 올 언니가 옥곡 상:께로, 우런니가 또 수물야호베 혼자 데:쨌. {또 우리 언니가
옥곡 사니까 우리 언니가 또 스물 아홉에 혼자 땀어.}

10419 # 수물야호베 혼자 데: 가꼬, 애기는 너:열 나: 노코 우리 형부가 구니네 가따 와서

주거 부러놓개로 도라가시놓개로 {스물 아홉에 혼자 돼가지고 아이는 넷을 낳아 놓고 우리 형부가 군인에 갔다 와서 죽어 버려 놓으니까 돌아가서 놓으니까.}

10419 # 그 또 우리 어매 미테서 커 놓개 올 언니도 그리 잘 형개, 나는 그냥 우런니지비 반:쫘 살:데끼 해써. {그 또 우리 엄마 밑에서 커 놓으니까 우리 언니도 그리 잘 하니까, 나는 그냥 우리 언니 집에서 반쫘 산 듯했어.}

10419 # 그 애기들 봐: 주고 또 거그서 또 배우고, {그 아이들 봐 주고 또 거기서 또 배우고,}

10419 # 궁개 머 바느질도 너무 소네 가서 허도 안 허고, {그러니까 뭐 바느질도 남의 손에서 하지도 않고,} @2 음

10419 # 시지볼 때 오토 점:부 우런니지비 가 가서 우런니가 허고 또 날: 보고 바그라고 인자 베: 주고 급서 바그라고 그러면 이 시터 주면 인자 또 나가 허고, {시집올 때 옷도 전부 우리 언니집 가서 우리 언니가 하고 또 나보고 박으라고 이제 베어 주고 그러면서 박으라고 그러면 이 ** 주면 이제 또 내가 하고,}

10419 # 그래가꼬 와 놓개 머 올 허고 그렇 거는 남한테 머 아쉬운 거이 업:씨 배와써. {그래가지고 와 놓으니까 뭐 옷 하고 그런 것은 남한테 뭐 아쉬운 것이 없이 배웠어.}

10419 @2 만드는 방버비 저이:는 안 배워서 어:떠케 만드는지 모르는데, {만드는 방법이 저희는 안 배워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10419 # 그냥 베: 가꼬 온 대로 쫘쫘 인자, {그냥 베어가지고 온 대로 쫘쫘 이제,} @2 예 # 바 바 베:서 바:그무 데:지 머. {바 바 베어서 박으면 되지 뭐.} @2 (웃음)

10419 # 바지 덩찌., {바지 '덩찌'.} @2 예

10419 # 인자 그때는 양장을 인자 더우까다 양장을 해놓개 {이제 그때는 양장을 이제 **** 양장을 해 놓으니까.} @2 예

10419 # 양장은 나 똑떼기 잘 몰라. {양장은 나 똑똑히 잘 몰라.}

10419 # 이, 그러나 인자 시집 와서도 씨아재드리 서:이나 데:웅개 여 우리 여 요지비가 우리 자근지비 사란디 우리 {이, 그러나 이제 시집와서도 시동생들이 셋이나 돼 놓으니까 이 우리 이 이 집에서 우리 작은집이 살았는데 우리}

10419 # 그때도 양장저메 땡기씨문 허는디 {그때도 양장점에 다녔으면 하는데,} @2 예 # 올 아부지가 구:시기 데고 가이네가 바람나고로 어:디로 장:짜뽀태 (웃음) {우리 아버지가 구식이 되고 계집애가 바람나게 어디로 장터 곁에(?),} @2 (웃음) @1 (웃음)

10419 # 장:떡 바다 거그 음 흔들고 도라댕기야고 야당이가꼬 뭉: 깐는다, {장터 바닥 거
기 음 흔들고 돌아다니냐고 야단이어가지고 못 갔는데,} @2 예

10419 # 인자 눈썰미가 이따고 모도 그자사 우리 자:느어무이가 능네기 베 베: 주무 허건
네 그래가꼬 그 우리 씨누가 인자 베: 주무 우리 씨아재들 오토 해 이피고 그래쥬요. {이제
눈썰미가 있다고 모두 그래 쌓아서 우리 작은어머니가 넉넉히 베 베어 주면 하겠네 그래가
지고 그 우리 시누이가 이제 베어 주면 우리 시동생들 옷도 해 입히고 그랬지요.} @1 음

10419 # 인자 나 소느로 베:기르 모대. {이제 내 손으로 베지를 못해.} @2 아

10419 @2 베: 온다능 거시 그럼 온 뽀데로 이러케 {베어 온다는 것이 그럼 옷 본대로 이
렇게,} # 응 응 예 뽀지대로 인자 찢라가꼬 허능 거. {응, 응, 예, 본대로('뽀지'는 '본'의 방
언형) 이제 찢라가지고 하는 것.}

10419 @2 아 글며는 {아, 그러면은} # 그릉 거 {그런 것.} @2 그 다 다르니까 시아버지
나 또 여자드리나 오시 다 다르니까 {그 다 다르니까 시아버지나 또 여자들이나 옷이 다 다
르니까,} # 예 @2 그대로 다

10419 # 하:. 인제 남자들 오슨 이 남자들 올 대 그러구 인자 인자 바지뎡찌랑은 인자 엔:
날 온 {아무렴. 이제 남자들 옷은 이 남자들 올 대 그러고 이제 이제 바지 '뎡찌'랑은 이제
옛날 옷} @2 예 # 노인들 입는 그거이고 인자 양:보기라무 인자 지금 입는 요령 거 양:복
이고 글 안허요? {노인들 입는 그것이고 이제 양복이라면 이제 지금 입는 이런 것 양복이고
그러잖아요?}

10419 @2 그러면 다 기리가 좀 기리를 어:따 저거나따가 가꼬 가야 쓰건네요. {그러면 다
길이가 좀 길이를 어디에다 적어놔다가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10419 # 인자 혹 베:로 갈라무 인자 씨어무니가 인자 오슬 가꼬 가. {이제 혹 베러 가려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옷을 가지고 가.} @2 아~ # 거세기 인. {거시기 있} @2 예.

10419 # 인자 몬자 헌: 오슬. 헌: 오슬 가꼬 가무 인자 그 기리대로 허고. {이제 먼저 한
옷을. 한 옷을 가지고 가면 이제 그 길이대로 하고,} @2 음

10419 # 그러고 또 이 양장저메서 인자 배웅개 {그리고 또 이 양장점에서 이제 배우니까,}
@2 예 # 배웅개 인자 또 메싸른 메 치 머 그렁 결 또 아능갑떼요. {배우니까 이제 또 몇
살은 몇 치 뭐 그런 결 또 아나 보데요.} @2 어

10419 # 그래가 인자 베:다 주문 인자 나:가 다 허고. {그래서 이제 베어다 주문 이제 내
가 다 하고.}

10419 @2 먼 오시 젤: 만들기가 힘드려요? {무슨 옷이 제일 만들기가 힘들어요?}

10419 # 인자 함:보근 인자 저네부터 형 거잉개 갠찬치마느 인자 양복 {이제 한복은 이제 전예부터 한 것이니까 갠찬치마는 이제 양복} @2 어~ # 양복 그렇 거이 인자 좀 대: 보먼 인 거세도 인자 그거또 인자 메 뵤 형께로 예 눈 누네 이거가꼬 잘 데테. {양복 그런 것이 이제 좀 대어 보먼 거시기도 이제 그것도 이제 몇 번 하니까 예 눈 눈에 익어가지고 잘 되테.}

10419 @2 아 두르막 가통 거는 얼마나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아, 두루마기 같은 것은 얼마나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10419 # 두루마글 부지러니 해야 한나자레 한나 한 차 끼미. 두루마글. {두루마기를 부지러니 해야 한나절에 하나 한 채 꾸며, 두루마기를.} @2 아~

10419 # 쪼깸 머: 어정거리고 머 바가테난 가따 음 머 더러 좀 가따 느 오고 드로고 머 어찌고 오 오더다가, {조금 뭐 어정거리고 뭐 바깥에나 갔다 음 뭐 더러 좀 갔다 오고 들어오고 뭐 어찌고 옷 하다가,} @2 음

10419 # 머 애기드리 바가테 어찌고 그러면 또 애기들한테 또 쫓 디다 보고 어찌고 나면 한 나자레 한:차 모 끼민데. {뭐 아이들이 밖에 어찌고 그러면 또 아이들한테 또 쫓 들여다 보고 어찌고 나면 한나절에 한 채 못 꾸미는데,} @2 아

10419 # 난:나지 소를 썩: 윤:디로가꾼 지저야 텅개 {날날이('난나지'는 '날날이'의 방언형) 술기룰('술'은 '술기'의 뜻) 썩 인두를('윤디'는 '인두'의 방언형) 가지고 지저야 되니까.} @2 아 # 하리부를 가따가 윤:로 꼬바 노코 {화롯불을 가져다가 인두를 썩아 놓고,} @2 예 # 난:나지 술마등 그걸 대려야 텅개로 {날날이 술기마다 그걸 다려야 되니까.} @2 예 # 얼릉 몬 해. {얼른 못 해.} @2 예

10419 @2 그러머는 혼자 혼자 하싱 거예요? {그러머는 혼자 혼자 하신 거예요?}

10419 # 하무 혼자 하지 그라문? {아무렴. 혼자 하지 그러면?} @2 어. 혼자 그러머는 바쁘시겐네요. 하면서 또 {어. 혼자 그러면은 바쁘시겠네요? 하면서 또.}

10419 # 아 인자 썩: 인자 술부터 느질라 노코 인자 윤:디로 가꼬 대레 가꼬 {아, 이제 썩 이제 술기부터 눌러 놓고 이제 인두를 가지고 다려가지고} @2 예 # 그래 인자 또 꾸:매꺼는 꾸:매고 {그래 이제 또 꿰매는('꾸매다'는 '꿰매다'의 방언형) 것은 꿰매고,} @2 어

10419 @2 다른 오토 다: 만드려서 이브셔썬 꺼 아니예요 애기들 오시랑? {다른 옷도 다 만들어서 입으셨을 것 아니어요? 아이들 옷이랑?} # 예 @2 다 만드셔썬요? {다 만드셨어요?} # 예 @2 애기들 오슬? {아이들 옷을?}

10419 # 애기들 오슨 그냥 나:가 알구께 베:가꼬 해서 이피고 그래썬요. {아이들 옷은 그냥 내가 알곳게 베어가지고 해서 입히고 그랬지요.} @2 예

10419 @2 예기들 오편 다 윤:디로 이러케 지저 가지고 해야 데요? 똑까데요? {아이들 웃도 다 인두로 이렇게 지저가지고 해야 데요? 똑같아요?}

10419 # 인자 땡:온 그릉 거느 안 지지도 대. 그거는 인자 두루막 그릉 거느 인자 {이제 무명웃 그런 것은 안 지저도 돼. 그것은 이제 두루마기 그런 것은 이제,} @2 예

10419 # 대리야 인자 입 넘 나 입꼬 나가무 이쁘고 그래치요. (웃음) {다려야 이제 입 남나 입고 나가면 이쁘고 그렇지요.} @2 아

10419 @2 그냥 지베서 입는 오슨 그러며는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은 그러면은} # 또 두루막또 인자 소매도 이 다:늘 {또 두루마기도 이제 소매도 이 단을} @2 예 # 다:늘 요리 딱 해야꼬 요리무 싹:또 폴로 부치야 대. {단을 이리 딱 해가지고 이러면 싹 또 폴로 붙여야 돼.}

10419 @2 폴로요? {폴로요?}

10419 # 폴로. 끼:매문 인자 바느질 식 꺾 베긴다고. {폴로. 꿰매면 이제 바느질 걸 보인다고.('베기다'는 '보이다'의 방언형)} @2 예

10419 # 폴로 인제 요리 꼬치 가꼬는 폴로 인잔 요리 여그를 싹: 푸를 밥테을 밥티나 인자 푸를 데게 끼리덩가 해가꼬 가따 노코, {폴로 이제 이리 꺾쳐가지고는 폴로 이제 이리 여그를 싹 폴을 밥알을 밥알이나 이제 폴을 되게 끓이든지 해가지고 가져다 놓고,}

10419 @2 머 멀 멀:로? 밥 바브로? {뭐 뭘 뭘로? 밥 밥으로?} # 바브로도 허고 {밥으로도 하고} @2 예 # 폴로 끼리 가꼬도 허고 그래가꼬 인자 요리 조르레이 요노물 요리 부치가꼬 요리 단:댄만침 요리 꼬츠머 요리 {폴로 끓여가지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조르르하게 이놈을 이리 붙여가지고 이리 단 댄 만큼 이리 꺾치면 이리} @2 네

10419 # 여:가 인자 디씨따고 생각허머 {여기에 이제 뒤집었다고('디시다'는 '뒤집다'의 뜻) 생각하면} @2 응 # 올 해가꼬 싹: 인자 그노무 파 윤:디로가 지지야 요노미 딱 부찌. {이리 해가지고 싹 이제 그놈을 인두를 가지고 지저야 이놈이 딱 붙지.} @2 그러치요 {그렇지요.} # 응 @2 응

10419 # 그릉께 난:나치 폴로 부침성 지지야 텅깨로 윤:디로 가꼬 은때야 텅깨로 거거이 병이지. {그러니까 낱알이 폴로 붙이면서 지저야 되니까 인두를 가지고 문질러야('은때다'는 '문지르다'의 방언형) 되니까 그것이 병이지.}

10419 @2 글면 여기다 그래가꼬 다시 또 이러케 바느질 이러케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느질 이렇게 안 해요?}

10419 # 인자 그래가꼬 인자 두문두문허이 인자 꼬 인자 끼:매 나야조. 글 안하무 요노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드문드문하게 이제 꼬 이제 꿔매 놓아야지요.} @2 예 # 푸푸 흑썬 남자들 머 수리나 잡썬편지 어썬편지 허면 {흑시 남자들 뭐 술이나 잡썬든지 어썬든지 하면} @2 예 # 좀 꾸부재지딩가 업꼬 드러가며 이거 덜렁덜렁 나가게 텅께 {좀 구겨지든지('꾸부재지다'는 '구겨지다'의 듯) 업고 들어가면 이것 덜렁덜렁 나가게 되니까,} @2 예

10419 # 인제 또 다문다문허니 인제 또 바느를 가꼬 와. {이제 또 다문다문하게 이제 또 바늘을 가지고 와.} @2 예 # 함 바늘썬 꾸매 나야지. 안 풀리고로 (웃음). {한 바늘썬 꿔매 나야지 안 풀리게. (웃음)}

10419 @2 아 근디 폴로 부처 노코 그러케만 해: 노면 나중에 빨: 떼 그건 어:뜨케요? (웃음) {아, 그런데 폴로 붙여 놓고 그렇게만 해 놓으면 나중에 빨 때 그건 어떻게요? (웃음)}

10419 # 그럼 또 그놈을 따야지. 궁께 두문두문허이 허네. 안 떠러져 갈 안 풀리나갈 쟁도로. {그러니까 또 그놈을 따야지. 그러니까 드문드문하게 하네. 안 떨어져 갈 안 풀려나갈 쟁도로.}

10419 @2 아~ 그러며는 빨: 다으메 다시 또 폴로 또 부처야 데는 거예요? 또 이러케? {아, 그러면은 빨 다음에 다시 또 폴로 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10419 # 하무 이그시 썬: {아무럼, 이것이 썬,} @2 저거 # 빨무 또 그래야 데지요. 궁께 느 만:날 온 그건 허다가 말:지. {빨면 또 그래야 되지요. 그러니까는 만날 옷 그것 하다가 말지.}

10419 @2 동정도 동정도 세로 해야 데고 {동정도 동정도 새로 해야 되고,} # 음 썬: 또 새로움맹키로 새로 해야지 이제 두루막 거튼거느. {음 썬 또 새 것처럼 새로 해야지. 이제 두루마기 같은 것은.}

10419 @2 아~이고 # (웃음) @2 그거 보:통 이리 아니어썬네요 그러면. {그것 보통 일이 아니었썬네요 그러면?}

10419 # 하도 또 소:물루 소게다 소:물 놓:개로 또 썬: 뜨더가꼬 새로 해야 데고. {하도 또 솜으로 속에다 솜을 놓으니까 또 썬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되고.}

10419 @2 함번 빨:며는 소:믄 다:: 꼬지버 네서, {한번 빨면은 솜은 다 꼬집어 내서,}

10419 # 그룽께 안: 안: 허고 껌떡 허고 그룽께 두 암:팍 꺼주글 뜨더서 형께 인잔 인자 두:가지 허는 세:미지. {그러니까 안, 안하고 걸하고('껌딱'은 '걸'의 뜻) 그러니까 두 안팍 거죽을 뜯어서 하니까 이제 이제 두 가지 하는 셈이지.} @2 그지요. {그러지요.}

10419 # 거 이 노:인들 온 함벌 뜨더노무 통으로 하나이다 저네느 (웃음). {그 이 노인들 옷 한 벌 뜯어 놓으면 통으로 하나예요('-이다'는 '-요'의 뜻), 전에는. (웃음)}

10419 @2 자주 그러며는 어:떠케 자주 모빨겐네요? {자주 그러면은 어떻게 자주 못 빨겠네요?}

10419 # 공개 저네는 막 그냥 더럽찌. 지금거치 어찌 이리 깨끔해가고 사라씨 저네는? {그러니까 전에는 막 그냥 더럽지. 지금같이 어찌 이렇게 깨끗해가지고('깨끔하다'는 '깨끗하다'의 방언형) 살았어 전에는?}

10419 # 한 우리 씨아버지는 영 부를 잘 때조. {한 우리 시아버지는 영 불을 잘 때 줘.}
@2 예 # 부를 잘 때중개 끄시르미 찌서 시킴허무 그냥 또 씨그 씨쳐야 텅개 밤:날 끼 오끼매다가 마라 공개. 밤:날 온 끼매다가 {불을 잘 때 주니까 그을음이('끄시름'은 '그을음'의 방언형) 꺼서 시킴하면 그냥 또 씻어 씻어야('시치다'는 '씻다'의 방언형) 되니까 밤낮 꿰 옷 꿰매다가 말아 그러니까. 밤낮 옷 꿰매다가.} @2 바메 {밤에.} # 바무로. {밤으로.} @2 아

10419 # 온 안 끼맨: 모시 사마야제 삼동으로도 모시는 사문 여르므로 삼:찌마는 {옷 안 꿰매면 모시 삼아야지, 겨울로도 모시는 삼은 여름으로 삼지마는.} @2 네 # 모시는 머 스 {모시는 뭐 스}

=1 # 저 베:게 하나 베:고 줌 누우시다. {저 베게 하나 베고 줌 누우십시오('-시다'는 '-십시오'의 뜻.).}

=1 @1 네 @2 교수님 이쪽 줌 누우세요 이쪼그로. {교수님 이쪽 줌 누우세요.} @1 응, 아라서 허께. {응, 알아서 할께.}

=1 # 예? @1 ** (이불 내리는 소리) @2 누우세요. {누우세요.}

=1 # 그 더럽네 요그느. { 더럽네 여기는.} @1 아 데찌요. {아, 됐지요.}

(옷장 문 닫는 소리)

10419 @2 사문 다져야 테니까 여르메 모타지요. {삼은 다져야 되니까 여름에 못 하지요?}

10419 # 사문 공개 여르므로 허고, {삼은 그러니까 여름으로 하고,} @2 응. 모시는 겐차나요 모시는? {응, 모시는 괜찮나요 모시는?}

10419 # 모시는 삼동도 허고 여름도 허고 야:무때라 데. {모시는 겨울로도 하고 여름도 하고 아무 때라도 돼.}

10419 @2 그거또 참바람 췌:면 줌 안 조타고 그러던데 겐차능가요? {그것도 찬 바람 췌이면 줌 안 좋다고 그러던데 괜찮은가요?}

10419 # 안 조제. 여 물팡 요런 디가 그냥 삼동으노느 시리재. {안 좋지. 여 무릎('물팡'은

'무릎'의 방언형) 이런 데가 그냥 겨울로는 시리지.) @2 예

10419 # 공개 순 인자 굶:불 때:고 따순 방에 안자서 인자 해:는 {그러니까 순 이제 굶불 때고 따뜻한 방에 앉아서 이제 하는}

10419 # 그래 자미 와서 몬: 사라 자미 와서. 밤:날 자우르지라. {그래 잠이 와서 못 살아 잠이 와서. 밤낮 줄지요('자우르다'는 '줄다'의 방언형).} @2 (웃음)

10419 # 인자 늘거 농개 요:: 자미 아노지만 질문 사람도 자미 그리 마니 아노요 저네느? {이제 늙어 놓으니까 이 잠이 안 오지만 젊은 사람도 잠이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전에는?} @2 예 # 시방도. {시방도.} @2 예

10419 # 시방도 머 이료일 토요일도 머 정:심 때꺼지 모두 머 자고군:넌디. {시방도 뭐 일 요일 토요일도 뭐 점심 때까지 모두 뭐 자고 그러는데,} @2 예

10419 # 또 새벽에 일라 방에 찌:서 또 밥해야지, {또 새벽에 일어나 방아 찧어서 또 밥해야지.}

10419 # 만:날 자우르다가 음 그냥 씨어머니한테 만날 머 소리 드꼬 막, {만날 줄다가 음 그냥 시어머니한테 만날 뭐 소리 듣고 막,} @2 (웃음) # 막 부애가 나무 뚜들 패고 막, {막 부아가 나면 두들겨 패고 막,} @2 아 # (웃음)

10419 # 뚜르라 마꼬 그래요. 뚜들 마꼬는 또 합:썸 울고도 {두들겨 맞고 그래요. 두들겨 맞고는 또 엄청('합썸'은 '아주 많이, 엄청'의 뜻) 울고도,} @2 예 # 그래도 또 자미 오고. {그래도 또 잠이 오고.} @2 예

10419 @2 바메 그러머는 계:속 하셔야 데젠네요. 이불도 꼬 꿰:메시고 오토 만드러야 데고 빨래하면 그거또 (웃음) {밤에 그러머는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이불도 꼬 꿰메시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빨래하면 그거도 (웃음)}

10419 # 인자 그렇 거 인자 허고 나무 인자 또 하린 인제 또 업짜 무슨 수월허문 인자, {이제 그런 것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또 하루는 이제 또 없으면 무슨 수월하면 이제,}

10419 # 우리 씨어머니는 바느질을 모:대. {우리 시어머니는 바느질을 못해.} @2 아이고 (웃음)# 저 태인도서 커 가꼬 {저 태인도에서 자라가지고,} @2 네 # 밤:날 조개나 자부로 땡기고 그래 가꼬 바느질을 모대. 공개야 오끼매기에 몬살거대. {밤낮 조개나 잡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바느질을 못해. 그러니까 옷 꿰매기에 못 살 것 같아.} @2 예

10419 # 혹: 애기가 깨:면 그 자미 와서 딱 애기 재운당 거이 나도 자 버리고, {혹 아기가 깨면 그 잠이 와서 딱 아기 재운다는 것이 나도 자 버리고,} @2 예

10419 # 그래 노문 그냥 자는 디 와서 그냥 뛰디리고, 악 아글 씨고 그냥, 어디 시방 그람 하나도 안 사꺼이요 (웃음). {그래 놓으면 그냥 자는 데 와서 그냥 두들기고, 악 악을 쓰고 그냥, 어디 시방 그러면 하나도 안 살거요. (웃음)}

10419 @2 다: 도망가 버리시제. (웃음) {다 도망가 버리시지. (웃음)} # 어

10419 향겨 철 쎄보게 일어나서 또 방애 짜: 가꼬 또 밥해 얼릉 줘:야 또 학스 하꼬 간 씨아 재들 하꼬 가야재. {한껏 첫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방아 찧어가지고 또 밥해 줘야 또 학스 학교 간 시동생들 학교 가야지.}

10419 @2 씨아재들 오토 다 거:서 해서 만드러서 이피셔쨌네요? {시동생들 옷도 다 거기서 해서 만들어서 입히셨쨌네요?}

10419 # 저네는 인자 이 바느 인자 트리꼬 바느질 바느질쟁이라 그래쨌 저네느. {전에는 이제 이 바늘 이제 재봉틀 있고 바느질 바느질꾼이라('바느질쟁이'는 '바느질꾼'의 뜻) 그랬지 전에는.}

10419 # 바느질쟁이한테다 가따 매끼면 인자 해 나:따고 허문 인자 와서 가서 차자 가꼬 매친 날 오라고 그러면 차자 가꼬 와서 이피고 그래따요 만해도, {바느질꾼한테다 가져다 맡기면 이제 해 났다고 하면 이제 와서 가서 찾아가지고 몇 일 오라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와서 입히고 그랬대요 하지마는,}

10419 # 나:가 와서는 하 바느질쟁이한테 가도 안 허고 두루막또 녀 일: 해 주고, {내가 와서는 바느질꾼한테 가지도 앓고 두루마기도 남 일 해 주고} @2 네 # 일: 해 주고 인자 인제 동네 인자 여 이 바느질허는 사암드리 와서 인자 두루막또 끼매 주고 그래따고 허데. {일 해 주고 이제 이제 동네 이제 이 이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두루마기도 꿰매 주고 그랬다고 하데.}

10419 @2 가치 모여서 하나요 막 모여서도 마:니 하셔쨌요? {같이 모여서 하나요? 막 모여서도 많이 하쨌지요?}

10419 # 딸: 인자 모이서느 바느질거튼 제깁 지비서 혼자서 허재. {딸 이제 모이서는 바느질 같은 제각각 혼자서 하지.} @2 어

10419 # 근디 인자 우리 씨어무니느 그렁 걸 몬:형깨, 몬:형깨로 인자 너무 지비 일: 해 주고 머 바또 매 주고 먼 논도 매: 주고 머 저렁 걸 허고 인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걸 못하니까 못하니까 이제 남의 집에 일 해 주고 뭐 발도 매어 주고 무슨 논도 매어 주고 뭐 저런 것 하고 이제,} @2 네 # 바느질 시기고 그래땡따다. {바느질 시키고 그랬답디다.}

10419 # 근는디 인자 궁개 자기거니 동:네 싸람들 인자 그 마리라.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

까 **** 동네 사람들 그 말이야.}

10419 # 자이가 못허무 메느리가 일류 바느질쟁이느 아니제마느 그 자기 못:허능 걸 형개 {자이가 못하면 며느리가 일류 바느질꾼은 아니지마는 그 자기 못하는 걸 하니까,} @2 예 # 형개 암 머래야 하꺼인디 {하니까 꾸중을 안 해야('머래다'는 '꾸중하다'의 뜻) 될 텐데} @2 예 # 시집살 살린다고 인자 동:네서 모두 {시집살이를 시킨다고('시집을 살리다'는 '시집살이를 시키다'의 뜻) 이제 동네서 모두} @2 (웃음)

10419 # 나 못허능 건 너미으 해 메느리 그런 메느리가 와서 해 주머 {나 못하는 것은 남이 해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와서 해 주면} @2 예 # 곱:게 바: 줘야 허꺼인디 그래도 어러이라고 {곱게 봐 줘야 할 텐데 그래도 어른이라고} @2 예 # 머 어:러느 도가지르 깨도 머 호:미 엄따고, {뭐 어른은 독을('도가지'는 '독'의 방언형) 깨도 뭐 흠이 없다고,} @2 예 (웃음)

10419 # 자기는 허도 못:힘서롱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2 (웃음) # 잘못했네 잘했네 그러고, 그래 가꼬 또 넘 바느질: 잘 허는 사람한테 해 웅건허고 나 형건허고 좀 나: 형 거 이 솜씨가 조 좀 앙 구께 구즈면 또 싹:쭈 뜨더뿌리요. {잘못했네 잘했네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남 바느질 잘 하는 사람한테 해 온 것하고 내가 한 것하고 좀 내가 한 것이 솜씨가 좀 좀 궂게 궂으면 또 싹 쥐어뜯어('쥐뜯다'는 '쥐어뜯다'의 방언형) 버려요.} @2 (웃음) # (웃음) 이거 바느지리라고 해 난냐고? {(웃음) 이것 바느질이라고 해 놓았느냐고?}

10419 @2 아 그 뽀느로 뽀느로 아까 이러케 어:떠케 해 가꼬 와야 데지요? 이러케 {아 그 본으로 본으라 아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와야 되지요?} # 인자 {이제}

10419 # 그: 그런 사람드른 인자 뽀지가 이쌍개로 {그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본이 있으니까} @2 예예 # 인자 양장경 양장 이 웅어느 인자 뽀지로 가꼬 허오지만해도 {이제 양장 양장 이런 것은 이제 본을 가지고 해 오지만} @2 응

10419 # 이리 저네 함:봉 인자 중우적쌈 머 그리 저구리 그렁 거느 그냥 {이리 전에 한복 이제 중의 적삼 뭐 그리 저고리 그런 것은 그냥} @2 네 # 대:강 허:노슬 노코 그냥 잘라요. {대강 현 옷을 놓고 그냥 잘라요.}

10419 # 인자 폼치기에 인자 켜쩍 솜씨결 폼치기에 이찌 인자, 잘라 가꼬. {이제 폼치기에 이제 각자 솜씨결 폼치기에 있지 이제, 잘라가지고.} @2 아

10419 # 이:빠게 폼쳐 가꼬 허는 사람 {이빠게 폼쳐가지고 하는 사람} @2 폼 폼친다는 거시? {폼 폼친다는 것이?}

10419 # 궁께 요 도:런 요렁 거 요리 인자 내리 여그서는 짜리고 여그느 요 내리 수거 가꼬 여그르 인자 {그러니까 이 도런 이런 것 이리 이제 내리 여기서는 자르고 여기는 이 내리 숙여가지고 여기를 이제} @2 예 # 쯤: 요렁 걸 인제 이:빠게 요리 인자 {쑥 이런 걸 이

제 이쁘게 이리 이제} @2 예 꼽치능 거 {예, 꼽치는 것} # 돌리능 거. {돌리는 것} @2 어

10419 # 그렇 거 인자 숨씨가 인자 잘허고 몬:허고가 이찌요. {그런 것 이제 숨씨가 이제 잘하고 못하고가 있지요.} @2 예 # (웃음)

10420 @2 오시 즈 요즈메도 이러케 저기 하는데 인제 엔:날 오토 보며는 다 이르미 이씨 쓸 꺼 아니예요? {웃이 즈 요즘에도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제 옛날 옷도 보며는 다 이름이 있었을 것 아니어요?}

10420 @2 여기는 머 다 어디 꼬메진 {여기는 뭐 다 어디 꿰매진} # 소매 {소매} @2 소매라 하고 그러면 여기 여기도 이러케 이르미 인나요? {소매라 하고 그러면 여기 여기도 이렇게 이름이 있나요?}

10420 # 진. {깃} @2 아 # 여그는 인자 둥치 인자 {여기는 이제 '둥치' 이제} @2 ** # 언 언둥치 아 딴 압씩 {원 '둥치' 아 뒤 앞섰.} @2 어 # 딴: 도:런 {뒤 도런.} @2 응

10420 # 인제 다:는 여그는 둥그라허니 올 안 하등가요 영게? {이제 뒤는 여기는 둥그렇게 이리 하잖아요 이렇게?} @2 예예

10420 # 제트랑 미춘 좀 더 올라가고 양:쪼글. {겨드랑이(('저트랑'은 '겨드랑이'의 방언형) 밑은 좀 더 올라가고 양쪽을.} @2 예

10420 # 올라가고 등거리는 쪼감 내리가고 형개 둥그람:허이 요:리 허고 {올라가고 등은 조금 내려가고 하니까 둥그렇게 이리 하고} @2 예

10420 # 인자 아:픈 인자 또 내리수거. {이제 앞은 이제 또 내리 숙여} @2 예 # 여그느. {여기는} @2 예 # 요:리 내리수거가꼬 인자 요:리 허무 요거는 썩:. {이리 내리 숙여가지고 이제 이리 하면 이것은 썩.} @2 예 # 요거는 압 또런 요거는 딴: 딴: 또런. {이것은 앞 도런 이것은 뒤 뒤 도런} @2 응 # 또 여그느 요거 여 둥그람:허이 요거. {또 여기는 여 둥그렇게 이것} @2 응 # 요거는 진. {이것은 깃.} @2 예 # 여그는 둥정. {여기는 둥정.} @2 예 # 요거는 소매 {이것은 소매.}

10420 @2 예. 여기다 머 하나 다 다라나야 테자나 이러케. (예, 여기에다 뭐 하나 달 달아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10420 # 거 인자 고름 다는 사람 고름 달고 단추 다는 사람 단추 달고 그러고 인자 요 {그 이제 고름 다는 사람 고름 달고 단추 다는 사람 단추 달고 그리하고 이제 이} @2 어 # 요 꼬테리에 요거 땡:거느 꼬똥. {이 끝에 이것 땡 것은 끝똥.} @2 꼬똥 {끝똥} # (웃음)

10420 @1 진 지슨 명가? {깃 깃은 무엇인가?}

10420 # 요걸 보고 쥔. {이걸 보고 쥔.}

10420 @1 지시라고요 지치라 그래요? {'짓'이라고 그래요 '짓'이라고 그래요?}

10420 # 지시라 그래쵸요 저네 우리느. {'짓'이라 그랬어요 전에 우리느.} @1 ** # 지치라
그리도 허고 지시라 그러도 허고. {'짓'이라 그리고 하고 '짓'이라 그러기도 하고.}

10420 @1 음 썸근요 썸:피라 그래요 서비라 그래요? {음. '썸'은요? '썸'이라 그래요 '썸'이
라 그래요?}

10420 # 압썸피라 그리도 허고 인자 {'앞썸'이라 그리도 하고 이제} @1 음 # 썸피라 그래
도 허고.{'썸'이라 그리도 하고.} @2 음

10420 @1 예 그 # 인자 되:게 부치기에 여꼬 인자 좀 수워리 말 허는 거는 그냥 서비라
그러고 {이제 되게 붙이기에 넣고 이제 좀 수월하게 말하는 것은 그냥 '썸'이라 그러고.}
@2 어 # 썸:피라 그러고 {'썸'이라 그러고.} @1 음음 @2 어어

10420 @2 바지도 이짜나요 바지도? {바지도 있잖아요 바지도?} # 예 @2 바지도 이러케
(웃음) 이러케 무꺼야 테니까 이거 이거는 머:라고 그래요? 여기 {바지도 이렇게 (웃음) 이
렇게 묶어야 되니까 이것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10420 # 거 썸말 썸말. {그 허리춤 허리춤('썸말'은 '허리춤'의 방언)} @2 아 # 썸말. {허리
춤} @2 어어

10420 # 여그 요거이 요거 요거이 여그 요걸 반동가리 요거는 새끼포. {여기 이것이 이것
이것이 여기 이것 반 동강('동가리'는 '동강'의 방언형) 이것은 '새끼포'} @2 예 # 요거는
진:포. {이것은 '긴포'} @2 예 # 여그에 인제 또 가랭이 {여기에 이제 가랑이} @2 예예 #
여그느 가랭이. {여기는 가랑이.} @2 예

10420 @2 예 인제 무꺼야 데자나요? {예,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10420 # 예 건 인자 뭉끄는 그거는 {예 그건 이제 묶으는 그것은,} @2 어 # 댄님. {대님
('댄님'은 '대님'의 방언형)} @2 예 # 거:능보고 댄니미. {그것을 보고 대님}

10420 @2 그다메 인제 머 또 하나 시너야 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신어야 되
고,} # 보선. {버선} @2 아

10420 @2 다: 만드셔쵸요? {다 만드셨어요?}

10420 # 하무 그건 다 허조. {아무렴, 그런 다 하지요.} @2 (웃음)

10420 @2 보선 가통 거는 만들라면 시가니 오래 걸리나요? {버선 같은 것은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10420 # 아 보서는 인자 내나 요거 뽀지대로 요고 요고 베: 가꼬 {아, 버선은 이제 내나 이것 본대로 이거 이거 베어가지고} @2 예 # 베: 주머 암모리, {베어 주면 앞 머리} @2 음 # 요거는 똥:머리. {이것은 똥머리} @2 음

10420 # 여그는 요걸 보고 머라냐? 머 여 인자 코 보선코. {여기는 이걸 보고 뭐라 하니? 뭐 이 이제 코 버선코.} @2 예 # 요고 인자 바늘로 가꼬 요리 해가꼬 여그르 인자 바늘가 끼:가 올 코 나오라고 인자 자바 땡기라. {이것 이제 바늘을 가지고 이리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바늘 가지고 꿰어가지고 이리 코 나오라고 이제 잡아당겨.}

10420 @2 아 자버 땡겨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아, 잡아당겨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 응

10420 # 지그문 그냥 움지니여 요래도. {지금은 그냥 *** 이래도} @2 예 # 저네는 요고 {전에는 이것} @2 예 # 요리 짜:뽀허이 요래 안 들린다고 {이리 쭈뼛하게('짜뽀허다'는 '쭈뼛하다'의 방언형) 이리 들리잖아?} @2 예에

10420 # 그무 인자 거그르 인자 주: 가꼬 요리 다:씨무 요거이 안 나오며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기워가지고 이리 뒤집으면 이것이 안 나오면} @2 예 # 거글 애:를 씨고 요리 바늘 가꼬 꼬: 내려가꼬 {거기를 애를 씨서 이리 바늘 가지고 끌어 내려가지고} @ 예 # 요 노문 요리 끼: 가꼬 망 여그르 막 이래:데예. {이놈은 이리 꿰어가지고 막 여기를 막 이렇게 돼요.} @2 예에에에

10420 # 거그도 그래야 데고 요 썸 {거기도 그래야 되고 이 썸} @2 네 # 썸 이거또 다: 치 가꼬 인자 {썸 이것도 뒤집어가지고 이제} @2 네 # 요거이 안 나오무 여여 바느를 여 꼬터리 여그다 요:리 끼: 가꼬 요래 해야 거으가 이:빠게 나오고. {이것이 안 나오면 이 이 바늘을 이 끝 여기에다 이리 꿰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거기가 예쁘게 나오고,}

10420 @2 아 # (웃음) @2 그레 가꼬 하 으 버선 가통 거는 하나 만들려머는 금방 만드려요? {그래가지고 하 으 버선 같은 것은 하나 만들려머는 금방 만들어요?}

10420 # 항: 거:는 인젠 또 임잔 보순 불반능 거는 인잔 또 에:럽찌. {아무렴. 그것은 이제 또 이제 버선 볼 받는 것은 이제 또 어렵지.}

10420 @2 불반는다능 거시? {볼 받는다는 것이?}

10420 # 예 여:가 인자 요발로 인자 {예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발'은 '쪽'의 뜻) 이제,} @2 예 # 요리 더:른 인제 처:메 인자 새거느 요리 인자 해 가꼬 뽀: 돌리 요리마 이:빠게 요리만 주:문 인자 보순 디지무 보서니 데는디, {이리 ** 이제 처음에 이제 새 것은 이리

이제 해가지고 뽕 돌려 이리 막 예쁘게 이리 기우면 이제 버선 뒤집으면 버선이 되는데,}
@2 예

10420 이거 인잔 저네는 배가 귀:형께 {이것 이제 전에는 배가 귀하니까} @2 예 # 이제
요말로 요:리 요만큼 요래 가꼬 이제 여:가 떠러져서 인자 거서:면 인젠 여그가 아까 바서
이제 요리 볼 요거는 인자 {이제 이쪽으로 이리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떨어
져서 이제 뭐하면 이제 여기가 아까워서 이제 이리 볼 이것은 이제}

10420 # 요걸 보고 머라헨냐? 중불 중불 {이걸 보고 뭐라 했니? 중불 중불} @2 여기 {여
기} # 응 @2 여기가 {여기가.} # 응 @2 중보리에요? {중불이에요?} # 이~ 요리 요:리 인
자 {아, 이리 이리 이제}

야 허문 중불 요리 해 가꼬 또 이제 요 인자 보시니 인자 요:리 나가 요리 뽕: 돌려 인자
준: 보서니 템:먼 {이제 하면 중불 이리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이제 버선이 이제 이리 나가
이리 뽕 돌려 이제 기워 버선이 되면} @2 예 # 요걸 안:죽 여그를 안 허고 여그 인자 또
보를 바다야 데, 보를. {이걸 아직('안죽'은 '아직'의 방언형) 여기를 안 하고 여기 이제 또
불을 받아야 돼. 불을.}

10420 # 소:게꺼 안 떠러지라고. 요:리 {속에 있는 것('속엿것'은 '속에 있는 것'의 뜻) 안
떨어지도록, 이리.} @2 아 더더 박 더 이제 이러케 위:에다가 {아, 더 더 박 더 이제 이러
게 위에다가.} # 예 @2 바가 논능 거예요? {박아 놓는 것이예요?} # 잉 @2 안 떠러지게.
{안 떨어지게.} # 우에다가. {위에다가.} @2 네

10420 # 거 인자 불 반능 거이고. 목포리 목 모글 요:리 현당 거느 목 목 반능 거이라 그
러고. {그 이제 불 받는 것이고. 목도리 목 목을 이리 한다는 것은 목 목 받는 것이라 그
러고.}

10420 @2 여기도 왜 {여기도 왜,} # 보짐 목. {버선 목.} @2 왜: 왜 여기는 왜 해요? {왜
왜 여기는 왜 해요?}

10420 # 여:가 떠러징개로 {여기가 떨어지니까,} @2 아 # 여그도 떠러지고 여그도 떠러지
고 그래놓개 이제 여그가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여기가,}
@2 어 # 아까붕개 요고눔 나: 뚜고요, {아까우니까 이것은 놔 두고요,} @2 예

10420 # 요:리 인자 중가늘 보 모글 바다머 {이리 이제 중간을 보 목을 받으면} @2 네 #
바다 가꼬 인자 또 또 토 또 요눔 떠러지꺼이라가 안 떠러지게 헐다고 요리 인자 또 보:를
바다. {받아가지고 이제 또 또 토 또 이눔 떨어질까 봐 안 떨어지게 헐다고 이제 또 불을
받아.} @2 예 # 요리. {이리.}

10420 # 여그느 요:리. {여기는 이제,} @2 어 # 그걸 보고 인자 불 목 뺏는다고 허고 불
불 받는다 그러고. {그걸 보고 이제 불 목 받는다 하고 불 불 받는다 그러고}

10420 @1 그건 항커리가지고 얼마를 시늬라고? {그건 한 켄레 가지고 얼마를 신으려고?}
@2 (웃음) @1 한 일련 신:따가 {한 일 년 신다가} # 만:날 공개 쥔 끼:매다가 만당개 바
늘로. {만날 그러니까 기워 췌매다가 만다니까 바늘로.} @2 (웃음)

10420 # 멍:워른 또 쪼감 시늬 떠러져 뿌리고 {무명베는 또 조금 신으면 떨어져 버리고.}
@2 어 멀: 머:느뇨? {어 뭘 뭘는요?}

10420 # 멍: 멍:베 가꼬 {무명 무명베 가지고} @2 아 # 그 저네는 {그 전에는} @1 음 #
강:모까꼬 {광목 가지고} @2 그러니까 {그러니까} # 어이 강:목까꼬 허고 {어이 광목 가지
고 하고,} @2 예 # 아이고 머 만:날 온:저 바느를 끼:매능 길: 밤날 끼:매다가 마라 공개.
{아이고 뭘 만날 옷 저 바늘을 췌매는 것 밤낮 췌매다가 말아 그러니까.} @1 (웃음)

10420 # 어 시꾸 마:는 집이는 그 오시 다 어째? {어 식구 많은 집은 그 옷이 다 어째?}

10420 # 씨:아재들 뜯 먼 저런 디 머 딱찌치기허고 어디 가서 은때고 그러문 요 궁둥이 요
노미 움썅 드러안네. {시동생들 또 뭘 저런 데 뭘 딱지치기 하고 어디 가서 문지르고 그러
면 이 궁둥이 이놈이 움퍽('움썅'은 '움퍽'의 뜻) 들어왔네.} @2 궁둥이 {궁둥이.} # 이 @2
(웃음) # 무릅허고. {무릎하고} @2 어 (웃음) # (웃음)

10420 # 금 조감 포도씨 끼:매 주고마 하리나 이트리나 가서 도라맹이다 오무 또 도로 그
래 그냥. {그러면 조금 겨우('포도씨'는 '겨우'의 뜻) 췌매주고 하루나 이틀이나 가서 돌아다
니다 오면 또 도로 그래 그냥.} @2 (웃음) # 또 (웃음)

10420 # 인제 여 여그도 인자 궁:뎡이 여그도 인잔 예:쁘게 인잔 찢라서 그래 가꼬 바다
주문 거서건넌디, {이제 여 여기도 이제 궁둥이 여기도 이제 예쁘게 이제 잘라서그래가지고
받아 기우면 뭘 하는데,}

10420 # 나 시지블 웅개로 우리 씨아재는 그냥 넘떠건 그냥 판때기메기 요걸 그냥 우리
씨어머니가 등 쫑쫑주:서 해:서 노면 가서 그냥 딱찌치기 좀 허고 요로고 어찌고 나뭇 땡기
서 뚜두둑 떠러지문 {내가 시집을 오니까 우리 시동생은 그냥 넓적한 그냥 판자처럼('판때
기'는 '판자'의 방언형) 이걸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등 쫑쫑 기워서 해:서 놓으면 가서 그냥
딱지치기 좀 하고 이렇게 어떻게 나면 당겨서 뚜두둑 떨어지면,} @2 (웃음) # 실라가 벌러
꿍벌러꿍 그래 (웃음) {**가 벌렁벌렁('벌러꿍벌러꿍'은 '벌렁벌렁'의 뜻) 그래. (웃음)} @1
(웃음) @2 (웃음) # 힘껏 땡기문 {힘껏 당기면.}

10420 그해 인자 김: 김: 뜨는 짐:빨 이꺼등. {그래 이제 김 김 뜨는 김발 있거든.} @2 예

10420 # 그걸 보고 우찌 인잔 우리 지비 저:거 호이라 그래 지금 강:차레다가 저:글 여:서
사:는디 호이 궁:뎡이 짐:빨짜기 덜러꿍덜러꿍 한다가 할:매드리 그래 노코 이:꼬 (웃음).
{그걸 보고 웃지 이제. 우리 집이 저기 호이라 그래 지금 경찰에다가 저기 여기서 사는데
호이 궁둥이 김발이 벌렁벌렁 한다고 할멈들이 그래 놓고 웃고. (웃음)}

10420 # 그랜는디 무 인자 나:가 와서 그리 야무치게 끼:매 주고 그렇개로 {그랬는데 뭐 이제 내가 와서 그리 야무지게 꿰매어 주고 그러니까,} @2 음 # 참 메느리가 차말로 숨씨가 조:타고 날: 보고 막 곱:보라고 우리 지비서는 야:다니고 그랜넨디 {참 며느리가 정말로 숨씨가 좋다고 나보고 막 곱보라고 우리 집에서는 야단이고 그랬는디,} @1 (웃음)

10420 # 머 곱보가 몰라도 머 다만때기 지잔타고 요음 다만때기느 허도 몰허능 걸 메느리 저리 야무칭 거이 와 잘해준다 싸:도 그래도 어:른 노리한다고 시지블 살려 (웃음). {뭐 곱보인지 몰라도 뭐 담안덱 지지 않는다고, 이 담안덱은 하지도 못하는 것 며느리 저리 야무진 것이 와 잘해 준다 쌓아도 그래도 어른 노릇 한다고 시집살이를 시켜. (웃음)}

10420 @1 아 시어머니 테코가 다만때기예요? {아, 시어머니 택호가 담안덱이예요?} # 예 @1 어 @2 아

10420 # 저 태인도 다마네 그걸 {저 태인도 담안에 그것.} @1 어 # 거:서 물때꺼리 만:날 그 조개 빼끼느 안 자반능갑:써. {거기서 '물때꺼리' 만날 그 조개밖에는 안 잡았나 봐.} @1 (웃음) # 양:꺼또 몬해. {아무 것도 못해.} @1 (웃음)

10420 @2 바깥닐만 하시고 {바깥일만 하시고,} # 네 @2 아:네 이른 안 하셔서. {안일은 안 하셔서.}

10420 # 공개 인자 각씨르 메느리가역 각씨르 가이내가 오무 메느리는 두루메이고 머이고 척척 다 끼매 논:는디 {그러니까 이제 각시를 며느리가 각시를 계집애가 오면 며느리는 두루마기고 뭐고 척척 다 꿰매어 놓는데} @2 음 # 당시는 그거또 노버더가꼬 해. 공개 품아시 해 가꼬. {당신은 그것도 낯 얻어가지고 해. 그러니까 품앗이 해가지고} @1 음

10420 # 그림성도 큰소리한다고 동네 싸람드리 시방꺼장도 그 소리를 허고. {그러면서도 큰소리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시방까지도 그 소리를 하고,} @1 음 (웃음)

10420 # 보신 주 시너라 해놓개로 머 보시늘 저넌 음음 물레로 자사 가꼬 인냥 세꼬뽕이 뽕이라고 말:해든 세꼬뽕이거튼 시:를 가꼬 듸:성듬성허이 감:치 싱꼬 뽕기고 글드마, {버선기워 신어라 해 놓으니까 뭐 버선을 전에 음음 물레로 자아가지고 그냥 쇠꼬뚜레처럼('세꼬뽕이'는 '쇠꼬뚜레'의 방언형) 말하자면 쇠꼬뚜레 같은 실을 가지고 듸성듬성하게 감쳐서 심고 다니고 그러더구먼.}

10420 # 메느리가 트레다가 저리 야무치게 해가꼬 저래 줘도 {며느리가 재봉틀에다가 저리 야무지게 해가지고 저리 해 줘도,} @2 예 # 큰소리치고 그런다고 모두 다 다만때기 마른 마리 참말도 거:짐마리라 그러고. {큰소리 치고 그런다고 모두 다 담안덱의 말은 말이 참말도 거짓말이라 그러고,} @1 (웃음) # 그래도 시방 구십야사쌀 머 그제 사라가꼬 이써. {그래도 시방 구십여섯('야섯'은 '여섯'의 방언형) 살 뭐 아직까지('그제'는 '아직까지'의 뜻) 살아가지고 있어.} @2 아~

10420 @2 아직도 계세요? {아직도 계세요?} # 응

10420 @1 저 시집싸리를 데:게 하셔쑤. {저 시집살이를 되게 하셔어.}

10420 @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 어 아:주 {어 아주.} @2 지금 그 부부늘 또 {지금 그 부분을 또} @1 어 이쑤 이쑤. {어, 있어 있어.} @2 예 @1 드따 보며는 {웃음} {듣다 보며은,} @2 나중에 또 다 그러 저 {나중에 또 다 그러 저} @1 {웃음} @2 다: 드러바 야게쑤니다. {다 들어 봐야쑤니다.}

10420 @2 왜냐허면 저네 조사 저히 다니다 보면 다 어:르신들 말쓰믈 제 생가게는 그: {왜냐하면 전에 조사 저희 다니다 보면 다 어르신들 말씀을 제 생각에는 그} @1 시집싸리 다 안 헤따 그러데. {시집살이 다 안 했다 그러데.} @2 왜냐허면 {왜냐하면} @1 어 @2 제 제 생가게 선생님 제가 제 남편 노코 시어른들 요카면 누가 조아하게쑤요? {제 생각에 선생님 제가 제 남편 놓고 시어른들 욱하면 누가 좋아하쑤어요?} @1 {웃음} @2 데:부분 근데 제보자가 {대부분 그런데 제보자가}

10420 @2 여 근데 그저네 어 장년 불른 하라부지가 할 때 수를 마니 드셔 가지고 {웃음} {이 그런데 그전에 어 작년 부른 할아버지가 할 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1 어어어어어

10420 # 우리: 하라부지는 술 마:니 드시도 나한테는 영: 조케 해. 근디 씨어무니가 그래. 만:날 그리 씨아부지는 날 달개. {우리 할아버지는 술 많이 드셔도 나한테는 영 좋게 해.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래. 만날 그리 시아버지는 날 달래('달개다'는 '달래다'의 방언형).} @2 예

10420 @2 시어머니가 질투하싱 거예요? {웃음} {시어머니가 질투하신 거예요?} # {웃음} @1 {웃음}

10420 @1 일 잘 한다고 {웃음} {일 잘 한다고. {웃음}} # 예 @2 잘 하니까 {잘하니까,} # 하 @2 아니 당시는 모타시는데 {아니, 당신은 못하시는데.} @1 음 @2 바느질을 이려케 잘하시니까. {바느질을 이렇게 잘하시니까.}

10420 @1 어 그렇 거또 이제 여자들 마으미. {어, 그런 것도 있지 여자들 마음이.} # 응 @2 {웃음} @1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네 예.}

10420 # 거 만:날 우리 씨아바이네즘 마:느레 달꺄라나 나 달꺄라나 {그 만날 우리 시아버지는 마누라 달래라 나 달래랴} @2 {웃음} @1 하 중가네서 예쑤쑤쑤. {웃음} {하 중간에서 애쑤쑤어. {웃음}} # {웃음} @2 {웃음}

10420 # 드:레 일 허러 가면 고상허면 난:제 바래미 인능 거이다. {들에 일하러 가면 고생하면 나중에 보람이 있는 것이다.}

10420 # 씨아재들또 그새 싸우먼 난:중에 다: 나가뿌림 다: 네 거이다. {시동생들도 그 사이에 싸우먼 나중에 다 나가 버리면 다 네 것이다.}

10420 # 항상 그래싸:코 글드마 계구젠 나 몬 쌀고 나가싸. {항상 그래 쌀고 그러더니 결국엔 나 못 살고 나갔어.} @1 음 아~ @2 하

10420 # 모: 쌀건는다 어찌꺼이라 @{못 살겠는데 어쩔 거야?} 1 음 @2 음

10420 @1 잘 하셔써요 하 {잘 하셨습니다. 하} # 하 @1 함께 안 상 거시 조:치 (웃음). {함께 안 사는 것이 좋지. (웃음)}

10420 # 시방 세:상 잘 마련해:싸. {시방 세상 잘 마련했어.} @1 예 # 직찌금 다:들 구지 든지 조:뜯지 직찌금 사:능거 잘 마련해:싸. {각자 다들 굶든지 좋든지 각자 사는 것이 잘 마련했어.} @1 어

10420 @2 인제 시집싸리 향 건 다른 저 다른 지역 꺾 좀 일거반는데 야~ 진짜 (웃음). {이제 시집살이 한 것 다른 저 다른 지역 것 좀 읽어 봤는데 야 진짜. (웃음)}

10420 @1 먼데 그래 음 {뭔데 그래? 음}@2 예 @1 머가 이싸. {뭐가 있어?} @2 예 @1 어 나중에 바 {어, 나중에 바} @2 예

10422 @2 예 머 그 바느질 할 때 여러가지 머머 노코 해야 데자나 아까 머머: 노코 이러 켜 해야 데따고 그래쪄? {예, 뭐 그 바느질할 때 여러 가지 뭐 뭐 놓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 뭐 놓고 이렇게 해야 됐다고 그랬지요?}

10422 # 윤:디 {인두} @2 예 # 가시개, 실:꾸리, 바늘 인자 반지끄레기 아니쪄 저네느? {가위('가시개'는 '가위'의 방언형), 실꾸리, 바늘 이제 반지그릇이 있잖아요 전에?} @1 음

10422 # 반지끄럭 그렇 건 다 이쌍개 인자 반지끄렁만 인자 가따 여페 노:먼 @1 여그 요거또 이짜나요 소네다 끼고 향 거 {반지그릇 그런 것 다 있으니까 이제 반짓그릇만 이제 가져다 옆에 놓으면} @2 네 # 골:미 {골무('골미'는 '골무'의 방언형)} @1 어 @2 어 # 그거느 골:미고. {그것은 골무고.}

10422 @2 골미도 만 만드셔가꼬 쓰셔쪄? {골무도 만 만드셔가지고 쓰셨지요?}

10422 # 아 쫘짱:허니 인자 해가꼬 여그 손꾸락덜만허이 해야꼬 {아 쫘다랄게('쫘짱허다'는 '쫘다랄다'의 뜻) 이제 해가지고 여기 손가락 덜 만큼 해가지고,} @2 네 # 인자 바늘 앙끼: 드러가게 인제 좀 두껍게 해. {이제 바늘 안 끼여 들어가게 좀 두껍게 해.} @2 네

10422 # 해야꼬고 인자 또 저네느 예:뿌게 또 요린 {해가지고 이제 또 전에는 예쁘게 또 이리} @2 예 # 찰:라가꼬 또 해각:꼬도 해고 그랜는다 우서느느 머 바뽕개로 인자 그냥

{잘라가지고 또 해가지고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은 뭐 바쁘니까 이제 그냥} @2 예 # 손꾸랑만 인자 안 불거지기로 인자 맨드러가꼬 오고, {손가락만 이제 안 불거지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오고}

10422 # 저넨 예:쁘게 또 예:뽀 거스 머 저네 공:당 그렇 거까 예:쁘가 쫄쫄허지 {전엔 예쁘게 또 예뻐면 거시기 뭐 전에 공단 그런 것이 예뻐가지고 '쫄쫄하지'.}@2 예 # 이:럼시무 그리 주: 가꼬도 허고, {일 없으면 그리 기워가지고도 하고.}

10422 # 그라 요 기밥 친다고 인자 뽕: 돌리 인자 또 기바블 치고 저네. @2 그럼 이쁘게 할라고 그러케 하능 거지{그리 이 '귀밥' 친다고 이제 뽕: 돌려 이제 또 '귀밥'을 치고 전에,} # 예 @2 어

10422 # 인자 각씨들 인자 예:쁘게 저네 기밥 처가꼬 인자 반지룩끄룩 가에다가 싹 다라가꼬 오고, {이제 각씨들 이제 예쁘게 전에 '귀밥' 처가지고 이제 반지그릇 가에다가 싹 달아가지고 오고} @2 예

10422 # 바늘쌈도 빼 인자 바늘 요로 품능 거이르 인자 또 요이 예:쁘게 복숭을 해가꼬, {바늘쌈도 빼어 이제 바늘 이렇게 꿸는 것이 이제 또 이 예쁘게 '복숭'을 해가지고} @2 예

10422 # 또 가에다가 인자 내를르 달:고 {또 가에다가 이제 레이스를 달고} @2 예 # 예 또 뽕: 돌리 기바블 치고, {예, 또 뽕: 돌려 '귀밥'을 치고,} @2 예 # 그래가꼬 {그래가지고} @2 예 예~ 예 거기다 꼬자 노코, {예, 예, 거기다 꿸아 놓고.} # 네

10422 # 그렇 거 다: 뽕:그러가 다라 가꼬 와찌시 우리드른. {그런 것 다 만들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왔지 우리들은.} @2 아 # {웃음}

10422 @2 바늘도 바늘도 마:니 필요하셔쨌네요? {바늘도 바늘도 많이 필요하쨌쨌네요?}

10422 # 저네는 신랑 찌비서 윤:디 그렇 거느 또 와찌 다. {전에는 신랑집에서 인두 그런 것은 또 왔어 다.} @2 어 # 사다 줘. {사다 줘.} @2 예

10422 # 사 가꼬 시집 오는디 다 보네 반지끄르게다가. {사가지고 시집오는데 다 보네 반지그릇에다가.} @2 예 # 그럼 인자 바늘쌈, 윤:디, 저저저저 골:미 그렇거느 인자 우리가 해가꼬 또 거따가 반지끄르기 오문 인자 놓허고 반지끄룩허고 오면 인자 거따 우리드리 해가꼬 또 싹: 다라 가꼬, {그러면 이제 바늘쌈, 인두, 저 저 저 저 골무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또 거기에다 반지그릇이 오면 이제 놓하고 반지그릇하고 오면 이제 거기에다 해가지고 또 싹 달아가지고,}

10422 @2 아우 시집 오실 때 {아유 시집오실 때} # 예 @2 그걸 평생 쓰시능 거예요 그걸로? {그걸 평생 쓰시는 거예요? 그걸로?}

10422 # 아 인자 썬다고 해쩌만 거 며 메치리나 가능가? {아, 이제 썬다고 했지만 그 며칠이나 가나?} @2 어 # 바늘 가꼬 자:꼬 주시는디 그건 보늘 {바늘 가지고 자꾸 주시는 데 그건 바늘} @1 {웃음} # 안 떠러저요 {웃음}. {안 떨어저요.}

10422 @1 또 사야지. {또 사야지.} # 그만 떠러짐 {그만 떨어지면} @2 또 만들고 응, {또 만들고 응,} # 인자 버리고 인자, {이제 버리고 이제} @2 어

10422 # 인자 혼 며 다른 일도 바쁜디 뉘가 예:빠게 그건 기밥치고 예:빠게 그거 줄: {이제 뭐 다른 일도 바쁜데 누가 예쁘게 그것 '귀밥' 치고 예쁘게 그것 기울,} @2 {웃음} # 여개가 어디써 그냥? {여가가 어디 있어 그냥?}

10422 # 요리 꼽쳐가꼬 인자 송은 {이리 꼽쳐가지고 이제 송곳} @2 어 # 바늘만 손꾸라가 앙 끝 뚜:꼬 드러고르 맨드러 가:꼬 그냥 끼고 허고 그래찌. {바늘만 손가락이 안 뚫고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끼고 하고 그랬지.} @2 예 음

10423 바느질 할 때 근데 바느질 하는 방버비 아까 여기는 여기는 저기 {바느질할 때 그런데 바느질 하는 방법이 아까 여기는 여기는 저기,} # 소매 {소매} @2 예쁘게 예쁘게 그냥 살짝 이러케 쪼그만 흠치기도 하는데 다 그러케는 안 하자나요 다른 데는 또 그 또? {예쁘게 예쁘게 그냥 살짝 이렇게 조금 흠치기도 하는데 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다른 데는 또 그 또?}

10423 # 인자 두루막 그렇 거느 요른 소:를 {이제 두루마기 그런 것은 이런 술기름} @2 예 # 쌍: 요리 한 쪼그로 여그 디:야꺼느 짹: 아프록 해야 데. {짹 이리 한 쪽으로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짹 앞으로 해야 돼.}

10423 # 디야서부터 요리 아푸로 오게론 소를 이피야 데. {뒤에서부터 이리 앞으로 오게 술기름 입혀야 돼.}

10423 @2 아~ 방향이 이써요? {아, 방향이 있어요?} # 예 @2 아~

10423 # 인자 그러고 인자 여 여그 아:페 인자 써:픈 인자 또 요리 디:로 가거로 인자 요:리 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앞에 이제섰은 이제 또 이리 뒤로 가게 이제 이리 하고,}

10423 @2 방향을. {방향을} # 이~.

10423 # 그래가꼬 짹: 인잔 요린 속 대루고 {그래가지고 짹 이제 이리 속 다리고} @2 예 # 껌떡 대루고 {겉 다리고} @2 예 # 짹: 그리 대루장깨 열:매나 시가니 가야지. {짹 그리 다리려('-장깨'는 '-으려 하니까'의 뜻) 하니까 어느 정도('열매나'는 '어느 정도'의 뜻) 시간 이 가야지.}

10423 @2 데려 데려 가지고 그 바느지를 {다려 다려가지고 그 바느질을,}

10423 @2 ** # 바느지를 인자 시:리 인자 껌떠그로 안 나오구로 인자 소:글 수무 떠야지.
{바느질을 이제 실이 이제 겉으로 안 나오게 이제 속을 숨어 떠야지.}

10423 @2 음. 아주 근데 안 안 뜨더지게 떠야 텔 꺼 아니예요, 그 바느지를 할 때? {음,
아주 그런데 안 안 뜰어지게 떠야 될 것 아니어요? 그 바느질을 할 때?}

10423 # 난:중에 또 대리고 헐라면 그거이 {나중에 또 다리고 하려면 그것이} @2 아~ #
웅:개로 (우니까) @2 예

10423 # 빠라놓 거이 인자 바느질 구녕이 점:부 울:지 아나? {빨아 놓은 것이 이제 바느질
구멍이 전부 울잖아?} @2 예 # 쭈글쭈글해:징개로. {쭈글쭈글해지니까.} @2 예예예

10423 # 그렇게 인자 두문두문허이 그래가꼬 또 새로 싹: 해. 그렇게 거 예:터지지. {그러
니까 이제 드문드문하게 그래가지고 또 새로 싹 해. 그러니까 그 애타지('애터지다'는 '애타
다'의 뜻).}

10423 @2 그러믄 다른 데도 다: 드문드문드문드문 다 이러케 해 논능 거예요? {그러면 다
른 데도 다 드문드문드문 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어요?} # 예 @2 드문드문? {드문드문?}

10423 # 근디 요런 디는 포근 다: 인자 바가 노치. {그런데 이런 데는 폭은 다 이제 박아
놓지.}

10423 @2 예 이 그룽까 이거 이:거 바느질 하능 거하고, {예, 이 그러니까 이것 이것 바느
질 하는 것하고,}

10423 # 요거는 인자 {이것은 이제,} @2 이거 {이것} # 싹: 포근 인자 윤:디로 가 대루고
{싹 폭은 이제 인두를 가지고 다리고} @2 예 # 인자 {이제}

10423 # 궁개 저네는 바늘로 형개로 바늘 시 실:거는 불거진다고 인자 그랜는디 인자 {그
러니까 전에는 바늘로 하니까 바늘 실 그것은 불거진다고 이제 그렸는데 이제,} @2 예

10423 # 우리드른 싹: 다 틀로 바가쌍개로 {우리들은 싹 다 재봉틀로 박았으니까} @2 예
인자 인자 요 가:에 요런 디나 인자 안 거서그라고, {이제 이제 이 가에 이런 데나 이제
안 거시기하라고,} @2 응

10423 # 자: 싹: 이걸 대루고 {이제 싹 이걸 다리고,} @1 (기침소리) # 고:부라고 대루고
{굽도록 다리고,} @2 예 # 그렇 거이지. {그런 것이지.}

10423 @2 이르미 바느질 여 하는 이르미 이썬 썬 꺼 아니예요? 바른 나는 여기는 어:뜨게

꼼꼼하게 뜨는 거는? {이름이 바느질 이 하는 이름이 있었을 것 아니어요? 밤은 나는 여기는 어떻게 꼼꼼하게 뜨는 것은?} # 새끼포 {'새끼포'} @2 예 # 원:포 {'원포'} @2 예 # 그 래지 며. {그러지 뭐.}

10423 @2 어 아 천: 이르미 {어 아, 천 이름이?} # 단: {단} @2 다:니? {단이?} # 이 @2 어

10423 @1 요 바느질 할 때 바느질 방는 바근다고도 허고 또 며:슨? {이 바느질할 때 바느질 박는다고도 하고 또 뭐는?}

10423 # 줌:는다고 그러조 줌:는다 그리도 허고 {깍는다고 그러지요, 깍는다 그리도 하고} @1 어 어 여기 오 요거이 {어 어 여기 오 이것이} # 예 @1 요리게 요건 감:친다 허고 {이렇게 이진 감친다 하고} # 아니 또 {아니 또} @1 그 여러가지 방버비 이짜나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 예 @2 어

10423 # 인제 요라가꼬 인제 요라가꼬 인자 두문두문허이 요리 감:치가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드문드문하게 이리 감쳐가지고} @1 음 # 그노문 인자 요릴 좡: 좡좡좡 요리 준:능 거는 인자 준는다 그러고 {그놈은 이제 이리 좡좡좡좡 이리 기운 것은 이제 깍는다 그러고,} @1 어 @2 어어 # 그러재. {그러지.}

10423 # 인자 {이제} @2 또 뽁뽁카게 이러케 하능 거는? {뽁 뽁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10423 # 인자 요래가꼬 인자 바근디다가 요리 뜨고 인자 또 요:리 허고 또 요:리 허고 인자 요래 가능 걸 방는다 그러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박은 데다가 이리 뜨고 이제 또 이리 하고 또 이리 하고 이제 이래 가는 것 박는다 그러고,} @2 아 방는다 그러고{아, 박는다 그러고} # 예 @2 음 # {웃음}

10423 @2 그 다메 또 숨 너코 할 하능 거는 또 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숨 넣고 할 하는 것은 또 뭐라고 하고?}

10423 @1 이불 가통 거슨 며:라고 이불 혈 때 그 여르케 길:게 이르케 상 요로케 하능 거? {이불 같은 것은 뭐라고 이불 할 때 그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상 이렇게 하는 것?} # 아

10423 @2 숨 너코 {숨 넣고} # 요거 {이것} @1 어 @2 이러케 길:게 {이렇게 길게} @1 이부른 {이불은} @2 계속 {계속} @1 이부른 호창 가통 거. {이불은 훌청 같은 것.}

10423 # 요건 인자 음 요거 보고 머라헨니? {이건 이제 음 이거보고 뭐라 했니?}

10423 @2 겨우레 인제 숨 느코 {겨울에 이제 숨 넣고} # 이 @2 니빈다고? {누빈다고?}

10423 # 니비능 거야, 니비능 거느 총:총허능 거이 니비고, {누비는 거야 누비는 것은 총총하게 하는 것이 누비고.} @2 어 @1 음

10423 # 고거 보고 머라 헨니라 고평 이저분네. {그것보고 뭐라 했느니라 그것도 잊어 버렸네.} @1 음음 # 이 @2 어어 @1 시:찌미요. {시침이오.}

10423 # 시튼다 그래 {시친다('시트다'는 '시치다'의 방언형) 그래.} @1 어? # 시튼다고 시침 시침. {시친다고 시침 시침} @1 음 # 요걸 보고 시치미라 {이걸 보고 시침이야.} @2 아 @1 아

10423 # 한: 바늘씩 요래가꼬 또 요오그 와서 {한 바늘씩 이래가지고 또 여기 와서,} @2 어 # 또 @1 음 # 요로고 {이렇게} @2 아 # 요거 시침헌다 그래. {이것 시침한다 그래.}

10423 @1 시침헌다. {시침한다} @2 아 # 응 @1 그러조. {그러지요.}

10423 @1 시튼다란 말도 이썬요? 시튼다? {'시튼다'란 말도 있어요? '시튼다'??}

10423 # 시튼다 그러기도 허고 {'시튼다' 그러기도 하고} @1 아 거 시침한다고도 허고 {아 그 시침한다고도 하고,} # 어 시터야지 그거느 {어 '시터야지' 그것은.} @1 아 시터야지 아. {아 '시터야지' 아.} @2 음 @1 시트다는 마리 인네. {'시트다'는 말이 있네.} @2 음 {휴대전화 소리):

10424 @2 그레가꼬 빨:레도 빨 빨:레 그거 아까 아 터가꼬 또 빨:레헤야 덴다고 헤짜나요? {그레가지고 빨래도 빨 빨래 그거 아까 아 터가지고 또 빨래헤야 된다고 했잖아요?} # 예

10424 @2 빨:레 할라문 또 빨:레 하능 거시 명주하고? {빨래하려면 또 빨래하는 것이 명주하고?}

10424 @2 *** # 요론디 요 도:른 요론디 노인들 이버 노머 여여여 도:런 요런디가 저네 멍:오스 때가 안 저. {이런 데 이 도런 이런 데 노인들 입어 놓으면 이이이 도런 이런 데가 전에 무명웃은 때가 안 저.} @2 네 # 공개 여 {그러니까 이} @2 네 # 조:르르이. {조르르하게} @2 예예예예

10424 # 하이 요거를 요거 안 지여따고 또, {하이, 이것을 이것 안 지웠다고 또,} @1 (웃음)

10424 # 메 저저저저 저네 꺼멍 비누 {뭐 저 저 저 저 전에 검정 비누} @2 예 # 지그르헨 비누제만 저네 꺼멍 비누. 꺼멍 비누 요만:헨 그거를 받:트로 쫑글라 쥐. 돈 안 들라이라고. {지금은 흰 비누지만 전에 검정 비누. 검정 비누 이만큼 한 것 그것을 받:트로('받트'는 '절반'의 뜻) 잘라('쫑글다'는 '자르다'의 뜻) 쥐. 돈 안 들이려고.} @2 (웃음)

10424 # 반:트로 요:리 종글라 주머 반:쪼가리 그노를 가꼬 시방 가트문 싹:뚜디리뿌리나찌 안 살고 가지 그 몬 모:내. {절반으로 이리 잘라 주면 반 조각('쪼가리'는 '조각'의 방언형) 그놈을 가지고 시방 같으면 싹 두드려 버리고 나갔지 안 살고 가지 그 못 못 해.}

10424 # 그거이 그래 줌스령 인제 또 차나락찢 그걸 인자 지 무를 소테다 무를 부꼬 인자 그걸 인자 한다발 가따 데피. {그것이 그래 주면서 이제 또 찰벼짚(차나락'은 '찰벼'의 방언형) 그걸 이제 물을 술에다 물을 붓고 이제 그걸 이제 한 다발 가져다 덥혀.}

10424 # 데:피문 인자 따따:더이 물 텅 그노를 인자 또 그르게다 퍼 노코 우에다가 인자 시리에다가 {덥히면 이제 따뜻하게 물 데운 그놈을 이제 또 그릇에다 퍼 놓고 위에다가 이제 시루에다가,}

10424 # 저네 사그시리 {전에 사기 시루.} @1 어 # 시방은 머 수댕도 이꼬 머:또 이꼬 {시방은 뭐 스테인리스도 있고 뭐도 있고,} @2 예 # 저리 조용 거 썩찌만해도 사그시리 그걸 가따가 인자 인자 움막헌 요리 썰:소테다가 거따가 안차 노코, {저리 좋은 것 썰지마는 사기 시루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제 오목한('움막하다'는 '오목하다'의 방언형) 이리 쇠술에다가 거기다가 안쳐 놓고,}

10424 # 인제 미테 불 땡 거 그거 차나락찌피 인잠 재무리 마이 나온대요. {이제 밑에 불 땡 것 그것 찰벼짚이 이제 잿물이 많이 나온대요.} @1 음 음

10424 # 금 차나락찢 그노를 인제 미테다가 함 한다발 가따가 인자 그 물 데:핀서릉 인제 때:노머 물 그놈 인자 문 {그러면 찰벼짚 그놈을 이제 밑에다가 한 한 다발 가져다가 이제 그 물 덥히면서 이제 때어 놓으면 물 그놈 이제 문} @1 (기침소리) # 뜨근뜨근 안 허요? 우에 미테다가 차나락찢 그거를 꼬실라 농개. 그러면 {뜨끈뜨끈하잖아요?('뜨근뜨근하다'는 '뜨끈뜨끈하다'의 방언형) 위에 밑에다가 찰벼짚 그것을 불살라('꼬시르다'는 '불사르다'의 뜻) 놓으니까. 그러면} @2 음 # 그걸 인자 요리 따로 퍼내 노코 {그걸 이제 이리 따로 퍼내 놓고,} @1 (기침소리)

10424 # 인제 미테다가 인자 저거 머이나 저네는 시리르라고 저거 {이제 밑에다가 이제 저기 뭐냐 전에는 시루라고 저거} @2 (기침소리) # 저 깔바테 그거 그걸 보고 머라 헨냐? 또 야커디 야킹 그걸 보고 머 머이라 헨니 시방? {저 갈대밭에('깔밭'은 '갈대밭'의 방언형) 그것 그걸 보고 뭐라 했니? 또 약하디약한 그걸 보고 뭐 뭐라 했니, 시방?}

10424 # 노 노끄늘 인자 가꼬 영꺼 시리 미치라고 인제. 떡 찜성도 허고 인자. 그노를 인자 원 너:나노코, {노 노끈을 이제 가지고 썬어, 시루밑이라고 이제. 떡 찜면서도 하고 이제. 그놈을 이제 애초에('원'은 '애초에'의 뜻) 넣어 놓고,} @1 (기침소리) @2 아

10424 # 구에다가 인잔 집 끝 미테 직 저 재 그노를 차나락째 그노를 인자 온 시리에다 향건 퍼부우. {그 위에다가 이제 짚 밑에 저 재 그놈을 찰벧재 그놈을 이제 곧 시루에다 한껏('한껏'은 '한껏'의 방언형) 퍼부어.}

10424 # 퍼부가고 인자 뜨근뜨근흔 그노를 인자 자꼬 요리 퍼부어 인자. {퍼부어가지고 이제 뜨근뜨근한 그놈을 이제 자꾸 이리 퍼부어 이제.} @2 음

10424 # 거:먼 미테치 그거이 재무리라고 {그러면 밑에 치 그것이 잣물이라고,} @2 음 # 거따가 인자 빨래르 인자 주물라. {거기에다가 이제 빨래를 이제 주물러.} @2 예예예

10424 # 시방 수빼따이메이로. {시방 수퍼타이처럼('수퍼타이'는 세제 이름).} @2 예~

10424 # 주물라 가꼬 인자 {주물러 가지고} @1 (기침소리) # 줄:때 인자 그거이 때질 꺼이라고 요만침 때: 준 그노를 가꼬 여그 인자 {지울 때 이제 그것이 때가 질 것이라고 이만큼 떼어 준 그놈을 가지고 여기 이제.}

10424 # 오썸 머 도:런 요런디 주을 때 그놈 지우라는디 빨래르 그거 머 온:제 거서 이:고 건서글 빨래가 두 통이나 데는디 그거 항 개 가꼬 머으 그거를 다 지우꺼이라. {옷 썸 뭐 도런 이런 데 지울 때 그놈 지우라는데 빨래를 그것 뭐 언제 거기서 이고 식구를 빨래가 두 통이나 되는데 그것 한 개 가지고 뭐 그거를 다 지울거야?}

10424 # 덜 지여가고 소테 인제 쇠죽소테느 인자 캐:카리 쇠죽 써주는 소:출 인자 캐:끔 써꺼가고 인자 거따 쌀:마. {덜 지워가지고 솔에 이제 쇠죽솔에는 이제 깨끗하게('캐카리'는 '깨끗하게'의 뜻) 쇠죽 썬 주는 솔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씨끄다'는 '씻다'의 방언형) 이제 거기에다 삶아.}

10424 # 빨래르 인자 멍:온 그렇 거 인자 쌀:무머 주을 때 그걸 양거스 해따꼬 또 부작때르가 싹: 주: 편지비리. {빨래를 이제 무명옷 그런 것 이제 삶으면 지울 때 그것 안 거시기 했다고 또 부지깽이를('부작때'는 '부지깽이'의 방언형) 가지고 싹 집어 던져 버려.}

10424 # 새로 시끄라고. 거 멀: 가꼬 또 시끄꺼이라 그림성, {새로 씻으라고. 그 뭘 가지고 또 씻을 거야. 그러면서}

10424 # 인제 게:심타고 인자 비누 반:동가리 그노미라도 또 줌스렁 씨끄라문 허는디 그노를 인자 보리꾼, {이제 꽤썸하다고 이제 비누 반 동강 그놈이라도 또 주면서 씻으라면 하는데 그놈을 이제 버리고}

10424 # 이런 세멘바닥판 빨 빠다게다가 그걸 주: 편지노면 그놈 가따 씨끌라면 늪무리(웃음) 허 (한숨) {이런 시멘트 바닥이나 개펄 바닥에다가 그걸 집어 던져 놓으면 그놈 가져다 씻으려면 눈물이(웃음) 허 (한숨)}

10424 # 인자 우리매느 먼헐라고 날: 나가꼬 요런디다 보내 노코:는 우리. {이제 우리 엄마는 뭐 하려고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데다 보내 놓고는 울어.} @1 (웃음) # (웃음)

10424 # 그러고 사라. {그렇게 살아.} @2 어 # 저네느. 싸:게라. {전에는. 산 거야.}

10424 @2 그런 예:기도 하더라구요. 겨우레 어르신드리 오답꼬 그 서:플 보메 빨:라고 보 무 이가 아: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겨울에 어르신들이 옷 입고 그 셔을 봄에 빨려고 보면 이가 알을,} # 아 @2 (웃음)

10424 # 요런 똑: 이:도 요런 모서리에 요런디다가 썰커등. {이런 꼭 이:도 이런 모서리에 이런 데다가 슬거든.('썰다'는 '슬다'의 방언형)} @2 예 (웃음)

10424 # 인자 굴:근 놈부터 자바. (웃음) {이제 굶은 놈부터 잡아. (웃음)} @1 (웃음)

10424 # 톱방니부터 인자 톱방니라 그러고 갈강니라 그러거등. {'톱방니'부터 이제 '톱방니'라 그러고 '갈강니'라 그러거든.} @2 어

10424 @1 어. 큰 이를 머:라 그래요? {어, 큰 이를 뭐라 그래요?}

10424 # 톱방니. (웃음) {'톱방니' (웃음)}

10424 @1 아 글고 자:궁 거슨? {아, 그리고 작은 것은?} # (웃음)

10424 @1 가가 가강니? {가가 '가강니'?} # 아, 우:수봉개 놈무리 나네. (웃음) {아, 우스우니까 눈물이 나네. (웃음)} @1 (웃음)

10424 # 시방 그런 널 엄찌~. {시방 그런 이 없지.} @2 (웃음) @1 음

10424 # 굴:궁 거이 아페 게:강개 그놈부터 자바. (웃음) {굶은 것이 앞에 기어 가니까 그놈부터 잡아.} @1 (웃음) @2 (웃음)

10424 # 네 듀 애:기들또 인자 어:른더리 자주 인자 요리 거세해: 준 사라몬 근디 머리도 안 갱기가꼬 (예, 아이들도 이제 어른들이 자주 이제 거시기해 준 사람은 그런데 머리도 안 감겨가지고) @2 어 # 요리 떠드르무 흑:해. 썰까레가. {이리 떠들면 하애 서캐가('썰까레'는 '서캐'의 방언형).}

10424 # 거기에도 요리 디끼무 이가 출출출출. 에이고. {거기에도 이리 뒤집으면('뒤끼다'는 '뒤집다'의 방언형) 이가 출출출출, 아이고.}

10424 # 왜 그래쓰까 저네느. 안 씨꺼 이봉개 더:러버서 그러꺼이여. {왜 그랬을까 전에는? 안 씻어 입으니까 더러워서 그럴거야.} @1 그러지요 *** {그러지요. ***} @2 예예

10424 # 굴:근 놈부터 인자 디시 오슬 디:시노면 인자, 궁:거 불부게이랑 그놈부터 이리 지기며 손티비 벌그레. (웃음) {굶은 놈부터 이제 뒤집어 옷을 뒤집어 놓으면 이제 굶은 것 '불부게이'랑 그놈부터 이리 죽이면 손톱이 불그레해.} @2 어

10424 # 빌그리고 인자 큰놈 싹: 자꼬나문 인자, {불그레하고 이제 큰놈 싹 잡고 나면 이제} @2 예

10424 # 요리 인자 장 거. {이리 이제 잔 것,} @2 예 # 잔니 요리 자꼬나며 인자, 요런디다 또 썰로 썰러나. {잔 이 이리 잡고 나면 이제 이런 데다 또 서캐로 슬어 놔.} @2 음

10424 # 썰 썰러는 그놈을 인자 종제기 부레다가 (웃음) {서캐 슬어 놓은 그놈을 이제 중지('종제기'는 '종지'의 방언형) 붙에다가,} @2 예 # 요리 꾸실면 또드락또드락또드락 해. {이리 불사르면 또드락또드락또드락 해.}

10424 @2 아~ 드러 이썬서. {아 들어 있어서.}

10424 # 어. 그리고 인자 저기 저 할매드른 이잔 누니 어두버 안 베잉개 그냥 (웃음) {어, 그리고 이제 저기 저 할멈들은 이제 눈이 어두워 안 보이니까 그냥 (웃음)} @2 으~

10424 # 또드락또드락또드락해 그냥 썬부머. (웃음) {또드락또드락또드락해 그냥 썬으면, (웃음)} @1 (웃음)

10424 # 근데 제 살에서 {그런데 제 살에서} @2 *** # 궁데 이릉 거이라고 안 더럽떼. {그 이제 인 것이라고 안 더럽대.}

10424 @2 아니 아니 근데 할머니들 이도 업쓰실텐데 어떠케 이로? (웃음) {아니, 아니, 그런데 할머니들 이도 업쓰실 텐데 어떻게 이로? (웃음)}

10424 # 이 항 개씩 인는 그놈을 가꼬 요래가꼬 율율 요로무 그냥 또드락또드락또드락 허이 그래. {이 한 개씩 있는 그놈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리 이리 이러면 그냥 또드락또드락또드락 하게 그래.}

10424 # 아 인자 {아 이제} @2 아 # 제 사레서 나옴 거이라고 안 더럽따고 {제 살에서 나온 것이라고 안 더럽다고.} @2 예

10424 # 하~ 인제 누넌 어둡꼬 모:잡껴꼬 그렇개, 시방거치 그절 도빠기도 혼허고 그러지 마느, {하 이제 눈은 어둡고 못 잡겠고 그러니까 시방처럼 그저 돌보기도 혼하고 그러지 마느,} @2 예

10424 # 저네느 머 도빠기도 영:꼬, 이:는 베기도 안 허고 형개 무조건 썬능 거이라 그냥. {전에는 뭐 돌보기도 없고 이는 보이지도 앓고 하니까 무조건 썬는 거야 그냥.} @2 음

10424 # 더:럽찌, 참 저네. 시방 다 장가지꺼이네. (웃음) {더럽지, 참 전에. 시방 다 까무러칠('장가지다'는 '까무러치다'의 뜻) 것이네.} @2 (웃음) @1 (웃음) # 다 장가지꺼이라 그렇거이. {다 까무러칠 거야 그런 것이.} @2 음

10424 # 애기들또 좀 일: 바쁘고 그런 집 애:기드르 보며 그냥 요로무 그냥 썰가 이 끄터리에 이가 그냥 빼따따헌 베테 인능 지르 이:가 우:로 올라와가고 성글서글서글성글 요리게:땡기고 그래썰요, 저네느. {아이들도 좀 일 바쁘고 그런 집 아이들은 보면 그냥 이러면 그냥 서캐가 이 끝에 이가 그냥 별 따듯한 별에 있는 집은 이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성글성글성글성글 이리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전에는.} @2 어

10424 # 그무 인자 참:비뒤 {그러면 이제 참빋에} @2 예 # 저네느 그거이 참비치 먼 남자그러 그거 이: 썰 썰 잠능 거이라 그래. {전에는 그것이 참빋이('참빋'은 '참빋'의 방언형) 무슨 용도냐 하면(?) 그것 이 서캐 서캐 잡는 것이라고 그래.}

10424 # 인자 그거를 인자 요리 그걸가 요리 비티문 굴:근 이:는 요리 떠러진디 썰가 안 떠러지거등. {이제 그것을 이제 이리 그걸 가지고 빋으면('비트다'는 '빋다'의 뜻) 굵은 이는 일 떠러지는데 서캐가 안 떨어지거든.} @2 예

10424 # 그러문 인잔 실: 그노를 가꼬 요리저리요리 영:꺼. {그러면 이제 실 그놈을 가지고 이리저리이리 엮어.}

10424 # 영꺼가고 인자 요:러면 망 머크레이 반쯤 빠질꼬 그냥 그리 그러머 인자 썰가 흑:허니 인자 그래가고 인자, {엮어가지고 이제 이러면 막 머리카락이 반쯤 빠지고 그냥 그리 그러면 이제 서캐가 하얗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2 예

10424 # 요:로면 인제 썰가 흑:허머 그냥 망 요리 지머 또드락또드락또드락 해 머리에도. {이러면 이제 서캐가 하얗게 그냥 막 이리 지면 또드락또드락또드락 해 머리에도.} @1 음

10424 # 저넨 더러께 사라썰. (웃음) {전에는 더럽게 살았어. (웃음)} @2 (웃음) # 참.

10424 @1 더러기도 해:찌만 얼마나 가려와쓰까요? {더럽기도 했지만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2 음 @1 음

10424 # 근 푹 비리 오롱거멩이 시방 곡썰 비리 오리면 안 크데끼 {그 푹 진딧물('비리'는 '진딧물'의 방언형) 오른 것처럼 시방 곡식 진딧물 오르면 안 크듯이,} @1 어 어 # 그러치면. {그렇지 뭐.} @1 그러치 {그렇지.} # 궁께 저네 짜람드른 사람도 알구꼬,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사람도 알곶고,} @2 어

10424 # 시방은 어디 미분 사라미 어디 이썰? {시방은 어디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 @2 (웃음) @1 사리 통통 찌고. {살이 통통 찌고} # 응 @1 (웃음)

10424 # 몬: 미긴 사람드른 불거지고 머: 어디 쪼그라지고 말짱 그러코, {못 먹인 사람들은 불거지고 뭐 어디 쪼그라지고 말짱 그렇고} @2 어

10424 # 인는 지 짜람드른 좀 반질반질허고 저네는 글 안 해썰. {있는 집 사람들은 좀 반

질반질하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2 예

10424 # 아 저네 산: 이야클 허머 먼: 말:도 못해지. (웃음) {아, 전에 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도 못해지.}

10424 @2 그레가꼬 인제 그러케 빨:래를 해가꼬 와서 어찌데건 다 빠라 가꼬 인제 어떻게 해야데꺼 아니어요? {그레가지고 이제 그렇게 빨래를 해가지고 와서 어떻든 다 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어요?}

10424 # 이 너러 몰류머, {아 널어 말리면.} @2 예 # 너러 몰라가꼬 인자 또 푸를 끼리가꼬, {널어 말려가지고 이제 또 풀을 끓여가지고,} @2 예

10424 # 저네느 대:궁밀, 시방 대:궁물라 키: 쿵 거, 저 사네 군디 갈데여. {전에는 대국밀 시방 대국밀이라 키 큰 것, 저 산에 그런 데 갈데요.} @2 아 @1 음

10424 # 그걸 인자 한 뽈기씩 인자 가라 인자 받 한 자리씩. {그걸 이제 한 뽈기씩 이제 갈아. 이제 받 한 자리씩.} @2 어

10424 # 갈:면 그건 따로 해가꼬 그노를 인제 무를 부어가꼬 썬. {갈면 그건 따로 해가지고 그놈을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썬.('썬후다'는 '썬히다'의 방언형)}

10424 # 썬쿠면 그거이 요:리요:리 주무리문 거기에서 흐:거이 알:만 빠지고 인자 체에다가 걸러서 인자 껌떠근 걸러 내:빠리고 나:면 그걸 인자 또 우라 인자 무. {썬히면 그것이 이리 이리 주무르면 거기에서 하얗게 알만 빠지고 이제 체에다가 걸러서 이제 껌질은 걸러 내버리고 나면 그걸 이제 또 우려 이제 무.}

10424 # 거 흐:건 가리 인자 빠징 그거를 인자 뚝물 거통 거이 나오면 그노를 우라가꼬 뽈 우라노면 흐::해. {그 하얀 가루 이제 빠진 그것을 이제 뜨물 같은 것이 나오면 그놈을 우려가지고 몇 번 우려 놓으면 하애.} @2 음

10424 # 흐:허면 인자 그걸 끼리노:면 끼리가꼬 인자 푸를 미기고, {하야면 이제 그걸 끓여 놓으면 끓여가지고 이제 풀을 먹이고,} @2 음

10424 # 또 밀까리 {또 밀가루} @1 음 @2 음 # 밀까리 푸를 끼리가꼬 인자 또 그러고 인자 또또 먼: 현 지비느 인자 좀 인는 지비느 인자, {밀가루 풀을 끓여가지고 이제 또 그러고 이제 또 또 뭐 한 집은 이제 좀 있는 집은 이제,}

10424 # 풀 매라고 요새 왜 쪼까:너이 풀 매고 압쭈당이 요:리 흐리능 거 아니썬떠여? {풀 매라고 요새 왜 조그맣게 풀 매고 앞 주둥이 이리 흐르는 것 있잖습디까?} @2 예

10424 #그거 인자 또 싸를 인자 부라가꼬 거기에 매:또라 풀 매다 가서 가라가다가 인자

또 끼리가꼬 미기고, {그것 이제 또 쌀을 이제 불려가지고 거기에 맷돌에 풀 매다 가서 갈 아다가 이제 또 끓여가지고 먹이고,} @2 음 # 하

10424 @2 거 대궁물 우랄 때는 무레다가 이러케, {그 대국밀 우릴 때는 물에다가 이렇게?}

10424 @2 여러가꼬 {열어가지고} # 그거는 인자 여르므로 마:니 허지, 잘 써궁께. {그것 은 이제 여름으로 많이 하지 잘 썩으니까.} @2 아

10424 # 그래 인자 우라가꼬 그노를 또 푸를 끼리가꼬 인자 삼베온 그런 디는 미이가꼬 인자 막, {그래 이제 우려가지고 그놈을 또 풀을 끓여가지고 이제 삼베옷 그런 데는 먹여가지고 이제 막,} @2 음

10424 # 손질현당 거이 그냥 쪽:쪽 홀터 인자, {손질 한다는 것이 그냥 쪽쪽 훑어 이제.} @2 음 # 저긴 간:지떼에다가 인자 끼:쓰 끼: 너러노코 막 요로 홀터. 글면 {저기 간짓대에다가 이제 꿰어 넣어 놓고 막 이렇게 훑어. 그러면,}

10424 # 막 빠:빨허면 그노른 시바는 쭈썩썩:서 꺼:끄라서 아무도 안 이브 꺼여. (웃음) {막 빨빨하면 그놈은 시방은 쭈서 쌓아서 거칠어서 아무도 안 입을거야. (웃음)}

10424 @2 좀 빠:빨허면 그거 가꼬와가꼬 또 이러케, {좀 빨빨하면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10424 # 하 또 두드리고. 궁께 인잔 여르메는 두드리문 구녕이 매:킹께 덩:꺼등. {하 또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두드리면 구멍이 막히니까 덩거든.} @2 아 # 그렇게 인제 요:리 소느로 홀터. {그러니까 이제 이리 손으로 훑어.} @2 아 이러케 {아, 이렇게.}

10424 # 망 요:리로 막 요리 안 거서근 디는 막 요:래 가꼬 요:리허고, {막 이리로 막 이리 거시기 한 한 데는 막 이래가지고 이리 하고} @2 예

10424 # 또 인제 요런 디는 인자 요:리 훑꼬. {또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이리 훑고,} @2 음

10424 # 그러곤 그러고 인자 종 곱:게 헐라면 인자 정때로 인자 순 대래비에다가 은자 잉 그락뿌를 다마가꼬 인자 막 대루고 하나느 잡꼬 이꼬 하나느 대루고. {그리고는 그리고 이제 좀 곱게 하려면 이제 *** 이제 숯 다리미에다가('대래비'는 '다리미'의 방언형) 이제 잉걸 불을 담아가지고 이제 막 다리고 하나느 잡고 있고 하나느 다리고,}

10424 # 시방은 왕:구에서 수월치이~, 왕:구에도 수월치. 점:드리 그걸허다 마라 그렇게. {시방은 천하에 수월하지. 천하에 수월하지. 저물도록 그것 하다 말아 그러니까.} @1 음

10424 # 점:드리 그걸허다 나옴개 잠 잘 여개도 영:꼬 {저물도록 그것 하다 나오니까 잠

잘 여가도 없고,} @2 예 # 게다가 따진디 머 어디 찌:진 디 그런 디 또 저 밤새도록 또 끼:매 이페야재. {게다가 떨어진 데 뭐 어디 찌진 데 그런 데 또 저 밤새도록 또 꿔매어 입혀야지.}

10424 # 사리 안 나오게 끼:매 이페야재. 궁께 잠 잘 여개도 영:꼬. {살이 안 나오게 꿔매어 입혀야지. 그러니까 잠 잘 여가도 없고.}

10424 # 궁께 메트리드론 주글 이리야 주글 일. 그래도 어:르니라고 먼: 소리를 허고 어:르니라고 메느리 시기 노고 주구는 놀:로 땡기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죽을 일이야 죽을 일. 그래도 어른이라고 무슨 소리를 하고 어른이라고 며느리 시켜 놓고 저희는 놀러 다니고.}

10424 @1 (웃음) @2 (웃음) @1 아이고 고생해께따. {아이고 고생했겠다.} @2 예예 @1 음 @2 또

10424 # 여름 삼둥으로는 인자 그놈을 싹: 푸렁 그걸 꺼드르며 인자 또 와서 개: 가꼬, {여름 겨울로는 이제 그놈을 싹 풀 한 그걸 꺼들면 이제 또 와서 개어가지고} @2 음

10424 # 싹: 방망이르 가꼬 뚜디리야 데. {싹 방망이를 가지고 두드려야 돼.} @2 예예

10424 # 겨우레만 뚜드링 거예요? {겨울에만 두드리는 거예요?} # 응 @2 그러면 여르멘 안 뚜드리고? {그러면 여름에는 안 두드리고?} # 예 여르멘 안 뚜두드리고. {예, 여름엔 안 두드리고.} @2 아이구, 아무때나 두드리는 줄 아라씨요, 저는. {아이고, 아무 때나 두드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10424 @2 *** # 여르메느 뚜두리 노면 {여름에는 두드려 놓으면} @2 응 # 구녕이 매:킹개 {구멍이 막히니까} @2 근데 {그런데} # 따드마노면 구녕이 매:킹개 {다듬어 놓으면} @2 모시온 가통 경우는 풀 메겨 가지고 이러케 뚜두:리:지 안나요? 여르메도 모시온? {모시웃 같은 경우는 풀 먹여가지고 이렇게 두드리지 않나요? 여름에도 모시웃?}

10424 # 음 모시오토 인자 요리 홀터가꼬 대라, 그냥. {음, 모시웃도 이제 이리 훑어가지고 다려. 그냥.} @2 아

10424 # 여르메느 구녕 매:킨다고 안 뚜드리요. {여름에는 구멍 막힌다고 안 두드려요.} @2 아

10424 @2 허긴 이러케 풀 머겨 가지고 야간 말려서 조금 꾸득꾸득할 때 {하기는 이렇게 풀 먹여가지고 약간 말려서 조금 고슬고슬할('꾸득꾸득하다'는 '말라서 고슬고슬하다'의 뜻)) 때} # 하

10424 # 요:리요:리 인자 {이리 이리 이제} @2 아니 # 시방 @2 이러케 이러케 저버: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 저버 가꼬 {접어가지고} @2 게 가지고 {개어가지고} # 예 @2

쳐네다 이러케 싸서 발로 {쳐네다 이렇게 싸서 발로} # 예 @2 이러케 밭떠라고요 {이렇게 밭떠라고요.} # 그렇개. {그러니까} @2 예

10424 # 인자 구녕 매킨다고 방망이지른 안 해 여름오슨. {이제 구멍 막힌다고 방망이질은 안 해 여름웃은.} @2 아, 여름오슨 방망이질 안 하고 겨울온만 {아, 여름웃은 방망이질 안 하고 겨울웃만} # 예 @2 음

10426 @2 혹시 염색 가통 거또 해 보셔써요? 세갈 은: 세 물드리능 거? {혹시 염색 같은 것도 해 보셨어요? 색깔 옷에 물 들이는 것?}

10426 # 하 저네 물감 가꼬 {아무렴, 전에 물감 가지고.} @2 예 # 비 비단 저구리 그렇거. {비 비단저고리 그런 것.}

10426 @2 어 어뜨 어떠케 먼 무슨 세글 드리셔써요? {어 어떠 어떻게 뭐 무슨 색을 들이셨어요?}

10426 # 아이, 부:농새기랑 머: 배:추색, {아이, 분홍색이랑 뭐 배추색,} @2 예 # 그렇거 인제 물 끼리가꼬. {그런 것 물 끓여가지고,}

10426 @2 물까른? {물감은?}

10426 # 저네는 물까른 인전 장어 장에 가몬 모두 포라써. {전에는 물감은 이제 장에 장에 가면 모두 팔았어.} @2 음

10426 @2 장에서 파:능 건만 물감 쓰셔써요? {장에서 파는 것만 물감 쓰셨어요?}

10426 # 저네는 함 물 허먼 물 빠져 뿌리여. {전에는 한 물 하면 물 빠져 버려요.} @2 어떻거 물감 {어떤 것 물감?}

10426 # 장에서 물감 그거는 {장에서 물감 그것은,} @2 예 # 인자 사 가꼬 와서 인자 그르게다 노꼬 인자 비단을 그렇 걸 인자 적씨면,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릇에다 놓고 이제 비단옷 그런 걸 이제 적시면,} @2 응

10426 # 인자 빨강걸 허머 빨그레 은자 부농이 데고 {이제 빨간 것 하면 불그레해 이제 분홍이 되고,} @2 어 # 또 배:추삭 물 도라무 배:추삭 물 주문 인자 또 그 {어 또 배추색 물 달라면 배추색 물 주면 이제 또 그} @2 음 # 벤 베 나 이꾸 잔:대로 새까를 도래가꼬 {베 나 입고 싶은 대로 색깔을 달라 해가지고,} @2 예

10426 # 인제 비단을 씨겨가꼬 {이제 비단옷 씻어가지고} @2 음 # 또 물 디리가 근자 저구리 그렇거 끼:미가꼬 이꼬 또 빨:문 또 무른 다 날라가 뿌리고 뿌라:저 뿌리고 흑:해. {또 물 들여가지고 이제 저고리 그런 것 꿰매어 가지고 입고 또 빨면 또 물은 다 날아가 버

리고 바래져('빠라지다'는 '바래지다'의 방언형) 버리고 하애.) @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426 # 그러무 또 새로 또또또 탄 물 드리고 자문 또 탄 물 디리고 저네는 그래쥬. {그러면 또 새로 또 또 또 탄 물 들이고 싶으면 또 탄 물 들이고 전에는 그랬지요.} @2 오오

10426 @2 물 거기서 물감 사서 드리는 거 말:고 풀 가통 거 뜨더다가 물드려 보고 그러:시기도 헨나요? {물 거기서 물감 사서 들이는 것 말고 풀 같은 것 뜯어다가 물들여 보고 그러시기도 했나요?}

10426 # 그렇 건 안 해 바썸. {그런 건 안 해 봤어.}

10426 @2 어 머 치:자 따다가 {어 뭐 치자 따다가}} # 지:자. {치자.('지자'는 '치자'의 방언형)} @2 예 # 지:자라고. 지:자 그거 따다가도 허고 {치자라고 치자 그것 따다가도 하고} @2 먼 무슨 세기 나와요 그러면. {무슨 무슨 색이 나와요 그러면?}

10426 # 지:자 새까른 주황색 방사하이 그래. {치자 색깔은 주황색 방사하게 그래.} @2 아 # 지:자새근. {치자색은.} @2 예

10426 @2 또 다룽 거또 또 인나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10426 # 인제 또 감:물 {이제 또 감물.} @2 아 감물. {아, 감물.} # 감:. 가:른 꺼뭇개르 잘 안 디리요. {감. 감은 까마니까 잘 안 들여요.} @2 어

10426 # 지그르 점부 감:물 디리가꼬 모도 여그요 {지금은 전부 감물 들여가지고 모두 여기요.} @2 예 # 입:떼. {입테.} @2 음

10426 @2 여기선 잘 안 드러썸요? {여기선 잘 안 들렸어요?} # 또 또 물 엄:썸 또 향:투 {또 물 없으면 또 황토.} @2 어? # 향:투 {황토.} @2 아

10426 # 이제 도니 영:꼬 거시건 사람드른 또 향:투로 파다가 또 무를 디리가꼬, {이제 돈이 없고 거시기한 사람들은 또 황토를 파다가 또 물을 들여가지고} @2 네

10426 # 공개 방치기 요거느. 한 먼 대야썸 이부머 그럼 인자 도로 썸능 거 그거. 또 빨:무도로 흑:해져 뿌리고. {그러니까 '방치기' 이것은. 한 뭐 대엿새 입으면 그럼 이제 도로 씻는 것 그것. 또 빨면 도로 하애져 버리고.} @2 어 (웃음) # 그랜 그래가, {그래 그래가지고}

10426 @2 어 요새는 건강에 조타고 황토를 하더라고요. {어, 요새는 건강에 좋다고 황토를 하더라고요.}

10426 # 저네 우리들 클 때느 향:투무를 무그머 폐:뽕 걸린다고, {전에 우리들 자랄 때는 황토물을 먹으면 폐병 걸린다고.} @2 예

10426 # 저 바테 저런 디그 가도 올 엄니허고 두:리 우리 친정 어매하고 두:리 가서 바출 매:면 당시느 무금성 나는 몬 무께 해. {저 밭에 저런 데 가도 우리 엄마하고 둘이 우리 친정엄마하고 둘이 가서 밭을 매면 당신은 먹으면서 나는 못 먹게 해.}

10426 @2 황토를? {황토를?} # 무리 밤 매다 무리 데:게 모기 갈라서 무글라면 {물이 밭 매다 물이 되게 목이 갈려서 먹으려면} @2 어 # 물 누군디 바까에 물 나는 디가 인는디 {물 먹는 데 밭 가에 물 나는 데가 있는데,} @2 예 # 아:드른 그렇 거 무:문 폐:뽕 든다고 몸: 무께 허드마 지그른 머 점부 향:투무를 무잡 해 가꼬 따라 묵데요. 허 {아이들은 그런 것 먹으면 폐병 든다고 못 먹게 하더구먼. 지금은 뭐 전부 황토물을 먹고 싶으면 해가지고 따라 묵데요. 허.} @2 (웃음) @1 ** @2 응 # 음

10426 # 네는 묵찌마라 절몽 거이, {너는 먹지 말아 젊은 것이.} @2 예 # 흑씨나 폐:뽕 드러노문 누 폐:뽕은 절문눌 절렘텐다고 누구 행제드간들꺼지 망신시킨다고 절때조 몸 무께 해. {흑씨나 폐병 들어 놓으면 폐병은 젊은 * 전염된다고 너희 형제들까지 망신 시킨다고 절대 못 먹게 해.} @2 어 # 바테 가도. {밭에 가도} @2 어

10426 # 넌 지비 가서 차마 가 지비 가 무거라. {너는 집에 가서 참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라.} @2 아

10426 # 이걸 어머 어매느 그래 엄마느 저네느 어매라 형께 어매느 왜 몽냐 그러무 나느 늘거쌍께 주거도 갠찬나. (웃음) {이걸 엄마 엄마는 그래 엄마는 전에는 '어매'라 하니까 '어매'는 왜 먹느냐고 그러면 나는 늙었으니까 죽어도 갠찬다. (웃음)} @2 (웃음)

10426 # 니느 지비 가서 무거라. (웃음) {너는 집에 가서 먹어라.} @2 어 음

10426 # 늘거쌍께 무리 무 모메 무리 몰라서 나느 모기 몰라싸:치만, 누군 안:중 예:린디 먼: 무를 무거야고 함부로 몬 몸: 무께 해. {늙었으니까 물이 몸에 물이 말라서 나는 목이 말라 쌍지만 너희는 아직('안중'은 '아직'의 방언형) 어린데 무슨 물을 먹느냐고('어야'는 '-느냐'의 뜻) 함부로 못 먹게 해.}

10426 # 그런디 지그른 머 향:투무를 무장 머 해무 맨드라 몽는디 머. {그런데 지금은 뭐 황토를 먹고 싶으면 뭐 해떡 만들어 먹는데 뭐.} @2 음

10426 @2 또 흑씨 파랑색 가통 건:또 드리셔쎄요? 풀 비여다가 파랑색 가통 거또 드리짜 나요. 이까. {또 흑씨 파랑색 같은 것도 들이셨어요? 풀 베다가 파랑색 같은 것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426 # 인자 하무. 어떤 사람드른 보리도 베:다가 {이제 아무렴. 어떤 사름들은 보리도 베어다가,} @2 보리요? {보리요?} # 예 @2 어 그먼 무슨 세기 나와요? {어, 그러면 무슨 색이 나와요?}

10426 # 인잔 배:추색 방:사허이 그러치. 그렇 거는 아니빠. {이제 배추색 방사하게 그렇지. 그런 것은 안 이빠.} @2 아 # 잘못 허무 그냥 얼루기 지고 그룽개 몰라 우리드른 너무는 그래션 그렇 걸 그래가 글 해:도, {잘못 하면 그냥 얼룩이 지고 그러니까 몰라, 우리들은 남은 그랬었는지 그런 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10426 # 우리:진 어무니는 우리 친정 어무니는 저 점부 사다주문 {우리집 어머니는 우리 친정어머니는 저 전부 사다 주문} @2 음 # 디리가꼬 해: 이버. {들여가지고 해 입어.} @2 장에 가서 사 가지고 {장에 가서 사가지고,} # 예 @2 응

10426 # 그러고 우리 여여 시집 와서느 인자 또 {그리고 우리 이 이 시집와서는 이제 또} @2 어 # 인자 그 때느 실랑이제. {이제 그때는 신랑이지.} @2 예

10426 # 실랑이 장:사를 형개 {신랑이 장사를 하니까,} @2 네 # 인제 자파 장수를 해 농개 인자 허고 시푸문 쯤 도라 그러무 쯤간 가따주문 디리가야 해주고. {이제 잡화 장사를 해 놓으니까 이제 하고 싶으면 쯤 달라 그러면 조금 가져다 주문 들여가지고 해 주고.} @2 음

10427 @2 아까 그 빨래 쌀무실 때에 {아까 그 빨래 삶으실 때에} # 어 @2 그 젼물 만드능 거 말씀 하선는데 {그 젼물 만드는 것 말씀하셨는데,} # 예 @2 제 젼물 젼물 만드능 거 한번 더 말씀 해 주세요. 멀 멀:로 만드려써요? 젼물을 {제 젼물 만드는 것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뭘 뭘로 만들었어요? 젼물을?}

10427 # 궁개 차나락찝 {그러니까 찰벼짚} @2 응. 그남 다룽 거 차나락찝 말고 {응, 그남 다른 것 찰벼짚 말고,} # 찹쌀 @2 어 # 궁개 집 그어까꼬 허지. {그러니까 짚 그것 가지고 하지.}

10427 @2 어. 다른 거슨 안 하고 {어, 다른 것은 안 하고?} # 다룽 건 안. {다른 건 안.} @2 그거시 제일 조아요? {그것이 제일 좋아요?} # 네.

10427 @2 아 # 그거이 인자 {그것이 이제,} @2 예 # 빨래문 인자 따파:테니 물 데피가꼬 인자 퍼내 노코 형개 {빨려면 이제 따뜻하게 물 덥혀가지고 이제 퍼내어 놓고 하니까,} @2 네

10427 # 미테 물 데인 그: 차나라그 재를 그냥 시리에다 퍼부어가꼬 거 물 디앵거 인자 퍼내나따 그노를 자:꼬 인자 퍼부음면, {밑에 물 데인 그 찰벼의 재를 그냥 시루에다 퍼부어 가지고 그 물 데인 것 이제 퍼내 났다가 그놈을 자꾸 이제 퍼부우면} @2 음

10427 # 인제 무리 똑때 따파:데이 그러면 뜨근뜨근허이 그러면 인자 거따가 인자 빨래르 여코 막 주물라 가꼬 가서 씨꼬 그래찌. {이제 물이 ** 따뜻하게 그러면 뜨끈뜨끈하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빨래를 넣고 막 주물러가지고 가서 씻고 그랬지.} @2 음

10427 @2 그걸 말고 찹물 말고 또 머 양젼물도. {그것 말고 찹물 말고 또 뭐 앵젼물도?}

10427 # 양재무른 인제 사 가꼬 와야 데고. {양젼물은 이제 사가지고 와야 되고.} @2 사 가꼬 하능 거 {사가지고 하는 것.} # 예

10427 @2 전 양젼무른 항상 그 누가 양젼물 마셔따고 (웃음) 하 그래야 찹무른 안 죽지요? {전 양젼물은 항상 그 누가 양젼물 마셨다고 (웃음) 하 그래야 찹물은 안 죽지요?}

10427 #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2 그 외 양 양젼무른 주그니까 (웃음) {그 왜 양 양젼물은 죽으니까. (웃음)}

10427 # 양젼 아 요요 요거이사 머 중능가? {양젼 아 이이 이것이야 뭐 죽나?} @2 예~

10427 # 양재무른 무거도 저네 {양젼물은 먹어도 전에,} @2 어 # 농약또 영:꼬 그렇게 아 먼 {농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2 어 # 자살허구잔 한 사람들 양재무른 무꼬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양젼물을 먹고,} @2 어 # 마:니 안 주거쏘? {많이 죽었잖소?}

10427 @2 잔물보다 양젼무리 저 더 잘 빠져요? {젼물보다 양젼물이 저 더 잘 빠져요?}

10427 # 하이고 양재무른 {하이고 양젼물은} @2 어 # 전내기 안 대요. {전내기 안 돼요.} {@2 음? # 전냉이먼 손 문 대. {전내기면 손 못 대.} @2 아 # 전내기는. 바로 그 손 사리 구녕이 파이뻬는디 {전내기는 바로 그 손 살이 구멍이 파져 버리는데.}

10427 @2 아 그래요, 그며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1 전내기가 머:예요? 안 탕 거, 약 물 안 탕 거? {전내기가 뭘예요? 안 탄 것, 약 물 안 탄 것?} # 예

10427 # 지금 똑 저 저그 저 저 사탕 그런 거 쪼개놓 거멩키로 막 이망썰 몽테기가 이꼬 그런 거를 {지금 꼭 저 저기 저 저 사탕 그런 것 쪼개놓은 것처럼 막 이만큼씩 몽텅이가('몽테기'는 '몽텅이'의 방언형) 있고 그런 것을,} @2 예 # 망치로 가꼬 깨: 가꼬 포라요. {망치를 가지고 깨가지고 팔아요.} @2 예~ # 울지비 저저 저넨 영감. {우리집 저저 전에 영감.} @2 예

10427 # 그러면 그런 거를 저 저 저 저그 제우 사 가꼬 와서 {그러면 그런 것을 저 저 저 저기 겨우 사가지고 와서,} @2 예 # 인자 그르게다 딱 다마노코 쪼:끔씩 부어가꼬 무를 부어가꼬 인자 요리 {이제 그릇에다 딱 담아 놓고 조금씩 부어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리,} @2 아 @1 아 # 마라자머 우리지. {말하자면 우리지.} @2 예 @1 음

10427 # 그래가꼬 인자 소니 요리 인자 대리바가꼬 미끌미끌허면 인자 빨래르 주 여:가꼬 더머 양재무른 때 잘 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이 이리 이제 대 봐가지고 미끌미끌하면 이제 빨래를 집어 넣어 가지고 데우면 양젼물은 때 잘 지지.} @2 아

10427 # 때 잘 지지마는 그 집까꼬 형 그거이 먼: 그거이 재물끼가 나 얼마나 나오 꺼잉고
이~? {때 잘 지지마는 그 쥔 가지고 한 그것이 무슨 그것이 켓물기가 나(오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 @1 네

10427 @2 소네 소니 그러면 소니 머 켓차나요? {손에 손이 그러면 손이 뭐 켓참나요?}

10427 # 아이고 손 안 버껴줄 정도로 하무 쪼간 미끌미끄래이 그래:문 인자 {아이고, 손
안 벗겨질 정도로 하면 조금 미끌미끌하게 그러면 이제,} @2 어 어어어

10427 # 인제 요샌 똥 낙:썩멩키로 {이제 요샌 꼭 락스처럼} @2 아 # 똥 낙:썩멩키로 그
래썩. 그래 미끄람네. {꼭 락스처럼 그랬지. 그렇게 미끄럽네.} @2 아 네.

10427 # 인제 낙:썩느 히지능 거이 드러눔개로 히지지마는 {이제 락스는 희어지는 것이 들
어있으니까 희어지지마는} @2 어 # 저네는 인자 그래가꼬 썩끄면 때가 좀 잘 지고 그래쪼.
{전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썩으면 때가 좀 잘 지고 그랬지요.} @2 음 음

제 2 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나라기라
20102	이삭	나랑모개
20103	범씨	썸나락
20104	못자리	모자리
20105	모판	모자리판
20106	쟁기	쟁기
20107	보습	쟁기보습
20107	보습	홀챙이보습
20107	보습	홀챙이버습
20107	보습	보십
20108	벧	*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홀챙이
20110	씨레	씨:래
20111	번지	판때기로 대 가 한다
20111	번지	홀챙이에 판자 대:가꼬 한다
20112	모내기	모 쥘다
20112	모내기	모 이중한다
20113	흙덩어리	댕이
20114	고무래	당그래
20114-1	고무래(곡식)	나락땅그래
20114-2	고무래(재)	재땅그래
20114-3	고무래(흙)	*
20114-4	고무래(미는 것)	당그래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당그래라 그래요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꼬:괭이
20117	괭이	괭이고
20118	삽	삽
20119	호미	호맹이
20120	농기구	연장
20121	김	지시미 너무 마나서
20122	김매다	풀 매로 간다
20122	김매다	지심매로 간다(논의 경우)
20122	김매다	논매로 간다
20122	김매다	밤매로 간다
20123	애벌 매다	초볼논 맨:다
20123-1	두벌 매다	두볼논 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맘:논 맨:다 (네 벌째 매는 논)
20124	논둑	논뜨럭

20124-1	논두렁	논뚜러기라
20125	밭둑	바뚜루기라
20126	밭두둑	두덕
20127	밭고랑	바꼬랑이라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밭 두둑 지:로 간다
20128-2	이랑밟기	보리 볼부로 간다
20128-2	이랑밟기	밭 볼부로 간다
20129	보리	보리는
20129-1	가을보리	그냥 이런 보리
20129-2	봄보리	봄보리라
20129-2	봄보리	봄뿌리도
20130	보리쌀	볼쌀
20131	가을갈이	*
20131	가을갈이	붕가리 해 논는다
20132	감부기	보리괸무기라
20132	감부기	깨묵
20133	두엄	세거르미라
20133	두엄	대:지거르미라
20133	두엄	뒤여미라 그러는디(+ 고)
20134	거름	거리미라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가실닐 허로 간다
20202	벧단	나락 베느리라 (집에 옮겨
		와서 쌓아둔 것)
20202	벧단	나락탄
20202-1	벧단	하노꿈(한 오꿈)
20202-1	벧단	한 주머기라
20202-2	벧단	*
20202-3	벧단	한 무슨 한 다발
20202-3	벧단	나락 한 묻
20203	가리	항 가래(=열 못)
20204	가리다	개린다
20205	벧가리	비느를 재 놔요
20206	날가리	나락빼느리라
20207	타작	타:작 헨다
20207	타작	나락 흘른다
20207	타작	나락 흘트로 오라
20208	벼훅이	가락흘태라
20208-1	그네	흘태라
20208-1	그네	써래흘태
20209	개상	*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 질	*
20210	도리개	도리개

20210-1	도리꺄장부	도리꺄꺄대기라
20210-2	도리꺄꺄열	도리꺄꺄열:
20210-2	도리꺄꺄열	도리꺄꺄여리라고
20210-3	도리꺄꺄꺄지	*
20211	벗꺄	꺄
20211	벗꺄	꺄꺄 꺄꺄 오라
20211	벗꺄	꺄꺄다
20211-0-1	-을	꺄꺄 꺄 꺄 오니라
20211-0-2	-에	꺄꺄다
20212	새꺄꺄기	꺄꺄꺄꺄기
20213	꺄꺄꺄기	꺄꺄꺄기라고
20213	꺄꺄꺄기	꺄꺄꺄기라고도
20213	꺄꺄꺄기	나락 꺄꺄꺄기
20213	꺄꺄꺄기	꺄꺄꺄기
20214	티	꺄꺄꺄꺄
20214	티	꺄꺄
20215	꺄꺄꺄라기	나락꺄꺄꺄꺄라
20215	꺄꺄꺄라기	보리꺄꺄꺄라
20216	꺄꺄꺄	꺄꺄꺄
20217	꺄꺄꺄꺄	새꺄꺄꺄라 꺄꺄꺄
20218	꺄꺄꺄꺄꺄	꺄꺄꺄꺄
20219	꺄꺄꺄	꺄꺄꺄
20220	꺄꺄꺄	꺄꺄꺄
20221	꺄꺄	꺄꺄꺄꺄꺄(꺄꺄 꺄꺄꺄꺄)
20221-0-1	-을	꺄꺄 꺄꺄꺄꺄
20222	꺄꺄꺄꺄	꺄꺄꺄꺄
20223	꺄꺄꺄꺄	꺄꺄 꺄꺄꺄꺄
20223	꺄꺄꺄꺄	꺄꺄 꺄꺄 꺄꺄꺄꺄꺄꺄라
20223	꺄꺄꺄꺄	꺄꺄꺄꺄꺄라
20223-0-1	-으로	꺄꺄꺄꺄 꺄꺄꺄꺄

2.1.3 방꺄 꺄꺄꺄

20301	방꺄	방꺄 꺄꺄꺄꺄
20302	꺄꺄꺄꺄꺄	꺄꺄꺄꺄꺄꺄
20303	방꺄꺄꺄꺄	*
20304	방꺄꺄꺄	*
20305	꺄꺄꺄꺄꺄	꺄꺄꺄꺄꺄꺄
20306	꺄꺄꺄꺄꺄	*
20307	꺄꺄꺄	꺄꺄꺄꺄
20308	꺄꺄꺄꺄꺄	꺄꺄꺄꺄
20309	꺄꺄꺄꺄꺄꺄	꺄꺄꺄꺄
20310	꺄꺄꺄꺄꺄	꺄꺄꺄꺄꺄꺄 꺄 꺄꺄 꺄꺄꺄
20311	꺄꺄	꺄꺄꺄꺄
20311	꺄꺄	꺄꺄꺄 꺄꺄꺄꺄꺄
20312	보꺄꺄꺄꺄	보꺄꺄꺄꺄꺄

20313	왕겨	왕:제
20314	쌀겨	죽째
20315	검불	거무적
20315	검불	찢지레기
20315	검불	천지가 거무저기 재:이따
20316	겹질	겹떼기라(=사과 겹질)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씩
20402	참쌀	참쌀
20403	멥쌀	멥쌀
20404	쌀보리	쌀보리
20405	조	서:숙
20406	차조	찰서숙
20407	메조	메서숙
20408	좁쌀	서:숙싸리라
20409	잘다	잘지요
20410	조이삭	서숭모개
20411	수수	쭈시
20411-1	붉은색 수수	술갱이쭈시
20411-2	장목수수	쌀쭈시
20411-3	찰수수	찰쭈시
20411-4	메수수	메쭈시
20412	수수깡	쭈시때
20413	옥수수	강냉이
20413	옥수수	깡냉이라
20413-1	찰옥수수	찰강냉이
20413-2	메옥수수	메강냉이
20414	귀리	기보리
20415	메밀	메무리고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찌가
20417	콩깍지	콩겹떼기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메주 다라나:따
20419	매달다	메주 단다
20420	떠우다	떠운다
20421	곰팡이	곰:팡이
20421	곰팡이	곰:팍찌라고도
20421	곰팡이	곰:팡이가 썰른다
20421	곰팡이	곰:팍찌가 씨러따
20422	강낭콩	봉콩이라
20423	콩기름	콩기름
20424	깨	깨로
20424-1	참깨	참깨
20424-2	들깨	들깨 가꼬도 허고
20425	고소하다	꼬시지요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라 그래
20502	나물	너물 캔다
20502-1	나물(밭)_재료	바테 너물 캐로 간다
20502-1	나물(밭)_재료	반너물
20502-2	나물(밭)_반찬	너물 무치나:따
20502-3	나물(들)_재료	드:레 너물 캐로 간다
20502-4	나물(들)_반찬	너물 무친다
20502-5	나물(산)_재료	산너물 캐로 간다
20502-6	나물(산)_반찬	산너물 무치나:따
20502-6	나물(산)_반찬	너물 무치가:꼬
20503	푸성귀	푼니파리네
20504	다듬다	따듬는다
20505	반찬	반차니라
20505	반찬	경개라고도(장 따위 짠 것)
20506	무	무시
20507	썰다	썰:라
20508	무청	무시이파리라
20508	무청	무시입씩
20509	시래기	씨레기
20510	무말랭이	무시말랭이라(+ 신)
20510	무말랭이	무시말랭이라
20510	무말랭이	그냥 씨:러서 물룬다 그랜는
20511	장다리무	디(+ 구)
20512	배추	짱다리
20513	고갱이	배:추
20514	오이	배:추속:
20514	오이	애:
20515	오이지	무래
20516	오이소박이	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쏘배기지
20516	오이소박이	무래쏘새지
20517	가지	애:쏘새지
20518	호박	까:지
20519	고구마	호:박
20520	감자	고:구매
20521	우엉	감자고
20521	우엉	우봉
20522	파	우봉
20523	고추	패
20524	시금치	고치
20525	미나리	시금치
20526	부추	미나리
20527	상추	소:풀
20528	마늘	상추
20529	생강	마늘
20530	냉이	생강
		나상구

20531	달래	달롱개
20532	도라지	돌가지
20533	더덕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바비라
20602	찬밥	씨근밥
20602-1	더운밥	파신밥
20603	조밥	서:숙빔
20604	누룽지	감바비라(말린 것)
20604	누룽지	누룽밥
20605	눌은밥	송님밥
20606	송농	송님
20607	뜨물	뚜물
20608	김(蒸氣)	짐:
20609	갱죽(羹粥)	씨레기주기고
20610	싱겁다	싱겁찌요
20611	국수	국씨
20612	칼국수	칼국씨라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국씨라
20613	건더기	건데기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양:님
20615	꾸미	양님을 여:야제
20616	미역	미역 여:꼬
20617	김(海苔)	지:미라
20618	수제비	수제비
20619	끼니	한 때도 몸:무거따
20619	끼니	때꺼리라
20620	미음	땀:
20620-1	(미음을)끓이다/쭈다/삶다	끼리 쥐:따
20621	엿기름	질금
20622	식혜(食醴)	단바비라
20622	식혜(食醴)	단술
20623	식해	*
20624	달다(甘)	달지요
20625	가루	가리라
20625-0-1	-에	가리에다가
20625-0-2	-을	가리를
20625-0-3	-도	가리도
20626	밀가루	밀가리
20627	밀기울	지울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리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장: 여:코
20702	된장	덴:장
20703	고춧가루	고치까리
20704	고추장	고치장
20705	소금	소굼
20706	김치	짐치
20707	김장	짐장
20708	깍두기	짬:지라고도
20708	깍두기	새:발지라
20708	깍두기	쫓각찌라
20709	나박김치	싱건지
20710	담그다	짐치 담:는다
20710-0-1	-고	짐치 당:꼬 이따
20710-0-2	-어라	짐치 줌 다마라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주무린다
20712	버무리다	치덴다
20713	버섯	버서비라고도
20713	버섯	버십
20713-0-1	-이	버서비
20713-0-1	-이	버시비
20714	콩나물	콩지름
20714-1	콩나물	콩너물
20714-2	숙주(나물)	녹띠너무리라
20714-2	숙주(나물)	녹띠질그미라
20715	두부	뚜부라
20716	비지	비지
20716	비지	콩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떡
20717	달걀	다갈(+ 구)
20717	달걀	게란(+ 신)
20718	가래떡	국까래
20719	시루떡	시리떡
20720	송편	송펜
20721	빻다	송펜 맨든다
20722	흰떡	힌떠기고
20723	고물	고물
20724	팔죽	새알죽
20725	새알심	새알
20726	백설기	백설기도
20727	튀밥	뽕:티기라(+ 신)
20727	튀밥	티바비라고도(+ 구)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마걸리
20730	소주	소주도
20731	부침개	저:니지요
20731	부침개	푸쩐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떠기 뜨겁따
20802	가마솥	가매솔
20802-0-1	-을	가매소솔 썰는다
20802-0-2	-에	가매소테 바블 헨다
20803	아궁이	부석
20803-0-1	-이	부서기고
20804	그을음	끄시러미 시킴허다
20804	그을음	끄시럼
20805	불쏘시개	불쌀개라고도
20805	불쏘시개	불쏘시개
20806	연기	영개
20806-1	내(煙氣)	영개가
20807	그을리다	끄실러서
20808	부지깥이	부작뎡이
20809	부삽	불사까래
20809	부삽	사까래를
20810	넙다	맷따
20811	넙비	넙비
20812	그릇	그르기라
20812-0-1	-을	그르글
20813	뚜껑	넙비뚜까리라
20813	뚜껑	뚜병
20814	주발 뚜껑	복찌개
20815	사발 뚜껑	복찌개조
20816	술뚜껑	소뚜병
20817	밥주걱	주개
20818	술가락	수재라 (+ 신)
20818	술가락	수꾸락(+ 구)
20819	젓가락	제버미지 (+ 신)
20819	젓가락	저끄락 (+ 구)
20820	종지	장:종채기
20820	종지	장:종지
20821	보시기	김치쫄발
20821	보시기	중바리고
20822	뚝배기	뚝빼기네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래
20825	이남박	쌀빠가치
20826	바가지	박빠가치
20827	행주	행기포(+ 구)
20827	행주	행주(+ 신)
20828	행구다	행군다
20829	설거지	설거지(+ 신)
20829	설거지	그럭 씨꺼라(+ 구)
20830	개숫물	기맹물
20831	찌꺼기	찌끄레기라
20832	화로	하:리
20833	화롯불	하:리뿔

20834	부젓가락
20834	부젓가락
20834-0-1	-이
20834-0-1	-이
20834-1	부손
20834-1	부손
20835	다리쇠
20835	다리쇠
20836	석쇠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불찌끄라기라
*
불찌끄라기 업:따
*
*
부삽
삼바리
*
적썰
동구리
바구리
쌀괘
차:납
채:카리고
도리상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6	흙
20906	흙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암짚
20907-2	수짚
20908	미단이
20908	미단이
20909	여단이
20909	여단이
20910	덧문
20911	열다
20912	문고리
20913	자물쇠
20914	간히다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17	구멍
20917-1	취구멍
20918	찢다
20918	찢다
20919	구들

큰방
베름빠기라
다락
백짚
싱키둔다
기스가 나따
상체가 나따
글키따
깨끼따
돌:쪼구
암늪
쭙늪
미다지라고도
밀:창문
쌍다지(문짝이 두 개)
예:다지(문짝이 한 개)
덤무니라
문 녀러
몽꼬리라
쇠통
가치따
쇠때
장구지
몽꾸녀글
지구녁
찢는다
찌저라
방을 논는다

20919	구들	구들 노코
20920	흙받기	흑손
20921	흙손	*
20921	흙손	흑칼
20922	흙칼	호카리고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호카리고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호카리제
20923	바르다	보르고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지름 종우
20926	도배	백 빠른다
20926	도배	베름빡 보른다
20926	도배	되비헌다
20927	구석	구석찌
20928	굽도리	방 굽찌
20928	굽도리	굽찌
20929	깨끗하다	깨끗허다
20930	문지방	문턱
20930-0-1	-에	문터게 올라가지 마
20931	틈	문 썩가 버러진다
20931	틈	문 썩에 치이따
20932	가장자리	가:스로
20933	가운데	방 가운데
20934	시렁	실경이고
20935	살강	등반
20936	선반	섬바니라고
20937	서랍	빠비
20938	경대	갱:대
20939	거울	치갱이라고
20940	걸다	치갱 좀 거러라
20940	걸다	건:다고
20941	호룽	등잔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에 올라간다
21002	기와	기와짱
21003	기와집	기와집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대들뽕요
21007	서까래	쇠까래
21007	서까래	썩까래
21008	추녀	춘새끄터리라
21008	추녀	춘새라드냐
21009	처마	집쓰락
21010	오두막	오두막쩍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엉	날개
21012-0-1	-에서	날개에서
21013	용마름	용모름
21014	기스락	집쓰락끄터리에
21014	기스락	집쓰락끝
21015	낙숫물	집쓰랑물
21015-1	기스락물	집쓰랑물
21016	사닥다리	새다리
21017	용마루	짐모리때지
21018	토방	쭉따메 올라가가꼬
21018	토방	쭉따미나
21018	토방	똥:방
21018	토방	똥방
21019	땃돌	*
21019-1	섬돌	디뎀똥
21019-1	섬돌	똥방또리라
21020	마루	말리
21020-0-1	-을	말리에
21021	뒹마루	똥말리 얀말리
21021	뒹마루	*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추추똥
21023-0-1	-을	추추또를
21024	굴뚝	기:뚜기라

2.3.3 마당

21101	뜰	꼬바치라
21102	마당	마당
21103	넓다	너리다
21103	넓다	넙따
21103-0-1	-어서	넙버서
21103-0-1	-어서	넙러
21104	넙히다	넙편다
21104	넙히다	넙린다
21105	곶간	창:고(+ 신)
21105	곶간	고칸(+ 구)
21106	외양간	세마구
21107	마구간	*
21108	광	고방에
21108	광	고방이
21109	헛간	허간도
21110	쓰레기	쓰레기라
21111	장독대	장:꼬방이라
21112	장독 뚜껑	장:뚜까리
21113	변소	통시
21113-1	똥장군	장군

21114	울타리	울타리
21115	담	단:장
21115-0-1	-에	단:장에
21115-0-2	-도	단:장도
21116	사립문	새림문
21117	뒤곶	디야는
21117-0-1	-에서	뒤야네서
21118	바깥	바가치
21118	바깥	바가테가
21118-0-1	-에	바가테 나가
21119	모퉁이	짐모탱이
21120	모서리	모서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동:네
21202	윗마을	우똥 아래똥
21202	윗마을	우똥네 아래똥네
21203	이웃	이운
21203-0-1	-이	이우시 조:타
21203-0-2	-에	이우제 산:다
21204	마을가다	모실칸다
21205	우물	새:미
21206	두레박	두레박
21207	샘(泉)	참새미
21208	가(邊)	밭 가:세
21208-0-1	-을	바까슬
21208-0-2	-에	바까세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점:빵이라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홍정	홍정을
21214	거간꾼(중매인)	거간쟁이라
21214	거간꾼(중매인)	홍정꾼
21215	잔돈	자:근도느로
21215	잔돈	잔:도느로
21216	에누리	깡는다
21216	에누리	까까도라
21217	거스름돈	잔돈
21218	거스르다	잔돈 내 줘
21219	꾸다(借)	빌리 도라
21219	꾸다(借)	꾸어 도라
21219-0-1	-어야	빌리야 된다
21219-0-1	-어야	꿔 준다
21220	구두쇠	각쟁이라
21220	구두쇠	구두새
21221	말기다	매께 논는다

21222	나머지	잔돈
21222	나머지	나머치기
21222	나머지	나문돈
21223	덤	운:수
21224	몫	나 모가치
21224-0-1	-을	나 모가치를
21225	빚	비지
21225-0-1	-을	비즐
21225-0-2	-에	비제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심:바람
21228	두름	두름
21228-1	축	축
21228-2	채	축
21228-3	접	접
21228-4	쌈	쌈
21228-5	두름	하노쿰 두 오쿰
21228-5	두름	*
21228-6	단/못	다발
21228-7	단/못	*
21228-7	단/못	한 무데기라
21228-8	톳	토매
21228-9	모숨	주먹씩
21229	컬레	커리
21230	마지기	마지기고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밭은 100평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논은 200평
21231	꾸러미	줄
21232	그루	나무
21233	포기	폭씨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자리
21235-0-1	-을	자리를
21235-0-2	-에	자리에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 개	항 개
21236-2	한 되	한 데
21236-3	한 말	함 말
21237	둘	둘:
21237-1	두 개	두:개
21237-2	두 되	두: 데
21237-3	두 말	두: 말
21238	셋	세:
21238-1	세 개	세: 개
21238-2	세 되	세: 데
21238-3	세 말	세: 말
21239	넷	네:
21239-1	네 개	네: 개
21239-2	네 되	네: 데
21239-3	네 말	네: 말

21240	다섯	다선
21240-1	다섯 개	다서 깨
21240-2	다섯 되	다선 떼
21240-3	다섯 말	담마리라
21241	여섯	여선
21241	여섯	야선
21241-1	여섯 개	야서 깨
21241-2	여섯 되	야선 떼
21241-3	여섯 말	얌말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 개	일곱개
21242-2	일곱 되	일곱 떼
21242-3	일곱 말	일곱말
21243	여덟	야달
21243-1	여덟 개	야달개
21243-2	여덟 되	야달 떼
21243-3	여덟 말	야달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 개	아오개
21244-2	아홉 되	아홉 데
21244-3	아홉 말	아홉말
21245	열	열:
21245-1	열 개	열 깨
21245-2	열 되	열 떼
21245-3	열 말	열 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 개	수무개
21246-2	스무 되	수무 데
21246-3	스무 말	수무 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 개	서령개
21247-2	서른 되	서른 데
21247-3	서른 말	서른 말
21248	마흔	마온
21248-1	마흔 개	마웅개
21248-2	마흔 되	마온 데
21248-3	마흔 말	마옴 말
21249	쉰	신:
21249-1	쉰 개	싱:개
21249-2	쉰 되	신: 데
21249-3	쉰 말	심: 말
21250	예순	에순
21250-1	예순 개	야승개
21250-2	예순 되	야순 데
21250-3	예순 말	야숨 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 개	이릉개
21251-2	일흔 되	이른 데
21251-3	일흔 말	이름 말
21252	여든	야든

21252-1	여든 개	야등개
21252-2	여든 되	야든 데
21252-3	여든 말	야듬 말
21253	아흔	아은
21253-1	아흔 개	아웅개
21253-2	아흔 되	아은 데
21253-3	아흔 말	아흔 말
21254	백	배기조
21254-1	백 개	배깨
21254-2	백 되	백 떼
21254-3	백 말	뱅 말
21255	이백	이:배기조
21256	한둘	한두리
21256-1	한두 개	한두 개
21256-2	한두 되	한두 데
21256-3	한두 말	한두 말
21257	두셋	두세시
21257-1	두세 개	두세 개
21257-2	두세 되	두세 데
21257-3	두세 말	두세 말
21258	두서넛	두서너명
21258	두서넛	두서너시
21258-1	두서너 개	두서너 개
21258-2	두서너 되	두서너 데
21258-3	두서너 말	두서너 말
21259	서넛	서너시라고
21259	서넛	서너시
21259-1	서너 개	서너 개
21259-2	서너 되	서너 데
21259-3	서너 말	서너 말
21260	네댓	네다서
21260-1	네댓 개	네댄 개
21260-1	네댓 개	네다선 개
21260-2	네댓 되	네댄 떼
21260-3	네댓 말	네댄 말
21261	대여섯	대야선
21261-1	대여섯 개	대야서 개
21261-2	대여섯 되	대야선 떼
21261-3	대여섯 말	대야섬 말
21262	예닐곱	연닐곱
21262-1	예닐곱 개	여닐고 개
21262-2	예닐곱 되	여닐곱 떼
21262-3	예닐곱 말	여닐곱 말
21263	일여덟	칠팔 명
21263-1	일여덟 개	치팔 개
21263-2	일여덟 되	칠팔 떼
21263-3	일여덟 말	칠팔 말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 개	*
21264-2	여덟아홉 되	*

21264-3	여덟아홉 말	*
21265	여남은	여나무멧
21265	여남은	여나무시
21265-1	여남은 개	여나무 개
21265-2	여남은 되	여나무 데
21265-3	여남은 말	여나무 말

2.4 복식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매
21302	길이	치매 지리가
21303	저고리	저구리라
21304	색동저고리	새똥저구리
21305	두렁이	*
21306	무늬	무노
21307	고쟁이	꼬장중우
21307	고쟁이	꼬쟁이중우
21308	바지	쭈봉이라 (+ 구)
21308	바지	바지 아이요 (+ 신)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
21310	의복	오시라
21311	구겨지다	꾸부재기저따
21312	옷고름	오꼬름
21312	옷고름	고르미라
21313	단추	단추(+ 신)
21313	단추	단초(+ 구)
21314	동정	동전
21315	겉	꺼테도
21315	겉	꺼또
21315-0-1	-에	꺼테
21315-0-2	-을	꺼출
21316	홀옷	호도시라
21316	홀옷	호곁떼기
21317	겹옷	접꺼시라
21317	겹옷	저보시라
21318	잠방이	잠뱅이
21319	누더기	두데기
21320	거지	동낭치
21321	구결	동:낭 와따
21321	구결	동:낭 줌 주시요
21321	구결	어드로 안 땡기요
21322	조끼	째:끼
21323	내의	소:고시라 (+ 구)
21323	내의	내:보근(+ 신)
21324	껴입다	찌이버따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개바(/ㅂ/은 마찰음)
21327	호주머니	개와
21328	허리띠	허리끈 (+ 구)
21328	허리띠	허리띠라우 (+ 신)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복
21331	삿갓	사까시라
21331-0-1	-에	사까세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남바구
21334	유건	건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
21337	짚신	털메기
21337	짚신	집세기
21338	미투리	*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삼:는다
21339	나막신	나막씨니라
21339	나막신	나막썬
21340	설피(雪皮)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멍지배
21401-1	명주실	멍지실
21402	목화	멍:이라
21402-1	목화다래	다:래
21403	무명	멍:배
21403-1	무명실	멍:실
21404	씨아	씨야시라
21404	씨아	멍: 아슨는 기계라
21405	자세	자세
21406	물레	물래라
21407	베	배 찐다
21408	길쌈	질싸미라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짚고리	반지끄룩
21411	가위	가시개라
21411-0-1	-을	가시개를
21411-0-2	-에	가시개에
21412	마르다(裁)	짜린다
21412	마르다(裁)	짱그린다
21412-0-1	-고	짱그리고 이따
21412-0-2	-어라	짤라라
21412-0-2	-어라	짱그라라
21413	헝거플	헝거플
21413-0-1	-을	헝거플

21413-0-2	-에	형거폐
21414	바늘	바늘
21415	꽤다	바늘 낀:다
21415-0-1	-고	바늘 끼:고 이따
21415-0-2	-어라	끼:라
21416	바느질	바느지를
21417	재봉틀	틀
21418	끈	끈
21418	끈	끄내끼라
21419	노끈	노끈
21420	참바	노포쭈리라
21421	매듭	고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고로 낸:다
21422	보자기	보재기라
21423	이불	이우리라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캐라
21424	솜	맹:소캐
21425	포근하다	폭싹허다
21426	홀이불	혼니우리라
21426	홀이불	혼니불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솜이불	한니부리조
21428	누비이불	늬비이울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호창
21430	베갯잇	베개호창
21430-0-1	-에	베개호창에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
21433	방석	방석
21434	담요	담:노
21435	빨래하다	빨래 헐다
21436	빨랫방망이	방마니
21436	빨랫방망이	빨래 방마이라
21436	빨랫방망이	방마이~
21437	빨래터	빨래터라고도
21437	빨래터	새미또리라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대래비
21439-1	다림질	대래비지를
21440	인두	운:디
21441	다듬잇방망이	따듬방마이여
21441	다듬잇방망이	따듬방마이~
21442	다듬잇돌	따듬뿔
21443	다듬이질	따듬지를

2.5 민속

2.5.1 세시풍속

21501	설날	설:라리라
21502	설	설:
21503	선달 그믐달	서:딸그믐나리라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오래
21505-0-1	-는	오래는
21505-1	작년	장녀니라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맹년
21505-4	후년	후:맹년
21505-5	내후년	저후맹년
21506	작은설	*
21507	웃	유:치라
21507-0-1	-을	유:출
21507-0-2	-에	유:체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유까라게
21508-1	도	때:
21508-2	개	캐
21508-3	걸	컬
21508-4	웃	유:치꺼여
21508-5	모	모
21509	단동	*
21509-1	외동무니	도그로 간다
21509-2	두동무니	쌍으로 간다
21509-3	석동무니	*
21509-4	녁동무니	*
21509-5	막동	망마리라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초하래보름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달집
21512	망월	달집 진:는다
21513	취불놀이	지뿔노리
21514	자치기	재치기
21514-1	작은 막대	짜린재
21514-2	긴 막대	진:재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치될 백쫑
21517	팽과리	깡:사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새:꺼리
21520	무당	무:당더리라
21520	무당	당고리여
21520	무당	당골래가

21520-1	박수	쟁문쟁이고
21521	고수레	고시내
21521-1	고수레!	패 고시내
21522	접쟁이	접쟁이
21523	상여(喪輿)	상구라
21524	굴건	천태구간
21525	제사	제:사조
21526	제기	제:기
21527	귀신	구:시늘
21528	도깨비	도깨비라
21528	도깨비	도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빠	소 꼬뽕이
21602	굴래	굴래
21603	명애	명애
21604	길마	*
21604	길마	소 등태라
21605	부리땅	땅:
21606	구유	세구시
21606	구유	여물통
21607	작두	작두
21608	풀	세:풀
21608	풀	세:깎도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세죽
21611	쇠죽바가지	여물바가치라
21612	수레	세구름마조
21613	끌다	끌꼬 간다
21613	끌다	끄:라
21613-0-1	-고	세가 끌:꼬 간다
21614	바퀴	발통
21615	새끼(繩)	사나꾸라
21615-1	새끼(짐승의)	대:지새끼
21616	망태기	망태
21617	떡둥구미	두꿈마리
21618	거적	꺼제기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사짜리
21621	자리틀	자리트리고
21621	자리틀	*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곁다/매다	사짜리 친다
21622	왕골	골:
21623	삼태기	거름소쿠리라
21623-1	짚 삼태기	거렁치
21623-2	싸리 삼태기	산태미

21624	명석	덕씩
21625	어레미	얼게미
21625-1	고운체	곰방체
21625-2	굵은체	체
21626	대장장이	불무쟁이라
21626	대장장이	성:낭쟁이라
21627	대장간	불무간
21627	대장간	성:낭까네 간다
21628	풀무	풍노로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망치로
21631	갈퀴	까구리
21632	집게	찍개
21633	장도리	쪽빨망치
21633-1	노루발	쪽빠리지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베서
21635	도끼	도치
21636	자루(柄)	자리지
21636-0-1	-을	도치 자리를
21636-0-2	-에	도치짜리에
21637	갈고리	꼬:깁이
21638	썰기	썰:기를
21639	송곳	송:굳
21639-0-1	-에	송:구테 찢리따
21640	뽕죽하다	쫓:뽕허다
21641	숫돌	수틀
21641-0-1	-에	수트레
21642	맷돌	풀매 (+ 작은 것)
21642	맷돌	매또리 (+ 큰 것)
21642-1	수쇠	맬 중세라고
21642-2	암쇠	암:놈 중노미라고
21643	지개	지개
21644	발채	바:지개
21645	지개 작대기	바:작때기
21646	막대기	막뎡이라고도
21647	몽둥이	몽뎡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리
21701	빗자루	비찌락
21702	광주리	깡저리
21703	소쿠리	소쿠리
21704	함지	함지
21705	폴비	솔:
21705-1	귀얄	소:른
21706	독	추머리(+ 작은 것)

21706	독	도가지라 (+ 큰 것)
21706-0-1	-에	장:또가지에
21707	물독	무랑
21708	항아리	도가지가 (+ 구)
21708	항아리	항아리(+ 신)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동이	사:구
21710	물동이	저박찌라 (+ 납작한 것)
21710	물동이	사:고 (+ 납작한 것)
21710	물동이	물뚱우 (+ 긴 것)
21711	파리	따바리라
21711	파리	또바리라
21712	웅기	웅:구가
21713	표주박	죽빠가치
21713	표주박	자리바가치
21714	키(箕)	챙이
21715	떡살	*
21716	다식판	*
21717	시루	시리
21717-0-1	-을	시리틀
21717-0-2	-에	시리예
21718	시룻밑	시리민
21718	시룻밑	시리미치라
21718-0-1	-에	시리미테
21719	시룻번	시리뻔
21720	부싯돌	*
21720-0-1	-을	*
21721	부시	*
21721	부시	부시
21722	부싯깃	*
21723	담배	담:배라
21724	담뱃대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설:때
21725	담배설대	담배설때
21726	대통	담배꼭찌
21727	물부리	물쭈리
21728	담배쌈지	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리
21732	가락지	까락찌
21732	가락지	반지
21733	비녀	비네
21734	참빗	참비치랑깨
21734-0-1	-을	참비츨
21734-0-2	-에	참비테
21735	얼레빗	얼게비빈
21736	세숫대야	세수때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툼마리	도툼마리

21739	활대	철기신때
21740	잉앗대	잉애때
21741	부티	부:태
21742	도롱이	접쌀(+ 여자용)
21742	도롱이	우:장(+ 남자용)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망
21802	이마빠기	이망빠기 불거저따
21803	눈자위	눈꾸서기라
21804	검은자위	꺼멍창
21805	흰자위	힌창
21806	눈꺼풀	눈까주기라
21806	눈꺼풀	눈까부리라
21806	눈꺼풀	눈까부리 후:히다
21807	거적눈	꺼제기누니라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피
21808-0-1	-이	눈썹비
21809	속눈썹	눈썹비라
21809-0-1	-이	눈썹비
21810	눈두덩	눈뚜더기 부서따
21811	안경	앵:깡이라
21812	안경집	앵:깡지비라
21813	돋보기	도빠기
21814	주름살	주름
21814-0-1	-이	주루미
21815	엷되다	에레보인다
21815	엷되다	절머보인다
21816	수염	씨염
21817	구레나룻	굴래씨염
21817-0-1	-을	굴래씨여들
21818	코	케
21818-0-1	-이	케가
21819	콧수염	케씨염
21820	코딱지	케딱쟁이
21821	콧구멍	케꾸넉
21821-0-1	-을	케꾸녀글
21821-0-2	-에서	케꾸녀아 피가 난다
21822	콧물	캠물
21823	입술	입씨리라
21823-0-1	-에	입씨레
21824	다물다	이블 딱 오무리고 이따
21824	다물다	이블 딱 다무리고
21825	어금니	도구텅니

21826	덧니	던니
21827	휘파람	히깨 (+ 구)
21827	휘파람	히빠람 (+ 신)
21828	침	춤
21829	삼키다	꼴딱 생긴다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팬:는다
21831	빨다	패:타라
21832	혀	썰
21832	혀	썰빠닥
21833	헛바늘	썰빠늘
21834	긋불	기뻐
21835	귀고리	기거리
21835-1	귀걸이	기마개
21836	귀지	기밥
21837	귀이개	기오지개
21837	귀이개	교:지개
21837	귀이개	기호지개
21838	소리	소리가
21839	엿듣다	여:뜯는다
21840	귀청	기꼼마기
21840	귀청	기창 나가거따
21841	귀밑	*
21841-0-1	-에	*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기미가
21844	주근깨	주궁깨라
21844	주근깨	까무깨
21844	주근깨	까무깨가 씨러따
21845	턱	테기라
21846	턱수염	씨여미라
21847	뺨	볼테기라 (+ 구)
21847	뺨	빠물 (+ 신)
21847	뺨	볼 (+ 구)
21847-1	볼	볼
21847-1	볼	볼테기라
21848	가름하다	잘쭈허다
21849	보조개	보조개가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
21851	비듬	비듬 (+ 신)
21851	비듬	지금 (+ 구)
21852	기계총	기계또기고
21853	정수리	정:시리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4	대머리	버꺼지라
21855	고수머리	꼬시랭이라
21856	가르마	가름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름매를 탄다
21857	가마(旋毛)	가매
21857-1	가마(鼎)의 성조 · 음장	가매손

21857-2 가마(轎)의 성조 · 음장
 21857-3 가마(窯)의 성조 · 음장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 · 음장
 21858 뒤통수
 21859 뒷덜미
 21860 목
 21861 먹살

가:매
 옹:구꼴
 가마니
 디:꼭찌
 들매를
 목추리
 목쌀

2.6.2 상체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2 밀치다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10 콩팔
 21910 콩팔
 21910-0-1 -에
 21910-0-2 -을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4 손툇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21918 왼손잡이
 21919 엄지손가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2 약손가락
 21923 새끼손가락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26 손아귀
 21927 손목
 21927 손목
 21928 뺨
 21928 뺨

어깨
 밀친다
 밀치기를 헨다
 저트랑이라
 등거리
 압까심
 다:미 절린다
 갈:기 뼈
 허파
 쓸개는
 콩파치라
 콩팔
 콩파테
 콩파출
 포리라
 폴꿈마리
 폴짱을 찌고 간다
 손툇
 오른손
 왼:손
 틀리조
 틀리서
 틀리서
 왼:작째비
 엄:지송꾸락
 검지송꾸락
 무맹지여
 새끼송꾸래기고
 *
 사:마기
 손 아구지
 홀모기라
 솜목
 집뺨 (엄지와 검지로 재는
 뺨)
 장:뺨 (엄지와 가운데손가락

21928	뺨	으로 재는 뺨)
21929	허리	뺨
21930	지팡이	허리를
21931	옆구리	지팡이
21932	간지럽다	여꾸리
21933	간지럼	근지랍따
21934	잔허리	간지래기를
21934	잔허리	그:뉴기
21935	근육	*
21936	배꼽	*
21937	목물	배꾸넥
		등물 친다

2.6.3 하체

22001	복사빠	복숭씨
22002	발가락	발꾸라기라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트비라
22005	냄새	냄:새
22006	고린내	꾸른내가
22007	굳은살	모시 배킨다
22008	정강이	장갱이라
22008	정강이	압짱갱이라
22009	종아리	장:딤지
22010	장딤지	장:딤지
22011	회초리	헤:초리로
22012	무릎	물팍
22012-0-1	-을	물과글
22012-0-2	-에	물과게
22013	오금	오금쟁이
22014	엉덩이	엉:덩이라
22014	엉덩이	궁:덩이
22015	궁둥이	궁:덩이를
22015	궁둥이	궁:덩이
22016	불기	궁:덩이라
22017	멍	멍
22018	멍울	몽오리가
22019	가랑이	가랭이를
22020	사이	새에
22021	살	사태
22021-0-1	-이	사치
22021-0-2	-을	사출
22022	사타구니	애기 사태
22023	가래뚱	가래투리가
22023-0-1	-을	가래투리를
22024	허벅다리	허벅치
22025	넓적다리	허벅치라

22026	가부좌(跏趺坐)	양:발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양:발 잔: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 신)
22101	감기	개집머리 (+ 구)
22102	기침	지침
22103	채채기	채치기
22104	사레	사:레가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레가 들리따
22105	팔꼭질	포꼭찌리라
22106	트림	트름
22107	곰보	곰:보라
22108	천연두	손니미라
22109	여드름	이드리미라
22110	학질	푸썸
22110-1	하루거리	푸썸헌다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메느리씨미고
22111	홍역	홍진헌다
22112	볼거리	볼:치기
22113	땀띠	땀:떼기
22114	두드러기	두드레기
22115	버짐	버짐
22115-1	마른버짐	모린버짐
22115-2	진버짐	세버짐 이꼬
22115-3	도장버짐	도래버짐
22116	문둥이	문:덩이
22116-1	문둥병	문:등뽕
22117	부스럼	부시레미라
22117-1	종기	궁:고시 나따
22118	고름	고르미
22119	곰기다	몽오리가 생긴다
22119	곰기다	몽오리가 서따
22119	곰기다	몽오리가 생긴다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사:파리
22122	언청이	월:챙이
22123	소경	봉:사조
22123-1	당달봉사	당다리
22124	애꾸	보리미 (한 달에 보름만 보기 때문)
22125	눈곱	눈꺼찌리라고도
22125	눈곱	눈꺼떼기가
22125	눈곱	눈꼽땡이 따꺼라

22126	다래끼	다리깨가 나따
22126-1	다래끼	그냥 다리깨가 나따
22126-2	다래끼	다리깨라
22127	절름발이	절룩빠리라
22128	곱사등이	곶쌌
22129	귀머거리	먹:뽀라 (+ 구)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라 (+ 신)
22130	말더듬이	더디미라
22131	병어리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잠탱이
22133	줄리다	자몬다
22134	하품	하푸미 난다
22135	줄음	자미 쏘다진다
22135-0-1	-을	*
22135-0-2	-에	*
22136	삼꼬대	허쏘리

2.7 육아

22201	입덧	입떠시
22201-0-1	-을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간나이
22203	어린아이	애기라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
22205	눅히다	니핀다
22206	계집아이	가시내
22206	계집아이	가이내
22207	예쁘다	예:뽀다
22208	사내아이	머이매 나따네
22208	사내아이	머시매
22209	아우 타다	아시를 탄다
22209-1	아우보다	터 포라따
22210	야워다	예비저따
22211	쌍둥이	쌍땡이
22211	쌍둥이	쌍딩이
22212	오줌	오지믈
22213	똥	똥을
22214	기저귀	사뚜데기
22214	기저귀	사뚜땡이를
22215	뉘다(排便)	니인다
22216	방귀	방:구
22216-1	뀌다	방:구를 끼인다
22217	구린내	꾼내가
22217	구린내	꾸른내가
22218	구리다	꾸리다
22219	포대기	두데기
22220	기지개	지지게

22220-1	가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개를 선다
22221	거짓말	거:짐말
22222	남부끄럽다	남부끄럽따
22223	겁쟁이	겁쟁이
22224	불쌍하다	짤:허다
22224	불쌍하다	불쌍허다
22225	죄암죄암	잠:잠:
22226	곤지곤지	진진
22227	따로따로	서따!
22228	도리도리	도래도래
22229	짜짜꿍	짜:짱
22230	부라부라	불미야 불미야 (좌우)
22231	결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따박따박
22233	넘어지다	자빠저따
22234	곤두박질	궁그라저따
22235	안기다	보등긴다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버들피리라
22238	숨바꼭질	수막꼭찌리라
22239	소꿉놀이	바꿉사리
22240	사금파리	사금파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참연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걸리:따
22243	고누	꼰
22244	땅뺨기	땅뺨기
22245	팽이	뺨도리
22246	딱지치기	딱찌치기
22247	구슬	다마
22248	그네	군데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군데 뒸다
22249	밑신개	밭:파니지
22250	굴렁쇠	동태
22251	굴리다	굴린다
22251-0-1	-고	굴리고 땡긴다
22251-0-2	-어야	동태로 마니 굴리 포리 아
22252	자전거	푸다
22253	목말	자정거네요
22254	말타기	목 태와쥬
22255	달음박질	말타기
22256	썰매	다름치기를 잘 한다
22256-1	얼음울(썰매를) 지치다/타다	썰매
22256-2	송곳	썰매 타로 간다
22257	엄살	송:구치라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
22258	부아	엄살 부린다
		부애가 난다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22302	어머니	어매
22302-1	어머니(호칭)	어매!
22303	할아버지	하라씨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씨!
22304	할머니	할매
22304-1	할머니(호칭)	할매!
22305	남편	서방이라
22305-1	남편(호칭)	애 !
22305-1	남편(호칭)	봉우니 주가아부지(아이 이 름이 포함된 호칭)
22306	아내	우리 마:누래라
22306	아내	우리 각씨라
22306-1	아내(호칭)	주구매!
22306-1	아내(호칭)	봉우니 주구매!
22307	형	우리 생이라
22307-1	형(호칭)	생이야
22308	아우	동생이라
22308-1	아우(호칭)	이름 부름 (어릴 때)
22308-1	아우(호칭)	동생 (나이 들어서)
22308-1	아우(호칭)	봉:강똥생 (' 봉강 ' 은 동생 의 처갓집 지명)
22309	누나	누니미라
22309-1	누나(호칭)	누님!
22310	누이	동생이라
22310-1	누이(호칭)	이름을 부름
22310-1	누이(호칭)	배처니똥생(' 배처니 ' 는 동 생의 택호)
22311	자식	자서기라
22312	맏아들	크나들
22312	맏아들	장:남
22313	맏딸	큰딸
22314	막내	막때~이
22314	막내	막똥아!
22315	오빠	오래비 (+ 구)
22315	오빠	오빠라 (+ 신)
22315	오빠	오랍씨 그러고 (제보자가 어 릴 때, 할머니 등이 사용하 던 말)
22315-1	오빠(호칭)	오래비!
22316	언니	언니라(+ 신)
22316	언니	생이라(+ 구)
22316-1	언니(호칭)	언니!
22316-1	언니(호칭)	생이!
22317	아비	이름을 부름

22317	아비	머:시주가부지 (아이 이름 포함)
22317-1	아비(호칭)	머:시 애비야
22317-1	아비(호칭)	애비야
22318	어미	머:시 에미 (아이 이름 포함)
22318	어미	머:시때기 (택호 이용)
22318-1	어미(호칭)	아이 야야!
22318-1	어미(호칭)	머:시에미야
22318-1	어미(호칭)	야야!
22318-1	어미(호칭)	에미야
22319	손자	손자요 (+ 신)
22319	손자	손지라 (+ 구)
22319	손자	아들손지
22320	손녀	손지라 그러고
22320	손녀	딸손지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김서방 박씨방
22322	외손자	외손지
22323	외손녀	외손녀
22324	꾸짖다	꾸지러를 험다
22324	꾸짖다	호늘 내야
22324	꾸짖다	꾸지러를 시킨다
22324-0-1	-고	
22324-1	나무라다	나무랜다
22325	총각	총:가기
22326	처녀	처:재
22326	처녀	처:녀고
22327	혼인	게론허재 (+ 신)
22327	혼인	호년헌다 (+ 구)
22327-1	혼인식	게론식 헌다 (+ 신)
22327-1	혼인식	호년식 헌다 (+ 구)
22328	혼인 잔치	게론잔치 헌다 (+ 신)
22328	혼인 잔치	호년잔치 헌다 (+ 구)
22329	장가가다	장:개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집간다
22330	혼숫감	혼수찌미지요
22331	함	함:지고 간다
22331	함	하:미라
22332	겹사돈	겹싸둔
22333	새색시	새각씨
22333-1	새색시(호칭)	새댁!
22334	시아버지	씨야부지
22334	시아버지	씨야배
22334	시아버지	시아부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부님
22335	시아머니	씨여무니
22335	시아머니	씨여매
22335	시아머니	씨여무님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무니

22336	비위	비우를
22337	아주머니	서방니미라
22337	아주머니	씨숙
22337-1	아주머니(호칭)	씨승님
22338	서방님	씨야재
22338	서방님	서방니미라
22338-1	서방님(호칭)	아:재 그래
22339	도련님	되름
22339-1	도련님(호칭)	되름! 그래
22340	형님	동세
22340-1	형님(호칭)	성님! (+ 구)
22340-1	형님(호칭)	행님! (+ 신)
22341	시누이	씨누라
22341-1	시누이(호칭)	성님도 (+ 구)
22341-1	시누이(호칭)	행님 (+ 신)
22341-2	아가씨	애기씨라(+ 양반)
22341-2	아가씨	동승 (+ 평민)
22341-3	아가씨(호칭)	동승 그래요
22342	올케	올케라
22342-1	올케(호칭)	어:디 올케
22343	매형	매부
22343-1	매형(호칭)	매부!
22344	매제	매제
22344-1	매제(호칭)	어디 매제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호칭)	가운데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호칭)	자:근크나부지!
22346	큰어머니	큰크너무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붕:강크너무니 (택호로 부름)
22346-1	큰어머니(호칭)	어:디크너무니
22346-2	아버지 둘째 형의 아내(호칭)	택호로 부름
22346-3	아버지 셋째 형의 아내(호칭)	택호로 부름
22347	큰집	큰지비라
22348	작은아버지	자그나부지지요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너무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그너무니!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당:수기조
22351-1	아저씨(호칭)	당:숙
22352	아주머니	당:고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고모!
22353	조카	조캐라
22354	조카딸	조캐딸
22355	고모	고모지요
22355-1	고모(호칭)	고모!
22356	고모부	고숙

22356-1	고모부(호칭)	고숙!
22357	고종	고종사:춘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22359	이모부	이숙
22359-1	이모부(호칭)	이숙
22360	이종	이종사:춘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촌!
22362	외숙모	외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송모!
22363	외중	에사:춘
22364	외할아버지	에하라씨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에하라씨!
22365	외할머니	에할매
22365-1	외할머니(호칭)	에할매!
22366	장인	재:인
22366-1	장인(호칭)	재:이니라
22367	장모	장:모
22367-1	장모(호칭)	장:모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9	처남댁	처남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남댁
22369-1	처남댁(호칭)	행니미라
22370	홀아비	호래비
22371	홀어미	가:부
22371	홀어미	호래미
22372	계모	이:부데미
22372	계모	계:모
22372-1	계부	이:부대비
		붕:강짱세니라(처가가 '붕
22373	아저씨	강 ' 이고, 성이 ' 정 ' 씨인
		동네 남자 어른)
22373	아저씨	정:센 김 센 (성이 ' 정 ' 씨
		이거나 ' 김 ' 씨인 동네 남
		자 어른)
22373-1	아저씨(호칭)	붕:강짱센!
22374	아주머니	정:센집 (남편의 성씨가 ' 정 ' 씨인 동네 여자 어른)
		정:센떡 (남편의 성씨가 ' 정 ' 씨인 동네 여자 어른)
22374	아주머니	아지매, 아짐
22374	아주머니	아지미라
22374	아주머니	먼:정센떡
22374	아주머니	배처니떡 (친정이 ' 배천 ' 인 동네 여자 어른)
22374-1	아주머니(호칭)	배처니떡!
22375	사나이	청녀니라

22376	영감	영:감
22376-1	할머니를 낮추어 말할 때(저 념의 할 망구)	할뭍
22376-1	할머니를 낮추어 말할 때(저 념의 할 망구)	할망구 (' 할뭍 ' 보다 더 낮 춘 말)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이를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는
22402	민물고기	뭍물꼬기라
22403	피라미	피리라
22404	지느러미	지느레미
22405	아가미	아구미를
22405	아가미	아궁이
22406	창자	창사라
22407	송사리	송:사리
22408	해엄	해여믐
22409	메기	메:기
22410	자라	남생이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꼬라지라
22413	개구리	깨고리
22414	울챙이	울:챙이
22415	두꺼비	뚜깨비
22416	거머리	거:머리
22417	다슬기	물꼬동이라
22418	우렁이	농꼬동이라
22419	고둥	고둥
22420	달팽이	달:팽이
22421	새우	쌔비
22421-1	새우(대)_민물	징게미라
22421-2	새우(소)_민물	쌔비
22421-3	새우(대)_바다	대수리라
22421-4	새우(소)_바다	쌔비라
22422	새우젓	새비저지라
22422	새우젓	쌔비저지라
22422-0-1	-이	새비저지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가재미라고도
22427	가자미	넙찌
22428	멸치	멸치
22429	명태	멥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
22429-3	노가리	*
22429-4	북어	부거
22429-5	생태	생태라고도
22430	조기	조구
22431	도미	돔:
22432	뱀장어	장애라
22433	낙시	낙쭈
22434	미끼	이까비라
22435	낙싯대	낙쭈때
22436	얼레	연짜새
22437	조개	조개요
22438	소라	소:래고동이라
22438	소라	소:래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거지라
22501	벌레	굶:벙이
22502	날벌레	하리사리
22503	파리	포리고
22503-1	쉬파리	시포리
22504	쉬슬다	시 씨러나:따
22505	가시	벌거지가 이러따
22506	진딧물	비리
22506	진딧물	똥무리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똥무리 이러따
22507	잠자리	남:자리라
22508	방아깨비	메떼기라
22508	방아깨비	풀메떼기고
22508	방아깨비	송장메떼기
22508-1	암컷	*
22508-2	수컷	*
22509	메뚜기	나랑메떼기
22510	여치	연:치
22511	사마귀	사:마구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키운다
22513	땅벌	땡:뻘
22514	나비	나부라
22515	하루살이	하리사리
22516	풍뎅이	핑깅이

22517	모기	모:구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부리 나라땡긴다
22521	반딧불	개똥부리라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지폐굼:벵이라
22524	구더기	굼:벵이
22525	노래기	싸:네기라
22525	노래기	싸:네기
22526	그리마	거름재라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가리
22530	진드기	앵:이
22531	벼룩	베르기라
22532	이(蟲)	이:
22532-1	서캐	썩:
22532-1	서캐	썩까레라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챙이
22534	귀뚜라미	기또래미
22535	누에	나:
22536	고치	고치
22537	번데기	깼데기
22538	지렁이	거:시렁이라
22539	회충(蛔蟲)	거시
22540	소금쟁이	여:짱수
22541	방개	물뽕쟁이

2.9.3 가축

22601	가축	집짱승
22602	암소	암:세
22603	송아지	세양치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움메:
22605	황소	쭉썩
22605	황소	부레기
22605	황소	세부레기
22605	황소	부락떼기도
22606	길들이다	질디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_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_그 자리에 서라	위:
22606-3	소 모는 소리_오른쪽으로 돌아	이리이리이리
22606-4	소 모는 소리_왼쪽으로 돌아	저리저리
22606-5	소 모는 소리_뒤로 물러나라	물러!
22607	쇠고기	세:계기라
22608	고기(肉)	계기 사로 간다

22609	둘치	부람
22610	꼬리	꼬랑뎡이
22611	망아지	말새끼라
22612	당나귀	당나구
22613	갈기	*
22614	돼지	대:지요
22614-1	멧돼지	산때지
22615	주둥이	대:지나발
22616	돼지 머리	대:지머리
22617	돼지우리	대:지막
22617-1	오래오래	똥:똥:똥:똥
22618	개(犬)	개:
22618-1	수개	썩개
22618-2	암개	암:개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생이
22621	고양이	게:라
22621	고양이	게:양이
22621-1	수고양이	썩개
22621-2	암고양이	암:께라
22622	토끼	테까니
22622	토끼	테까이~
22623	거위(鵞)	오:리라
22623	거위(鵞)	딱꺼위
22624	암탉	암따기 온다
22624	암탉	암타키 만:타
22625	병아리	뼈가리라
22626	모으다	모타라
22626	모으다	모투고 이따
22627	수탉	장딱
22627	수탉	장타클 자바라
22627-0-1	-이	장따기 온다
22628	벃(鷄冠)	베실
22629	부리	주뎡이라
22630	모이	모세
22630-0-1	-을	모세를
22630-1	모이다	모친다
22631	닭털	닥터러기라
22632	닭똥	닥똥
22632	닭똥	달구똥도
22633	어리	달구가리
22634	닭장	닥쩍 (+ 신)
22634	닭장	달구장태는 (+ 구)
22635	둥우리	알똥어리
22636	날개	썩뎡이
22637	깃	꼬랑뎡이라
22637-0-1	-을	닥꼬랑뎡이를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랭이
22702	살쾡이	썰가징가
22703	여우	여:수
22704	원숭이	원:생이라
22705	사슴	고라이~
22706	노루	노루라
22706-0-1	-이	노루가
22706-0-2	-을	노루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디제기라
22709	족제비	쭉제비
22710	뱀	뱀:
22711	도마뱀	도매뱀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무사	*
22714	생쥐	생:지라고도
22715	박쥐	뽉:찌새끼
22716	거꾸로	꺼꾸리
22717	다람쥐	다람쥐(+ 이중모음)
22718	새(鳥)	새:지요
22719	꿩지	새:꼬랑뎡이
22719	꿩지	새:꿩지라고도
22720	솔개	새드리
22720	솔개	솔갱이라고도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항:새
22724	소쩍새	소작새라
22725	꿩	꿩
22726	장끼	수꿩
22726	장끼	장꿩
22727	까투리	암:꿩
22727-1	꺼병이	꿩새끼라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빼꾸기	풀꼭새라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뚝부기	뚝뱅이
22732	올빼미	오빼미라
22733	까치	간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뎛	지덕
22735	뎛	지트리라고
22735	뎛	더기라고도
22735-0-1	-을	더글 나:따
22736	올가미	홀랑개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참꼬치라
22801	진달래꽃	창꼴
22802	철쭉꽃	개:꼴
22803	민들레	머심들레 (+ 구)
22803	민들레	민들레라 (+ 신)
22804	맨드라미	맨드래미라
22805	봉선화	봉:송아
22806	파리	하늘땡:까리라
22807	해바라기	해바래기
22808	꽃봉오리	꿈몽오리가
22809	시들다	씨든다
22810	질경이	빼뿌제미라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빼뿌제미
22810-2	질경이(식용(반찬) 이름)	빼뿌제미국 끼리 뭉는다
22811	빨기	빼비라
22812	비름	참비르른
22813	쇠비름	세비름
22814	썸바귀	씨분너무리라
22815	고들빼기	고들빼기라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고들빼기라
22815-2	고들빼기(식용(반찬) 이름)	고들빼기치:라
22816	고사리	꼬사리라
22817	고비	*
22817	고비	게치미
22818	도깨비바늘	도동노미라
22819	도꼬마리	게:꿈마리
22820	억새	억:쌔바치라
22820	억새	억:쌔푸리라고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도:로시라
22823	아주까리	피마자
22824	담쟁이	능갈나무라
22825	수세미	쭈세미
22826	덩굴	녕끄리
22827	덤불	녕끄랭이가
22827-1	가시덤불	까시쟁이바치라
22827-1	가시덤불	까이쟁이바치라
22828	잔디	떼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솔라무라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간:솔까지라
22904	솔가리	갈비
22905	그러모으다	글거야
22905	그러모으다	장짓는다(솔가리 모으는 것)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들개
22908	도토리	개:도토리라
22909	떡갈나무	개:도토리나무
22910	상수리	참도토리는(둥그렇다)
22911	옷	오찌니지
22911-0-1	-으로	오찌느로
22912	버드나무	능수버드리라(+ 구)
22912	버드나무	수양버들(+ 신)
22913	느티나무	정지나무라
22913	느티나무	정자나무라
22914	그림자	그림재
22914-1	그늘	그느리 저서
22915	숲	수피
22915-0-1	-을	수플
22915-0-2	-에	수페
22916	시원하다	시원허드라
22917	절레	절롱나무
22917	절레	절록
22918	침	칙
22918-0-1	-에	치게
22919	가지(枝)	가:지지요
22920	끝	가:지끄터리라
22920-0-1	-이	가:지끄터리가
22920-0-2	-을	나무끄터리를
22920-0-3	-에	나무크터리에
22921	삭정이	새:깻이
22921-1	삭정이를 탄다/꺾다/하다	새:깻이 따로 간다
22922	나무	나무는 (+ 신)
22922	나무	낭구라 (+ 구)
22922-0-1	-을	낭구를
22922-0-2	-에	낭구에
22923	나무하다	나무허로 간다
22923	나무하다	멜라무 허로 간다
22924	그루터기	끝텅
22924-1	그루터기	나락끝텅
22925	등걸	끝텅이라
22926	장작	장:작
22927	패다	도치로 쪼갬다
22928	부스러기	부수래기라
22929	숫	수땡이
22929-0-1	-이	수땡이가 만:타
22929-0-2	-을	수땡이를
22929-0-3	-에	수땡이에
22930	불잉걸	잉글링글허다
22930	불잉걸	부리 별:그러다

22930	불잉걸	불잉그락
22930	불잉걸	잉그락뿔
22931	쌈	우:미 난다
22931	쌈	쌈기 올라온다
22932	잇	이파리
22932-0-1	-을	이파리를
22932-1	잇사귀	입쌈기라
22933	가랑잇	모린이파리라
22934	뿌리	뿌랭키(+ 구)
22934	뿌리	뿌리(+ 신)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사가
23002	돌배	돌:배(+ 신)
23002	돌배	뽕:배(+ 구)
23003	복숭아	복숭
23004	곶감	꼬:감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뽕:감
23007	살구	쌀구라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노라
23012	모과	모개
23013	과일	가:일
23014	꼭지	꼭때기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쌩이
23015-2	팥밤	푸팥
23015-3	알밤	알:팥
23015-4	쌍둥밤	두토리쟁이
23015-4	쌍둥밤	세토리쟁이
23016	보늬	비늘
23017	호두	추자라고도
23017	호두	호두
23018	가래(秋子)	추자라고도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털구
23021	다래	산따래
23022	청미래덩굴	맹감나무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차매
23024	참외	왜
23025	딸기	딸:기 (+ 신)
23025	딸기	따:리라 (+ 구)

23025-1	딸기(밭)_재배	딸:기라
23025-2	딸기(밭)_야생	바딸
23025-3	딸기(들)_재배	딸:기라
23025-4	딸기(들)_야생	바따리라
23025-5	딸기(산)_재배	*
23025-6	딸기(산)-야생	산딸
23026	뱀딸기	깨미딸도
23027	마름(菱)	몰밤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뽕따리
23102	기슭	산미치라
23102-0-1	-에	산미테
23103	골짜기	상꼬랑이라 (+ 구)
23103	골짜기	산골짜기라 (+ 신)
23103	골짜기	꼬랑
23104	메아리	사니 따라 운:다
23105	고함	가:물 지른다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가:물 지른다
23106	묘	메:똥
23106	묘	며:
23107	뫼자리	메:짜리가
23107-1	광중	청:각꾸덕
23108	구덩이	구더글
23108	구덩이	구더기라
23109	비탈	까꾸막
23110	가파르다	꺼뿌러저따
23110	가파르다	꺼꾸러저따
23111	언덕	엉덕 (+ 소)
23111	언덕	어데기 어그라저따 (+ 다)
23111	언덕	어더기라 쏘리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지라 쏘리
23113	들(野)	드:리 넘따
23113-0-1	-에	드:레 간다
23114	벌	벌:파니라
23115	갈림길	두:갈래찌리라
23115	갈림길	세갈래찌를
23116	헤어지다	갈라저따
23117	바위	바구
23117-0-1	-을	바구를
23117-0-2	-에	바구에
23118	돌(石)	돌: (+ 신)
23118	돌(石)	도:키라 (+ 구)
23118-0-1	-을	도:글
23118-0-2	-에	도:케

23118-0-2	-에	도:레
23119	자갈	재가리라
23120	모래	모새
23120-0-1	-를	모새를
23121	진흙	질:호키라(+ 구)
23121	진흙	질:흑 (+ 구)
23121	진흙	진호키라 (+ 신)
23121-1	찰흙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버끔
23203	개운하다	개운허다
23204	도랑	물꼬랑
23204-1	봇도랑	보꼬랑
23205	둑	뚜기 터저따
23206	잠기다	쟁게따
23206	잠기다	쟁긴다
23207	개울	꼬랑무리라
23208	내(川)	냄:무리고
23209	미역 감다	모 끄는다
23209	미역 감다	모글 줌 까마야재
23209	미역 감다	목 줌 까마야재
23210	발가승이	깨덩이쟁이라
23210	발가승이	깨 버서따(+ 신)
23210	발가승이	깨덩이 버서따(+ 구)
23211	목욕하다	모욕헌다
23212	수채	해치꾸녕이라
23212	수채	꼬랑 친다
23213	개골창	꼬랭이라
23214	시궁창	해치꼬랑이라
23215	웅덩이	웅:덩이
23215	웅덩이	웅:덩이라
23215	웅덩이	뚝병
23216	수렁	수개라
23217	늪	*
23217-0-1	-에	*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나루터
23220	돛	돛
23220	돛	또출
23220-0-1	-에	또체
23221	돛대	짐때
23221-0-1	-에	
23222	돛배	또빠
23223	돛 줄	또쫄
23224	돛줄	따쫄

23225	거루	네 전는 배
23226	상앗대	살:때
23227	개펄	등이 난다 (썰물 때 드러난 개펄)
23227	개펄	빨빠다기라
23228	물	육찌에서
23228-0-1	-으로	육찌로
23229	밀물	들물
23230	썰물	썰물
23231	가라앉다	가라안는다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자서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해:너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보게
23301	새벽	새복
23302	새벽밥	새복빤 무꼬
23303	아침	아침
23303	아침	오나처게 (오늘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빤
23304	아침밥	아침빤
23305	점심	정:심
23306	저녁	저녁
23307	설빏하다	*
23307	설빏하다	설빏허니 너머 간다
23308	노을	복쌔 떠따
23308-0-1	-을	복쌔를
23309	불그레하다	빨:글허다
23310	해거름	해그름판
23311	땅거미	어시름든다
23311	땅거미	해그름파니 진다
23311	땅거미	어시름허다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우가
23315	추위	추우
23316	가을	가시리라 (+ 구)
23316	가을	가을 (+ 신)
23316-0-1	-에	가시레
23317	겨울	삼동도 (+ 다)
23317	겨울	게을 (+ 소)
23317-0-1	-에	삼동에
23317-0-1	-에	게으레
23318	얼음	어르미
23319	오늘	오느리

23320	내일	넬:
23321	모래	모래
23322	글피	고패
23323	그글피	그고패
23324	어제	어지께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후:제
23328	하룻날	초하리
23329	이튿날	초이틀
23330	사흘날	초살:
23331	나흘날	초날:
23332	닷셋날	초다썰
23333	엿셋날	초야썰
23334	이렛날	초이레
23335	여드렛날	초야드레
23336	아흐렛날	초아그레
23337	열흘날	초여틀
23338	하루	하리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살:
23341	나흘	날:
23342	닷새	다썰
23343	엿새	야썰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야드레
23346	아흐레	아그레
23347	열흘	여틀
23348	한나절	한나자리고
23348-1	반나절	반:나잘
23349	그믐	그믐
23349-1	그믐께	그믐께
23350	지금	시방
23350	지금	지금도
23351	아직	안중
23352	이제	인자
23353	이미	불썰
23354	요즈음	요새
23355	금방	금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해뻘치
23401-0-1	-이	해뻘치
23401-0-2	-을	해뻘칠
23402	따스하다	따시지요
23403	아지랑이	아지랭이라
23404	웅달	웅강이라고

23405	양달	양달쪽
23406	비(雨)	비가
23407	가랑비	가랑비고
23408	이슬비	이스래기
23408	이슬비	날:비(날리는 비)
23409	안개	양: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내기
23413	갑자기	갑짜기
23414	홍수	홍시 나:따
23415	번개	병:개
23416	천둥	네승
23417	벼락	베라글 친다
23418	무섭다	무섭찌
23418	무섭다	가:니 올라분는다
23419	함박눈	함방누니라
23420	싸락눈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눈발짜국
23422	진눈깨비	눔비
23423	우박	느:레
23424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해모리
23426	달무리	달모리
23427	둥글다	둥그리찌요
23428	은하수	은하수
23429	금성	새:별
23430	가뭄	가뭄
23431	마르다	모린다
23431-0-1	-어서	잘 몰라 조:타
23432	위	우예
23433	아래	미테
23434	왼쪽	엔:쪽
23435	아래쪽	오른쪽
23436	결	저트로
23436-0-1	-에	저테
23437	희오리바람	소소리바라미라
23438	북풍	북풍이
23439	남풍	남풍이
23440	동풍	동풍이
23441	서풍	서풍이

추가 어휘

=2	제동때기 (현재 사는 동네가 친정인 여자의 택호)
=2	송:곤니
=2	모:구집(삼 가운데 좋지 않은 것)
=2	도똥 (자리틀에 있는 돌)
=2	꼬장중우라
=2	철기신
=2	풍채중우(고쟁이와 달리 뒤가 터져 있음)
=2	옆구리에 실 썰른지는 몰라도 송꾸락에 베:접 든 중은 안다
=2	귀땅머리(귀 뒤로 땀은 머리)
=2	책밥이 많다
=2	서숙밥을 묵었는가 잔소리가 많다
=2	베기다(베이다)
=2	잠뜨슨
=2	자우린다
=2	징군다(짐을 지게 하다)
=2	통(김 8툰)
=2	안질깨
=2	덕씩이망 (주름이 많은 이마)
=2	국씩(석씩)
=2	허부랑이라(허방)
=2	나뭇짐 (장을 지어서)
=2	귀땅머리 마주 폰 사람(결혼한 사람)
=2	보리 녕친다(= 보리 찢다)
=2	장작 패는 데는 가도 이붓애비 떡 치는 데는 안 간다
=2	무드래기
=2	둥저리(대로 크게 만든 바구니 형태로 물고기 등을 담아 넣을 때 사용)
=2	망개방애라고 (소나무를 베어 메를 만들고 새끼로 묶어 여자들이 여럿이 등 그렇게 모여 앞소리에 따라 이 메를 들어올렸다가 마치 방아를 찢듯이 땅으로 내려쳐서 땅을 다지는 일)
=2	섬마섬마섬마
=2	누지르다(눌러 다지다)
=2	도리깨날
=2	두덕두덕 (=누덕누덕)
=2	씨야시나
=2	거시가 오짐을 찢다(뱃속이 불편한 경우)
=2	갈강니
=2	꼬부랭이(늙어서 등이 굽은 사람)
=2	수틀이망이라(앞으로 튀어나온 이마)
=2	계란 껌떡
=2	녕클이 많아서 밭매로 간다

=2 찢지래이 (가는 것)
 =2 달:깡달:깡이고 (앞뒤)
 =2 몸치
 =2 복짱꼬린 사람(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락 가래로 주그 집이로 지어다 나 뿌르고
 =2 배:집 (손가락 등에 끼인 작은 가시)
 =2 엉:치
 =2 매손 (맷돌 손잡이)
 =2 등짐헌다(벼를 베어 가지고 지고 들어오는 것)
 =2 꼬쟁이(막대기)
 =2 허벅찌가 뭉지:따
 =2 거:두 (나무를 자르는 큰 톱)
 =2 또닥또닥 주:따 (누덕누덕)
 =2 드렁거리 (밭가에 심는 작물)
 =2 자니미라 (아이들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병. 홍역보다는 약하다.)
 =2 잔비라고도(이슬비+ 가랑비)
 =2 동그람허다
 =2 악:쭈비가 막 따라진다
 =2 너무새(나물감)
 =2 해가 발라 좋다
 =2 매뎡기
 =2 올게심니
 =2 허벅찌에 아:리 배:따
 =2 껌떡개와
 =2 암니
 =2 대:문니
 =2 주개빼라 (주걱턱)
 =2 주개턱 (주걱턱)
 =2 머끄댕이 (머리채)
 =2 원작째비가 한 꼬랑에 서이가 들어가면 산청이 운다
 =2 원작째비가 낫질을 잘 헌다고
 =2 국밥(밥과 김치를 넣고 끓인 것)
 =2 뒀년(다음해)
 =2 냉갈내
 =2 흥갑싸댕기
 =2 지주머니(귀가 있는 주머니)
 =2 속개와
 =2 찌럭허다(=질척하다)
 =2 도리주머니(둥근 주머니)
 =2 손니망
 =2 은때다 (문지르다)
 =2 도오끼
 =2 감:주 (수정과)

제 3 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	테(輪)	테
31001-0-1	-이/가	테가
31001-0-2	-보다	테보다
31002	태(胎)	태
31002-0-1	-이/가	태가
31002-0-2	-보다	태보다
31003	떼(群)	떼
31003-0-1	-이/가	떼가
31003-0-2	-보다	떼보다
31004	때(時)	때
31004-0-1	-이/가	때가
31004-0-2	-보다	때보다
31005	틀(機)	틀
31005-0-1	-이/가	트리
31005-0-2	-보다	틀보다
31006	털(毛)	털
31006-0-1	-이/가	터리
31006-0-2	-보다	털보다
31007	글(文)	글
31007-0-1	-이/가	그리
31007-0-2	-보다	글보다
31008	컬(鬘)	커:리라
31008-0-1	-이/가	커:리
31008-0-2	-보다	컬:보다
31009	기(旗)	기
31009-0-1	-이/가	기가
31009-0-2	-보다	기보다
31010	귀(耳)	기:
31010	귀(耳)	귀:(이중모음)
31010-0-1	-이/가	기가
31010-0-2	-보다	기보다
31011	시(生時)	시
31011-0-1	-이/가	시를
31011-0-2	-보다	시보다
31012	쉬(蠅卵)	시:
31012-0-1	-이/가	시가
31012-0-2	-보다	시보다
31013	썰(鐵)	썰
31013-0-1	-이/가	썰가
31013-0-2	-보다	썰보다
31014	외:국(外國)	웨:국
31014	외:국(外國)	예:국

31014-0-1	-이/가	에:구기
31014-0-2	-보다	에:국뽀다
31015	왜:국(倭國)	애:놈
31015-0-1	-이/가	애:노미
31015-0-2	-보다	애:놈보다
31016	쉬:다(休)	신:다
31016-0-1	-이/가	
31016-0-2	-보다	
31017	쇠:다(설을~)	멍:절 신:다
31017-0-1	-이/가	
31017-0-2	-보다	
31018	배(布)	배:라고도
31018-0-1	-이/가	배:가 곱:따
31018-0-2	-보다	배:보다
31019	배(船)	배:라고
31019-0-1	-이/가	배:가 크다
31019-0-2	-보다	배:보다
31020	배(腹)	배:고
31020-0-1	-이/가	
31020-0-2	-보다	배:보다
31021	(떡)메	메:
31021-0-1	-이/가	메:가
31021-0-2	-보다	메:보다
31022	매(鞭)	매
31022-0-1	-이/가	매:가
31022-0-2	-보다	매:보다
31023	메:다(擔)	멘:다
31023-0-1	-이/가	
31023-0-2	-보다	
31024	매:다(繫)	맨:다
31024-0-1	-이/가	
31024-0-2	-보다	
31025	떼:다(分離)	텐:다
31025-0-1	-이/가	
31025-0-2	-보다	
31026	때:다(炊)	뎌:다
31026-0-1	-이/가	
31026-0-2	-보다	
31027	베:다(切斷)	벤:다
31027-0-1	-이/가	
31027-0-2	-보다	
31028	배:다(孕胎)	뵈:다
31028-0-1	-이/가	
31028-0-2	-보다	
31029	세:다(算)	센:다
31029-0-1	-이/가	
31029-0-2	-보다	
31030	새:다(漏泄)	샌:다
31030-0-1	-이/가	
31030-0-2	-보다	

31031	뒤(後)	디:
31031-0-1	-이/가	디:가
31031-0-2	-보다	디:보다
31032	되(升)	데:
31032-0-1	-이/가	데가
31032-0-2	-보다	데:보다
31033	게:(蟹)	게:
31033-0-1	-이/가	게:가
31033-0-2	-보다	게:보다
31034	개:(犬)	개:
31034-0-1	-이/가	개:가
31034-0-2	-보다	개:보다

3.1.2 이중모음

31035	여럿(多)	여러시
31035-0-1	-이/가	여러뿐다
31035-0-2	-보다	여러슬
31035-0-3	-을/를	
31036	물결(波)	물꺼리
31036-0-1	-이/가	물결보다
31036-0-2	-보다	물꺼를
31036-0-3	-을/를	
31037	예:의(禮儀)	에이가
31037-0-1	-이/가	에이보다
31037-0-2	-보다	에이를
31037-0-3	-을/를	
31038	계:획(計劃)	게हे기
31038-0-1	-이/가	게획뿐다
31038-0-2	-보다	게회글
31038-0-3	-을/를	기치기라고
31039	규칙(規則)	기치기
31039-0-1	-이/가	기칙뿐다
31039-0-2	-보다	기치글
31039-0-3	-을/를	시이리라
31040	휴일(休日)	시이리
31040-0-1	-이/가	시일보다
31040-0-2	-보다	시이를
31040-0-3	-을/를	
31041	교통(交通)	교통이
31041-0-1	-이/가	교통보다
31041-0-2	-보다	교통을
31041-0-3	-을/를	
31042	효:자(孝子)	효:자
31042-0-1	-이/가	효:자가
31042-0-2	-보다	효:자보다
31042-0-3	-을/를	효:자를
31043	웬일(何事)	웬:니리나

31043-0-1	-이/가	
31043-0-2	-보다	
31043-0-3	-을/를	
31044	궤:(좌)(櫃)	계:가
31044-0-1	-이/가	계:가
31044-0-2	-보다	계:보다
31044-0-3	-을/를	계:를
31045	왜란(倭亂)	애놈
31045-0-1	-이/가	애놈드리
31045-0-2	-보다	애놈보다
31045-0-3	-을/를	애노물
31046	헛대(鷄架)	해때
31046-0-1	-이/가	해때가
31046-0-2	-보다	해때보다
31046-0-3	-을/를	해때를
31047	원망(怨望)	원:망헌다
31047-0-1	-이/가	
31047-0-2	-보다	
31047-0-3	-을/를	
31048	권:투(拳鬪)	건:투
31048-0-1	-이/가	
31048-0-2	-보다	
31048-0-3	-을/를	
31049	의논(議論)	으:논헌다
31049-0-1	-이/가	
31049-0-2	-보다	
31049-0-3	-을/를	
31050	무늬(紋)	무노가
31050-0-1	-이/가	
31050-0-2	-보다	
31050-0-3	-을/를	
31051	왕(王)	왕
31051-0-1	-이/가	왕:이
31051-0-2	-보다	왕보다
31051-0-3	-을/를	왕을
31052	과자(菓子)	가자
31052-0-1	-이/가	가자가
31052-0-2	-보다	가자보다
31052-0-3	-을/를	가자를

3.1.3 장모음 · 성조

31053	일(一)	일
31053-0-1	-이/가	이리
31053-0-2	-보다	일보다
31054	일:(事)	이:리고
31054-0-1	-이/가	이:리
31054-0-2	-보다	일:보다

31055	매(鞭)	매
31055-0-1	-이/가	매가
31055-0-2	-보다	매보다
31056	매:(鷺)	매
31056-0-1	-이/가	매가
31056-0-2	-보다	매보다
31057	밤(夜)	밤
31057-0-1	-이/가	바미 와따
31057-0-2	-보다	밤보다
31058	밤:(栗)	밤:
31058-0-1	-이/가	바:미 만:타
31058-0-2	-보다	밤:보다
31059	눈(眼)	눈
31059-0-1	-이/가	누니 크다
31059-0-2	-보다	눈보다
31060	눈:(雪)	누니
31060-0-1	-이/가	누니 온다
31060-0-2	-보다	눈보다
31061	말(馬)	말
31061-0-1	-이/가	마리
31061-0-2	-보다	말보다
31062	말(斗)	말로
31062-0-1	-이/가	
31062-0-2	-보다	
31063	말:(言)	말:
31063	말:(言)	마:를 잘 한다
31063-0-1	-이/가	
31063-0-2	-보다	
31064	손(客)	손님
31064-0-1	-이/가	
31064-0-2	-보다	
31065	손(手)	소니고
31065-0-1	-이/가	
31065-0-2	-보다	
31066	손:(孫)	소:니고
31066	손:(孫)	손:도 귀허다
31066-0-1	-이/가	
31066-0-2	-보다	
31067	배(梨)	배
31067-0-1	-이/가	
31067-0-2	-보다	
31068	배:(倍)	배:가 올라따
31068-0-1	-이/가	
31068-0-2	-보다	
31069	벌(罰)	버를 바더따
31069-0-1	-이/가	
31069-0-2	-보다	
31070	벌:(蜂)	버:리 만:타
31070-0-1	-이/가	
31070-0-2	-보다	

31071	솔(松)	소리 만타
31071-0-1	-이/가	
31071-0-2	-보다	
31072	솔:(刷)	소:리 크다
31072-0-1	-이/가	
31072-0-2	-보다	
31073	줄(鉉)	줄
31073-0-1	-이/가	
31073-0-2	-보다	
31074	줄:(연장)	줄:
31074-0-1	-이/가	
31074-0-2	-보다	
31075	돌:(石)	돌:
31075	돌:(石)	도:크로
31075	돌:(石)	독:
31075-0-1	-이/가	
31075-0-2	-보다	
31076	담(牆)	담 친다
31076-0-1	-이/가	
31076-0-2	-보다	
31077	담:(膽)	다:미 절린다
31077-0-1	-이/가	
31077-0-2	-보다	
31078	들:(野)	드:레
31078-0-1	-이/가	
31078-0-2	-보다	
31079	달-(縣)	단다
31079-0-1	-고	달:고 이따
31079-0-2	-더라	
31080	달-(甘)	다라
31080	달-(甘)	달다
31080-0-1	-고	
31080-0-2	-더라	
31081	달:-(熱)	다라따
31081	달:-(熱)	다라
31081-0-1	-고	
31081-0-2	-더라	
31082	갈-(換)	간:다
31082-0-1	-고	
31082-0-2	-더라	
31083	갈-(磨)	갈:고 이따
31083-0-1	-고	
31083-0-2	-더라	
31084	갈:-(耕)	간:다
31084-0-1	-고	
31084-0-2	-더라	
31085	걷-(收)	건는다
31085	걷-(收)	거더라
31085-0-1	-고	
31085-0-2	-더라	

31086	걸:- (步)	거러간다
31086-0-1	-고	
31086-0-2	-더라	
31087	적:- (書)	정는다
31087-0-1	-고	
31087-0-2	-더라	
31088	적:- (小)	작:따
31088	적:- (小)	적:따
31088-0-1	-고	
31088-0-2	-더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 기초 항목

32001	막:- (防)[ㄱ]	
32001-0-1	-지	막찌
32001-0-2	-고	마꼬
32001-0-3	-더라	막뜨라
32001-0-4	-으니까	마궁깨
32001-0-5	-아/어(-왔/었다)	마가따
32002	흐르:- (流)[ㅡ]	
32002-0-1	-지	호리지
32002-0-2	-고	호리고
32002-0-3	-더라	호리드라
32002-0-4	-으니까	호렁깨
32002-0-5	-아/어(-왔/었다)	흘러따
32003	오:- (來)[ㅛ]	
32003-0-1	-지	오지
32003-0-2	-고	오고
32003-0-3	-더라	오드라
32003-0-4	-으니까	옹깨
32003-0-5	-아/어(-왔/었다)	와따
32004	듣:- (聞)[ㄷ 변]	
32004-0-1	-지	드찌
32004-0-2	-고	드꼬
32004-0-3	-더라	드뜨라
32004-0-4	-으니까	드룽깨
32004-0-5	-아/어(-왔/었다)	드러따
32005	많:- (多)[ㄴㅎ]	
32005-0-1	-지	만:치
32005-0-2	-고	망:코
32005-0-3	-더라	만:터라
32005-0-4	-으니까	마:능깨
32005-0-5	-아/어(-왔/었다)	마:나따

32006	말-(任)[ㅍ]	
32006-0-1	-지	마찌
32006-0-2	-고	마꼬
32006-0-3	-더라	마터라
32006-0-4	-으니까	마통깨
32006-0-5	-아/어(-왔/였다)	마타따
32007	알:-(知)[ㄹ]	
32007-0-1	-지	알:지
32007-0-2	-고	알:고
32007-0-3	-더라	알:드라
32007-0-4	-으니까	알:깨
32007-0-5	-아/어(-왔/였다)	아라따
32008	감:-(閉眼)[ㄱ]	
32008-0-1	-지	감:찌
32008-0-2	-고	감:꼬
32008-0-3	-더라	감:뜨라
32008-0-4	-으니까	가몽깨
32008-0-5	-아/어(-왔/였다)	가마따
32009	벗-(脫)[ㅍ]	
32009-0-1	-지	버찌
32009-0-2	-고	버꼬
32009-0-3	-더라	버뜨라
32009-0-4	-으니까	버승깨
32009-0-5	-아/어(-왔/였다)	버서따
32010	울:-(可)[ㄹ]	
32010-0-1	-지	울치
32010-0-2	-고	울코
32010-0-3	-더라	울트라
32010-0-4	-으니까	오릉깨
32010-0-5	-아/어(-왔/였다)	오라따
32011	입-(着衣)[ㅍ]	
32011-0-1	-지	입찌
32011-0-2	-고	입꼬
32011-0-3	-더라	입뜨라
32011-0-4	-으니까	이붕깨
32011-0-5	-아/어(-왔/였다)	이버따
32012	바꾸-(換)[ㅍ]	
32012-0-1	-지	바꾸지
32012-0-2	-고	바꾸고
32012-0-3	-더라	바꾸더라
32012-0-4	-으니까	바꿨깨
32012-0-5	-아/어(-왔/였다)	바까따
32013	덮-(覆)[ㅍ]	
32013-0-1	-지	덮찌
32013-0-2	-고	덮꼬
32013-0-3	-더라	덮떠라
32013-0-4	-으니까	더풍깨
32013-0-5	-아/어(-왔/였다)	더퍼따
32014	묻:-(問)[ㅁ]	
32014-0-1	-지	무:찌

32014-0-2	-고	무:꼬
32014-0-3	-더라	무:떠라
32014-0-4	-으니까	무릉개
32014-0-5	-아/어(-왔/였다)	무려따
32015	낮:- (癡)[스 변]	
32015-0-1	-지	나:찌
32015-0-2	-고	나:꼬
32015-0-3	-더라	나:뜨라
32015-0-4	-으니까	나승개
32015-0-5	-아/어(-왔/였다)	나사따
32016	닫:- (閉)[ㄷ]	
32016-0-1	-지	다찌
32016-0-2	-고	다꼬
32016-0-3	-더라	다뜨라
32016-0-4	-으니까	다등개
32016-0-5	-아/어(-왔/였다)	다다따
32017	쫓:- (追)[츠]	
32017-0-1	-지	쫓찌
32017-0-2	-고	쫓꼬
32017-0-3	-더라	쫓뜨라
32017-0-4	-으니까	쫓칭개
32017-0-5	-아/어(-왔/였다)	쫓차따
32018	베:- (枕)[베]	
32018-0-1	-지	베:지
32018-0-2	-고	베:고
32018-0-3	-더라	베:드라
32018-0-4	-으니까	벵:개
32018-0-5	-아/어(-왔/였다)	베:따
32019	깨:- (破)[페]	
32019-0-1	-지	깨지
32019-0-2	-고	깨고
32019-0-3	-더라	깨드라
32019-0-4	-으니까	깡:개
32019-0-5	-아/어(-왔/였다)	깨:따
32020	펴:- (伸)[키]	
32020-0-1	-지	페지
32020-0-2	-고	페고
32020-0-3	-더라	페드라
32020-0-4	-으니까	펑:개
32020-0-5	-아/어(-왔/였다)	페:따
32021	밝:- (明)[리]	
32021-0-1	-지	복찌
32021-0-2	-고	보 꼬
32021-0-3	-더라	복뜨라
32021-0-4	-으니까	볼궁개
32021-0-5	-아/어(-왔/였다)	볼가서
32022	삶:- (烹)[림]	
32022-0-1	-지	쌈:찌
32022-0-2	-고	쌈:꼬
32022-0-3	-더라	쌈:뜨라

32022-0-4	-으니까	쌀:뭉개
32022-0-5	-아/어(-왔/었다)	쌀마따
32022-0-5	-아/어(-왔/었다)	쌀마서
32023	음-(吟)[ㄸ]	
32023-0-1	-지	읍찌
32023-0-2	-고	읍꼬
32023-0-3	-더라	읍뜨라
32023-0-4	-으니까	을풍개
32023-0-5	-아/어(-왔/었다)	을퍼따
32024	밟:- (踏)[ㄸ]	
32024-0-1	-지	븍찌
32024-0-2	-고	보:꼬
32024-0-3	-더라	븍:뜨라
32024-0-4	-으니까	불붕개
32024-0-5	-아/어(-왔/었다)	불바따
32025	하-(爲)[ㅏ 변]	
32025-0-1	-지	허지
32025-0-2	-고	허고
32025-0-3	-더라	허드라
32025-0-4	-으니까	형개
32025-0-5	-아/어(-왔/었다)	해:따
32026	맺-(結)[ㅏ]	
32026-0-1	-지	매찌
32026-0-2	-고	매꼬
32026-0-3	-더라	매뜨라
32026-0-4	-으니까	매증개
32026-0-5	-아/어(-왔/었다)	매저따
32027	없:- (無)[ㅏ]	
32027-0-1	-지	업:찌
32027-0-1	-지	업:찌
32027-0-2	-고	업:꼬
32027-0-2	-고	업:꼬
32027-0-3	-더라	업:뜨라
32027-0-4	-으니까	업:승개
32027-0-4	-으니까	업:싱개
32027-0-5	-아/어(-왔/었다)	업:씨따
32027-0-5	-아/어(-왔/었다)	업:씨따
32028	앉-(坐)[ㅏ]	
32028-0-1	-지	안찌
32028-0-2	-고	양꼬
32028-0-3	-더라	안뜨라
32028-0-4	-으니까	안징개
32028-0-5	-아/어(-왔/었다)	안자따
32029	비비-(刮)[ㅣ]	
32029-0-1	-지	비비지
32029-0-2	-고	비비고
32029-0-3	-더라	비비드라
32029-0-4	-으니까	비빙개
32029-0-5	-아/어(-왔/었다)	비비따
32030	끄-(消)[ㅡ]	

32030-0-1	-지	끄지
32030-0-2	-고	끄고
32030-0-3	-더라	끄드라
32030-0-4	-으니까	꿈깨
32030-0-5	-아/어(-왔/였다)	꺼따
32031	꺾-(折)[ㄱ]	
32031-0-1	-지	끈:치
32031-0-2	-고	꿈:코
32031-0-3	-더라	끈트라
32031-0-4	-으니까	끄능깨
32031-0-5	-아/어(-왔/였다)	끄너따
32032	신:-(履)[ㄴ]	
32032-0-1	-지	신:찌
32032-0-2	-고	싱:꼬
32032-0-3	-더라	신:떠라
32032-0-4	-으니까	시능깨
32032-0-5	-아/어(-왔/였다)	시너따
32033	보-(視)[ㄷ]	
32033-0-1	-지	보지
32033-0-2	-고	보고
32033-0-3	-더라	보더라
32033-0-4	-으니까	봉깨
32033-0-5	-아/어(-왔/였다)	바:따
32034	추-(舞)[ㅈ]	
32034-0-1	-지	치지
32034-0-2	-고	치고
32034-0-3	-더라	치더라
32034-0-4	-으니까	창깨
32034-0-5	-아/어(-왔/였다)	쳐따
32035	피우-(吸煙)[ㅍ]	
32035-0-1	-지	피:지
32035-0-2	-고	피:고
32035-0-3	-더라	피:드라
32035-0-4	-으니까	핑:깨
32035-0-5	-아/어(-왔/였다)	피:따
32036	서-(立)[ㅅ]	
32036-0-1	-지	서지
32036-0-2	-고	서고
32036-0-3	-더라	서더라
32036-0-4	-으니까	성깨
32036-0-5	-아/어(-왔/였다)	서따
32037	가-(匍腹)[ㄱ]	
32037-0-1	-지	게:지
32037-0-2	-고	게:고
32037-0-3	-더라	게:드라
32037-0-4	-으니까	갱:깨
32037-0-5	-아/어(-왔/였다)	게:따
32038	이-(戴)[ㅇ]	
32038-0-1	-지	이지
32038-0-2	-고	이고

32038-0-3	-더라	이더라
32038-0-4	-으니까	잉깨
32038-0-5	-아/어(-왔/었다)	여따
32039	아니-(否)[ㅣ]	
32039-0-1	-지	아니지
32039-0-2	-고	아니고
32039-0-3	-더라	아니더라
32039-0-4	-으니까	아닝깨
32039-0-5	-아/어(-왔/었다)	아니여따
32040	되-(升)[니]	
32040-0-1	-지	데:지
32040-0-2	-고	데:고
32040-0-3	-더라	데:더라
32040-0-4	-으니까	덴:깨
32040-0-5	-아/어(-왔/었다)	데:따
32041	있-(有)[쓰]	
32041-0-1	-지	이찌
32041-0-2	-고	이꼬
32041-0-3	-더라	이떠라
32041-0-4	-으니까	이췌깨
32041-0-5	-아/어(-왔/었다)	이췌따
32042	놓-(放)[ㅎ]	
32042-0-1	-지	노치
32042-0-2	-고	노코
32042-0-3	-더라	노터라
32042-0-4	-으니까	농:깨
32042-0-5	-아/어(-왔/었다)	나:따
32043	훔-(拔)[ㅼ]	
32043-0-1	-지	홀찌
32043-0-2	-고	홀꼬
32043-0-3	-더라	홀터라
32043-0-4	-으니까	홀튼깨
32043-0-5	-아/어(-왔/었다)	홀터따
32044	곱:-(-麗)[ㅂ변]	
32044-0-1	-지	곱:찌
32044-0-2	-고	고:꼬
32044-0-3	-더라	곱떠라
32044-0-4	-으니까	고붕깨
32044-0-5	-아/어(-왔/었다)	고바따
32045	쥐:-(-握)[기]	
32045-0-1	-지	지:지
32045-0-2	-고	지:고
32045-0-3	-더라	지:더라
32045-0-4	-으니까	지:깨
32045-0-5	-아/어(-왔/었다)	지:따
32046	가-(去)[ㅏ]	
32046-0-1	-지	가지
32046-0-2	-고	가고
32046-0-3	-더라	가더라
32046-0-4	-으니까	강깨

32046-0-5

-아/어(-왔/었다)

가따

2) 일반 항목

32047	먹-(食)	
32047-0-1	{-지,-고,-더라}	무꼬
320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따
32048	뜯-(摘)	
32048-0-1	{-지,-고,-더라}	뜨꼬
320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따
32049	같-(如)	
32049-0-1	{-지,-고,-더라}	가꼬
320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타따
32050	얕-(淺)	
32050-0-1	{-지,-고,-더라}	얕:꼬
320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파따
32051	흩-(散)	
32051-0-1	{-지,-고,-더라}	허치고
32051-0-1	{-지,-고,-더라}	허치드라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치따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쳐따
32052	날:-(飛)	
32052-0-1	{-지,-고,-더라}	날:고
320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따
32053	울:-(泣)	
32053-0-1	{-지,-고,-더라}	울:고
320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따
32054	일:-(淘)	
32054-0-1	{-지,-고,-더라}	일:고
320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32055	얼:-(凍)	
32055-0-1	{-지,-고,-더라}	얼:고
320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따
32056	넘:-(越)	
32056-0-1	{-지,-고,-더라}	녕:꼬
320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따
32057	숨:-(隱)	
32057-0-1	{-지,-고,-더라}	숨:꼬
320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따
32058	쉽:-(易)	
32058-0-1	{-지,-고,-더라}	쉽:꼬
320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워따
32059	눅:-(臥)	
32059-0-1	{-지,-고,-더라}	누꼬
320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워따
32060	깎:-(縫)	
32060-0-1	{-지,-고,-더라}	끼매드라
32060-0-1	{-지,-고,-더라}	줍:꼬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끼매따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우매:따
32061	밉:- (憎)	
32061-0-1	{-지, -고, -더라}	밉꼬
3206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버따
32062	높:- (高)	
32062-0-1	{-지, -고, -더라}	노푸고
3206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파따
32063	짓:- (作)	
32063-0-1	{-지, -고, -더라}	지:꼬
3206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따
32064	붓:- (腫)	
32064-0-1	{-지, -고, -더라}	부꼬
3206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서따
32065	웃:- (笑)	
32065-0-1	{-지, -고, -더라}	이:꼬
3206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서따
32066	짓:- (吠)	
32066-0-1	{-지, -고, -더라}	지:꼬
3206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서따
32067	꽃:- (插)	
32067-0-1	{-지, -고, -더라}	뽑꼬
3206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꼬바따
32068	낱:- (産)	
32068-0-1	{-지, -고, -더라}	나코
3206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아따
32069	땡:- (辯)	
32069-0-1	{-지, -고, -더라}	따코
3206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아따
32070	끊:- (切)	
32070-0-1	{-지, -고, -더라}	꿈코
3207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너따
32071	괜찮:- (無妨)	
32071-0-1	{-지, -고, -더라}	괜창코
3207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괜차나따
32072	읽:- (讀)	
32072-0-1	{-지, -고, -더라}	익뜨라
32072-0-1	{-지, -고, -더라}	일코
3207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일거따
32073	땡:- (澁)	
32073-0-1	{-지, -고, -더라}	땡:뜨라
3207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땡:버따
32074	옮:- (遷)	
32074-0-1	{-지, -고, -더라}	오리드라
3207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라따
32075	뚫:- (貫)	
32075-0-1	{-지, -고, -더라}	뚫:뜨라
3207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뚫:버따
32076	꿇:- (跪)	
32076-0-1	{-지, -고, -더라}	꾸:꼬

32076-0-1	{-지,-고,-더라}	꿈:뜨라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러따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러서
32077	닿-(抗, 연필 심이~)	
32077-0-1	{-지,-고,-더라}	달뜨라
320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따
32078	닿:-(煎, 소चे서 장이~)	
32078-0-1	{-지,-고,-더라}	달:드라
32078-0-1	{-지,-고,-더라}	달:트라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따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서
32079	짜-(鹽)	
32079-0-1	{-지,-고,-더라}	잡뜨라
320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바서
32080	말-(捲)	
32080-0-1	{-지,-고,-더라}	몰드라
320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라따
32081	쓰-(書)	
32081-0-1	{-지,-고,-더라}	씨드라
320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따
32082	오르-(登)	
32082-0-1	{-지,-고,-더라}	오리드라
320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따
32083	바쁘-(忙)	
32083-0-1	{-지,-고,-더라}	바뿌드라
320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서
32084	고프-(餓)	
32084-0-1	{-지,-고,-더라}	고푸드라
320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따
32085	쏘-(射)	
32085-0-1	{-지,-고,-더라}	싸드라
320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086	꾸-(夢)	
32086-0-1	{-지,-고,-더라}	꾸드라
320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따
32087	머무르-(留)	
32087-0-1	{-지,-고,-더라}	*
320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88	다듬-(整)	
32088-0-1	{-지,-고,-더라}	따듬뜨라
320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드머따
32089	견디-(忍)	
32089-0-1	{-지,-고,-더라}	전디드라
320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디따
32090	마르-(裁)	
32090-0-1	{-지,-고,-더라}	*
320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1	끼-(烟, 안개가~)	
32091-0-1	{-지,-고,-더라}	찌드라
320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이따

32092	마시-(飮)	
32092-0-1	{-지,-고,-더라}	마시드라
320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시따
32093	세:-(強)	
32093-0-1	{-지,-고,-더라}	세:드라
320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따
32094	포개-(重疊)	
32094-0-1	{-지,-고,-더라}	포게드라
320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게따
32095	두드리-(敲)	
32095-0-1	{-지,-고,-더라}	뚜드리드라
320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드리따
32096	켜-(點燈)	
32096-0-1	{-지,-고,-더라}	썬드라
320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썬:따
32097	썰:-(바람을)	
32097-0-1	{-지,-고,-더라}	썰드라
320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따
32098	쇠-(老)	
32098-0-1	{-지,-고,-더라}	세:드라
320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서
32099	쉬:-(飮, 밥이~)	
32099-0-1	{-지,-고,-더라}	시:드라
320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이따
32100	희-(白)	
32100-0-1	{-지,-고,-더라}	히드라
321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따
32101	볶-(炒)	
32101-0-1	{-지,-고,-더라}	보꾸드라
321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따
32102	안:-(抱)	
32102-0-1	{-지,-고,-더라}	보듬뜨라
321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두마따
32103	묻-(埋)	
32103-0-1	{-지,-고,-더라}	무뜨라
321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따
32104	불:-(吹)	
32104-0-1	{-지,-고,-더라}	불드라
321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따
32105	빨-(洗濯)	
32105-0-1	{-지,-고,-더라}	빨드라
321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라따
32106	죽-(死)	
32106-0-1	{-지,-고,-더라}	주거따
321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죽뜨라
32107	걸:-(步)	
32107-0-1	{-지,-고,-더라}	거:뜨라
321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리따
32108	가물-(旱)	
32108-0-1	{-지,-고,-더라}	가물드라

321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려따
32109	졸:- (睡)	
32109-0-1	{-지, -고, -더라}	자우리드라
321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올라따
32110	쓸:- (掃)	
32110-0-1	{-지, -고, -더라}	썰더라
321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러따
32111	감:- (捲)	
32111-0-1	{-지, -고, -더라}	감:뜨라
321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마따
32112	더듬:- (摸)	
32112-0-1	{-지, -고, -더라}	더듬뜨라
321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마따
32113	끓:- (炙)	
32113-0-1	{-지, -고, -더라}	끓:떠라
321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우따
32114	무겁:- (重)	
32114-0-1	{-지, -고, -더라}	무겁뜨라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버서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버따
32115	잇:- (連)	
32115-0-1	{-지, -고, -더라}	이:떠라
321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서따
32116	빗:- (梳)	
32116-0-1	{-지, -고, -더라}	비뜨라
321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따
32117	까맣:- (黑)	
32117-0-1	{-지, -고, -더라}	검:뜨라
321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머서
32118	넣:- (入)	
32118-0-1	{-지, -고, -더라}	여트라
321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따
32119	고:- (煮)	
32119-0-1	{-지, -고, -더라}	끓:뜨라
321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와따
32120	엎:- (載)	
32120-0-1	{-지, -고, -더라}	언떠라
321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따
32121	귀찮:- (囑)	
32121-0-1	{-지, -고, -더라}	기찬트라
321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찬해
32122	바르:- (剔, 생선 뼈를~)	
32122-0-1	{-지, -고, -더라}	복뜨라
321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가따
32123	맑:- (淸)	
32123-0-1	{-지, -고, -더라}	목뜨라
321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가따
32124	끓:- (膿)	
32124-0-1	{-지, -고, -더라}	끓:뜨라
321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끓마따

32125	굵:- (太)	
32125-0-1	{-지, -고, -더라}	굵:뜨라
321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굵:거따
32126	얇:- (薄)	
32126-0-1	{-지, -고, -더라}	얇:뜨라
321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얇:바따
32127	쫘-(春, 곡식을 절구에다~)	
32127-0-1	{-지, -고, -더라}	쫘터라
321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쫘러따
32128	잃:- (失)	
32128-0-1	{-지, -고, -더라}	일트라
321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32129	훅:- (舐)	
32129-0-1	{-지, -고, -더라}	훅트라
321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훅타따
32130	짧:- (短)	
32130-0-1	{-지, -고, -더라}	짜리드라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짧라따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짧바서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짧라서
32131	놀라-(驚)	
32131-0-1	{-지, -고, -더라}	놀:레드라
321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레따
32132	자-(宿)	
32132-0-1	{-지, -고, -더라}	자드라
321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따
32133	못:하-(不爲)	
32133-0-1	{-지, -고, -더라}	몬:허드라
321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해따
32134	모르-(不知)	
32134-0-1	{-지, -고, -더라}	모리드라
321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따
32135	아프-(痛)	
32135-0-1	{-지, -고, -더라}	아푸더라
321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따
32136	크-(大)	
32136-0-1	{-지, -고, -더라}	크드라
321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따
32137	꼬-(索, 새끼를 ~)	
32137-0-1	{-지, -고, -더라}	까드라
321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따
32138	쭈-(造)	
32138-0-1	{-지, -고, -더라}	쭈드라
321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따
32139	맞추-(組合)	
32139-0-1	{-지, -고, -더라}	마추더라
321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차따
32140	데우-(悟)	
32140-0-1	{-지, -고, -더라}	데:드라
321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따

32141	이:-(盖, 지붕을 ~)	
32141-0-1	{-지,-고,-더라}	이:더라
321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따
32142	갈기-(打)	
32142-0-1	{-지,-고,-더라}	갈:기드라
321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기따
32143	기다리-(待)	
32143-0-1	{-지,-고,-더라}	지다리더라
321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다리따
32144	세:-(算)	
32144-0-1	{-지,-고,-더라}	세:더라
321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따
32145	빼-(拔)	
32145-0-1	{-지,-고,-더라}	빼:더라
321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따
32146	켜-(引, 톱으로 ~)	
32146-0-1	{-지,-고,-더라}	써리더라
321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리따
32147	되:-(硬)	
32147-0-1	{-지,-고,-더라}	데:드라
321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서
32148	쉬:-(休)	
32148-0-1	{-지,-고,-더라}	시:드라
321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따
32149	할퀴-(搔)	
32149-0-1	{-지,-고,-더라}	극뜨라
321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글거따
32150	눈:-(爇)	
32150-0-1	{-지,-고,-더라}	누:떠라
321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러따
32151	깨닫-(覺)	
32151-0-1	{-지,-고,-더라}	깨달꼬
321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라따
32152	마렵-(오줌이 ~)	
32152-0-1	{-지,-고,-더라}	매랏뜨라
321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라와서
32153	부끄럽-(恥)	
32153-0-1	{-지,-고,-더라}	부끄롭뜨라
321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라바따
32154	가깝-(近)	
32154-0-1	{-지,-고,-더라}	개직뜨라
321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지가서
32155	깊-(深)	
32155-0-1	{-지,-고,-더라}	지푸드라
321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서
32156	긏:-(劃)	
32156-0-1	{-지,-고,-더라}	끄:떠라
321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으따
32157	씻-(洗)	
32157-0-1	{-지,-고,-더라}	씻떠라

321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쳐따
32158	쥬-(搗)	
32158-0-1	{-지,-고,-더라}	쥬트라
321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쥬이따
32159	꺠-(擻)	
32159-0-1	{-지,-고,-더라}	꺠뜨라
321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꺠가따
32160	꺡:- (飢)	
32160-0-1	{-지,-고,-더라}	꺡:뜨라
321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꺡머따
32161	꺢:- (似)	
32161-0-1	{-지,-고,-더라}	꺢:뜨라
321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꺢마따
32162	꺣-(厭)	
32162-0-1	{-지,-고,-더라}	꺣트라
321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꺣러따
32163	꺤-(鰾, 달갈이 ~)	
32163-0-1	{-지,-고,-더라}	꺤:뜨라
321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꺤마따
32164	꺦:- (注)	
32164-0-1	{-지,-고,-더라}	꺦떠라
321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꺦우따
32165	타-(乘)	
32165-0-1	{-지,-고,-더라}	타드라
321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따
32166	마르-(乾)	
32166-0-1	{-지,-고,-더라}	모르더라
321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따
32167	쓰-(苦)	
32167-0-1	{-지,-고,-더라}	씨버서
321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뜨라
32168	슬프-(哀)	
32168-0-1	{-지,-고,-더라}	설:버서
321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뜨라
32169	기쁘-(喜)	
32169-0-1	{-지,-고,-더라}	기뿌드라
321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빠따
32170	쏘-(蜚, 벌이 ~)	
32170-0-1	{-지,-고,-더라}	싸드라
321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171	주-(與)	
32171-0-1	{-지,-고,-더라}	주드라
321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꺠:따
32172	키우-(育)	
32172-0-1	{-지,-고,-더라}	키우드라
321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워따
32173	가두-(囚)	
32173-0-1	{-지,-고,-더라}	가두드라
321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되따
32174	부수-(碎)	

32174-0-1	{-지,-고,-더라}	뿌식뜨라
321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수가따
32175	나누-(分)	
32175-0-1	{-지,-고,-더라}	나누드라
321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눠따
32176	속이-(欺)	
32176-0-1	{-지,-고,-더라}	도리드라
321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돌라따
32177	끼-(插)	
32177-0-1	{-지,-고,-더라}	찌드라
321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이따
32178	뛰-(跳)	
32178-0-1	{-지,-고,-더라}	티드라
321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티이따
32179	괴:-(滄)	
32179-0-1	{-지,-고,-더라}	고치드라
321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치따
32180	여위-(癯)	
32180-0-1	{-지,-고,-더라}	애비드라
321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비따
32181	맵-(辛)	
32181-0-1	{-지,-고,-더라}	맵뜨라
321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바서
32182	뀌:-(屍)	
32182-0-1	{-지,-고,-더라}	끼:드라
321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이따
32183	고치-(改)	
32183-0-1	{-지,-고,-더라}	곤치드라
321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치따
32184	실:-(載)	
32184-0-1	{-지,-고,-더라}	실:뜨라
321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32185	얻:-(得)	
32185-0-1	{-지,-고,-더라}	어떠라
321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따
32186	빳-(粉碎)	
32186-0-1	{-지,-고,-더라}	뽀식뜨라
321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뽀수가따
32187	파랗-(碧)	
32187-0-1	{-지,-고,-더라}	팔:허드라
321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팔:해따
32188	다르-(異)	
32188-0-1	{-지,-고,-더라}	틀리드라
321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틀리따
32189	푸-(汲)	
32189-0-1	{-지,-고,-더라}	푸드라
321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따
32190	누-(尿)	
32190-0-1	{-지,-고,-더라}	싸드라
321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191	더:럽-(汚)	
32191-0-1	{-지,-고,-더라}	더럽뜨라
321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버
32192	거두-(收)	
32192-0-1	{-지,-고,-더라}	거두드라
321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뒀따
32193	끓-(沸)	
32193-0-1	{-지,-고,-더라}	끓뜨라
321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따
32194	이기-(承)	
32194-0-1	{-지,-고,-더라}	이기드라
321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기따
32195	부시-(照)	
32195-0-1	{-지,-고,-더라}	보시드라
321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시따
32196	자빠지-(後)	
32196-0-1	{-지,-고,-더라}	자빠지드라
321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저따
32197	일으키-(使起)	
32197-0-1	{-지,-고,-더라}	이뤄씨드라
321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뤄씨따
32198	당기-(引)	
32198-0-1	{-지,-고,-더라}	당기드라
321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기따
32199	버리-(捨)	
32199-0-1	{-지,-고,-더라}	베리드라
321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리따
32200	훔치-(盜)	
32200-0-1	{-지,-고,-더라}	도리드라
322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돌라따
32201	지-(負)	
32201-0-1	{-지,-고,-더라}	지드라
322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
32202	외:-(暗誦)	
32202-0-1	{-지,-고,-더라}	여오드라
322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워따
32203	사귀-(交)	
32203-0-1	{-지,-고,-더라}	새기드라
322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기따
32204	썩-(腐)	
32204-0-1	{-지,-고,-더라}	썩뜨라
322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따
32205	질-(泥)	
32205-0-1	{-지,-고,-더라}	질드라
322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서
32206	까불-(箕)	
32206-0-1	{-지,-고,-더라}	까부리드라
322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불라따
32207	드물-(稀)	
32207-0-1	{-지,-고,-더라}	두무드라

322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무러따
32208	줄:- (縮)	
32208-0-1	{-지, -고, -더라}	줄:더라
322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따
32209	심:- (植)	
32209-0-1	{-지, -고, -더라}	승구드라
322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승귀따
32210	쓰다듬-(撫)	
32210-0-1	{-지, -고, -더라}	쓰다듬뜨라
322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드머따
32211	샤:납-(猛)	
32211-0-1	{-지, -고, -더라}	싸:납뜨라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나바따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나와서
32212	가볍-(輕)	
32212-0-1	{-지, -고, -더라}	개겁뜨라
322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거버
32213	젓:- (撈)	
32213-0-1	{-지, -고, -더라}	저:뜨라
322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따
32214	두껍-(厚)	
32214-0-1	{-지, -고, -더라}	두껍뜨라
322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버서
32215	무르-(軟)	
32215-0-1	{-지, -고, -더라}	무리드라
322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레서
32216	분지르-(折)	
32216-0-1	{-지, -고, -더라}	뿌지르드라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질라따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라따
32217	배우-(學)	
32217-0-1	{-지, -고, -더라}	배우드라
322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워따
32218	다리-(熨)	
32218-0-1	{-지, -고, -더라}	대루드라
322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라따
32219	후비-(窵, 귀를 ~)	
32219-0-1	{-지, -고, -더라}	파드라
322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따
32220	아리-(痛)	
32220-0-1	{-지, -고, -더라}	애리드라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리서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레따
32221	그리-(畵)	
32221-0-1	{-지, -고, -더라}	기리드라
322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리따
32222	저리-(癲)	
32222-0-1	{-지, -고, -더라}	제리드라
322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리따
32223	불리-(增)	

32223-0-1	{-지,-고,-더라}	부루더라
322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라따
32224	뜨시-(溫)	
32224-0-1	{-지,-고,-더라}	따시더라
322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시따
32225	끓이-(使沸)	
32225-0-1	{-지,-고,-더라}	끼리드라
322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리따
32226	누비-(縫)	
32226-0-1	{-지,-고,-더라}	뉘비드라
322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뉘비따
32227	구기-(皺)	
32227-0-1	{-지,-고,-더라}	꾸구쟁이드라
322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구쟁이따
32228	비:-(空)	
32228-0-1	{-지,-고,-더라}	비:고
322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이따
32229	식히-(使冷)	
32229-0-1	{-지,-고,-더라}	시쿠더라
322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카따
32230	매-(草)	
32230-0-1	{-지,-고,-더라}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드라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따
32231	매:-(結)	
32231-0-1	{-지,-고,-더라}	매:드라
322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따
32232	뛰-(走)	
32232-0-1	{-지,-고,-더라}	띠드라
322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띠이따
32233	담:-(盛)	
32233-0-1	{-지,-고,-더라}	담:뜨라
322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마따
32234	가렵-(癢)	
32234-0-1	{-지,-고,-더라}	근지랍뜨라
322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근지라바
32235	때리-(打)	
32235-0-1	{-지,-고,-더라}	때리드라
322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리따
32236	어둡-(暗)	
32236-0-1	{-지,-고,-더라}	어둡뜨라
322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드워서
322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드버따
32237	잡-(執)	
32237-0-1	{-지,-고,-더라}	잡떠라
322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따
32238	차-(蹴)	
32238-0-1	{-지,-고,-더라}	차드라
322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32239	모자라-(不足)	

32239-0-1	{-지,-고,-더라}	모지래드라
322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지래따
32240	부르-(呼)	
32240-0-1	{-지,-고,-더라}	부리더라
322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따
32241	따르-(注)	
32241-0-1	{-지,-고,-더라}	딸:드라
322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따
32242	쪼:- (啄)	
32242-0-1	{-지,-고,-더라}	쪼:뜨라
322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사따
32243	두-(置)	
32243-0-1	{-지,-고,-더라}	두고
32243-0-1	{-지,-고,-더라}	두더라
322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따
32244	시키(使)	
32244-0-1	{-지,-고,-더라}	시키드라
322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키따
32245	지리-(漏, 오줌을 ~)	
32245-0-1	{-지,-고,-더라}	제리드라
322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리따
32246	던지-(投)	
32246-0-1	{-지,-고,-더라}	편지드라
322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편지따
32247	모이-(集)	
32247-0-1	{-지,-고,-더라}	몬치드라
322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치따
32248	만지-(搯)	
32248-0-1	{-지,-고,-더라}	몬치드라
322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치따
32249	쨌:- (曬)	
32249-0-1	{-지,-고,-더라}	쨌:드라
322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쨌:따
32250	비틀-(捻)	
32250-0-1	{-지,-고,-더라}	비:트드라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치따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라따
32251	돕:- (助)	
32251-0-1	{-지,-고,-더라}	돕:뜨라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따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바따
32252	씹-(咀)	
32252-0-1	{-지,-고,-더라}	씹뜨라
322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씹버따
32253	미끄럽-(滑)	
32253-0-1	{-지,-고,-더라}	미끄럽뜨라
322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
32254	닿-(接)	
32254-0-1	{-지,-고,-더라}	다트라
322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아따

32255	누르-(壓)	
32255-0-1	{-지,-고,-더라}	누리드라
322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리따
32256	주무르-(揉)	
32256-0-1	{-지,-고,-더라}	주무리드라
322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무라따
32257	메우-(填)	
32257-0-1	{-지,-고,-더라}	메쿠드라
322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콰따
32258	고소하-(香味)	
32258-0-1	{-지,-고,-더라}	꼬시드라
322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시따
32259	내리-(降)	
32259-0-1	{-지,-고,-더라}	내리드라
322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리따
32260	구르-(轉)	
32260-0-1	{-지,-고,-더라}	궁그리드라
322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궁그라따
32261	만들-(作)	
32261-0-1	{-지,-고,-더라}	맨드리드라
322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맨드라따
32262	늙-(老)	
32262-0-1	{-지,-고,-더라}	늑떠라
322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늑거따
32263	앓-(病)	
32263-0-1	{-지,-고,-더라}	알터라
322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따
32264	따르-(隨)	
32264-0-1	{-지,-고,-더라}	딸터라
322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따
32265	사-(買)	
32265-0-1	{-지,-고,-더라}	사드라
322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따
32266	치우-(除)	
32266-0-1	{-지,-고,-더라}	치우더라
322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위따
32267	부러지-(被折)	
32267-0-1	{-지,-고,-더라}	뿔라지드라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뿔라저따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질러저따
32268	다치-(傷)	
32268-0-1	{-지,-고,-더라}	다치드라
322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치따
32269	느리-(緩)	
32269-0-1	{-지,-고,-더라}	느리드라
322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리따
32270	무치-(和, 나물을 ~)	
32270-0-1	{-지,-고,-더라}	무치드라
322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치따
32271	죄:-(締)	

32271-0-1	{-지,-고,-더라}	지:더라
32271-0-1	{-지,-고,-더라}	조주드라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따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자따
32272	팔-(賣)	
32272-0-1	{-지,-고,-더라}	폴더라
3227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포라따
32273	뽑-(選)	
32273-0-1	{-지,-고,-더라}	뽑뜨라
3227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뽑바따
32274	뒤지-(索)	
32274-0-1	{-지,-고,-더라}	디비드라
32274-0-1	{-지,-고,-더라}	디이드라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디비따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디이따
32275	마치(終)	
32275-0-1	{-지,-고,-더라}	마치드라
3227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치따
32276	절이-(鹽)	
32276-0-1	{-지,-고,-더라}	제리드라
3227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제리따
32277	휘-(曲)	
32277-0-1	{-지,-고,-더라}	후:드라
3227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후우따
32278	줍:-(拾)	
32278-0-1	{-지,-고,-더라}	줍:뜨라
3227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우따
32279	빼앗-(奪)	
32279-0-1	{-지,-고,-더라}	빼:뜨라
3227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빼사따
32280	기울-(傾)	
32280-0-1	{-지,-고,-더라}	찌우드라
3228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위따
32281	아깝-(惜)	
32281-0-1	{-지,-고,-더라}	아깝뜨라
3228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까바서
32282	반갑-(歡)	
32282-0-1	{-지,-고,-더라}	방갑뜨라
3228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방가바서
32283	찌-(蒸)	
32283-0-1	{-지,-고,-더라}	찌드라
3228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따
32284	노랑-(黃)	
32284-0-1	{-지,-고,-더라}	놀:허드라
32284-0-1	{-지,-고,-더라}	노리드라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리따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놀:해따
32285	푸르-(靑)	
32285-0-1	{-지,-고,-더라}	푸리드라
3228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푸리따

32286	서두르-(忙)	
32286-0-1	{-지,-고,-더라}	서:두리드라
322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드러따
32287	서투르-(不熟)	
32287-0-1	{-지,-고,-더라}	서:틀드라
322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트러따
32288	게으르-(怠)	
32288-0-1	{-지,-고,-더라}	게우르드라
322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우러서
32289	따뜻하-(溫)	
32289-0-1	{-지,-고,-더라}	따시더라
322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시따
32290	춡-(寒)	
32290-0-1	{-지,-고,-더라}	춡뜨라
322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워서
32291	뜨겁-(極熱)	
32291-0-1	{-지,-고,-더라}	뜨겁뜨라
322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거버서
32292	미지근하-(微溫)	
32292-0-1	{-지,-고,-더라}	맹저근허드라
322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맹저근해서
32293	차갑-(寒)	
32293-0-1	{-지,-고,-더라}	참뜨라
322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바서
32294	부럽-(羨)	
32294-0-1	{-지,-고,-더라}	불뜨라
322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버따
32295	얄밋-(憎)	
32295-0-1	{-지,-고,-더라}	밋뜨라
322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버서
32296	비슷하-(類似)	
32296-0-1	{-지,-고,-더라}	비슬허드라
322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슬해:서
32297	새롭-(新)	
32297-0-1	{-지,-고,-더라}	*
322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8	서:럽-(悲痛)	
32298-0-1	{-지,-고,-더라}	섭:뜨라
322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버서
32299	까다롭-(難)	
32299-0-1	{-지,-고,-더라}	까:도롭뜨라
322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드라바서
32300	외롭-(孤)	
32300-0-1	{-지,-고,-더라}	에롭뜨라
323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로바
32301	아쉽-(不滿)	
32301-0-1	{-지,-고,-더라}	아숴뜨라
323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수바서
32302	단단하-(固)	
32302-0-1	{-지,-고,-더라}	단단허드라

323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해서
32303	늦-(晚)	
32303-0-1	{-지, -고, -더라}	느뜨라
323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서
32304	남:-(餘)	
32304-0-1	{-지, -고, -더라}	남:뜨라
323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마따
32305	남기-(使餘)	
32305-0-1	{-지, -고, -더라}	남구드라
323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남가따
32306	넘어뜨리-(使倒)	
32306-0-1	{-지, -고, -더라}	자빨티리드라
323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빨티리따
32307	쭈그리뜨리-(使凹)	
32307-0-1	{-지, -고, -더라}	쭈구리드라
323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구라따
32308	견주-(比)	
32308-0-1	{-지, -고, -더라}	비허드라
323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해:따
32309	외우-(誦)	
32309-0-1	{-지, -고, -더라}	외:드라
323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따
32310	문지르-(摩)	
32310-0-1	{-지, -고, -더라}	문지리드라
323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지라따
32311	가리키-(指)	
32311-0-1	{-지, -고, -더라}	겔추드라
323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겔차따
32312	가르치-(敎)	
32312-0-1	{-지, -고, -더라}	겔추드라
323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겔차따
32313	겨누-(照準)	
32313-0-1	{-지, -고, -더라}	전주드라
323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자따
32314	겨루-(競)	
32314-0-1	{-지, -고, -더라}	전주드라
323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자따
32315	달래-(慰撫)	
32315-0-1	{-지, -고, -더라}	달개드라
323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개따
32316	본받-(效)	
32316-0-1	{-지, -고, -더라}	뽐보드라
323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뽐바따
32317	어지르-(散)	
32317-0-1	{-지, -고, -더라}	어지리드라
323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라따
32318	달리-(走)	
32318-0-1	{-지, -고, -더라}	달리드라
323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리따
32319	우기-(拗)	

32319-0-1	{-지,-고,-더라}	췌우드라
323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워따
32320	중얼거리-(獨言)	
32320-0-1	{-지,-고,-더라}	구시렁기리드라
323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시렁기리따
32321	지껄이-(騷)	
32321-0-1	{-지,-고,-더라}	지저구드라
323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저귀:따
32322	다니-(行)	
32322-0-1	{-지,-고,-더라}	댕기드라
323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댕기따
32323	떨어뜨리-(使落)	
32323-0-1	{-지,-고,-더라}	내루드라
323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라따
32324	깨-(覺)	
32324-0-1	{-지,-고,-더라}	깨:따
323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드라
32325	시-(酸)	
32325-0-1	{-지,-고,-더라}	시드라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따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서
32326	솟-(湧)	
32326-0-1	{-지,-고,-더라}	소뜨라
323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따
32327	좋:-(好)	
32327-0-1	{-지,-고,-더라}	조:트라
323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따
32328	빨강-(赤)	
32328-0-1	{-지,-고,-더라}	빨글허드라
323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글해:따
32329	끌:-(曳, 땅에 질질 ~)	
32329-0-1	{-지,-고,-더라}	끄:뜨라
323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으따
32330	넓-(廣)	
32330-0-1	{-지,-고,-더라}	너리드라
323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넌레따
32331	하얗-(白)	
32331-0-1	{-지,-고,-더라}	흑:허드라
323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흑:해따

3.2.2 곡용

32332	국(羹)	
32332-0-1	-이/가	구기
32332-0-2	-을/를	구글
32332-0-3	-에(서)	구게
32332-0-4	-으로	구그로
32332-0-5	-도	국또

32333	논(沓)	
32333-0-1	-이/가	노니
32333-0-2	-을/를	노를
32333-0-3	-에(서)	노네
32333-0-4	-으로	노느로
32333-0-5	-도	논도
32334	쌀(米)	
32334-0-1	-이/가	싸리
32334-0-2	-을/를	싸를
32334-0-3	-에(서)	싸레
32334-0-4	-으로	쌀로
32334-0-5	-도	쌀도
32335	봄(春)	
32335-0-1	-이/가	보미
32335-0-2	-을/를	보를
32335-0-3	-에(서)	보메
32335-0-4	-으로	보므로
32335-0-5	-도	봄도
32336	집(家)	
32336-0-1	-이/가	지비
32336-0-2	-을/를	지블
32336-0-3	-에(서)	지베
32336-0-4	-으로	지브로
32336-0-5	-도	집또
32337	옷(衣)	
32337-0-1	-이/가	오시
32337-0-2	-을/를	오슬
32337-0-3	-에(서)	오세
32337-0-4	-으로	오스로
32337-0-5	-도	오토
32338	방(房)	
32338-0-1	-이/가	방이
32338-0-2	-을/를	방을
32338-0-3	-에(서)	방에
32338-0-4	-으로	방으로
32338-0-5	-도	방도
32339	낫(晝)	
32339-0-1	-이/가	나지
32339-0-2	-을/를	나를
32339-0-3	-에(서)	나제
32339-0-4	-으로	나즈로
32339-0-5	-도	나또
32340	낯(顔)	
32340-0-1	-이/가	나치
32340-0-2	-을/를	나를
32340-0-3	-에(서)	나체
32340-0-4	-으로	나츠로
32340-0-5	-도	나또
32341	부엌(廚)	
32341-0-1	-이/가	정지가

32341-0-1	-이/가	부서기
32341-0-2	-을/를	부서글
32341-0-2	-을/를	정지를
32341-0-3	-에(서)	정지에
32341-0-3	-에(서)	부서게
32341-0-4	-으로	부서그로
32341-0-4	-으로	정지로
32341-0-5	-도	부석또
32341-0-5	-도	정지도
32342	밭(田)	
32342-0-1	-이/가	마치
32342-0-2	-을/를	마출
32342-0-3	-에(서)	마테
32342-0-4	-으로	마트로
32342-0-5	-도	마또
32343	앞(前)	
32343-0-1	-이/가	아피
32343-0-2	-을/를	아플
32343-0-3	-에(서)	아페
32343-0-4	-으로	아푸로
32343-0-5	-도	압또
32344	넋(魂)	
32344-0-1	-이/가	넋씨
32344-0-2	-을/를	넋쓸
32344-0-3	-에(서)	넋세
32344-0-4	-으로	넋쓰로
32344-0-5	-도	넋또
32345	흙(土)	
32345-0-1	-이/가	호키
32345-0-2	-을/를	호클
32345-0-3	-에(서)	호케
32345-0-4	-으로	호크로
32345-0-5	-도	흑또
32346	여덟(八)	
32346-0-1	-이/가	야다리
32346-0-2	-을/를	야다를
32346-0-3	-에(서)	야다레
32346-0-4	-으로	야달로
32346-0-5	-도	야달도
32347	돌(週歲)	
32347-0-1	-이/가	돌씨가
32347-0-2	-을/를	돌씨를
32347-0-3	-에(서)	돌씨예
32347-0-4	-으로	돌씨로
32347-0-5	-도	돌씨도
32348	값(價)	
32348-0-1	-이/가	갑씨
32348-0-2	-을/를	갑쓸
32348-0-3	-에(서)	갑세
32348-0-4	-으로	갑쓰로

32348-0-5	-도	갑또
32349	속:(內)	
32349-0-1	-이/가	소:기
32349-0-2	-을/를	소:글
32349-0-3	-에(서)	소:게
32349-0-4	-으로	소:그로
32349-0-5	-도	속:또
32350	돈:(錢)	
32350-0-1	-이/가	도:니
32350-0-2	-을/를	도:늘
32350-0-3	-에(서)	도:네
32350-0-4	-으로	도:느로
32350-0-5	-도	돈:도
32351	발(足)	
32351-0-1	-이/가	바리
32351-0-2	-을/를	바를
32351-0-3	-에(서)	바레
32351-0-4	-으로	발로
32351-0-5	-도	발도
32352	짐(物)	
32352-0-1	-이/가	지미
32352-0-2	-을/를	지물
32352-0-3	-에(서)	지메
32352-0-4	-으로	지무로
32352-0-5	-도	짐도
32353	입(口)	
32353-0-1	-이/가	이비
32353-0-2	-을/를	이블
32353-0-3	-에(서)	이베
32353-0-4	-으로	이부로
32353-0-5	-도	입또
32354	낫(鎌)	
32354-0-1	-이/가	나치
32354-0-2	-을/를	나출
32354-0-3	-에(서)	나체
32354-0-4	-으로	나츠로
32354-0-5	-도	나또
32355	강(江)	
32355-0-1	-이/가	강이
32355-0-2	-을/를	강을
32355-0-3	-에(서)	강에
32355-0-4	-으로	강으로
32355-0-5	-도	강도
32356	젖(乳)	
32356-0-1	-이/가	저지
32356-0-2	-을/를	저출
32356-0-3	-에(서)	저제
32356-0-4	-으로	저즈로
32356-0-5	-도	저또
32357	꽃(花)	

32357-0-1	-이/가	꼬치
32357-0-2	-을/를	꼬출
32357-0-3	-에(서)	꼬체
32357-0-4	-으로	꼬츠로
32357-0-5	-도	꼬또
32358	팥(赤豆)	
32358-0-1	-이/가	포치
32358-0-2	-을/를	포출
32358-0-3	-에(서)	포테
32358-0-4	-으로	포트로
32358-0-5	-도	포또
32359	옆(側)	
32359-0-1	-이/가	여피
32359-0-2	-을/를	여플
32359-0-3	-에(서)	여페
32359-0-4	-으로	여푸로
32359-0-5	-도	엽또
32360	값(賃金)	
32360-0-1	-이/가	싸기
32360-0-2	-을/를	싸글
32360-0-3	-에(서)	싸게
32360-0-4	-으로	싸그로
32360-0-5	-도	씩또
32361	닭(鷄)	
32361-0-1	-이/가	다키
32361-0-2	-을/를	다클
32361-0-3	-에(서)	다케
32361-0-4	-으로	다크로
32361-0-5	-도	닥또
32362	밖(外)	
32362-0-1	-이/가	바까치
32362-0-2	-을/를	바까출
32362-0-3	-에(서)	바까테
32362-0-4	-으로	바까트로
32362-0-5	-도	바까또

제 4 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나:가
40101-0-2	나-의	나 건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40101-0-5	나-와	나하고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제 다녀와습니다
40102-0-1	저-가	제:가
40102-0-2	저-의	제 물려너지요
40102-0-3	저-을/를	제:를
40102-0-4	저-에게	제한테
40102-0-5	저-와/과	제하고
40102-0-6	저/-는	제는
40102-0-7	저/-도	제도
40103	우리	우리 아버지
40104	저희	제 아버지입니다
40105	너	네
40105-0-1	너-가	네:가
40105-0-2	너-의	네 물려니다
40105-0-3	너-을/를	네:를
40105-0-4	너-에게	네한테
40105-0-5	너-와/과	네하고
40105-0-6	너-는	네는
40105-0-7	너-도	네도
40106	자네	자네라고
40107	당신	자네가 (남편이 아내에게)
40107	당신	당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40108	너희	누구아버지
40108	너희	누가버지
40109	개	가:가
40109-1	애	야:라
40109-1	애	야:가
40109-2	재	자:라
40109-2	재	자:
40110	자기	자기말만
40111	당신	당신 방에서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시요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뉘: 도니여
40112-0-3	누구-를	누구 만나고
40112-0-4	누구-에게	뉘 주꺼이나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40112-0-5	누구-와	누구하고
40113	무엇-이나/입니까	머 뜨런니?
40113-0-1	무엇-이	머인니?
40113-0-2	무슨	먼:닐 허냐
40113-0-3	무엇-을	머:팔만니
40113-0-3	무엇-을	머더냐?
40113-0-4	무엇-과	멀:허고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 가냐?
40115	언제	언:제 완니?
40116	어느	어떤 지비
40116	어느	어느 지비
40117	왜	왜 우냐?
40118	얼마나	얼매나 걸리냐?
40119	어떻게	어떠케 사니?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거시고
40121	그것	그거시고
40122	저것	저거시고
40123	여기	여그 파라
40124	저기	거그를 파라
40125	저기	저그 파라
40126	이리	요:리 가라
40126	이리	이:리 오라
40127	그리	그리 가라
40128	저리	저:리 가라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무엇이)	갑씨 만:타
40202	-이/가(무엇이)	코가 크다
40203	-을/를(어디를)	기를
40204	-을/를(무엇을)	무를
40205	-에게/게(사람에게)	저사람한테
40206	-보고/더러(누구더러)	누구한테 그런 말을 써
40207	-보고/더러(누구보고)	누구보고 그래
40208	-에(집에)	우리지비 간다
40209	-에(나중에)	다으메 또 만내
40210	-에서(큰집에서)	큰지비서
40211	-에서(서울에서)	서울씨
40212	-에서(여기에서)	여그서
40213	-으로(참쌀로)	참쌀가꼬
40213	-으로(참쌀로)	쌀로
40214	-으로(짚으로)	지푸로
40215	-으로(새끼로)	사나꾸로
40216	-으로(어디로)	어디로 가니
40217	-와/과(수박과 참외)	수:박허고 웨:허고
40218	-와/과(나와)	나랑 가
40218	-와/과(나와)	나허고 가치 가
40219	-보다(형보다)	행보덩 크다
40220	-처럼(돼지처럼)	대:지거치 크다
40221	-만큼(너만큼)	네만큼 크먼 조커다
40222	-만큼(먹을 만큼만)	무글 망큼만
40223	-아/야(복남아)	봉나마
40224	-아/야(복남이)	봉남씨
40224	-아/야(복남이)	어이 봉나미
40225	-아/야(영수야)	영수야
40226	-아/야(누님)	누님
40226-1	-아/야(누님!!예)	*
40227	-아/야(할아버지!)	하라씨
40227-1	-아/야(할아범요!)	*
40228	-이랑(술이랑 고기랑)	수리랑 피기랑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모요근 새로 무글 물도 업 따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모요근 새로가나 무글 물도 업따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마뉘는 새로 처넌도 업따

4.2.2 보조사

40230	-은/는(술은, 담배는)	수른 안 무꼬 댐:배는 편다
40231	-만(딸만)	딸만
40232	-도(기도, 얼굴도)	얼굴도
40233	-마다(날마다)	날마둥
40234	-부터(오늘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내일까지)	내일꺼정
40236	-조차(물조차)	무글 물조창 떠러지고
40236-1	-조차(비할라)	비아불라 오는디
40236-1	-조차(비할라)	비아불랑 오는디
40237	-이야/야(말이야)	도니야 만치만해도
40238	-을랑(소릴랑)	그런 소리는 허지마
40239	-이라도(부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40240	-밖에(너밖에)	네배끼 업따
40241	-가지고(싸가지고)	싸가 가따

4.2.3 문장 뒤 조사

40242	-고(간접인용조사)(오라고)	나를 오란다
40243	-요(높임)(알았어요)	알아써이다
40244	-요(높임)(했지요)	지비가 해찌다?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앉아라)	안자라
40302	-게(앉게)	앙게
40303	-으오(앉으시오)	안즈이다
40303	-으오(앉으시오)	안즈시오
40304	-으십시오(앉으십시오)	안즈십씨요
40305	-세요(앉으세요)	장모님 여 안즈십씨요

4.3.2 청유법

40306	-자(가자)	가자
40307	-세(가세)	가세
40308	-으오(가오)	갑씨다
40309	-십시오(가십시오)	가십씨다
40310	-세요(가세요)	가십씨다

4.3.3 의문법

40311	-니(오니)	비 오냐
40312	-나(오나)	비 오능가
40313	-오(오오)	비 오능가이다?(평교간)
40313	-오(오오)	비 오요
40314	-습니까(옵니까)	아부지 비 오능가요
40314	-습니까(옵니까)	비 옵니까
40315	-나요(오나요)	비 옵니까
40315	-나요(오나요)	비 오능가요
40316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니)	어디 가냐
40316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니)	어디 가니
40317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나)	어디 가능가
40318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시오)	어디 가요
40318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시오)	어디 가시요?(평교간)
40319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40320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세요)	어디 가십니까

4.3.4 서술법

40321	-는다(먹는다)	잘 뭉는다
40322	-네(먹네)	잘 뭉네
40323	-오(먹소)	잘 묵쏘이~
40324	-습니다(먹습니다)	영 잘 묵썹니다
40325	-네요(먹네요)	잘 묵썹니다
40326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다)	작:따
40327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네)	장:네
40328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소)	작:쏘
40329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십니다)	작:썹니다
40330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세요)	작:썹니다

4.3.5 반말

40331	-아(아파)	어디 아풍가
40331	-아(아파)	어디 아파

40331	-아(아파)	어디 아파니
40332	-지(거지)	가꺼이재

4.3.6 -이다

40333	-이다(생일이다)	네 생일이다
40334	-이니(생일이니)	넌 네 생어리냐?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생이리네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자네 생이리세
40336	-인가(생일인가)	자네 생이링가
40337	-이오(생일이오)	생이리요
40338	-이오(생일이오?)	생일 아니요?
40338	-이오(생일이오?)	행님 생이리요?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생이리지요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생이랍니다
40340	-입니까(생신이십니까)	생이리지요?
40341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어무니 생이리지요
40342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넌 어무니 생얼 아니요?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냐)	머:시냐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냐)	머:이니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머:인가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머:싱가
40345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오)	머:시요
40346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입니까)	머:심니까
40347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요)	머:심니까
40348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야)	머:싱가
40349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어요)	머:시요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많습니다)	만씀니다
40350	-습니다(많습니다)	만쑈
40351	-습디다(많습디다)	만:썩띠다
40352	-는구나/구나(먹는구나)	잘 뭉는다
40353	-는구먼/구먼(먹는구먼)	잘 무꾸만
40354	-일세(오랜만일세)	오랜마니세(주로 남자들이 사용)
40355	-으마(값으마)	가꾸마
40355	-으마(값으마)	가꾸께
40356	-음세(값음세)	가품세
40357	-올라(다칠라)	다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먹고서)	밤 무꼬 먼: 텔레비 트나
40402	-으면서(보면서)	텔레비 봄스렁 먼:허니?
40403	-어/-어서	추워서 모까따
40404	-으니/-으니까	방이 따싱깨
40405	-관데	먼: 이리 나서 이려요?
40405	-관데	*
40406	-다가	지비 오다가
40407	-거든	만내거든
40408	-더라도	쓰드래도
40409	-으려고	갈라 무글라고
40410	-도록	죽뚜룩
40410	-도록	밤 새:두룩
40411	-을수록	이글쭈룩
40412	-듯이	물 씨데끼
40413	-지	연속궁만 보재

4.5 주체 존대

40501	-셔(오셔)	이리 오이다
40502	-셨소(하셨소)	짐장 다 해쏘?
40502	-셨소(하셨소)	지비 어매 지비 이쑈?

4.6 시제

40601	-는/ㄴ-(웃는다)	잘 인:는다
40602	-는/ㄴ-(기어간다)	잘 겐:다
40603	-는/ㄴ-(크다)	누니 크다
40604	-는/ㄴ-(생일이다)	넬: 나 생이리다
40605	-고 있-(오고 있다)	오고 이따
40606	-았/었-(먹었니/잡수셨습니까)	무거쑈
40606	-았/었-(먹었니/잡수셨습니까)	무건냐
40606	-았/었-(먹었니/잡수셨습니까)	정:심 어쨌쑈?
40607	-았었(왔었다)	가쑈따
40608	-더-(먹더라)	묵떠라
40609	-더-(먹더냐)	묵떠냐
40610	관형형(만나는)	만내는
40611	관형형(만난)	만낸 칭구라
40612	관형형(만났던)	만내뎌
40613	관형형(만날)	만넬
40614	관형형(큰)	큰 애기
40615	관형형(크던)	커튼 애기

40615	관형형(크던)	잘 크든 애기가
40616	관형형(켰던)	커튼 애기라
40617	-겠-(않겠다)	술 아무글란다
40618	-겠-(오겠다)	비 오거따
40618	-겠-(오겠다)	비 오껴꺼따

4.7 부정

40701	부정(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무거따
40702	부정(안 좋다/좋지 않다)	안 조아
40703	부정(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안 깨끗해
40704	부정(장가 안 갔다/안 장가갔다/장가가지 않았)	장:개 안 간냐
40705	부정(안 만나 보았다/만나 보지 않았/만 나 안 보았다)	암 만나바써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암 무꼬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묵또 안허고
40706-1	부정(먹도 않고)	묵또 안허고
40707	부정(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몸:무거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나 마리 마찌?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나 마리 암 마쏘?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리따
40802	늘리다	늘룬다
40803	말리다1	물룬다
40804	말리다2	말긴다
40805	얼리다	어룬다
40806	녹이다	노킨다
40807	신기다	싱킨다
40808	보이다	베긴다
40809	알리다	알룬다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1	얹히다	안친다
40812	벗기다	베긴다
40813	웃기다	이킨다
40814	썩히다	썩룬다
40815	숨기다	싱킨다
40816	끓기다	깡긴다
40817	깨우다	깨운다

40817	깨우다	깨분다
40818	돋우다	도둔다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피따
40820	깨이다	깨끼따
40821	끼이다	짚기따
40822	떼이다	떼이따
40823	채이다	채이따
40824	닫히다	다치따
40825	들리다	디깁다
40826	엮히다	에피따
40827	바뀌다	배끼따
40828	씹히다	씨피따
40829	엮히다	언치따
40830	찍히다	찌키따
40831	놀리다	놀리따
40832	실리다	실린다
40833	꿇기다	꿇키따
40834	꺾히다	꺾키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싶은)	무꼬 잡따
40901	싶다(싶은)	무꼬 자바서
40902	싶다(싶더니)	비가 오꺼잉가 시푸다
40903	보다(보세요)	이버바
40903	보다(보세요)	이버 보이다
40904	버리다(버렸네)	다 무거 부린네
40904	버리다(버렸네)	다 무거 부리따
40905	대다(댄다)	우러 썬는다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올랑갑따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오꺼꺼따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오거따
40907	-나/는가 보다(자나 보다)	자능갑따
40908	-나/는가 보다(추운가 보다)	추웅갑따

4.10 부사

41001	실컷	실큰
-------	----	----

41002	많이	합썬
41002	많이	마:니
41003	너무	너무
41004	조금	째까만 무거도
41005	자주	자주
41006	빨리	일찍허니
41007	얼른	얼롱
41008	기어코	기여니
41009	가끔	가:끔
41010	먼저	몬자 가
41010	먼저	아페 가
41011	나중에	난:중
41012	가득	까득
41013	몽땅	씩
41013	몽땅	다
41014	모조리	씩
41015	혼자	나 혼자
41016	항상	항상
41017	똑똑히	똑또기
41018	겨우	보도시
41019	늘	늘:
41019	늘	항상
41020	저절로	저절로
41021	자꾸	자꼬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까딱해쓰면
41024	함께	함께
41025	결핍하면	꺼뜩허면
41026	공연히	무다니
41027	그냥	그냥
41028	매우	검나게
41029	곧장	피:너니
41030	벌써	불:써
41031	가장	젤:로
41032	가만히	가마니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이따:문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관용구(여보)	주가부지
41101	관용구(여보)	주구매
41102	관용구(여보세요)	아저씨
41102	관용구(여보세요)	아지매
41103	관용구(들어가세요)	끄느이다
41103	관용구(들어가세요)	드러가이다

41104	관용구(수고하세요)	게세요
41105	관용구(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오랜마니다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어디 가세요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진지잡싸쏘?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뵐:라요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돈 바드이다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예쑈
41109	관용구(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예
41110	관용구(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아니요
41111	관용구(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라토 안쑈
41112	관용구(내버려 뒀)	나:똥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개나 고둥이나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쇠나 개나

4.11.2 속담

41114	속담(밀 빠진 독에 물 붓기)	깨진 도가지에 물 부끼다
41114	속담(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도가지에 물 부끼다
41114	속담(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성공무더미다
41115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둑기 쇠 도둑 뎡다
41116	속담(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안 땐 기:똥게 연기 나능가?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
| ◆ 위 원 | 곽충구(서강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충남대학교) |

